연구보고 2022-27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2 (한국아동패널 II)

김지현·도남희·배윤진·김혜진·강규돈·장현진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2-27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2 (한국아동패널 Ⅱ)

저 자 김지현, 도남희, 배윤진, 김혜진, 강규돈, 장현진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김 지 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도 남 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배 윤 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혜 진**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자 **강 규 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공동연구자 **장 현 진** (육아정책연구소 前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2-27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2 (한국아동패널 II)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44-2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Ⅱ)」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생아 대상 종단연구입니다. 한국아동의 신생아부터 성인기까지 발달변화와 함께 아동, 가족, 기관(학교), 정책, 지역사회 등 아동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8년 출생한 패널아동들이 출생년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올해 중학교 2학년을 맞아 15년차 조사가 마무리 되었고, 한국아동패널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패널가구와 패널아동들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패널아동은 2022년 올해 중학교 2학년에 진학하였고, 만19세가 되는 해까지 모든 패널아동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년째 지속해서 조사에 참여해주고 있는 패널아동과 패널가족 덕분에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2020, 2021년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도 한국아동패널은 대부분의 조사를 대면조사로 이루어내었고, 코로나19 시기의 아동들과 주변 환경의 변화도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완화로 3년만에 온라인 송출없는 전면 대면으로 1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19 시기와 함께 초등학교 6학년을 보낸 아동패널의 초등기까지 모두 담긴 13차 데이터를 포함하여 올해 1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에서 활용되었고, 이에 아동발달, 가족, 교육 등 관련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로 진학하여 더욱 바빠진 일상에서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1,400여 패널아동과 가족, 한국아동패널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애써주시는 전국 조사원분들, 그리고 아동패널 데이터 유지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구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2022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목차

요약 — 1

Ⅰ. 서론 — 11

1. 연구목적과 필요성 ··· 13
2. 연구내용 ··· 14
3. 연구방법 ··· 20

Ⅱ.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 23

1. 아동패널 자료의 활용 현황 ··· 25
2. 제1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 30
3. 사용자 편의를 위한 변수정리 작업 ··· 35
4. 가중치 산출 ··· 49

Ⅲ. 15차년도(2022년) 조사 — 55

1. 15차년도 조사내용 ··· 57
2. 15차년도 조사준비 ··· 69
3. 15차년도 실사진행 ··· 72

Ⅳ. 14차년도(2021년) 조사결과 분석 — 81

1. 14차년도 조사개요 ··· 83
2. 아동 특성 ··· 85
3. 부모 및 가구 특성 ··· 174
4. 학교 및 사교육 특성 ··· 215
5.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 241

Ⅴ. 한국아동패널 조사 정리 및 시사점 269
1. 한국아동패널 1-14차 추이 분석 271
2. 2021년(14차년도) 조사 주요 특성 282
3. 정책적 시사점 289
4. 실사 진행 관련 시사점 293

참고문헌 299

Abstract 302

부록 305
부록 1. 15차년도(2022) IRB 승인통지서 305
부록 2. 14차년도(2021년 조사) 질문지 306

표 목차

〈표 Ⅰ-2-1〉 한국아동패널 연도별 실시 계획 ····· 16
〈표 Ⅰ-3-1〉 15차 조사전반 및 설문확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 21
〈표 Ⅰ-3-2〉 2022년 한국아동패널 조사 ····· 21
〈표 Ⅱ-1-1〉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수 ····· 26
〈표 Ⅱ-1-2〉 연도별 분석방식에 따른 논문 수: 2011-2022년 ····· 26
〈표 Ⅱ-1-3〉 연도별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차수: 2011-2022년 ····· 27
〈표 Ⅱ-1-4〉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변수: 2021년 발간 논문 기준 ····· 28
〈표 Ⅱ-1-5〉 한국아동패널 언론보도 현황 ····· 29
〈표 Ⅱ-2-1〉 제1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추진 주요 일정 ····· 30
〈표 Ⅱ-2-2〉 제1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일정 ····· 32
〈표 Ⅱ-2-3〉 제1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목록 ····· 33
〈표 Ⅱ-3-1〉 1-13차 설문지 종류 ····· 36
〈표 Ⅱ-3-2〉 아동 특성 조사변인 ····· 36
〈표 Ⅱ-3-3〉 부모 특성 조사변인 ····· 40
〈표 Ⅱ-3-4〉 가구 특성 조사변인 ····· 43
〈표 Ⅱ-3-5〉 보육/교육/학교서비스 특성 조사변인 ····· 45
〈표 Ⅱ-3-6〉 지역사회 특성 조사변인 ····· 48
〈표 Ⅱ-3-7〉 정책 특성 조사변인 ····· 48
〈표 Ⅱ-4-1〉 연도별 한국아동패널조사 참여 분포 ····· 51
〈표 Ⅱ-4-2〉 14차년도 횡·종단면 자료 무응답 로지스틱 모형 분석 결과 ····· 52
〈표 Ⅱ-4-3〉 14차년도 최종 횡·종단면 가중치 부여 결과 ····· 53
〈표 Ⅲ-1-1〉 15차년도 설문지별 조사내용, 조사방법, 응답자 ····· 57
〈표 Ⅲ-1-2〉 14,15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일상생활 영역 ····· 59
〈표 Ⅲ-1-3〉 14,15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신체 및 건강 특성 영역 ····· 60
〈표 Ⅲ-1-4〉 14,15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인지 및 언어 발달 영역 ····· 61
〈표 Ⅲ-1-5〉 14,15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사회 및 정서 발달 영역 ····· 62
〈표 Ⅲ-1-6〉 14,15차년도 부모 특성 조사변인 ····· 64
〈표 Ⅲ-1-7〉 14,15차년도 가구 특성 조사변인 ····· 65
〈표 Ⅲ-1-8〉 14,15차년도 학교 및 사교육 특성 조사변인 ····· 67
〈표 Ⅲ-1-9〉 14,15차년도 지역 정책 특성 조사변인 ····· 68

〈표 Ⅲ-2- 1〉 15차년도 조사원 집체교육 일정 ····· 71
〈표 Ⅲ-2- 2〉 15차년도 조사원 집체교육 세부계획 ····· 72
〈표 Ⅲ-3- 1〉 2022년 15차년도 조사를 위한 패널가구 연락 일정 및 과정 ····· 73
〈표 Ⅲ-3- 2〉 한국아동패널 2008~2022년 보호자 응답(아동 응답) ····· 77
〈표 Ⅲ-3- 3〉 15차년도 지역별 조사원 간담회 일정 ····· 78
〈표 Ⅲ-3- 4〉 15차년도 지역별 조사원 간담회 논의내용 ····· 79
〈표 Ⅳ-1- 1〉 한국아동패널 14차년도 조사 참여가구 수(보호자 응답기준) ····· 83
〈표 Ⅳ-1- 2〉 14차년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84
〈표 Ⅳ-2- 1〉 14차년도 아동 특성 변인 ····· 85
〈표 Ⅳ-2- 2〉 아동의 식생활 진단: 섭취 권장 항목 ····· 87
〈표 Ⅳ-2- 3〉 아동의 식생활 진단: 과잉섭취 자제 권장 항목 ····· 88
〈표 Ⅳ-2- 4〉 아동의 식생활 진단: 균형 잡힌 식생활 ····· 89
〈표 Ⅳ-2- 5〉 아동의 탄산음료 섭취 빈도 ····· 89
〈표 Ⅳ-2- 6〉 아동의 인스턴트식(라면, 피자, 치킨, 편의점 음식 등) 섭취 빈도 ··· 90
〈표 Ⅳ-2- 7〉 아동의 기상 및 취침시각 ····· 91
〈표 Ⅳ-2- 8〉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아동의 수면시간 ····· 92
〈표 Ⅳ-2- 9〉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공·사교육 기관 이용 ····· 93
〈표 Ⅳ-2-10〉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책읽기 ····· 94
〈표 Ⅳ-2-11〉 아동의 독서량(주당) 빈도표 ····· 95
〈표 Ⅳ-2-12〉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숙제 및 학습, 학교수업 외 비대면교육 ····· 96
〈표 Ⅳ-2-13〉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영상 시청 및 게임 이용 ····· 97
〈표 Ⅳ-2-14〉 아동의 휴대폰 소지, 스마트폰, PC(인터넷)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 ·· 98
〈표 Ⅳ-2-15〉 아동의 스마트폰, PC(인터넷) 이용시간 ····· 100
〈표 Ⅳ-2-16〉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부모응답) ····· 101
〈표 Ⅳ-2-17〉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아동응답) ····· 102
〈표 Ⅳ-2-18〉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스포츠, 집 밖 레저 활동 및 취미 생활 ····· 103
〈표 Ⅳ-2-19〉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사교활동 대면 및 비대면 교제 ····· 104
〈표 Ⅳ-2-20〉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종교 활동, 애완(반려)동물 돌보기 ····· 105
〈표 Ⅳ-2-21〉 아동의 한 번에 30분 이상 실내외에서 신체활동 일수(지난 7일간) ·· 106
〈표 Ⅳ-2-22〉 취미 유무 및 주로 하는 취미의 종류: 1순위 ····· 107
〈표 Ⅳ-2-23〉 주로 하는 취미의 종류: 1+2순위 ····· 108
〈표 Ⅳ-2-24〉 아동의 취미 유무(악기, 운동) ····· 108
〈표 Ⅳ-2-25〉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기본생활 및 가사일 돕기 ····· 109

〈표 Ⅳ-2-26〉 아동의 가사참여 정도 ····· 110
〈표 Ⅳ-2-27〉 아동의 활동별 참여빈도: 장보기 및 쇼핑, 친인척 방문 ····· 111
〈표 Ⅳ-2-28〉 아동의 활동별 참여빈도: 당일여행 및 나들이, 국내여행, 해외연수 ·· 112
〈표 Ⅳ-2-29〉 아동의 활동별 참여빈도: 문화체험 및 예술감상, 견학, 종교활동 ·· 113
〈표 Ⅳ-2-30〉 아동의 활동별 참여빈도: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 114
〈표 Ⅳ-2-31〉 아동의 시간사용 만족도: 가족과의 시간 ····· 115
〈표 Ⅳ-2-32〉 아동의 시간사용 만족도: 친구, 휴식, 여가활동 시간 ····· 116
〈표 Ⅳ-2-33〉 아동의 시간사용 만족도: 숙제,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 ····· 116
〈표 Ⅳ-2-34〉 가족과의 식사 횟수(일주일 평균) ····· 117
〈표 Ⅳ-2-35〉 아동의 신체 치수(신장, 허리둘레, 체중, BMI) ····· 118
〈표 Ⅳ-2-36〉 아동의 특성별 신체 치수 ····· 119
〈표 Ⅳ-2-37〉 신체적 자아상 ····· 120
〈표 Ⅳ-2-38〉 아동이 인식한 아동의 체형 ····· 120
〈표 Ⅳ-2-39〉 체중조절 경험 ····· 121
〈표 Ⅳ-2-40〉 체중조절 방법(중복응답) ····· 122
〈표 Ⅳ-2-41〉 아동의 시력 보정 도구 착용 시기 ····· 123
〈표 Ⅳ-2-42〉 남학생의 2차 성징(몽정) 발현 여부 및 처음 나타난 시기 ····· 123
〈표 Ⅳ-2-43〉 여학생의 2차 성징(초경) 발현 여부 및 처음 나타난 시기 ····· 124
〈표 Ⅳ-2-44〉 보호자가 인식한 아동의 주관적 건강 상태 ····· 124
〈표 Ⅳ-2-45〉 아동의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 결과 ····· 125
〈표 Ⅳ-2-46〉 아동의 치료 및 입원 여부 ····· 126
〈표 Ⅳ-2-47〉 아동의 장애 여부 ····· 126
〈표 Ⅳ-2-48〉 아동의 만성 질환별 진단 및 치료 여부 ····· 127
〈표 Ⅳ-2-49〉 아동의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진단 및 상담·치료 여부 ····· 128
〈표 Ⅳ-2-50〉 비속어 사용 ····· 129
〈표 Ⅳ-2-51〉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 ····· 129
〈표 Ⅳ-2-52〉 아동의 학업이해도 ····· 130
〈표 Ⅳ-2-53〉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평균) ····· 130
〈표 Ⅳ-2-54〉 아동의 학업이해도(평균) ····· 131
〈표 Ⅳ-2-55〉 학업 스트레스 ····· 132
〈표 Ⅳ-2-56〉 아동의 과목선호도: 1순위 ····· 133
〈표 Ⅳ-2-57〉 아동의 과목선호도: 1+2순위 ····· 134
〈표 Ⅳ-2-58〉 자기조절학습 ····· 134

〈표 Ⅳ-2-59〉 아동의 학교적응(중고등학교) ····· 135
〈표 Ⅳ-2-60〉 아동의 학교적응(중고등학교): 학교공부 및 학교친구 ····· 136
〈표 Ⅳ-2-61〉 아동의 학교적응(중고등학교): 학교교사 및 학교생활 ····· 137
〈표 Ⅳ-2-62〉 폭력피해 경험 ····· 138
〈표 Ⅳ-2-63〉 폭력가해 경험 ····· 139
〈표 Ⅳ-2-64〉 증후군 척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 141
〈표 Ⅳ-2-65〉 문제행동 점수: 보호자 응답 ····· 142
〈표 Ⅳ-2-66〉 문제행동 점수: 교사 응답 ····· 143
〈표 Ⅳ-2-67〉 내재화 문제행동: 보호자 응답 ····· 144
〈표 Ⅳ-2-68〉 내재화 문제행동: 교사 응답 ····· 145
〈표 Ⅳ-2-69〉 외현화 문제행동: 보호자 응답 ····· 146
〈표 Ⅳ-2-70〉 외현화 문제행동: 교사 응답 ····· 147
〈표 Ⅳ-2-71〉 기타 문제행동: 보호자 응답 ····· 148
〈표 Ⅳ-2-72〉 기타 문제행동: 교사 응답 ····· 149
〈표 Ⅳ-2-73〉 DSM 척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 150
〈표 Ⅳ-2-74〉 DSM 진단척도 1: 보호자 응답 ····· 151
〈표 Ⅳ-2-75〉 DSM 진단척도 2: 보호자 응답 ····· 152
〈표 Ⅳ-2-76〉 DSM 진단척도 1: 교사 응답 ····· 152
〈표 Ⅳ-2-77〉 DSM 진단척도 2: 교사 응답 ····· 153
〈표 Ⅳ-2-78〉 특수척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 154
〈표 Ⅳ-2-79〉 문제행동 특수척도: 보호자 응답 ····· 155
〈표 Ⅳ-2-80〉 문제행동 특수척도: 교사 응답 ····· 155
〈표 Ⅳ-2-81〉 아동의 이성친구 유무 ····· 156
〈표 Ⅳ-2-82〉 아동의 또래애착 ····· 157
〈표 Ⅳ-2-83〉 아동의 자아존중감 ····· 158
〈표 Ⅳ-2-84〉 아동의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및 자아정체감 ····· 159
〈표 Ⅳ-2-85〉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 ····· 159
〈표 Ⅳ-2-86〉 아동의 자율성 ····· 160
〈표 Ⅳ-2-87〉 아동의 우울 ····· 161
〈표 Ⅳ-2-88〉 아동의 공감 ····· 162
〈표 Ⅳ-2-89〉 아동의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인식 1 ····· 163
〈표 Ⅳ-2-90〉 아동의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인식 2 ····· 164
〈표 Ⅳ-2-91〉 아동의 미래기대(장래희망) ····· 165

〈표 Ⅳ-2-92〉 아동의 진로성숙도 ····· 166
〈표 Ⅳ-2-93〉 아동의 결혼 의사/자녀양육 의사 ····· 167
〈표 Ⅳ-2-94〉 아동의 상대적 박탈지수(가정형편) ····· 168
〈표 Ⅳ-2-95〉 아동에 대한 용돈 지급 여부 및 지급 시 액수 ····· 170
〈표 Ⅳ-2-96〉 아동의 용돈 사용처 ····· 171
〈표 Ⅳ-2-97〉 아동의 저축 실태 ····· 172
〈표 Ⅳ-2-98〉 아동의 저축 방식 ····· 172
〈표 Ⅳ-2-99〉 아동의 안전 체감도 및 대처인식 ····· 174
〈표 Ⅳ-3- 1〉 14차년도 부모 및 가구 특성 변인 ····· 175
〈표 Ⅳ-3- 2〉 아동과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이유 ····· 176
〈표 Ⅳ-3- 3〉 부모의 결혼 상태 및 기간 ····· 177
〈표 Ⅳ-3- 4〉 부모의 결혼만족도 ····· 177
〈표 Ⅳ-3- 5〉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 178
〈표 Ⅳ-3- 6〉 부모의 우울 ····· 180
〈표 Ⅳ-3- 7〉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 180
〈표 Ⅳ-3- 8〉 부모의 삶의 만족도 ····· 182
〈표 Ⅳ-3- 9〉 모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 183
〈표 Ⅳ-3-10〉 모 일-양육 양립 시 이점과 갈등 ····· 184
〈표 Ⅳ-3-11〉 부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 185
〈표 Ⅳ-3-12〉 부 일-양육 양립 시 이점과 갈등 ····· 186
〈표 Ⅳ-3-13〉 부모의 행동유형 ····· 187
〈표 Ⅳ-3-14〉 부모의 주관적 건강 상태 ····· 188
〈표 Ⅳ-3-15〉 부모의 1·2급 장애 유무 ····· 189
〈표 Ⅳ-3-16〉 부모의 음주 실태 ····· 189
〈표 Ⅳ-3-17〉 부모의 흡연 실태 ····· 190
〈표 Ⅳ-3-18〉 부모 취/학업 상태 ····· 190
〈표 Ⅳ-3-19〉 모의 취/학업 상태(집단별 분석) ····· 190
〈표 Ⅳ-3-20〉 부모의 재직 상태 및 직장 변동 여부 ····· 191
〈표 Ⅳ-3-21〉 부모의 종사상 지위 ····· 192
〈표 Ⅳ-3-22〉 취업부모 근무일 및 시간 ····· 192
〈표 Ⅳ-3-23〉 취업부모 일자리 만족도 ····· 193
〈표 Ⅳ-3-24〉 부모의 성취압력 ····· 194
〈표 Ⅳ-3-25〉 부모애착: 어머니 ····· 196

〈표 Ⅳ-3-26〉 부모애착: 아버지 ····· 197
〈표 Ⅳ-3-27〉 합리적 설명 ····· 197
〈표 Ⅳ-3-28〉 아동학대(신체적 학대 경험) ····· 198
〈표 Ⅳ-3-29〉 아동학대(언어적 학대 경험) ····· 199
〈표 Ⅳ-3-30〉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경험) ····· 200
〈표 Ⅳ-3-31〉 아동학대(방임) ····· 201
〈표 Ⅳ-3-32〉 보호자가 알고 있는 아동의 친구 수 ····· 202
〈표 Ⅳ-3-33〉 부모 감독: 보호자 응답 ····· 203
〈표 Ⅳ-3-34〉 부모 감독: 아동 응답 ····· 204
〈표 Ⅳ-3-35〉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 205
〈표 Ⅳ-3-36〉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1) ····· 206
〈표 Ⅳ-3-37〉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2) ····· 207
〈표 Ⅳ-3-38〉 사회적 지원 정도 ····· 208
〈표 Ⅳ-3-39〉 모의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 209
〈표 Ⅳ-3-40〉 부의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 210
〈표 Ⅳ-3-41〉 가구 구성 및 가구원 수 ····· 211
〈표 Ⅳ-3-42〉 아동의 단독 방 여부 ····· 211
〈표 Ⅳ-3-43〉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어머니/아버지 근로소득 ····· 212
〈표 Ⅳ-3-44〉 월평균 지출 ····· 212
〈표 Ⅳ-3-45〉 가구 자산 및 부채 ····· 212
〈표 Ⅳ-3-46〉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213
〈표 Ⅳ-3-47〉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가족의 걱정 빈도 ····· 214
〈표 Ⅳ-4- 1〉 14차년도 학교·사교육 특성 조사변인 ····· 215
〈표 Ⅳ-4- 2〉 학교 진학 여부 ····· 216
〈표 Ⅳ-4- 3〉 전학 여부 ····· 216
〈표 Ⅳ-4- 4〉 학교유형 ····· 217
〈표 Ⅳ-4- 5〉 남녀공학 여부 ····· 218
〈표 Ⅳ-4- 6〉 시범학교 유형 ····· 218
〈표 Ⅳ-4- 7〉 전체 학급 수 및 해당 학급 학생 수 ····· 218
〈표 Ⅳ-4- 8〉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 ····· 219
〈표 Ⅳ-4- 9〉 교사 담당과목 ····· 220
〈표 Ⅳ-4-10〉 교사 성별 및 연령 ····· 220
〈표 Ⅳ-4-11〉 교사 경력 및 월평균 주중 근무시간 ····· 221

〈표 Ⅳ-4-12〉 교사 최종학력 ····· 221
〈표 Ⅳ-4-13〉 교사 업무 스트레스 ····· 222
〈표 Ⅳ-4-14〉 아동과 교사관계 ····· 223
〈표 Ⅳ-4-15〉 창의적 학교환경 ····· 224
〈표 Ⅳ-4-16〉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횟수: 부모 응답 ····· 225
〈표 Ⅳ-4-17〉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정도: 교사 응답 ····· 225
〈표 Ⅳ-4-18〉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 ····· 226
〈표 Ⅳ-4-19〉 진학 계획 ····· 226
〈표 Ⅳ-4-20〉 진학 유형 ····· 228
〈표 Ⅳ-4-21〉 학교 서비스 만족도(1) ····· 229
〈표 Ⅳ-4-22〉 학교 서비스 만족도(2) ····· 230
〈표 Ⅳ-4-23〉 학교 수업 이외 교육 및 사교육 여부 ····· 231
〈표 Ⅳ-4-24〉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중복응답) ····· 232
〈표 Ⅳ-4-25〉 학교 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 ····· 233
〈표 Ⅳ-4-26〉 학교 외 교육서비스 만족도 ····· 233
〈표 Ⅳ-4-27〉 학교 외 교육서비스 월 평균 이용비용 ····· 234
〈표 Ⅳ-4-28〉 학교 외 교육서비스 비용 부담 정도 ····· 234
〈표 Ⅳ-4-29〉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개수 ····· 235
〈표 Ⅳ-4-30〉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부담 정도 ····· 236
〈표 Ⅳ-4-31〉 아동이 인식한 교육서비스 효과 인식 ····· 237
〈표 Ⅳ-4-32〉 사교육 이용 이유: 1순위 ····· 238
〈표 Ⅳ-4-33〉 사교육 이용 이유: 1+2순위 ····· 240
〈표 Ⅳ-4-34〉 사교육 교재 월평균 비용 ····· 240
〈표 Ⅳ-5- 1〉 14차년도 지역 규모 및 정책 특성 조사변인 ····· 241
〈표 Ⅳ-5- 2〉 출생 후 총 이사 횟수 ····· 242
〈표 Ⅳ-5- 3〉 최근 이사 사유 ····· 243
〈표 Ⅳ-5- 4〉 지역 규모 ····· 243
〈표 Ⅳ-5- 5〉 6개 권역 구분 ····· 244
〈표 Ⅳ-5- 6〉 교육·의료·복지시설 편리성 ····· 245
〈표 Ⅳ-5- 7〉 여가 공간·시설 편리성 ····· 246
〈표 Ⅳ-5- 8〉 문화시설 편리성 ····· 247
〈표 Ⅳ-5- 9〉 교육·의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 248
〈표 Ⅳ-5-10〉 여가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 250

〈표 Ⅳ-5-11〉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 251
〈표 Ⅳ-5-12〉 양육환경 안전성 ····· 253
〈표 Ⅳ-5-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 255
〈표 Ⅳ-5-14〉 생활비 지원 여부 및 지원처(중복응답) ····· 256
〈표 Ⅳ-5-15〉 교육정책별 추진 동의 정도 ····· 257
〈표 Ⅳ-5-16〉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 257
〈표 Ⅳ-5-17〉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자유 학년제 운영 ····· 258
〈표 Ⅳ-5-18〉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 259
〈표 Ⅳ-5-19〉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고등학교 체제 단순화 ····· 260
〈표 Ⅳ-5-20〉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고교 학점제 ····· 260
〈표 Ⅳ-5-21〉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확대 ····· 261
〈표 Ⅳ-5-22〉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 262
〈표 Ⅳ-5-23〉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교육 급여 지원 확대 ····· 263
〈표 Ⅳ-5-24〉 코로나19 대응 정책 만족도 ····· 263
〈표 Ⅳ-5-25〉 코로나19 대응 수업운영 방식 ····· 264
〈표 Ⅳ-5-26〉 코로나19 대응 원격+등교수업 병행 시 등교 방식 ····· 264
〈표 Ⅳ-5-27〉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 진행 방식 ····· 265
〈표 Ⅳ-5-28〉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 만족도 ····· 266
〈표 Ⅳ-5-29〉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 인식 ····· 266
〈표 Ⅴ-1- 1〉 아동의 체중 ····· 271
〈표 Ⅴ-1- 2〉 아동의 신장 ····· 273
〈표 Ⅴ-1- 3〉 아동의 BMI ····· 274
〈표 Ⅴ-1- 4〉 부모의 취/학업 상태 ····· 275
〈표 Ⅴ-1- 5〉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 276
〈표 Ⅴ-1- 6〉 부모의 결혼만족도 ····· 277
〈표 Ⅴ-1- 7〉 부모의 부부갈등 ····· 279
〈표 Ⅴ-1- 8〉 사회적 지지 ····· 280
〈표 Ⅴ-1- 9〉 여가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 281

그림 목차

[그림 Ⅰ-2-1] 2022년도 한국아동패널 사업 구성 ····· 15
[그림 Ⅰ-3-1] 15차년도 조사 진행절차 ····· 22
[그림 Ⅱ-2-1] 제1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논문공모 및 개최 포스터 ····· 32
[그림 Ⅱ-2-2] 제1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모습 ····· 34
[그림 Ⅲ-3-1] 카카오톡 채널 레터링 이미지 ····· 74
[그림 Ⅲ-3-2] 카카오톡 채널 퀴즈 이미지 ····· 74
[그림 Ⅲ-3-3] 가정의 달 선물 ····· 75
[그림 Ⅲ-3-4] 한국아동패널 2008~2022년 조사 참여율 ····· 77
[그림 Ⅳ-2-1]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부모응답) vs.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아동응답) ·· 102
[그림 Ⅳ-2-2] 증후군 척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보호자 응답 ····· 141
[그림 Ⅳ-2-3] 증후군 척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교사 응답 ····· 142
[그림 Ⅳ-2-4] 내재화 문제행동 정도: 교사 응답 ····· 146
[그림 Ⅳ-2-5] 외현화 문제행동 정도: 교사 응답 ····· 147
[그림 Ⅳ-2-6] 기타 문제행동 정도: 교사 응답 ····· 149
[그림 Ⅴ-1-1] 아동의 체중 ····· 272
[그림 Ⅴ-1-2] 아동의 신장 ····· 273
[그림 Ⅴ-1-3] 아동의 BMI ····· 274
[그림 Ⅴ-1-4] 부모의 취업상태 ····· 275
[그림 Ⅴ-1-5]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 277
[그림 Ⅴ-1-6] 부모의 결혼만족도 ····· 278
[그림 Ⅴ-1-7] 부모의 부부갈등 ····· 279
[그림 Ⅴ-3-1]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293

요약

1. 서론

가. 연구목적과 필요성

□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Ⅱ)」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최초의 신생아 대상 장기종단 연구로서 2008년생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15년간 진행되고 있음.

□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Ⅱ)」는 매년 축적되는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공개하여 학술적, 정책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아동의 발달적 변화를 나타내는 상징적이고 귀중한 자료로 자리 잡았음.

- 아동의 특성 및 어머니, 아버지를 포함한 부모의 특성, 또한 보육·교육기관의 교사들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수집하여 아동을 둘러싼 다방면의 연구가 가능함.

□ 한국아동 성장발달 패널아동들은 2022년 만 14세가 되어, 대부분 중학교 2학년으로 진학하였음.

- 제15차 조사는 패널아동과 패널가족이 2027년 조사가 마무리될 시점까지 끝까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항내용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능한 한 문항을 축소하여, 패널가족들의 지속적인 조사참여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였음.

나. 연구내용

□ 첫째, 한국아동패널 제15차년도 조사를 실시함.

- 2022년 제15차년도 조사 시 패널아동들은 만14세가 되었고, 대부분 중학교 2학년으로 진학함.

□ 둘째, 2021년에 실시된 제14차년도(중등 1학년 시점) 조사데이터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함.

- 제14차년도 조사의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족 특성, 학교 및 정책 특성을 설명하고, 1-14차에 지속해서 조사된 아동 특성, 부모 특성 추이분석을 실시함.

□ 셋째, 2020년 조사된 제13차년도 데이터 공개를 위한 13차 데이터 변인지도 작업, 13차 사용자 지침서 작업을 진행함.

- 제13차 육아정책연구소 아동패널 학술대회를 진행하였고, 학술대회 참가자에 한하여, 제13년도 데이터를 미리 공개하여, 13차 조사 데이터가 활용된 연구가 진행되어 발표되었음.

□ 넷째, 사용자 편의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패널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패널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해 웹페이지 등에 인포그래픽 등을 추가 업로드함.

다. 연구방법

□ 현재 공개된 1차에서 11차까지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표된 논문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 활용현황을 분석하였음.

□ 중학교 2학년 설문 확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중학교 2학년 시기 학교설문 보완을 위하여 교사 대상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음.

2.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가. 아동패널 자료의 활용현황

□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 수를 파악한 결과 2010년-2021까지 발간된 학술논문 기준으로 총 710편의 논문이 출간되었고, 2021년에 118편(그 중 종단연구 50편)의 논문이 출간되었음.

-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행한 종단연구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부터 중학교 시기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어 더욱 다양한 종단연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임.
- 2021년에 발간된 학술 논문으로 활용 변수를 분석한 결과, 아동 특성의 경우 사회성발달, 인지·학습, 자아정서발달 변수의 활용이 높았고, 부모 특성의 경우 양육 특성, 심리적 특성을 활용한 논문이 많았음.

나. 13회 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 2022년 9월 23일(금) 제1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가 전면 대면으로 개최되었음.

- 1부에는 개회사, 축사, 학생논문 시상식과 기조강연(시간일지 자료로 본 한국아동의 하루)이 진행되었고, 2부 통계 워크숍(한국아동패널 데이터 가중치 적용방법)의 진행과 총 8세션의 논문발표가 진행되었음.

□ 2부 학술대회 논문발표는 부모 양육 행동, 미디어 사용, 학업 및 학교Ⅰ,Ⅱ, 학습지원 및 사교육, 양육 환경, 미디어 중독, 집행기능의 총 8세션으로 이루어졌고, 학생논문 4편을 포함하여 총 2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음.

다. 사용자 편의를 위한 문항정리 작업

□ 한국아동패널에서 2008년 1차년도부터 2020년 12차년도까지 수집된 데이터의 변수를 조사차수별로 정리하여 변수, 설문지, 도구프로파일을 연결시키는 변인지도를 완성하여 아동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고, 13차년도 자료는 2023년 1월 공개 예정임.

- 13차년도 초등 6학년 시기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8차년도~13차년도에 해당하는 초등시기 사용자 지침서 또한 같은 시기에 제공될 예정임.

3. 15차년도(2022년) 조사

가. 15차년도 조사내용

□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패널아동의 보호자, 아동,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담임교사 총 5종의 질문지를 통해 실시됨.

- 보호자 설문지와 아동 설문지는 TAPI(대면면접), 어머니, 아버지 설문지는 지필식 기입, 교사용 설문지는 온라인설문으로 진행됨.

□ 5종의 설문지를 통해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구 특성, 지역사회 특성, 정책 특성을 측정하였음.

- 아동 특성은 생활시간, 취미, 신체특성, 실내외 활동, 인지 발달, 학습스트레스, 자아 발달, 사회성 발달, 사회 관련 의식, 미래/진로 등을 조사함.

- 부모 특성은 아동응답을 통한 양육행동, 부모애착, 아동학대, 어머니, 아버지 응답을 통한 부부 특성,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직업 특성 등을 측정함.
- 가구 특성은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소득, 지출 등), 가정환경 특성 등을 포함하며, 15차년도 조사에서 불필요한 경제적 특성을 축소하였음.
- 학교 및 교사 특성에서는 학교 환경,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아동의 교사와의 관계 및 부모와의 관계, 학교의 물리적 특성, 학교 풍토 등을 포함하였음.

나. 15차년도 조사준비

□ 중학교 2학년 조사인 15차년도 조사문항은 중학교 1학년 시기인 14차년도 조사에서 대대적 변화가 있었기에, 대부분 이를 유지하였음.

- 14차년도 조사에서 수집한 아동 휴대폰 번호를 통해 조사시작을 알리고, 가정의 달을 맞아 모바일 상품권 선물 제공, 카카오채널을 이용한 퀴즈 등 대패널아동 활동을 확대함.

□ 조사 진행을 위해 IRB 승인을 받고, 조사원 선발 및 교육을 하였음.

다. 15차년도 실사진행

□ 7월 초 조사원 교육을 통해 15차년도 조사에서 유의할 점 및 문항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하여 조사원들이 동일한 가이드 아래 일관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함.

□ 2022년 15차년도 조사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가구는 1,304가구(아동 1,293명)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이는 2022년 조사 유효표본 1,521가구 대비 85.7%, 작년조사 수인 1,348명 대비는 96.7%의 유지율을 나타냄.

4. 14차년도(2021년) 조사결과 분석

가. 14차년도 조사개요

□ 14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패널수는 보호자 기준 1,334가구(아동 1,328명)임.

□ 가구 특성은 평균 가구원수 4.58명, 자녀수 2.22명, 월평균 소득 640.73만원, 월평균 가구지출 510.63만원임.

나. 아동 특성

□ 중학교 1학년 패널아동의 일상생활 특성을 살펴본 결과,

- 식생활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우유섭취량이 높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편이나, 지방 많은 단백질, 짠 음식, 탄산음료 섭취 및 인스턴트식 섭취 빈도도 더 높게 나타났음.
- 생활시간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 1학년 아동의 수면시간은 주중 7.81시간, 주말 9.11시간이었으며, 주중에는 남학생이 30분정도, 주말에 여학생이 30분 정도 더 많이 자는 경향을 보였음.
- 주당 독서량은 평균 1.98권으로 나타났고, 스마트폰 및 PC 이용시간은 평균 6.56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남녀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패널아동 전체의 73%가 취미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종류로는 운동/스포츠/댄스(37.71%), 음악 및 영화감상(17.05%), 노래/악기 연주(15.39%)의 순위로 나타났음.

□ 중학교 1학년 패널아동의 신체 및 건강 특성을 살펴본 결과,

- 평균 신장은 161.63cm(남학생 평균 164.15cm, 여학생 평균 158.99cm), 평균 체중은 55.15kg(남학생 평균 58.99kg, 여학생 평균 51.13kg)으로 나타났음.
- 신체에 만족하는 정도(외모, 체중, 신장 등)는 모든 영역에서 4점 척도에서 2.5-3점으로 나타나, 중간정도로 나타났으나,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외모에 만족하는 정도가 낮았음.
- 체중 감량 노력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패널아동의 31.75%로 나타났으며, 이 중 여학생은 39.60%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음. 체중조절 방법으로 남학생의 경우 운동, 여학생의 경우 식사량 감량 및 결식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중학교 1학년 패널아동의 학습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

- 학업 스트레스는 5점 척도 중 2.42점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학교성적 스트레스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미취업 모의 자녀가 취업 모의 자녀보다 학교성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학교 1학년 패널아동의 사회 및 정서 발달특성을 살펴본 결과,

- 학교적응은 3.62~4.10 사이로 나타나 높은 편으로 나타남.
- 폭력피해 경험은 없는 경우가 95% 이상으로, 온라인 경우보다는 오프라인 경우에 더 높은 폭력피해 경험을 보임. '험담, 심한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경험'은 15.61%로 높게 나타남.
- 문제행동 측정을 위해 교사와 부모가 각각 응답을 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부모가 교사보다 아동의 문제행동을 더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교사의 경우 남학생의 문제행동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울 점수는 남녀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공감능력(표현적, 인지적, 정서적)은 6점 척도에 4.19~4.30점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감능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 부모 및 가구 특성

□ 중학교 1학년 패널아동 부모의 개인 및 부부 특성을 살펴본 결과,

- 어머니 평균연령 45.06세, 아버지 평균연령 47.60세로 나타났으며, 초혼 유배우 93.60%, 재혼 유배우 1.27%, 이혼 4.02%로 나타남.
-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은 어머니는 7점 척도 중 5.10점, 아버지는 5.29점으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음.
- 부모의 우울은 어머니의 경우 중도 6.39%, 경/중등도 28.15%를 보였고, 모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중도 우울(10.03%)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중학교 1학년 패널아동 부모의 직업 특성 및 양육 특성을 살펴본 결과,

- 아버지는 96.31%가 취업, 어머니는 60.53%가 취업 중이었으며, 어머니는 68.98%가 상용직,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2.17%였으며, 아버지는 상용직이 64.47%,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5.79%로 나타남.
- 취업부모의 일자리 만족도는 어머니는 3.81/5점, 아버지는 3.64/5점으로 어머니가 다소 높게 나타남.
- 아동이 보고한 부모의 양육특성 중 부모의 성취압력은 2.35/5점으로 낮은 편이었고, 합리적 설명은 3.03/5로 보통으로 나타남.
- 아동이 응답한 아동학대의 경우 7.32%가 신체적 학대 경험, 18.4%가 언어적

학대 경험, 10.11%가 정서적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부모가 응답한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집안 분위기, 공부방법 조언, 숙제 확인 등)은 대부분 3.00~3.50/5로 부모 스스로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았음.

□ 중학교 1학년 패널아동 부모의 가구 특성을 살펴본 결과,

- 패널가구의 가구 구성은 부모+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87.46%로 나타나고, 평균 가구원수는 4.58명으로 나타났음.
- 패널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642.28만원, 월평균 소비성 지출은 297.09만원, 비소비성 지출은 213.54만원으로 나타났음.

라. 학교 및 사교육 특성

□ 중학교 1학년 패널아동의 학급 및 교사 특성을 살펴본 결과,

- 학교의 평균 학급 수는 5.7개이며 반 학생 수는 평균 24.3명임.
- 교사 특성은 여교사가 75.92%이었으며, 평균교사연령은 39.45세이며, 평균 교사경력은 12.28년임.
- 월평균 주중 근무시간은 184.81시간(22일 근무기준)으로 최종학력은 대졸이 60.45%로 가장 많았고, 석사학위 취득이 30.94%였음.
- 교사가 응답한 아동-교사 관계 중 친밀정도는 3.74/5점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갈등은 1.40/5점으로 낮은 편이었음.
- 교사가 응답한 교사업무 스트레스는 생활지도 및 행정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3.41/5점, 3.40/5점으로 학부모의 관계와 수업지도 스트레스(2.89/5점, 2.64/5점)보다 높게 나타남.

□ 중학교 1학년 학부모의 학교 참여 특성을 살펴본 결과,

- 담임교사가 응답한 패널아동 학급의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도는 교사응답으로 3.50/5점으로, 51.51%가 항상 참여하거나 대체로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담임교사가 응답한 패널아동 학급의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정도는 78.17%가 매우 관심이 많거나, 대체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모가 응답한 패널아동의 진학계획은 71.96%가 대학교 진학을, 17.22%가 대학원 진학(석·박사 포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학교 1학년 패널아동의 사교육 특성을 살펴본 결과,

- 사교육을 이용하는 정도는 88.28%(방과후 학교 제외)로 높은 편이었고,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거나, 가구 소득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사교육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음.
- 사교육 이용과목으로는 중복응답으로 학원 이용 기준 체육이 79.38%로 가장 높았고, 수학 74.17%, 영어 68.21%, 음악 57.9%, 논술 44.88%, 컴퓨터·코딩 4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사교육 이용 유형별 이용시간은 학습지가 주당 14.07시간, 학원 이용 주당 평균 10.44시간, 인터넷 및 화상강의 주당 5.69시간으로 나타났음.
- 사교육 이용 유형별 이용비용은 학원이 월 평균 평균 49.68만원, 과외 월 평균 35.98만원, 인터넷 및 화상강의 월 평균 13.89만원으로 나타남.

마.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 패널가구가 경험한 지역사회 특성을 살펴본 결과,

- 61.53%의 패널가구가 1회 이상의 이사 경험이 있었고, 최근 이사 이유로 주거환경이 36.08%, 교육환경 23.14%, 주변편의환경(의료문화)으로 인한 이사가 8.63%로 나타남.
- 교육기관, 공공복지시설의 편리성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읍면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편리성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으나, 의료시설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순서로 편리성에 있어 차이가 나타남.
- 놀이터, 공원, 실내외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의 편리성도 읍면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으나, 산책로의 경우 중소도시가 읍면도시보다는 편리성이 높은 것으로, 놀이동산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이 각각 순서대로 편리성이 높게 나타났음.

□ 패널가구가 경험한 정책 특성을 살펴본 결과,

- 교육정책별 추진동의 정도에서는 '매우 동의함'의 비율 기준으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43.10%, 교육 급여 지원 확대 29.38%,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확대 18.99% 고등학교 체제 단순화 17.51%의 순으로 나타남.
- 2021년 코로나19 대응 수업운영방식으로는 원격+등교가 73.66%로 나타났

고, 원격수업 진행 방식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70.26%, 콘텐츠 활용중심 수업이 16.62%로 나타남. 원격수업 만족도는 3.10/5점으로 만족과 불만족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읍면지역의 경우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 인식은 4.00/5점으로 대부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구 소득에 따른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읍면지역보다는 대도시의 학부모가 교육격차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5. 한국아동패널 조사 정리 및 시사점

가. 한국아동패널 1-14차 추이분석

□ 아동 특성

- 중학교 1학년 체중은 남학생 평균 58.99kg, 여학생 평균 51.13kg으로 초등 6학년 대비 남학생 6.77kg, 여학생 3.41kg의 증가가 있었음.
- 중학교 1학년 신장은 남학생 평균 164.15cm, 여학생 평균 158.99cm로, 초등 6학년 대비 평균 남학생 8.23cm, 여학생 4.10cm의 신장 증가를 보임.
- 비만도를 나타내는 BMI의 경우 남학생 21.79, 여학생 20.17로 초등 6학년 대비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경향성을 보였음.

□ 부모 특성

- 어머니의 취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63.3%로 2020년의 60.7%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는 정규직 비율이 0세 이후 점차 낮아져 초등 1학년 이후 62% 안팎으로 정체한 경향을 보였으나, 아동이 중학교 1학년 진학한 2021년에 정규직 비율 69.0%로 2020년의 62.7%에 비해 7.3%p가 증가함.
- 부부간 결혼만족도는 어머니 3.59/5점, 아버지 3.96/5점으로 아동연령 만 7세에 최저점을 나타낸 후 꾸준히 증가하다 중학교 1학년에 감소경향을 보임.

□ 지역사회 특성

- 여가시설 및 문화시설 접근 편리성은 각각 3.41/5점, 3.12/5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나타냄.

나. 정책적 시사점

□ 아동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이해와 지원

- 건강습관에 있어서 성별차이가 나타나며, 남학생의 인스턴트 음식 및 카페인 음료 섭취가 높고, 여학생의 수면시간이 높게 나타남.
-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도 남학생은 게임, 여학생은 SNS 및 엔터테인먼트 이용으로 이용정도가 달라졌으며, 남학생은 과학에, 여학생은 국어 및 영어 과목에 학업이해도를 높게 평가함.
- 부모의 양육행동 및 정서발달에서도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 남학생이 아동학대에 더 취약하며, 공감능력도 여학생보다 낮게 나타남.
- 남학생, 여학생의 성별차이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아동 스스로가 성별로 인한 차이로 인해 특정 성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아동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관점차이 이해 필요

- 패널아동 데이터뿐만 아니라 한국미디어패널조사(2020)에서도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4차년도(2021년) 조사에서는 아동의 미디어기기중독을 보호자가 측정하고, 아동의 스마트폰중독을 아동이 스스로 측정하였는데, 부모와 아동이 측정한 고위험사용군 비율이 각각 44.58%, 1.77%로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남.
- 부모응답은 미디어기기에 대한 행동적 중독에 초점을 두고, 아동응답은 스마트폰에 대한 심리적 중독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큰 수치이며, 부모와 아동간의 관점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변화된 시대적 흐름에서 살펴보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가 가진 미디어이용에 대한 인식을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학교 내 폭력 피해가해 정도 추이파악 및 대응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교육부 보도자료, 2022. 9. 5)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학교생활이 정상화되면서, 학교폭력 경험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피해응답 비율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이러한 수치의 의미를 파악하여,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 대응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I

서 론

01 연구목적과 필요성
02 연구내용
03 연구방법

Ⅰ. 서론

1. 연구목적과 필요성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Ⅱ)는 대한민국 내에서 출생부터 추적하여 조사하는 유일한 종단패널 연구로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고 있다. 2008년도에 2008년생 2,078가구를 원표본으로 1차 조사를 시작하여, 2,3차에 거쳐 72가구를 추가표집하여, 최종적으로 2,150명의 전체표본을 수립하였으며, 패널아동이 만 19세가 되는 2027년까지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관점을 이론적 기반으로, 아동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환경인 부모를 비롯하여, 보육·교육기관(영유아기), 학교(아동기, 청소년기), 지역사회, 정책 등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접점에서의 아동 특성 및 환경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설문 대상을 선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먼저, 주양육자를 중심으로 보호자 문항을 통해 가구 특성 및 주양육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으며, 어머니, 아버지 설문을 통해 개인 특성 및 부부 특성, 양육특성을 파악해오고 있다. 또한, 영유아 시기에는 보육 및 교육기관의 교사를 통하여, 초등, 중등 시기에는 학교 담임교사 대상의 설문을 통하여, 점차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교육기관에서의 아동의 특성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종단적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부모뿐 아니라 교사로부터의 응답을 매해 받고 있다는 점에서 타 아동, 청소년 대상 종단연구와 차별성이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의 양육환경 및 교육환경이 아동의 다양한 발달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표본추출과정에서부터 우리나라 아동의 대표성을 고려한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축적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학술연구 활성화 및 정책 지원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매해 아동패널 조사를 통해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축적한 데이터가 정책입안자, 학계 연구자 등 많은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활용되고,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데이터 활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는 국가가 승인하고 관리하는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을 통해 데이터를 공개하였고, 이를 통해 조사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매해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과 학자들이 학술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를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매해 학술대회에 참가할 대상에게는 그해 말에 공개할 데이터를 미리 제공하여 접할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로서는 보다 먼저 최신 데이터를 접할 수 있고, 데이터 제공자로서는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에 패널로 참여하고 있는 패널아동들은 2022년 만 14세가 되었고, 대부분 중학교 2학년으로 진학하였다. 청소년기가 처음 시작되는 14차 조사에서 청소년기에 적합한 척도로서 진행될 조사의 전반적 기틀을 잡는 것에 집중했다면,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제15차년도 조사에서는 패널아동들이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에 부담없이 지속해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의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측정해온 문항들 중 잘 쓰이지 않았던 문항들을 파악하여, 전체 문항의 슬림화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대면조사 기피, 중학교 진학으로 인한 아동의 시간 부족, 조사거부 등으로 인한 조사진행의 어려움에도 2021년 14차 조사는 최종 1,348가구(아동 1,328명)로 조사가 완료되었다. 이미 탈락된 패널가구 및 패널아동의 복구에 노력을 기하면서도, 현재 유지되고 있는 패널의 추가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 연구내용

한국아동패널의 2022년도 연구 사업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한국아동패널 제15차년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14차년도(중학교

1학년 시점)에 실시된 조사데이터에 대한 기초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13차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2020년 조사된 13차년도 데이터를 처음 공개하였다.

[그림 Ⅰ-2-1] 2022년도 한국아동패널 사업 구성

가. 2022년 제15차년도 조사실시

1) 조사절차

한국아동 종단연구 2022년 15차년도 조사의 조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회사 입찰공고를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하여 조사회사를 선정하였다. 둘째, 제15차년도 조사에 활용될 조사내용을 작성하고, 설문지가 확정되면 육아정책연구소 IRB 승인을 받은 후 조사원 선발 및 교육, TAPI 시스템 구축 작업, 및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전, 조사에 참여할 패널에 사전 연락을 하고, 패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셋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원 대상 간담회를 통해 올해 조사를 통해 어려웠던 점들을 파악하여, 다음 조사에 반영하였다.

〈표 Ⅰ-2-1〉 한국아동패널 연도별 실시 계획

구분	만0~2세	만3~6세	7~9세 (초등1~3)	만11~12세 (초등4~6)	만13-15세 (중 1~3)	만16-18세 (고 1~3)	만19세 (대1, 진학 시)	심층 조사
시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초기	아동중기	아동후기	청소년기	성년기	
2008년	1차							
2009년	2차							1차
2010년	3차							
2011년		4차						
2012년		5차						
2013년		6차						2차
2014년		7차						
2015년			8차					
2016년			9차					3차
2017년			10차					
2018년				11차				
2019년				12차				
2020년				13차				4차
2021년					14차			
2022년					15차			
2023년					16차			
2024년						17차		5차
2025년						18차		
2026년						19차		
2027년							20차	

2) 조사내용

2022년도는 2008년생인 패널아동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해로 2022년도에 시행되는 15차년도 조사를 위한 조사문항을 개발하였다. 14차년도 조사에서 청소년 시기 발달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면, 15차년도 조사에서는 패널가구 및 패널아동의 조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사내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3) 패널 유지 방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뿐 아니라, 점차 아동들의 성장에 따라 학습시간 증가로 인한 여유시간 감소, 학원 등의 일정으로 인해 조사 진행에 대한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다. 2021년에 패널위원 위촉장 등을 통해 지금까지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면, 2022년에는 아동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아

동패널 조사를 친근하게 느끼고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초에 패널아동을 대상으로 카카오채널을 오픈하였고, 가입축하 기프티콘 발송을 시작으로 시기별 인사(설날, 추석, 생일 축하 메시지 등) 및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육아정책연구소 아동패널'에 관한 퀴즈를 통해 추첨하여 선물을 제공하는 등 패널아동과의 소통을 진행하였다. 또한 패널유지 및 조사 독려를 위해 지금까지 매해 5월마다 어린이날 선물을 제공하던 것을 올해는 가정의 달 선물로 변경하여, 중학생이 잘 활용할 수 있는 편의점 상품권을 모바일로 지급하여, 변화를 시도하였다.

나. 14차년도(2021년) 조사자료 분석

2022년도 보고서에는 2021년에 실시된 14차년도 조사의 데이터를 1차 클리닝을 마치고 검토하여, 주요 결과를 분석하여 기초분석 결과를 공유하였다. 주요변인을 중심으로 중학교 1학년 시점의 아동 특성, 부모 특성, 학교 특성 등의 횡단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중학교 1학년까지 마무리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종단적 변화 또한 살펴보았다. 14차 조사부터는 13차까지의 아동기 척도를 이용한 조사문항이 청소년 시기에 적합한 척도로 변화하거나, 지금까지 보호자 및 부모가 응답했던 문항을 자기보고식으로 변경하여 아동이 응답하게 된 문항이 다수 존재하여, 종단분석 해석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다. 제13회 학술대회 개최

1) 학술대회 논문공모

2022년 9월 23일(금)에는 한국아동패널의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논문들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제1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신생아 수집된 국내 유일한 종단연구로서의 한국아동발달 패널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매해 새롭게 공개되는 데이터의 활용으로 보다 다양하고 의미 있는 학술연구의 결과를 공유하여, 연구자간의 학문적 교류 및 연구결과

활용을 통한 의미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학술대회를 통해 학생 연구자를 대상으로 우수 논문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기회를 갖고, 제13회 학술대회부터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육아정책연구' 투고 시 심사자 1인 '수정 후 게재' 확정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자들의 학술대회 참여를 독려하였다.

학술대회 연구계획서를 5월 2일까지 모집하였고, 일반부문 44편, 학생부문 40편으로 총 84편의 연구계획서가 공모 심사결과를 통과하였다. 7월 15일까지 제출된 최종 논문은 일반부문 23편, 학생부문 24편으로 총 47편이 제출되었다. 제출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제13회 아동패널 학술대회에 발표할 논문을 선정하고 학생 연구자를 대상으로 우수 논문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 포상하는 기회를 가졌다.

2) 학술대회 개최

제13회 아동패널 학술대회는 패널아동이 초등학교 6학년 시기였던 2020년에 수집된 데이터가 학술대회 참가자 대상으로 제공되어 진행되는 해로, 초등시기 6년의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여 분석이 가능하고 2020년의 코로나시기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초등시기에 나타나는 한국아동들의 특징과 코로나시기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11회, 12회 학술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축소되어 진행되어있던 것에 반해 올해는 기조강연, 통계 워크숍을 포함한 종일 대면학술대회로 진행하였다. 제13회 학술대회에서는 '시간일지 사용을 통해 본 한국아동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진행하였고, '가중치 사용의 의미와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통계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발달의 이정표를 고려하여 15년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의 기조강연으로 '시간일지 자료로 본 한국아동의 하루'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종단연구에서 필수적인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가중치 적용 방법' 통계워크숍을 실시하였다.

3) 13차년도 데이터 공개

2020년도 수집된 13차년도(패널아동 초등학생 6학년) 데이터를 가공하여,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2023년 1월 공개 예정). 제공되는 데이터는 SPSS, SAS, STATA, EXCEL의 형태로 변화하여 공개 작업을 진행하였다. 가중치 산출 등의 데이터 가공 절차를 진행하고, 2020년도 새롭게 추가된 변인에 대한 도구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하고, 데이터와 함께 공개될 설문지 및 코드북을 업데이트하였다.

라. 사용자 편의를 위한 작업

1) 패널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웹페이지 관리

아동패널 홈페이지에 공공데이터 포털과 연계하여, 원시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널데이터 활용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부터 수행된 한국아동패널 보고서뿐만 아니라, 패널자료 분석이 보여주는 여러 의미있는 통계자료를 인포그래픽 등으로 시각적으로 게시하고,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 논문, 학술대회 발표 자료 등에 대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

2) 패널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 업데이트

2022년 3월,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 (한국아동패널Ⅱ)」에서 진행한 1-12차 차수별 변수지도(도구프로파일 연동 포함), 8-12차 사용자 지침서를 업로드하고, 1-12차 데이터, 각 년도 설문지도 정리된 버전으로 새롭게 업로드하였다. 이렇게 패널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12년간의 데이터의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하였고, 향후에도 사용자 지침서, 차수별 변수지도는 새로운 데이터가 공개되는 시점마다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3. 연구방법

가. 한국아동패널 활용도 조사

1차에서 11차까지 공개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들을 분석하여 한국아동패널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데이터 활용논문 현황과 언론에서의 보도 현황으로 나누었고, 활용논문 현황은 각 연도별 논문 편수, 종단/횡단연구 여부, 이용된 데이터의 차수, 활용된 변수 분석 등의 요소로 분석하여 살펴보였다.

나. 전문가 자문회의

1) 중학교 2학년 조사 방향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

중학교 2학년 시기 조사변인 및 추가변인 및 문항 선정을 위해 자문회의를 활용하였다. 특히, 청소년 시기가 포함된 패널연구 경험 및 청소년의 학교교사 대상으로 조사 진행시 고려할 점에 대해 자문을 진행하였다.

2) 변수 확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패널아동의 중학교 진입이 이루어졌고, 2027년까지 조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패널아동의 지속적인 조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아동대상 문항의 점진적 축소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연구진의 전반적 조사문항 검토를 통해 아동패널 데이터 내에서의 활용도를 파악하여, 조사 변수를 축소할 수 있도록 살펴보았고, 그 내용을 아동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청소년 복지학, 교육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서면자문을 통해 최종 15차 조사 변수를 확정하였다.

〈표 Ⅰ-3-1〉 15차 조사전반 및 설문확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일정	참석 전문가 (전문 분야)	비고
1차	2022. 4.	국내 청소년 패널 진행 경험자 2인	패널조사 실사 진행 및 학술대회 진행 관련 자문
2차	2022. 4.	국내 장기종단 패널 책임자 1인	패널유지 관련 자문
3차	2022. 4.	중학교 1학년 담당 교사 2인	중학교 2학년 시험, 학교생활 및 교사 추가질문관련 자문
4차	2022. 5.	아동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청소년 복지학, 교육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 10인 서면자문	조사문항에 대한 의견

다. 15차년도(2021) 일반 조사 실시

1) 조사대상 및 규모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패널아동과 아동의 부모, 아동이 다니는 교육기관의 담임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기준 유효 표본을 추출하여 2022년 15년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2022년 아동패널 조사는 〈표 Ⅰ-3-2〉와 같이 구성된다.

〈표 Ⅰ-3-2〉 2022년 한국아동패널 조사

구분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
주양육자 대상 조사 (TAPI 조사)	패널 약 1,500가구의 아동 및 양육자 (주로 어머니)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구 특성, 학교 및 돌봄서비스 이용 특성, 지역사회, 육아정책에 대한 인식 등	컴퓨터 프로그램화된 태블릿 PC용 설문(TAPI)을 이용한 대인면접
부/모 대상 조사	약 1,500명 패널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	양육태도, 심리적 특성, 직업 특성, 자녀 가치관 등	우편용 질문지 조사
교사 대상 조사	패널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	인구학적 특성 및 경력, 전공, 학교 특성, 아동발달 특성	web 조사

3) 조사 진행 절차

15차년도 조사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I-3-1] 15차년도 조사 진행절차

자료: 연구진 내부 자료

II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01 아동패널 자료의 활용 현황
02 제1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03 사용자 편의를 위한 변수정리 작업
04 가중치 산출

Ⅱ.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1. 아동패널 자료의 활용 현황

한국아동패널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데이터 활용 논문 현황과 언론에서의 보도 현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논문 현황은 발간 형태 및 종단·횡단연구 여부에 따른 논문 수,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차수, 그리고 분석 변인에 대해 정리하였다.

가.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는 2022년 현재 2019년도에 조사한 12차 데이터까지 공개되었으며, 올해 학술대회를 통해 학술대회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13차 데이터가 공개되었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는 2018년부터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의 작성이나 학술대회, 세미나 발표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로 활용된 논문을 수집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로 발간된 논문은 패널연구진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올해는 2022년 12월 20일 기준 '한국아동패널', '아동패널', 'PSKC' 등으로 검색하여,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을 수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표 Ⅱ-1-1〉 참조), 2022년 12월 20일 기준 지금까지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표된 논문은 총 1,193편이며, 그 중 학술논문으로의 활용이 882편으로 가장 많았다. 2022년에는 학술논문으로 111편, 학위논문으로 6편이 발간되었으며 학술대회에서 2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패널아동의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1~7차 데이터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2016년도와 최근 2020~2022년도에 발간된 논문의 수가 다른 연도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표 Ⅱ-1-1〉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수

단위: 편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전체	39	53	40	52	77	87	131	83	93	69	172	157	140	1193
연구보고서	3	3	2	1	2	2	2	1	-	-	-	-		16
세미나 등	-	2	2	1	1	1	-	1	-	-	-	-		8
학위논문	-	2	2	5	8	9	12	4	1	16	18	19	6	102
학술대회	36	29	9	18	22	3	12	18	16	11	29	19	23	245
학술논문	-	17	25	27	44	72	105	59	76	42	125	119	111	822

주: 1) 데이터 활용사실을 보고하거나 포털에서 검색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일부 누락된 논문이 있을 수 있음.
2) 2022. 12. 20.를 기준으로 재보완하였으므로, 이전 연구보고서의 논문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11년도 이후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간된 학술논문은 총 823편으로 그 중 횡단연구는 504편, 종단연구는 319편이었다(〈표 Ⅱ-1-2〉 참조). 2022년도에 발간된 111편의 논문 중에서는 횡단연구가 55편, 종단연구가 56편이었다. 패널아동의 영유아기와 초등입학 시기의 데이터를 모두 활용할 수 있었던 2019년도에 종단연구(25편)가 횡단연구(17편)보다 더 많았고, 2022년도에도 종단연구(56편)가 횡단연구(55편)로 더 많았다.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이후 아동패널 데이터 활용도가 급증하였고, 전반적으로는 횡단연구 방식이 많은 편이나, 차수가 쌓이고, 다양한 종단연구가 가능해지면서, 종단연구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표 Ⅱ-1-2〉 연도별 분석방식에 따른 논문 수: 2011-2022년

단위: 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전체	17	25	27	44	72	105	59	76	42	125	119	111	823
횡단연구	17	24	23	36	48	61	40	44	17	69	69	55	504
종단연구	0	1	4	8	24	44	19	32	25	56	50	56	319

주: 1) 원문 공개된 논문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발간 논문수와는 상이할 수 있음.
2) 각 연도에 국내외 학술지에 발간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학술논문에서 활용한 데이터의 차수 현황을 살펴보면(〈표 Ⅱ-1-3〉 참조), 지금까지 7차 데이터가 253회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5차 195회, 8차 176회 의 순서로 활용 빈도가 높았으며, 4~8차까지의 데이터는 각각 150회 이상 활용되었다. 종단연구에는 매년 1차 데이터부터 최근 공개되는 데이터까지 모두 활용되고 있으며, 횡단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공개되는 데이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Ⅱ-1-3〉 연도별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차수: 2011-2022년

단위: 회, 편

년도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논문수
2011	횡단	16	1	-	-	-	-	-	-	-	-	-	-	17
2012	횡단	17	7	-	-	-	-	-	-	-	-	-	-	24
	종단	1	1	-	-	-	-	-	-	-	-	-	-	1
2013	횡단	3	9	11	-	-	-	-	-	-	-	-	-	23
	종단	4	4	3	-	-	-	-	-	-	-	-	-	4
2014	횡단	2	6	9	19	-	-	-	-	-	-	-	-	36
	종단	7	8	6	3	-	-	-	-	-	-	-	-	8
2015	횡단	1	3	7	15	22	-	-	-	-	-	-	-	48
	종단	12	17	21	17	9	-	-	-	-	-	-	-	24
2016	횡단	-	2	1	6	29	22	1	-	-	-	-	-	61
	종단	24	27	31	31	22	10	-	-	-	-	-	-	44
2017	횡단	-	-	2	-	7	14	16	1	-	-	-	-	40
	종단	9	8	10	12	16	14	9	-	-	-	-	-	19
2018	횡단	-	-	1	1	2	4	23	13	-	-	-	-	44
	종단	11	11	9	9	16	19	21	13	-	-	-	-	32
2019	횡단	-	-	-	-	1	-	10	3	1	2	-	-	17
	종단	5	2	4	3	11	15	20	16	4	2	-	-	25
2020	횡단	-	-	1	1	4	1	27	19	2	15	-	-	69
	종단	9	10	11	14	23	21	31	36	20	19	1	-	56
2021	횡단	-	1	-	-	2	1	22	8	4	12	19	-	69
	종단	7	6	6	9	17	22	32	33	19	21	9	-	50
2022	횡단	1	0	1	0	0	1	12	6	2	5	18	9	55
	종단	7	5	8	11	14	18	29	28	26	22	17	4	56
합계		136	128	142	151	195	162	253	176	78	98	64	13	-

주 1) 원문 공개된 논문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발간 논문 수와는 상이할 수 있음.
2) 각 년도에 국내외 학술지에 발간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3) 종단연구의 경우 중복 기입.

다음으로 2021년까지 발간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변수를 분석하였다. 2021년도에 발간된 학술논문에서 분석에 활용한 변수가 무엇인지를 조사영역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표 Ⅱ-1-4〉 참조). 2020년도에 발간된 논문에서의 변수 활용 현황(김지현 외, 2021: 45)과 유사하게 2021년에도 가장 많이 활용된 변수는 아동 특성(309회)이었으며, 특히 아동 특성은 대부분의 논문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부모 특성은 180회, 가구 특성 42회, 영유아기 돌봄/교육 특성 16회, 학교/사교육 특성 20회, 지역사회 특성은 7회 활용되었다.

아동 특성 영역 중 학교적응, 또래와의 상호작용, 문제행동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발달 변수가 107회로 가장 많이 분석되었으며, 종속변수로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 특성(53회)에 이어 인지·언어발달/학습 특성(30회), 자아·정서발달 특성(15회)이

다수의 논문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한편 부모 특성 변수는 독립변수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 양육행동이나 부모-자녀 상호작용 등의 변수에 해당하는 양육특성이 독립변수로 81회, 총 86회 활용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문제 분석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Ⅱ-1-4〉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변수: 2021년 발간 논문 기준

단위: 회

구분	아동 특성						부모 특성					
	인구학적특성[1]	일상생활[2]	신체건강[3]	인지언어학습[4]	자아정서발달[5]	사회성발달[6]	인구학적특성[7]	신체건강[8]	심리특성[9]	부부특성[10]	양육특성[11]	직업특성[12]
전체	24	28	4	80	66	107	24	2	37	9	86	22
종속변수	-	7	2	30	15	53	-	1	5	1	5	1
독립변수	24	21	2	50	51	55	24	1	32	8	81	21

구분	가구 특성			(영유아기) 돌봄/교육 특성		(학령기) 학교/사교육 특성		지역사회 특성	
	인구학적특성[13]	물리적/경제적특성[14]	가정환경[15]	보육교육기관[16]	기타[17]	돌봄서비스[18]	학교특성[19]	일반적특성[20]	양육환경[21]
전체	5	22	15	13	3	4	16	4	3
종속변수	-	-	2	1	1	2	1	-	-
독립변수	5	22	13	12	2	2	15	4	3

주1: 독립변수에는 통제변수 등이 포함됨.
주2: 각 영역별 해당 변수는 다음과 같음.
1)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출생순위
2) 일상생활: 수면시간, 놀이시간/영역 식습관, 미디어 이용시간, 미디어 중독 등
3) 신체건강: 건강상태, 체질량지수 등
4) 인지언어학습: 언어발달(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의사소통, 집행기능곤란, 다요인지능, 학습준비도, 학습태도, 학업능력, 학습스트레스 등
5) 자아정서 발달: 기질,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그릿, 행복감 등
6) 사회성 발달: 또래와의 상호작용, 문제행동, 사회적 유능감, 학교적응 등
7) 인구학적 특성: 학력, 연령
8) 신체건강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
9) 심리적 특성: 행복감, 자아존중감, 우울, 일-가정(육아)양립 등
10) 부부 특성: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11) 양육 특성: 양육행동, 부모-자녀상호작용, 양육스트레스, 성취압력, 사회적지지 등
12) 직업 특성: 취업 여부, 취업 특성 등
13) 인구학적 특성: 가구형태, 자녀수
14) 물리적/경제적 특성: 가구 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 아동 용돈 등
15) 가정환경 특성: 가족상호작용, 가족기능, 가정환경 등
16) 보육교육기관: 교사-유아상호작용, 교사효능감, 교실환경 등
17) 기타: 영아기 보육(양육) 유형, 기관 외 특별활동 등
18) 돌봄서비스: 방과후 이용 서비스 등
19) 학교 특성: 학부모의 학교 참여, 교사-아동관계, 교사 특성, 창의적 학교환경 등
20) 일반적 특성: 거주지역(지역규모)
21) 양육환경 특성: 지역사회 안전성, 시설접근성, 기관이용만족도

나. 언론보도 현황

2021년도 한 해 동안 한국아동패널을 키워드로 언론에 보도된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Ⅱ-1-5〉와 같다. 내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를 보도한 네 건의 기사가 있으며, 해당 기사에서는 가구 소득에 따른 영유아의 발달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오현태, 2021. 9. 1.).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정양육환경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의 영유아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영유아에 비해 어휘력 검사 점수는 높게 나타났고 문제행동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오현태, 2021. 9. 1.). 이에 연구자는 "영유아기 인적자본 투자를 보완하면 계층 간 격차가 완화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양육비용 경감 차원을 넘어 아동의 인적자본 발달을 유도할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차지연, 2021. 9. 1.).

다음으로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알리는 보도가 있었다. 그 중에서 한 기사(김민주, 2021. 10. 6.)에서는 영유아기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공격행동을 보이고 학력폭력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표 Ⅱ-1-5〉 한국아동패널 언론보도 현황

보도일자	제목	출처	주요변인
2021. 9. 1.	가구소득이 아동 인지능력에 영향...취약계층 지원 늘려야	파이낸셜뉴스	REVT(어휘력), CBCL(문제행동), KASQ(영유아발달), 가구 소득, 가정양육환경
	가구소득 따라 아동 인지능력 발달 차이…인적자본 발달 유도할 정책 필요	KBS NEWS	
	조세연, 소득계층간 아동의 '인지능력' 격차 존재..."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강화 필요	세정일보	
	가구소득 따라 아동 인지능력 발달 격차...취약층 지원 늘려야"	연합뉴스	
2021. 9. 5.	가구소득 따라 아동 인지능력 격차…취약층 대상 조기 개입 늘려야	아주경제	
2021. 9. 30.	육아정책연구소 '제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개최	한국강사신문	-
2021. 10. 6.	가정폭력 노출 아동, 자기통제력 저하로 학교폭력 피해자 될 확률 높아	베이비뉴스	문제행동, 학교폭력, 가정폭력(모 우울, 부부갈등 등)

주: 1) 검색포털사이트에서 "한국아동패널", "아동패널"로 검색된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함.
2) 기준일: 2022. 03. 10.

자료: 1) 김민주(2021. 10. 6.). “가정폭력 노출 아동, 자기통제력 저하로 학교폭력 피해자 될 확률 높아”.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896 (2022년 3월 10일 인출).
2) 김용훈(2021. 9. 1.). “가구소득이 아동 인지능력에 영향...취약계층 지원 늘려야”.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9011058489768 (2022년 3월 10일 인출).
3) 오현태(2021. 9. 1.). “가구소득 따라 아동 인지능력 발달 차이…인적자본 발달 유도할 정책 필요”.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69580&ref=A (2022년 3월 10일 인출).
4) 유일지(2021. 9. 1.). 조세연, 소득계층간 아동의 ‘인지능력’ 격차 존재...“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강화 필요”. 세정일보.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27 (2022년 3월 10일 인출).
5) 이미숙(2021. 9. 30.). 육아정책연구소 ‘제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개최. 한국강사신문.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116 (2022년 3월 10일 인출).
6) 차지연(2021. 9. 1.). “가구소득 따라 아동 인지능력 발달 격차...취약층 지원 늘려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1073100002?input=1195m (2022년 3월 10일 인출).
7) 최다현(2021. 9. 5.) “가구소득 따라 아동 인지능력 격차…취약층 대상 조기 개입 늘려야”.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904215849815 (2022년 3월 10일 인출).

2. 제1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가. 학술대회 일정 및 개요

한국아동패널은 매해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도 제고와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대한 국내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022년 제1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는 9월 23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였으며, 한국아동학회, 대한가정학회, 가정과삶의질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등 약 11개의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제1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의 주요 일정은 〈표 Ⅱ-2-1〉과 같이 진행되었다.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에서 공동주최 학회의 역할은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학술대회 홍보(공모참여 및 학술대회 참석), 학술대회 진행시 토론자 추천협조, 학회에서 요청할 경우 공동주최 세션 마련 등을 포함하였다.

〈표 Ⅱ-2-1〉 제1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추진 주요 일정

내용	2022년 일정
연구계획서 공모 마감	2022. 5. 2.(월)
연구계획서 공모 심사 결과 발표	2022. 5. 4.(수)
최종 원고 마감	2022. 7. 15.(금)
최종 원고 심사결과 발표	2022. 8. 5.(금)
학술대회 개최	2022. 9. 23.(금)

전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다시 대면으로 전환하여 학술대회 발표뿐만 아니라 기조 강연, 통계 워크숍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연구계획서 공모는 마감인 5월 2일까지 총 85편이 접수 되었으나,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은 1편을 제외한 총 84편으로 일반부문 44편, 학생부문 40편의 연구계획서가 공모 심사 결과를 통과하였다.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주요 주제를 분석한 결과 '양육 및 가족관계, 미디어, 학업/학습, 사회정서발달 및 문제행동'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 중 종단연구 계획서는 52편으로 일반부문 27편, 학생부문 25편으로 나타났으며, 횡단연구 계획서는 32편으로 일반부문 17편, 학생부문 15편으로 종단연구 계획서가 61% 이상으로 나타났다.

최종원고 마감인 7월 15일까지 제출된 총 47편 중 일반부문 23편, 학생부문 24편을 대상으로 외부 심사자와 아동패널 연구진의 심사를 거쳐 23편의 최종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선정하였고, 학생부문의 논문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하여 수상하였다.

나. 학술대회 개최 내용

제1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해제로 2019년도 제10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이후 3년 만에 전면 대면으로 진행하였다. 학술대회 현장 참여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개최를 공지를 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에서 9월 2일부터 9월 21일 자정까지 20일 동안 사전 접수를 받았다. 사전 신청인원 170명 중 행사 당일 현장 접수를 포함하여 총 135명의 인원이 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2022년 9월 23일(금)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11개의 학회와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논문 발표는 중회의실 1개와 소회의실 3개로 장소를 나누어 세션별로 좌장, 발표자, 토론자, 참석자가 참석하여 진행하였다. 학술대회의 구체적 일정은 〈표 Ⅱ-2-2〉와 같다.

[그림 II-2-1] 제1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논문공모 및 개최 포스터

〈표 II-2-2〉 제1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일정

시간	프로그램
	1부. 개회식 및 기조강연
10:00 – 10:20	개회사 및 축사
10:20 – 10:30	대학원생 논문시상
10:30 – 10:40	한국아동패널 소개
10:40 – 11:40	기조강연 ‘시간일지 자료로 본 한국아동의 하루’
	2부. 통계 워크숍 및 논문발표
13:00 – 14:10	통계워크숍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가중치 적용 방법’
14:10 – 14:30	휴식
14:30 – 15:50	세션 1: 부모 양육 행동
	세션 2: 미디어 사용
	세션 3: 학업 및 학교 I
	세션 4: 학습지원 및 사교육
15:50 – 16:00	휴식
16:00 – 17:20	세션 5: 양육 환경
	세션 6: 미디어 중독
	세션 7: 학업 및 학교 II
	세션 8: 집행가능
17:20 – 17:30	폐 회

학술대회 내용으로 1부 개회식에서는 소장님의 개회사와 공동주최 학회 회장님의 축사,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시상, 한국아동패널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기조강연이 진행되었다. '시간일지 자료로 본 한국아동의 하루' 주제로 시간의 객관적, 주관적 속성과 한국아동의 학습시간 관련 연구를 소개하며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될 수 있는 시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점심식사 후 진행 된 2부에서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가중치 적용 방법' 통계워크숍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아동패널 조사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있어 자료에 대한 해석과 분석방법에 따른 가중치 적용 및 사례로 연구자들이 데이터 분석 시 유의할 점과 해결방법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고 질의를 받았다.

논문발표는 부모 양육 행동, 미디어 사용, 학업 및 학교Ⅰ, 학습지원 및 사교육, 양육 환경, 미디어 중독, 학업 및 학교Ⅱ, 집행기능의 8개 주제로 세션별로 나누어 총 23개의 아동패널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으로 활발한 학문적 교류의 장이 되었다.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패널아동이 초등 6학년 시점(2020년)의 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어,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전반의 성장을 살펴볼 수 있었고,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의 아동 특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다루어졌다.

〈표 Ⅱ-2-3〉 제1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목록

구분	내용
세션1. 부모 양육 행동	1. 부모의 공동양육 및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2. 부모의 미디어 중독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3. 초기 청소년기 미디어기기 중독의 종단적 발달경로: 부부갈등과 온정적 양육행동, 그리고 아동의 내재화 문제의 매개효과
세션2. 미디어 사용	1. 잠재전이분석을 활용한 아동의 미디어 활용 유형 전이 양상 및 영향 요인 분석
	2. 아동·청소년기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학업스트레스,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의 종단적 관계 연구
	3. 초등학생의 미디어 사용유형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독서량의 매개효과분석
세션3. 학업 및 학교Ⅰ	1. 아동의 그릿과 학습태도, 학업스트레스, 학습행복감 간의 관계 구조 연구
	2. 6-12세 아동의 국어와 수학 학업수행능력 관계 잠재성장모델분석
	3. 학생의 창의적 학교 환경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사, 학부모, 학생 요인을 중심으로
세션4. 학습지원 및 사교육	1. 부모의 학습지원이 아동의 학업수행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태도 및 학업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득수준별 학업수행 능력 변화와 사교육비의 매개효과
	3. 코로나(COVID-19) 이전과 이후의 사교육 이용 변화 탐색

구분	내용
세션5. 양육 환경	1. 취약계층 아동의 가정 내 사회자본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매개효과
	2. 부모가 인식한 지역의 안전수준과 아동의 실외활동 수준에 관한 종단연구: 성별과 안전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세션6. 미디어 중독	1.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에 따른 아동의 교사-아동 간 친밀감과 갈등, 집행기능곤란, 그릿 간 구조분석
	2. 부모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집행기능 곤란, 미디어기기 중독의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집단 간 관계 분석: 순차적 과정 성장혼합모형(SP-GMM)의 적용
	3. 아동기 역경 경험이 미디어 중독에 미치는 영향
세션7. 학업 및 학교II	1.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사회정서역량이 또래관계를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2. 창의적 학교 환경이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교적응을 매개로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3.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업성취압력의 변화 유형 및 예측요인과 결과요인 검증
세션8. 집행기능	1. 아동의 집행기능, 지능, 학업수행능력 간의 관계: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2. 아동기 집행기능의 발달 유형과 관련된 사회적 유능성과 그릿(Grit)
	3.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미디어 이용 및 신체활동이 인지적(cool), 정서적(hot) 집행기능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그림 Ⅱ-2-2] 제1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모습

주: (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개회사, 한국아동패널 연구책임자 한국아동패널 소개, 기조강연, 통계워크숍, 대학원생 최우수상 논문 시상, 세션 1 발표 및 토론

3. 사용자 편의를 위한 변수정리 작업

본 절에서는 2022년 3월에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에 새롭게 업로드된 설문지, 차수별 변수지도에 대한 상세 설명을 담았다.

가. 설문지 종류

한국아동패널 설문지는 병원용, 보호자용, 아동용, 어머니용, 아버지용, 육아지원기관용, 건강용, 학교용으로 구분된다.

1-7차에는 보호자용 설문지 대신 면접자용 설문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1차에만 병원용 설문지가 포함된다. 기존 1차 설문지에 있었던 '위탁가구원' 설문지의 경우 보호자가 작성하는 설문으로 보호자 설문지에 포함시키고 삭제하는 등의 설문지 종류 간소화를 진행하였다. 4-7차에는 '육아지원기관' 설문지가 포함되며 이는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학원에 대한 설문지가 포함되며, 각각 나뉘어졌던 설문지를 통합하여 '육아지원기관' 설문지로 통합하였다. 6차부터는 아동이 직접 응답하는 아동용 설문지가 추가되었는데, 보호자용 또는 어머니용 설문에서 묻던 문항 중 일부가 아동용 설문지로 이동하였고, 또 일부는 새로운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차수별 설문지 구성은 〈표 Ⅱ-3-1〉과 같다.

〈표 Ⅱ-3-1〉 1-13차 설문지 종류

설문종류 코드		B	D	E	F	H	J	K	L
차수	년도	병원	면접자/보호자	어머니	아버지	육아지원기관	아동	건강	학교
1차	2008년	o	o	o	o	-	-	-	-
2차	2009년	-	o	o	o	-	-	-	-
3차	2010년	-	o	o	o	-	-	-	-
4차	2011년	-	o	o	o	o	-	-	-
5차	2012년	-	o	o	o	o	-	-	-
6차	2013년	-	o	o	o	o	o	o	-
7차	2014년	-	o	o	o	o	o	o	-
8차	2015년	-	o	o	o	-	o	o	o
9차	2016년	-	o	o	o	-	o	o	o
10차	2017년	-	o	o	o	-	o	-	o
11차	2018년	-	o	o	o	-	o	-	o
12차	2019년	-	o	o	o	-	o	-	o
13차	2020년	-	o	o	o	-	o	-	o

나. 아동 특성

아동 특성은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 및 신체·건강 특성, 인지 및 언어 발달, 사회 및 정서 발달과 등 아동 발달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표 Ⅱ-3-2〉 아동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변인명(소분류)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인구학적 특성		성별	D표지	D표지	D표지	D표지	D표지	D표지
		출생월(생성변수: 월령)	D표지	D표지	D표지	D표지	D표지	D표지
		출생순위	D55	D11-2	D11-2	D11-2	D11-2	D11-1
		출생순위 변동 사유	-	-	-	-	D11-2-1	D11-1-1
일상생활 특성	수면	함께 자는 사람	D20	-	-	-	-	-
		혼자 자기 시작한 시기	D20-1	-	-	-	-	-
		주로 재워주는 사람	D21	-	-	-	-	-
		아침에 스스로 기상 여부/횟수	D23	-	-	-	-	-
		기상/취침 시각_주중 (생성변수: 수면시간)	D19-1	D6-13	D6-13	D6-13	D6-13	D6-12
		기상/취침 시각_주말 (생성변수: 수면시간)	D19-2	D6-13	D6-13	D6-13	D6-13	D6-12

대분류	중분류	변인명(소분류)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숙면 여부/밤잠 중 깨는 횟수	D22	-	-	-	-	-
	식생활	가족과의 식사 횟수	-	-	-	D6-16	D6-16	D6-15
		식생활 진단	K50	K41~50	E4	E4	E2	D9-10
		주로 마시는 물의 종류	K20	-	-	-	-	-
		음료수 섭취 빈도	K 21	-	-	-	-	-
		유산균 복용 여부	K42	K35	-	-	-	-
		유산균 복용 기간	K42-1	K35-1	-	-	-	-
		유산균 마지막 복용 시기	K42-2	-	-	-	-	-
		탄산음료 섭취	-	-	-	J2-15	J2-15	J2-14
		인스턴트식 섭취	-	-	-	J2-16	J2-16	J2-15
	실내/외 활동	일과 활동 시간_주중	D24-1	D6-14	D6-14	D6-14	D6-14	D6-13
		일과 활동 시간_주말	D24-2	D6-15	D6-15	D6-15	D6-15	D6-14
		실외 신체활동	K45	K37	-	D6-28	D6-28	D6-26
		실내 신체활동	-	-	-	D6-27	D6-27	D6-25
		하루 운동 시간	K44	K36	-	-	-	-
		독서량	-	D6-21	D6-21	D6-21	J2-17	J2-16
		활동별 참여 빈도	D28	D6-22	D6-22	D6-22	D6-22	D6-20 /J2-17
	미디어	미디어 이용시간	-	D6-19	D6-19	D6-19	D6-19	D6-17
		미디어 이용 정도	-	D6-20	D6-20	D6-20	D6-20	D6-18
		미디어 이용 이유	D27-1,2	-	-	-	-	-
		미디어 이용 순위	-	J6-1	-	-	-	-
		미디어 기기 중독_부모진단	-	-	E3	E3	E1	D6-19
		휴대폰(스마트폰) 소유 여부	D26	D6-18	D6-18	D6-18	D6-18	D6-16
		컴퓨터 사용능력	-	-	-	J2-34 ~40	-	J2-26 ~31
	저축	저축관	-	-	-	J2-12 ~14	J2-12 ~14	J2-11 ~13
	취미	취미(악기연주,스포츠 경험) 여부	-	-	-	D6-2 3,25	D6-2 3,25	D6-2 1,23
		취미(악기연주,스포츠 경험) 종류	-	-	-	D6-2 4,26	D6-2 4,26	D6-2 2,24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	시력 보정도구 착용 시기	D65	D9-7	D9-7	D9-7	D9-7	D9-7
		시력 보정도구 착용 여부	D65-1	-	D9-7	D9-7	D9-7	D9-7
		체중	J1	J1-1	J1-1	J1-1	J1-1	J1-1
		신장	J2	J1-2	J1-2	J1-2	J1-2	J1-2
		허리둘레	J3	J1-3	J1-3	J1-3	J1-3	J1-3
		주관적 건강 상태	D58	D9-1	D9-1	D9-1	D9-1	D9-1

대분류	중분류	변인명(소분류)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빠진 유치 개수	D66	D9-8	D9-8	-	-	-
		처음 유치가 빠진 시기	D66-1	D9-8	D9-8	-	-	-
		충치 개수	D66-2	D9-9	D9-9	-	-	-
		2차 성징	-	-	-	D9-10, 11	D9-10, 11	D9-8 ~9
		신체적 자아상	-	-	-	-	J3-21 ~25	J3-17~ 21
		체중에 대한 인식 및 체중조절경험						J3-22~ 23
	질환 및 치료	장애 판정 여부	D62	D9-4	D9-4	D9-4	D9-4	D9-4
		장애 판정 유형	D62	D9-4	D9-4	D9-4	-	D9-4
		장애 판정 급수	D62	D9-4	D9-4	D9-4	D9-4	D9-4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응급실 치료 여부	D59	D9-2	D9-2	D9-2	D9-2	D9-2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응급실 치료 횟수	D59-1	-	-	-	-	-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응급실 치료 이유	-	D9-2	D9-2	D9-2	D9-2	D9-2
		통원 치료 횟수	D61	-	-	-	-	-
		입원 치료 여부	D60	D9-3	D9-3	D9-3	D9-3	D9-3
		입원 치료 기간	D60-2	-	-	-	-	-
		입원 치료 횟수	D60-1	-	-	-	-	-
		입원 치료 이유	D60-3	D9-3	D9-3	D9-3	D9-3	D9-3
		항생제, 진통제/해열제 복용 여부 및 횟수, 마지막 복용시기_출생 후	K39	-	-	-	-	-
		항생제, 진통제/해열제 복용 여부 및 횟수, 마지막 복용시기_최근	K40, 41, 43	K33, 34	-	-	-	-
		만성 질환 (진단여부, 최초진단일)	D63	D9-5	D9-5	D9-5	D9-5	D9-5
		만성 질환별 상담 또는 병원 치료 여부	-	D9-5	D9-5	D9-5	D9-5	D9-5
		심리사회적 질환 (진단여부, 최초진단일)	D63	D9-6	D9-6	D9-6	D9-6	D9-6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상담 또는 병원 치료 여부	-	D9-6	D9-6	D9-6	D9-6	D9-6
		천식 관련	K1~4-2 ,46	K1~4-2	-	-	-	E2~5
		모세기관지염 관련	K5-5-2	-	-	-	-	-
		알레르기 비염 관련	K6-10-1	K5-9-1	-	-	-	E6~9
		아토피 피부염 관련	K11~1 4-1	K10~1 3-1	-	-	-	E10~ 12
		식품 알레르기 관련	K15~1 7-1	K14~1 6-1	-	-	-	-

대분류	중분류	변인명(소분류)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아나필락시스 또는 쇼크 경험	K18	K17~17-2	-	-	-	E13,13-1
인지 및 언어 발달	인지 발달	문제해결[K-ASQ]	-	-	-	-	-	-
		(수행)창의성 [유아 도형 창의성 검사]	-	-	J7	-	-	-
		집행기능	E4/L10	E6	E2	E2	-	J3-7
		(수행)다요인지능[M-FIT]	-	D14	-	-	-	-
	언어 발달	(수행)수용어휘력[REVT]	D70	-	-	-	-	-
		(수행)표현어휘력[REVT]	D70	-	-	-	-	-
		의사소통(화용언어)	-	-	E5	E5	-	-
		비속어 사용	-	-	J6-1	J6-1	J6-1	J6-1
	학습 관련	학업 수행 능력_초등	L9	L2-2	L2-2	L2-2	L2-2	L2-1
		학업 스트레스	-	-	-	J3-15~17	J3-26~28	J3-24~26
		(수행)학업동기[AMT]	-	-	-	-	J8	-
		학습태도	-	-	-	-	-	J3-27
사회 및 정서 발달	자아 발달	자아탄력성	-	-	-	-	J3-7	-
		자아정체감	-	-	-	-	J3-8	-
		자아존중감_초등	J9	J3-1~5	J3-7~11	J3-7~11	-	J3-8-12
		GRIT(끈기)	-	-	-	J3-18~25	-	J3-28~35
		자율성	-	-	-	-	J3-15-19	-
		(수행)성격[NEO]	-	-	-	-	J7	-
		사이버 비행 인식	-	-	-	J2-41~46	-	J2-26~31
	정서발달	주관적 행복감	J4~7	-	-	-	-	-
		전반적 행복감	J8	J2-1~6	J3-1~6	J3-1~6	J3-1~6	J3-1~6
		삶의 만족도	-	-	-	J3-12-14	J3-12-14	J3-13-15
		학교생활느낌	J17~21	J5-4~7	J5-4~7	J5-4~7	-	J5-2~6
		학교 선호도	J14	J5-1	J5-1	J5-1	-	J5-1
		교사 선호도	J23	J5-9	J5-9	J5-9	-	J5-7
		과목 선호도	J15,16	J5-2,3	J5-2,3	J5-2,3	J5-1	J5-8
		시간사용 만족도	-	-	J2-2-9	J 2-2-9	J2-2-9	J2-1~8
	사회성 발달	문제행동[CBCL 6-18]	D71	-	D14	-	D14	-
		문제행동[TRF]	-	-	-	-	D13	-
		친구 수	J10	J4-1	J4-1	J4-1	J4-1	J4-1
		친구와의 싸움 빈도	J11	J4-2	J4-2	J4-2	-	-
		친구와의 놀이 빈도_주말	J12	J4-3	J4-4	J4-4	-	-
		친구와의 놀이 빈도_학교 밖	J13	J4-4	J4-3	J4-3	-	-
		전반적 학교적응_초등	D16	D6-10	D6-10	-	-	-
		학교적응_초1-4	L11	L2-1	L2-1	L2-1	-	-

대분류	중분류	변인명(소분류)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학교적응_초5-6	-	-	-	-	J5-2	J5-9
		강점/난점 (정서증상, 행동문제, 과잉행동/부주의, 또래문제, 사회지향)	-	L2-3-8	L2-3	L2-3-8	-	-
		또래애착	-	-	J4-5~13	J4-5~13	-	J4-3~11
		상대적 박탈지수(가정형편)	-	-	-	J2-11	J2-11	J2-10
		이성관계	-	-	-	J4-14	J4-14	J4-2
		집단괴롭힘	-	-	-	J5-20 ~26	J5-20 ~26	J5-20~ 27
		사이버폭력	-	-	-	-	J5-27 ,28	J5-28~ 29
	미래 /진로	미래희망모습	J24	J6-2	J6-3	J6-3	J6-3	J6-3
		미래희망직업	-	-	J6-2	J6-2	J6-2	J6-2
		진학기대_초등	J25	-	-	-	-	J6-4
		미래에 대한 인식	-	-	-	-	J3-20	J3-16
	사회 관련 인식	결혼관	-	-	-	J6-4	J6-4	J6-5
		자녀관	-	-	-	J6-5	J6-5	J6-6
		공동체 의식	-	-	-	J6-6~ 11	-	J6-7~ 12
		안전의식 및 대처						J6-13~ 17

다. 부모 특성

부모 특성에서는 어머니, 아버지의 연령 및 학력, 학업 및 취업 등 개인적 특성을 비롯하여,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의 심리적 특성, 부부 만족도, 부부갈등과 같은 부부 특성, 성취압력 및 부모 감독 등의 양육 특성 등을 조사한다.

〈표 Ⅱ-3-3〉 부모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변인명(소분류)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인구학적 특성		생년월일(생성변수: 연령)	D1-3, 2-3	-	-	-	D2-3, 11-4-5	D2-3, 표지
		최종학력	D1-4, 2-4	D2-4	D2-4	D2-4	D2-4	D2-4
		동거 여부	D1-6, 2-6	D2-6	D2-7	D2-7	D2-7	D2-7
		비동거 이유	D1-7, 2-7	D2-7	D2-8	D2-8	D2-8	D2-8
개인 및	심리적 특성	우울	F8/E11	-	F6/E 10	-	F5/E7	-

대분류	중분류	변인명(소분류)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부부 특성		자아존중감	F9/E12	F9/E11	-	F6/E10	-	F7/E19
		성격	-	-	-	-	-	F3/E15
		주관적 행복감	F10/E13	F10/E12	F7/E11	F7/E11	F6/E8	F8/E20
		일상적 스트레스	F11/E14	F6/E8	F3/E7	F3/E7	F2/E4	F4/E16
		삶의 만족도	F12/E15	F7/E9	F4/E8	F4/E8	F3/E5	F5/E17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F20 /D8	F18 /D4-1	F16 /D4-1	F16 /D4-1	F15 /D4-1	F17 /D4-1
		자기조절(정서조절곤란)	-	-	-	-	-	F3/E15
		행동유형	-	-	-	-	-	F3/E15
		미디어중독	-	-	-	-	-	F18/E25
	부부 특성	결혼 상태	D1-1. 2-1	D2-1	D2-1	D2-1	D2-1, 11-4-3	D2-1
		결혼일(생성변수: 결혼상태 유지기간)	D1-2, 2-2	-	-	-	D2-2, 11-4-4	D2-1, 표지
		결혼 만족도	F2/E9	-	F2/E6	-	F1/E3	F2/E14
		부부 갈등	F3/E10	F5/E7	-	F2/E6	-	-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	주관적 건강 상태	F13/E16	F8/E10	F5/E9	F5/E9	F4/E6	F6/E18
	질환 및 장애	장애 유무	D1-5, 2-5	D2-5	D2-5	D2-5	D2-5	D2-5
		알레르기질환 병력	K49	K40	D2-6	D2-6	-	-
	음주 및 흡연	음주 여부/횟수	F14/E17	F11/E13	F8/E12	F8/E12	F7/E9	F9/E21
		음주 양	F15/E18	F12/E14	F9/E13	F9/E13	F8/E10	F10/E22
		과음 횟수	F16/E19	F13/E15	F10/E14	F10/E14	F9/E11	F11/E23
		음주 시 홍조 여부	-	-	-	-	-	-
		흡연 여부	F17/E20	F14/E16	F11/E15	F11/E15	F10/E12	F12/E24
		하루 흡연량	F17/E21	F14/E16	F11/E15	F11/E15	F10/E12	F12/E24
직업 특성	일반적 특성	취/학업상태	F18 /D3	F15 /D3-1	F12 /D3-1	F12 /D3-1	F11 /D3-1	F13 /D3-1
		희망 근로 형태	D4	-	-	-	-	-
		시간제 희망 이유	D4-1	-	-	-	-	-
		취업 이유	D3-1	-	-	-	-	-
		미취업(학업) 이유	D3-2	-	-	-	-	-
	취업 특성	재직 상태	D5	D3-2	D3-2	D3-2	D3-2	D3-2
		직장 변동 여부	F19 /D5-1	F16 /D3-3	F13 /D3-3	F13 /D3-3	F12 /D3-3	F14 /D3-3
		(생성변수: 직업군(대·중·소분류))	F19-1 ~4/D5 -2-5	F17-1 ~4/D3 -4-7	F14-1 ~4/D3 -4-7	F14-1 ~4/D3 -4-7	F13-1 ~4/D3 -4-7	F15-1 ~4/D3 -4-7
		종사상 지위	F19-5 /D5-6	F17-5 /D3-8	F14-5 /D3-8	F14-5 /D3-8	F13-5 /D3-8	F15-5 /D3-8

대분류	중분류	변인명(소분류)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근무 일 수	D6-1	D3-9	D3-9	D3-9	D3-9	D3-9
		근무 시간	D6-2	D3-9	D3-9	D3-9	D3-9	D3-9
		왕복 출퇴근 시간	D6-3	D3-9	D3-9	D3-9	D3-9	D3-9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D7	D3-10	D3-11	D3-11	D3-11	D3-11
양육 특성	부모 됨	후속 출산 계획 여부	E2	-	-	-	-	-
		후속 출산 계획 자녀 수	E2-1	-	-	-	-	-
		후속 출산 미계획 사유	E2-2	-	-	-	-	-
		이상 자녀 수	F1/E3	-	-	-	-	-
		이상 자녀 수_성별 구성	F1-1 /E3-1	-	-	-	-	-
	양육관	교육열	-	F3/E3	-	-	-	-
	양육 실제	양육 행동(온정적, 통제적)	F5/E6	-	-	-	-	-
		양육 행동(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	-	F1/E1	1F/1E	-	-
		양육 스트레스	F4/E5	-	-	-	-	F1/E1
		양육 효능감	-	F1/E1	-	-	-	
		성취압력	-	-	-	J2-19 ~33	J2-19 ~33	J2-32 ~46
		부모애착	-	-	-	-	J2-34 ,35	-
		아동학대	-	-	-	-	J2-51 ,52	J2-47 ~48
		부모 공동양육 (가족통합, 훈육, 비난, 갈등)	F6/E7	F4/E4	-	-	-	-
		부모-자녀 상호작용	F7/E 8	F2/E 2	-	-	-	-
		보호자가 인식한 친구 수	D17	D6-11	D6-11	D6-11	D6-11	D6-11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D33	D7-5	D7-5	D7-5	D7-5	D7-5
		부모 감독	D34	D7-6	D7-6	D7-6	D7-6	D7-6
		부모의 학업 관심도	J22	J5-8	J5-8	J5-8	-	-
		학습에 대한 부모 참여	-	-	-	-	D6-29	D6-27
		숙제 시 도움 정도	D25	D6-16	-	-	-	-
		숙제 시 도움 제공자	D25-1	D6-17	-	-	-	-
	지원 특성	사회적 지원 정도	D12	D5-1	D5-1	D5-1	-	D5-1
		사회적 지원 인원	D12-1	D5-2	D5-2	D5-2	-	D5-2

라. 가구 특성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아동, 부모 및 개개인의 특성이 아닌 가구 전체의 특성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에는 가구 구성 인원 및 형태, 가족 질환력 등의 인구학적 특성과 더불어 생활하는 주거 및 실내 환경, 경제적 특성 등이 포함된다.

〈표 Ⅱ-3-4〉 가구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변인명(소분류)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인구학적 특성	가구 구성 및 구성원 특성	가구 구성 형태	D55	D11-2	D11-2	D11-2	D11-2	-
		패널아동-부모 동거 여부	D54	D11-1	D11-1	D11-1	D11-1	-
		패널아동의 조부모, 친인척, 기타 가구원 수(생성변수: 가구원 수)	D55	D11-2	D11-2	D11-2	D11-2	D11-1
		패널아동의 손윗 형제자매 출생년도	D56-1	D11-3	D11-3	D11-3	D11-3	D11-2
		패널아동의 손윗 형제자매 성별	D56-2	D11-3	D11-3	D11-3	D11-3	D11-2
		패널아동의 손윗 형제자매 결혼여부	D56-3	D11-3	D11-3	D11-3	D11-3	D11-2
		패널아동의 동생 출생년도	D57-1	D11-4	D11-4	D11-4	D11-4	D11-3
		패널아동의 동생 성별	D57-2	D11-4	D11-4	D11-4	D11-4	D11-3
		패널아동의 동생 입적사유	D57-3	D11-4	D11-4	D11-4	D11-4	D11-3
물리적 특성	주거 환경	거주 주택 유형	K23	-	-	-	-	-
		패널아동의 개별 방 여부	D18	D6-12	D6-12	-	D11-6	D11-5
		습기 여부	K33	K25	-	-	-	-
		장소별 습기 정도	K34	K26	-	-	-	-
		곰팡이 여부	K35	K27	-	-	-	-
		집의 연식	K22	-	-	-	-	-
		난방 형태	K24	-	-	-	-	-
		바닥재	K25	-	-	-	-	-
		주방 유형	K26	-	-	-	-	-
		리모델링 여부	K28	K21	-	-	-	-
		리모델링 종류	K28-1	K21-1	-	-	-	-
	생활 환경	플라스틱 용기 사용 여부	K19	-	-	-	-	-
		플라스틱 용기 사용 형태	K19-1	-	-	-	-	-
		플라스틱 용기 따뜻한 음식 보관 여부	K19-2,3	-	-	-	-	-
		음료수 용기	K21-1	-	-	-	-	-
		환기 시간	-	K19-1	-	-	-	-
		환기 횟수	-	K19	-	-	-	-

대 분류	중 분류	변인명(소분류)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공기 청정기 설치 여부	-	K20	-	-	-	-
		공기 청정기 설치 장소	-	K20-1	-	-	-	-
		방향제 또는 디퓨져 사용 여부	K27	K18	-	-	-	-
		방향제 또는 디퓨져 사용 횟수	K27-1	K18-1	-	-	-	-
		가습기 사용 여부	K37	K29, 30	-	-	-	-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	K38	K31, 32	-	-	-	-
		가습기 살균제 사용 종류	K38-1	-	-	-	-	-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	K38-2	-	-	-	-	-
		가습기 살균제 사용 빈도	-	K31-3	-	-	-	-
		애완동물(반려동물) 수_개	K47	K38	-	-	-	-
		애완동물(반려동물) 수_고양이	K48	K39	-	-	-	-
		반려동물 여부	-	-	-	D11-5	D11-5	D11-4
경제적 특성	소득	가구 소득	D45	D10-1	D10-1	D10-1	D10-1	D10-1
		취업 모 근로 소득	D45-1	D10-2	D10-2	D10-2	D10-2	D10-2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D53-1,2	D10-12, 13	D10-12, 13	D10-12, 13	D10-12, 13	D10-12~13
	지출	가구의 소비성 지출	D46-3	D10-3	D10-3	D10-3	D10-3	D10-3
		가구의 비소비성 지출	D46-1	D10-3	D10-3	D10-3	D10-3	D10-3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출	D46-4	D10-3	D10-3	D10-3	D10-3	D10-3
		자녀에 대한 비소비성 지출	D46-2	D10-3	D10-3	D10-3	D10-3	D10-3
		패널아동에 대한 돌봄/양육 비용(초등이후)	-	D10-3	D10-3	D10-3	D10-3	D10-3
		패널아동에 대한 교육 비용(초등이후)	-	D10-3	-	D10-3	D10-3	D10-3
		용돈 지급 여부	D47	D10-4	D10-4	D10-4	D10-4	D10-4
		용돈 지급액	D47-1	D10-5	D10-5	D10-5	D10-5	D10-5
		용돈 사용처	-	-	-	D10-5-1	D10-5-1	D10-5-1
	자산 및 부채	부동산	D48	D10-6	D10-6	D10-6	D10-6	D10-6
		금융자산	D49	D10-7	D10-7	D10-7	D10-7	D10-7
		부채 여부	D50	D10-8	D10-8	D10-8	D10-8	D10-8
		부채액/월 상환액	D50-1	D10-9	D10-9	D10-9	D10-9	D10-9
		가구의 경제적 걱정 빈도	-	-	J2-10	J2-10	J2-10	J2-9
가정환경 특성	가정환경의 질	가정환경의 질[HOME_MC]	D69	D13-1~59	D13-1~59	-	-	-
	가족 생활	가족 상호작용(균형 있는 응집성, 유연성)	-	E5	-	-	-	-
	유해 환경 노출	간접 흡연	K36	K28	-	-	-	-

마. 보육/교육/학교서비스 특성

보육/교육/학교서비스 특성은 영유아기에는 육아지원기관 특성으로, 학령기 이후부터는 학교 특성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8차년도 조사부터는 아동이 진학한 학교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다. 학교 조사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운영과 같은 학교 특성, 교사의 업무 및 학급 운영에 관한 교사 특성, 가정 연계와 관련한 연계 관련 항목을 포함하며, 아동 보호자(주로 어머니)의 응답과 아동의 담임교사에 의한 자기보고식 온라인조사를 통해 실시된다.

〈표 Ⅱ-3-5〉 보육/교육/학교서비스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변인명(소분류)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돌봄서비스	이용특성	(학기 중, 방학 중) 돌봄서비스 이용 유형	D29-1,2	D7-1	D7-1	D7-1	D7-1	D7-1
		(학기 중, 방학 중)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	D30-2,4	D7-1	D7-1	D7-1	D7-1	D7-1
		(학기 중, 방학 중) 돌봄서비스 이용 빈도	D30-1,3	D7-2	D7-2	D7-2	D7-2	D7-2
		(학기 중, 방학 중)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D31-1,2	D7-3	D7-3	D7-3	D7-3	D7-3
		(학기 중, 방학 중)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D32-1,2	D7-4	D7-4	D7-4	D7-4	D7-4
학교	이용특성	학교 진학 여부	D13	D6-1	D6-1	D6-1	D6-1	D6-1
		대체이용기관_초등	D13-2	D6-3	D6-3	D6-3	D6-3	D6-3
		미진학 이유	-	-	-	-	D6-2	D6-2
		결석 여부	D15	D6-9	D6-9	D6-9	D6-9	D6-9
		결석 이유	D15-1	D6-9	D6-9	D6-9	D6-9	-
		전학 여부	-	D6-7	D6-7	D6-7	D6-7	D6-7
	학교특성	설립 유형_초등	D14/L34	D6-8/L1-2	D6-8/L1-2	D6-8/L1-2	D6-8/L1-2	D6-8/L1-2
		시범학교 유형	-	-	-	L1-2-1	L1-2-1	L1-2-1
		등교 시간	L36	-	-	-	-	-
		무상 급식 여부 및 장소	L8	-	-	-	-	-
		특색사업 해당 여부	L35-1	-	-	-	-	-
		아동 발달에 도움 정도	L35-2	-	-	-	-	-
		학교장의 지도성	L16	-	-	-	-	-

대분류	중분류	변인명(소분류)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학교폭력발생정도	-	-	-	L1-5	-	-
	물리적 특성	학급 수	L1-1	L1-1	L1-1	L1-1	L1-1	L1-1
		학급 학생 수	L1-2	L1-1	L1-1	L1-1	L1-1	L1-1
		학교 환경	L7	L1-3	L1-3	L1-3	L1-3	L1-3
		교사 대 아동 비율 인식	L2, 2-1	-	-	-	-	-
		교실 크기 적절성	L3	-	-	-	-	-
		특별실 및 기타 시설 구비 여부	L6-1	-	-	-	-	-
		특별실 및 기타 시설 구비 환경 인식	L6-2	-	-	-	-	-
		리모델링 여부_학교나 학원	K29	K22	-	-	-	-
		리모델링 종류_학교나 학원	K29-1	K22-1	-	-	-	-
		교육시설 만족도	-	-	-	L1-4	-	-
	교사 특성	교사 성별	L27	L6-3	L6-1	L6-1	L6-1	L5-1
		교사 연령	L28	L6-4	L6-2	L6-2	L6-2	L5-2
		교사 경력	L29	L6-5	L6-3	L6-3	L6-3	L5-3
		해당 학년 담임 경력	L30	-	-	-	-	-
		교사 근무 시간/근무 일	L31-1~3	L6-6	L6-4	L6-4	L6-4	L5-4
		교사 최종학력	L32	L6-8	L6-5	L6-5	L6-5	L5-5
		교사 직위	L33	-	-	-	-	-
		업무 스트레스	L19	L5-1	L5-1	L5-1	L7-1	L6-1
		교직 동기	L14	-	-	-	-	-
		동료 교사 태도 인식	L15	-	-	-	-	-
		교사 효능감_초등	L17	L6-2	-	-	-	-
		교직 만족도	L18	-	-	-	-	-
		교사 내적 특성	-	L6-1	-	-	-	-
	학급 운영	초등 돌봄 교실 참여 정도	L4	-	-	-	-	-
		통합학급 학생 여부	L5	-	-	-	-	-
		수업 활동	L20	-	-	-	-	-
		과제 부과 정도	L21	-	-	-	-	-
		과제량 적절성	L22-1	-	-	-	-	-
		과제 소요 예상 시간	L22-2	-	-	-	-	-
		교사-아동 관계	-	L3-1	L3-1	L3-1	L3-1	L3-1
		창의적 학교 환경	-	-	J5-10~19	J5-10~19	J5-10~19	J5-10~19
	유아-	유아기 발달 특성에 대한	L23-1	-	-	-	-	-

대분류	중분류	변인명(소분류)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초등 연계	인지 정도						
		유아-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 필요성	L23-2	-	-	-	-	-
		생활기록부 연계의 도움 정도	L24	-	-	-	-	-
		연계 관련 연수 여부	L25	-	-	-	-	-
		학기 초 적응활동 도움 정도	L26	-	-	-	-	-
	가정 협력	등·하교길 동반 빈도	F22/ E24	-	-	-	-	-
		학교 행사 참여 여부(부모)	F23/ E25	D7-7	D7-7	D7-7	D7-7	L4-1 /D7-7
		학교 행사 참여 여부(교사)	-	L4-1	L4-1	L4-1	L4-1	L4-1
		학교 행사 참여 빈도	F24/ E26	-	-	-	-	-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	L12	L4-2	L4-2	L4-2	L4-2	L4-2
		부모의 행사 참여 필요성	L13	-	-	-	-	-
사교육 특성	이용 특성	교육서비스 이용 기관	D36	D8-1	D8-1	D8-1	D8-1	D8-1
		교육서비스 이용 종류	D35	D8-1	D8-1	D8-1	D8-1	D8-1
		교육서비스 이용 시간	D37	D8-2	D8-2	D8-2	D8-2	D8-2
		교육서비스 이용 만족도	D38	D8-3	D8-3	D8-3	D8-3	D8-3
		교육서비스 이용 월평균 교육 비용	D39	D8-4	D8-4	D8-4	D8-4	D8-4
		교육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 정도	D40	D8-5	D8-5	D8-5	D8-5	D8-5
	이용/ 미이용 이유	교육서비스 미이용 이유	D35-1	-	-	-	-	-
		교육서비스 이용 이유	D41	-	-	-	-	-
		영어 교육서비스 이유	D 42	-	-	-	-	-
	사교육 인식	아동이 인식하는 교육서비스	-	-	-	-	J3-3 0~33	J3-36 ~39

바. 지역사회 특성

한국아동패널은 아동의 발달 및 성장과 관련된 가족의 적극적 참여와 요구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구체화·다양화된다는 관점에서 해당 아동이 생활하는 지역권과 지역의 교통 및 산업 특성 등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사회 인프라로 공공 여가 공간·시설, 문화시설, 교육 기관의 이용 만족도와 편리성, 지역사회의 치안 및 안전사고 등을 조사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표 II-3-6〉 지역사회 특성 조사변인

대 분류	중 분류	변인명(소분류)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일반적 특성	가구 특성	패널아동 출산 후 이사 횟수	D표지	D표지	-	D표지	D표지	D표지
		지난 조사 후 이사 횟수	-	-	-	-	D표지	D표지
		거주지역 유형	E21	-	-	-	-	-
		거주지역 규모, 6개 권역 구분, 17개 시/도 구분, 시/군/구	D표지	D표지	D표지	D표지	D표지	D표지
	교통과 산업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의 차선	K31	K24	-	-	-	-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의 거리	K30	K23	-	-	-	-
		도로의 통행량	K32	-	-	-	-	-
양육 환경	교육·복지·의료	교육·의료·복지 시설 접근 편리성 및 이용 만족도	E22	D12-2	D12-2	D12-2	D12-2	D12-2
	문화·여가	문화시설접근 편리성 및 이용 만족도	E22	D12-2	D12-2	D12-2	D12-2	D12-2
		공공 여가 공간·시설 접근 편리성 및 이용 만족도	E22	D12-2	D12-2	D12-2	D12-2	D12-2
	사회안전	양육환경 안전성	E23	D12-1	D12-1	D12-1	D12-1	D12-1

사. 정책 특성

정책 특성은 부모를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및 직장에서의 지원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이용 여부와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현 정책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함되었으며, 지원에 대한 의견 및 정책 수혜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 추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표 II-3-7〉 정책 특성 조사변인

대 분류	중 분류	변인명(소분류)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국가 지원	수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D51	D10-10	D10-10	D10-10	D10-10	D10-10
		양육지원 정책 도움 정도	D44	-	-	-	-	-
		양육지원 정책 수혜 여부	D43	-	-	-	-	-
학교 지원	수혜	학교지원 수혜여부 및 만족도	-	-	D10-15	D10-15	D10-15	D10-15
직장 지원	시행 및 이용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 시행 여부	F21-1 /D9-1	-	-	-	-	-
		출산 및 육아지원	F21-2	-	F15	F15	F14	F14

대 분류	중 분류	변인명(소분류)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제도·방식이용 여부	/D9-2		/D8-10	/D8-10	/D8-10	/D8-10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도움 정도	F21-3 /D9-3	-	-	-	-	-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방식 필요 우선순위	F21-4 /D10	-	-	-	-	-
기타	기타 지원	국가 및 직장 지원이 출산 및 양육환경 향상에 미치는 영향	F21-5 /D11	-	-	-	-	-
		생활비 지원 여부 및 지원처	D52	D10-11	D10-11	D10-11	D10-11	D10-11

4. 가중치 산출

가. 가중치 부여 방법

한국아동패널은 시점별 모집단 현황 및 종단적 변화를 의미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매년 횡·종단면 가중치를 산출하여 그 값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아동패널과 같이 층화 다단계 표본추출에 의해 구축된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e design)의 경우, 표본설계와 조사 차수별 응답 실태를 반영하여 산출한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 과정을 통해 적절한 통계분석이 가능하다.

패널조사는 매년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로, 일시적으로 특정 조사 차수에 참여하지 않거나, 사망, 이민, 강력거절 등의 사유로 패널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표본 마모(Sample attrition)가 발생하여 표본 구성에서 조사 차수별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모집단인 2008년 전국 출생아의 수에도 매년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가중치 보정이 매년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표본설계 시 의료기관과 신생아 가구 추출에 따른 추출확률을 결합하여 계산한 설계가중치를 기초로, 표본 마모 등의 무응답 발생에 따른 모수 추정의 편향을 보정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계수와 사후층화변수에 대한 보정승수를 종합한 횡단면 가중치와 종단면 가중치를 개발하여 제공한다[1].

한국아동패널 산출된 가중치는 우리나라 2008년 신생아 전체의 분포적 특성을

1) 14차년도 횡·종단면 가중치는 한국갤럽 상근 자문위원인 이계오 박사에 의해 산출됨.

나타내므로 모집단의 특성치인 모평균(또는 모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표본가중평균을 사용한다.

$$\bar{y} = \frac{\sum_{h=1}^{L}\sum_{i=1}^{k_h}\sum_{j=1}^{n_{hi}} w_{hij} y_{hij}}{\sum_{h=1}^{L}\sum_{i=1}^{k_h}\sum_{j=1}^{n_{hi}} w_{hij}} = \frac{\sum_{h=1}^{L}\sum_{i=1}^{k_h}\sum_{j=1}^{n_{hi}} w_{hij} y_{hij}}{w_{...}}$$

(h: 지역층, i: 층내 의료기관, j: 표본 가구)

w_{hij} : 각 표본 신생아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

y_{hij} : 각 조사 대상 가구에서 얻은 각종 조사 변수에 대한 관측치들

$w_{...} = \sum_{h=1}^{L}\sum_{i=1}^{k_h}\sum_{j=1}^{n_{hi}} w_{hij}$: 모든 표본 가구에 대한 가중치의 합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타당한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가중치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14차년도 조사자료(1,348 가구 대상)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1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해야 하고, 1~14차년도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967가구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1~1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해야 한다.

나. 14차년도 가중치 보정

가중치 보정을 위해 패널가구의 응답 패턴을 분석하고, 응답 가구와 무응답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패널조사의 가중치 보정을 위해서는 우선 패널가구의 응답 패턴을 분석하는 동시에 조사 누락으로 인한 편향(bias)을 줄이기 위하여 응답 가구와 무응답 가구의 특성상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14차년도 패널가구의 응답 여부에 따른 가구 특성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횡·종단면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1~14차년도 조사 참여 분포는 〈표 Ⅱ-4-1〉과 같다. 우선 원패널[2] 가구 중에서 14차년도 조사까지 모두 참여한 가구는 967가구이며, 원패

2) 원패널: 한국아동패널 1차 조사에 참여한 2,078가구를 의미함.

널 기준 표본 유지율은 46.5%로 전년대비 1.1%p 하락한 수치이다. 2~3차 조사에 신규 추가된 가구를 포함한 전체 패널[3] 기준 대비 표본 유지율은 46.2%였다. 14차년도 조사에서 단조 결측 패턴[4]에 해당하지 않는 무응답 가구를 포함한 전체 패널 대비 응답률은 62.7%로, 13차년도 응답률인 65.0%에 비해 약 2.3%p 낮아졌다.

무응답의 일부는 단조 결측 패턴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횡·종단면 가중치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아동패널의 1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2021년 조사에 참여한 1,348가구, 종단면 가중치는 2008년부터 2021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967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표 Ⅱ-4-1〉 연도별 한국아동패널조사 참여 분포

구분		참여 여부														가구수	%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원패널	전체 조사 성공	O	O	O	O	O	O	O	O	O	O	O	O	O	O	967	45.0
	14차년도 탈락	O	O	O	O	O	O	O	O	O	O	O	O	O	X	56	2.6
	13차년도 탈락	O	O	O	O	O	O	O	O	O	O	O	O	X	X	24	1.1
	12차년도 탈락	O	O	O	O	O	O	O	O	O	O	O	X	X	X	23	1.1
	11차년도 탈락	O	O	O	O	O	O	O	O	O	O	X	X	X	X	23	1.1
	10차년도 탈락	O	O	O	O	O	O	O	O	O	X	X	X	X	X	40	1.9
	9차년도 탈락	O	O	O	O	O	O	O	O	X	X	X	X	X	X	28	1.3
	8차년도 탈락	O	O	O	O	O	O	O	X	X	X	X	X	X	X	22	1.0
	7차년도 탈락	O	O	O	O	O	O	X	X	X	X	X	X	X	X	23	1.1
	6차년도 탈락	O	O	O	O	O	X	X	X	X	X	X	X	X	X	44	2.0
	5차년도 탈락	O	O	O	O	X	X	X	X	X	X	X	X	X	X	37	1.7
	4차년도 탈락	O	O	O	X	X	X	X	X	X	X	X	X	X	X	36	1.7
	3차년도 탈락	O	O	X	X	X	X	X	X	X	X	X	X	X	X	75	3.5
	2차년도 탈락	O	X	X	X	X	X	X	X	X	X	X	X	X	X	89	4.1
2차년도 신규; 조사 성공		-	O	O	O	O	O	O	O	O	O	O	O	O	O	19	0.9
3차년도 신규; 조사 성공		-	-	O	O	O	O	O	O	O	O	O	O	O	O	8	0.4
기타; 14차년도 성공		※	※	※	※	※	※	※	※	※	※	※	※	※	O	354	16.5
기타; 14차년도 탈락		※	※	※	※	※	※	※	※	※	※	※	※	※	X	282	13.1
전체																2,150	100.0

주: 1) 14차년도 조사 성공 사례수는 1,348가구임.
2) '○'는 해당 차수에 참여, 'X'는 해당 차수에 비참여, '-'는 해당 차수에는 표본에 속하지 않았음을, '※'는 단조 결측 패턴이 아닌 경우를 의미함.

3) 전체패널: 한국아동패널은 예비 표본의 합류를 3차년도까지 허용하여, 1차년도(2008년)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2차년도(52가구), 3차년도(20가구)에 신규로 참여한 경우를 모두 포괄하여 총 2,150가구를 전체 패널로 정의함.

4) 단조 결측 패턴(Monotone missing pattern)이란 패널참여 시점부터 꾸준히 조사에 참여하다가 특정 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에 불참하는 것을 의미함.

가중치 산출은 무응답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보정하는 승수와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변수에 대한 보완 가중치를 계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김지현 외, 2021: 247). 첫째, 가중치 산출을 위하여 우선, 무응답에 따른 편향 감소 및 가중치 산출 방안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불참 패널에 대한 무응답 보정을 실시하였다. 무응답 보정은 기존 가중치 산출에 적용했던 무응답 조정 계급(non-response adjustment class)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조사 참여 여부를 종속변수, 가구별로 가장 최근에 조사된 거주지(권역), 어머니 취·학업 여부, 아동의 출생 순위를 설명 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응답확률을 계산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II-4-2〉와 같다.

종단면 데이터의 무응답 패턴에서 3개 설명변수(아동 출생순위, 어머니 취·학업 여부와 거주지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횡단면 데이터의 무응답 패턴에서도 3개 설명변수(아동 출생순위, 어머니 취·학업여부와 거주지역)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도별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중치 보정 과정에는 패널가구의 거주권역, 아동의 출생순위와 어머니의 취·학업 여부 등을 사용하여 무응답 조정 계급을 구성하였다. 거주권역 6개 범주(서울, 경인, 대전·충청·강원·세종,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출생 순위 2개 범주(첫째, 둘째 이상), 어머니의 취·학업 2개 범주(취·학업, 미취·학업)을 기준으로 총 24개 무응답 조정 계급을 구성하고, 각 계급 내 가중 응답률(Weighted response rate)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값의 역수를 무응답 조정 승수로 사용하여 해당 계급 내의 응답 가구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II-4-2〉 14차년도 횡·종단면 자료 무응답 로지스틱 모형 분석 결과

구분	14차년도 횡단면 자료			1~14차년도 종단면 자료		
	df	Wald-x2	p-value	df	Wald-x2	p-value
출생순서	1	1.3738	0.2412	1	1.4820	0.2235
모 취업 여부	1	0.4113	0.5213	1	0.1663	0.6835
지역(권역)	5	5.1286	0.4044	5	5.5547	0.3520

둘째, 모집단의 변동을 반영하고, 패널 마모에 따른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17개 시·도별[5] 만 13세 남·여 아동(주민등록인구 기준)수와 한국아동패널의 해당 범주별 표본 가중치의 합이 일치하도록 하는 사후 층화 보정[6]을 통해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가중치 중에서 이상치(outlier)는 절사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가중치의 분포 관련 기술통계량은 〈표 Ⅱ-4-3〉과 같다.

〈표 Ⅱ-4-3〉 14차년도 최종 횡·종단면 가중치 부여 결과

구분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14차 횡단면 가중치	348.00	282.02	198.73	1,348	39.74	1,013.12
1~14차 종단면 가중치	485.11	399.68	301.36	967	53.87	1,440.86

가중치 산출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은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내 '한국아동패널 사용자 지침서'에서도 안내하고 있으며, 사용자 지침서는 공공데이터가 공개되는 시점인 매해 연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5) 세종시는 충청남도, 제주도는 전라남도로 병합하여 계산함.
6) 사후층화 과정에서 가중치의 사분위수와 사분위수 범위(Inter-Quartile Range; IQR)를 기준으로 $Q_3 + 3IQR$을 넘는 수치를 극단(Outlier)로 간주하고 절사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값이 포함된 계급 내의 다른 가중치들을 절사된 만큼 부풀리는 방식을 적용해 극단적으로 크게 산출된 가중치를 조정함.

III

15차년도(2022년) 조사

01 15차년도 조사내용
02 15차년도 조사준비
03 15차년도 실사진행

Ⅲ. 15차년도(2022년) 조사

1. 15차년도 조사내용

한국아동패널 사업에서는 매년 아동과 주양육자(보호자), 어머니, 아버지, 패널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총 5종 설문지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다. 각 설문지별로 응답자와 조사방법, 소요시간이 상이한데, 먼저 아동용 설문지와 보호자용 설문지는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주로 대면 면접을 통한 TAPI (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하고, 어머니 및 아버지 설문지는 가구방문 전에 우편으로 종이 설문지를 발송하고, 조사원이 가구방문 시 수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교사용 설문조사는 교사 설문조사에 동의한 가구에 한해 해당 교사를 컨택한 후 웹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난 14차년도 조사는 패널아동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청소년 대상 지속문항 도입 등 대대적인 문항 점검 및 변화가 있었던 해이다. 이번 15차년도 조사는 조사의 연속성을 위해 14차년도 조사 문항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전년도 실사 과정에서 이슈가 있었던 문항 등을 재점검하고, 15년간 조사가 지속되면서 누적된 응답자의 피로감을 줄이고 응답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문항의 간편화를 큰 원칙으로 세우고, 최종적으로 문항을 점검하고 확정하였다.

〈표 Ⅲ-1-1〉 15차년도 설문지별 조사내용, 조사방법, 응답자

구분	주요 조사내용	조사방법	응답자
아동용 설문지	- 신체 측정: 신장, 체중, 허리둘레	측정	아동
	- 아동 특성: 생활시간, 미디어 이용시간, 취미, 신체특성, 실내외 활동, 인지 발달, 학습스트레스, 자아 발달, 사회성 발달, 사회 관련 의식, 미래/진로, 학교 환경 및 사교육 인식 등 - 부모 특성: 성취압력, 부모애착, 아동학대 등	TAPI (대면 면접)	아동
보호자용 설문지	- 아동 특성: 인구학적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질환 및 치료 등 - 부모 특성: 부부 특성, 질환 및 장애 등 - 가구 특성: 인구학적 특성, 물리적 특성, 경제적	TAPI (대면 면접)	주양육자 (주로 어머니)

	특성(소득, 지출 등), 가정환경 특성 등 - 학교·사교육 특성: 학교 이용, 사교육 특성,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등 - 지역 특성: 일반적 특성, 양육환경 등 - 정책 특성: 국가적 지원, 교육정책추진 동의 정도 등		
어머니 설문지	- 부모 특성: 개인 및 부부 특성, 신체 및 건강 특성, 양육 스트레스, 직업 특성 등	지필식 기입 (우편 전달, 방문 수거)	어머니
아버지 설문지	- 부모 특성: 개인 및 부부 특성, 신체 및 건강 특성, 양육 스트레스, 직업 특성 등		아버지
교사용 설문지	- 아동 특성: 학업수행능력, 교사와의 관계 - 학교 특성: 물리적 특성, 교사 특성, 학급 운영, 가정 협력 등	Web 기반 설문	담임교사

자료: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Ⅱ). 육아정책연구소. p. 59. 〈표 Ⅲ-1-1〉을 수정 보완함.

가. 아동 특성 조사변인

15차년도 조사(2022년)에서는 중학교 2학년에 접어든 패널아동의 특성을 일상생활 영역, 신체 및 건강 특성 영역, 인지 및 언어발달 영역, 사회 및 정서발달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14차년도 조사 대비 신규로 추가되거나 삭제, 일부 변경된 부분을 다음에 설명하였다.

1) 일상생활 영역

패널아동의 일상생활 영역은 인구학적 특성, 식생활, 미디어, 생활시간, 실내외 활동 등을 조사하는데, 14차년도 조사와 대부분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작년 조사에서 이전에 보호자 설문지에서 조사한 다수의 문항을 아동이 스스로 응답하게 변경하였는데, 14차년도 조사 실사과정에 대다수의 아동이 무리 없이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유지하기로 하였다. ‘컴퓨터 사용능력’ 문항은 격년문항으로 14차년도에 빠졌으나 15차년도에 추가되었다. 일부 문항에서 의미를 분명하기 위한 설명(독서 문항에서 e-book 포함 단어 추가 등)을 추가하였다.

〈표 Ⅲ-1-2〉 14,15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일상생활 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4차 (중1)	15차 (중2)
인구학적 특성		성별, 출생월, 월령, 출생순위*	○	○
일상생활	식생활	식생활 진단	◉	◉
		카페인음료 및 인스턴트식 섭취	◉	◉
		가족과의 식사 횟수	○	○
	미디어	휴대폰(스마트폰) 소유, 미디어 이용 시간 종합	◉	◉
		미디어 이용시간 항목별 세부시간(시간으로 응답)	◉	◉
		미디어기기 중독(부모진단)	-	○
		스마트폰 중독(자가진단)	◉	◉
		컴퓨터 사용 능력(격년)	-	◉
	생활 시간	(주중, 주말) 기상 및 취침 시각, 수면시간	◉	◉
		(주중, 주말) 일과 활동 시간	◉	◉
		여가 및 교제활동별 참여 빈도	○	○
		시간사용만족도	◉	◉
	실내/외 활동	독서량	◉	◉
		실내외 운동 정도	◉	◉
		취미(악기연주,스포츠경험) 여부	◉	◉
		취미 여부 및 종류	◉	◉
	참여	가사 참여 여부	◉	◉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 ◉:아동응답, ■:교사응답)
*: TAPI 면담시 종단값 구현

2) 신체 및 건강 특성 영역

패널아동의 신체 및 건강 특성 영역은 일상생활 영역과 마찬가지로 14차년도 조사문항을 그대로 유지하되, 음주와 흡연 관련 문항을 신규로 추가하는 변화가 있었다. 중2 시기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올해 처음으로 음주와 흡연 경험 여부, 횟수를 조사하기로 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1차년도(2019) 건강설문조사표에서 청소년 건강행태 문항 중 일부를 인용하고, 최종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하였다. 이 외에도 일부 문항에서 의미를 분명하기 위한 설명(시력교정도구 예시에 드림렌즈 추가 등)을 추가하고, 정확한 응답 확보를 위한 이상치 입력 시 확인 문항을 삭제하여(체중 등 신체측정값 확인 문항 등) 응답자의 부담을 덜고자 하였다.

〈표 Ⅲ-1-3〉 14,15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신체 및 건강 특성 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4차 (중1)	15차 (중2)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	체중/신장/허리둘레*	◉	◉
		주관적 건강 상태_보호자 인식	○	○
		시력보정도구 착용 여부, 시기*	○	○
		체력검사 결과(PAPS)	■	■
		2차 성징이 나타난 시작 시기	◉	◉
		신체적 자아상	◉	◉
		체중에 대한 인식 및 체중조절 경험	◉	◉
		체중조절 방법	◉	◉
	질환 및 치료	장애 유형별 판정 여부 및 정도*	○	○
		만성 질환,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시기, 상담 또는 병원 치료 여부*	○	○
		응급실/입원치료여부 및 이유	○	○
	음주 흡연	음주경험 여부, 횟수	-	◉
		흡연경험 여부, 횟수	-	◉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 ◉:아동응답, ■:교사응답)
*: TAPI 면담시 종단값 구현

3) 인지 및 언어발달 영역

인지 및 언어발달 영역의 경우 격년으로 진행되고 있는 집행기능 문항이 15차 조사에 추가되었다. 학업수행능력의 경우 중학교 2학년부터 학교에서 시행하는 시험이 시작되지만, 학교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지역 및 학교마다 출제 난이도가 다를 수 있고, 전국에 있는 패널아동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단위의 시험이 존재하지 않아, 전반적 학업수준을 묻는 중학교 1학년 때 사용하였던 학업수행능력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13차년도에 조사되었던 학습태도 문항은 14차년도에 추가된 자기조절학습문항과 중복의 여지가 있어, 홀수 차수 격년문항이었던 학습태도 문항을 영구삭제하고, 짝수차수 격년문항이었던 자기조절학습문항을 지속문항으로 결정하여 진행하였다.

〈표 Ⅲ-1-4〉 14,15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인지 및 언어 발달 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4차 (중1)	15차 (중2)
인지 및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집행기능(격년)	-	◉
	학습 관련	학업 수행 능력(중등) 1. 국어 2. 영어 3. 수학 4. 사회 5. 과학	■	■
		학업이해도	◉	◉
		과목 선호도	◉	◉
		학업스트레스	◉	◉
		학습태도	-	삭제
		자기조절학습	◉	◉
	언어 발달	비속어 사용	◉	◉

주: 약호설명 (○: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 ◉:아동응답, ■:교사응답)

4) 사회 및 정서발달 영역

사회 및 정서발달 영역은 자아발달, 사회성발달, 미래/진로, 경제·사회 관련 문항이 포함된다. 자아발달 영역에서는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 GRIT(끈기), 자율성' 4개 변수 사이의 관계를 15차년도 조사 변수결정회의에서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 문항의 격년문항으로 12차, 14차 조사에서 진행되었고, 15차년도 조사에서는 제외되었다. 16차년도 조사 변수결정시 자아탄력성 및 자아정체감 변수의 안면타당도 및 신뢰도 등의 검토를 통해 지속 또는 새로운 변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GRIT(끈기)과 자율성 문항은 격년문항으로 15차년도에는 GRIT(끈기)가 추가되고 자율성 문항이 제외되었다.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서는 14차년도 조사에 이어 또래애착, 학교적응, 공감,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인식,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폭력피해/가해 정도, 상대적 박탈지수(가정형편에 대한 인식), 이성관계(이성친구 유무)에 대해 조사하였다. 문제행동은 격년 조사변인이므로 15차년도 조사에서는 측정하지 않았다. 이번 15차년도 조사에서 달라진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공감은 14차년도에는 총 17개 문항(홍예영·김유숙, 2015)으로 조사하였으나 연구진이 해당 데이터로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및 문항-하위영역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신뢰도 수준을 낮추고 다른 문항들과 같은 요인으로 묶여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11번(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13번(나는 다른 사람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도

감정의 동요가 없다) 문항을 삭제하고 총 15개 문항으로 조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하였다. 이성친구의 유무를 묻는 이성관계와 관련하여 15차년도 조사부터는 성인지감수성 혹은 남녀평등의식 등으로 관련 질문을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김지현 외, 2021: 66)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진 논의 결과 현시대를 반영하는 적합한 척도를 찾기가 어렵고 종단으로 이어지는 패널연구에서 조사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되어 관련 변인은 더 이상 추가하지 않기로 하였다.

아동의 미래·진로 영역에서는 미래희망모습과 직업, 진로성숙도, 미래에 대한 인식, 결혼관/자녀관을 조사하였다. 결혼관/자녀관의 경우 결혼의향과 자녀출산의향을 묻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도 추가 조사하는 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선행연구 고찰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혼이나 자녀 출산과 관련하여 명확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인 청소년에게 이유는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경제·사회 관련 영역에서는 저축 여부, 용돈 지급 및 사용, 공동체 의식, 안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공동체 의식은 격년 조사 문항으로 13차년도 조사에 이어 올해 15차년도 조사에 포함되었다. 한편 14차년도 조사까지는 저축여부와 함께 저축금의 출처와 저축 방법을 물었으나 해당 문항이 응답하기에 모호한 점이 있고 변인의 활용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 삭제를 결정하였다. 또한 경제관념이나 아르바이트 여부 등의 변인들은 패널아동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16차년도 조사에서 추가 여부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표 Ⅲ-1-5〉 14,15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사회 및 정서 발달 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4차 (중1)	15차 (중2)
사회 및 정서 발달	자아 발달	자아존중감	◉	◉
		자아탄력성(격년)	◉	-
		자아정체감(격년)	◉	-
		전반적 행복감	◉	◉
		삶의 만족도	◉	◉
		우울	◉	◉
		GRIT(끈기)(격년)	-	◉
		자율성(격년)	◉	-
	사회성 발달	또래애착(의사소통, 신뢰, 소외)	◉	◉
		학교적응 (중·고등학교)	◉	◉
		공감	◉	◉
		사이버 비행(인식)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4차 (중1)	15차 (중2)
		문제행동(격년)	○■	-
		폭력피해(온/오프)	◉	◉
		폭력가해(온/오프)	◉	◉
		상대적 박탈지수(가정형편)	◉	◉
		이성관계	◉	◉
	미래/진로	미래희망모습	◉	◉
		미래희망직업	◉	◉
		진로성숙도	◉	◉
		미래에 대한 인식	◉	◉
		결혼관/자녀관	◉	◉
	경제사회 관련	저축여부	◉	◉
		저축금 출처 및 방법	◉	-
		용돈 지급여부, 지급액	◉	◉
		용돈 사용처	◉	◉
		공동체 의식(격년)	-	◉
		안전에 대한 인식	◉	◉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 ◉:아동응답, ■:교사응답)

나. 부모 특성 조사변인

부모 특성 조사변인의 경우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자신이 응답한 신체적, 심리적 특성, 취업적 특성이나, 아동이 응답한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대한 문항 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대부분의 문항은 14차년도 조사 문항과 동일하다.

다만, 우울 문항, 결혼만족도 문항은 짝수차수 격년문항으로 15차년도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부부갈등 문항은 홀수차수 격년문항으로 15차년도 조사에 포함되었다. 부모가 응답한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변수는 중학생 시에는 성인 없이 있을 수 없는 시기는 지났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으나, 부모의 감독정도를 알 수 있는 부모감독 문항은 남겨두었다. 또한 중학교 2학년 시기를 기점으로 청소년 시기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진과 자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 문항'을 신규 추가하였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문항은 Barnes & Olson(1985)이 개발하고, Olson(2011)이 개정한 FACES Ⅳ의 가족의사소통(FCS)의 한국형 척도(김영식 등, 2012)를 사용하였고, '우리 가족은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만족한다'. '우리가족은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우리 가족은 서로 애정을 표현한다'를 비롯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Ⅲ-1-6〉 14,15차년도 부모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4차 (중1)	15차 (중2)
개인 및 부부 특성	인구학적 특성	연령, 최종학력*	○	○
	심리적 특성	우울(격년)	◑	-
		주관적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	◑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	◑
		자아존중감(격년)	-	◑
		행동유형	◑	삭제
		부모 미디어 중독	-	◑
	부부 특성	결혼 상태, 결혼 상태 유지 기간*	○	○
		결혼만족도(격년)	◑	-
		부부갈등(격년)	-	◑
부모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	◑
	질환/장애	1·2급 장애 유무 및 정도	○	○
	음주 및 흡연	음주 여부, 횟수, 양, 과음 횟수	◑	◑
		흡연 여부, 하루 흡연량	◑	◑
직업 특성	일반적 특성	취/학업 상태*	◑	◑
	취업 특성	재직 상태, 직장 변동 여부, 지위, 직업분류*	◑	◑
		종사상 지위	◑	◑
		근무일수, 근무시간, 출퇴근 소요시간	◑	◑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	◑
양육 특성	양육 실제	양육방식(성취압력)	◉	◉
		부모애착척도(IPPA)	◉	◉
		양육행동(합리적 설명)	◉	◉
		부모 감독	○	○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	삭제
		아동학대	◉	◉
		양육 스트레스	◑	◑
		부모-자녀 의사소통	-	◉◑
		보호자가 인식한 친구 수	○	○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	○	○
	지원 특성	사회적 지원 정도	○	○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 ◉:아동응답, ■:교사응답)
*: TAPI 면담시 종단값 구현

다. 가구 특성 조사변인

가구 특성으로는 가구 구성이나 가구원의 특성을 포함하는 인구학적 특성, 주거 환경 등의 물리적 특성, 소득과 지출에 관한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가구 특성의 경우 대부분 문항의 변동 없이 연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장기 조사로 인해 패널가구의 응답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 활용도가 낮은 변인인 자녀에 대한 소비성·비소비성 지출, 자녀교육비용, 자산 및 부채를 조사하는 문항은 15차년도 조사부터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자녀교육비용의 경우 중요한 변수이나 아동의 사교육 특성을 별도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어 이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였다.

〈표 Ⅲ-1-7〉 14,15차년도 가구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4차 (중1)	15차 (중2)
인구학적 특성	가구 구성	패널아동-부모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	○
		가구 구성 형태, 가구원 수*	○	○
	구성원 특성	성별, 생년월일, 결혼 여부, 합가 사유*	○	○
물리적 특성	주거 환경	○○(이) 개별 방 여부*	○	○
	생활환경	애완동물(반려동물) 여부	○	○
경제적 특성	소득	가구 소득	○	○
		취업 모 근로 소득	◑	◑
		취업 부 근로 소득	◑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가족의 걱정빈도	◉	◉
	지출	가구에 대한 소비성, 비소비성 지출	○	○
		자녀에 대한 소비성, 비소비성 지출	○	삭제
		자녀교육비용	○	삭제
	자산 및 부채	부동산, 금융자산*	○	삭제
		부채 여부, 부채액, 월 상환액*	○	삭제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 ◉:아동응답, ■:교사응답)
*: TAPI 면담시 종단값 구현

라. 학교 및 사교육 특성 조사변인

학교 특성 및 사교육 특성에서는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특성과 사교육 특성을 다룬다. 학교급이 바뀐 14차년도에 조사변인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 이번 15차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변인을 유지하였다.

학교 특성에서는 이용 특성, 학교 특성, 물리적 특성, 교사 특성, 학급 운영, 가정의 협력을 조사하였다. 이용 특성, 물리적 특성은 14차년도 조사와 동일하며, 학교 특성에서는 학교의 분위기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학교 풍토 변인과 학생들의 문제 및 일탈 행동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학교 비행 변인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풍토는 2019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의 학교풍토 측정 문항으로, 열심히 가르치려는 의지, 교사들 간의 신뢰와 협력 등의 교사풍토 5문항, 학교에 대한 자부심, 선생님에 대한 예의 바른 태도, 학교생활을 잘 하려는 의지 등의 학생풍토 문항 5문항,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학부모의 지원, 학교 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참여 및 지원 등 학부모 풍토 3문항을 포함한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서민희 외, 2020). 이중 우리 연구에서는 교사풍토에서 개인의 내재적 심리특성을 묻는 문항은 집단특성으로 대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전문가 자문 의견에 따라 해당 문항을 제외하고 총 12문항을 신규 추가하였다. 학생 비행은 서울교원종단연구 2020 1차년도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문제(일탈)행동으로 인해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 자주 발생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문제(일탈)행동을 통제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의 두 문항을 추가하였다(정송·노언경, 2021).

교사 특성으로 성별, 연령, 최종학력, 경력, 근무시간, 담당 과목, 업무스트레스 등의 기존 문항을 유지하고 교사 효능감에 대한 문항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교사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변인을 추가하여 교사 특성을 일부 보완하자는 의견에 따라 교사 열의, 교사 효능감, 교직 만족도, 교사 소진 등의 척도를 다방면으로 살펴보았고, 검토 끝에 교사 효능감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교사 효능감은 경기교육종단연구(GEPS)의 6차년도 중학교 설문의 9문항을 사용하였다(경기도교육연구원, 2017).

학급운영 특성에서는 교사-아동 관계 변인은 그대로 유지하고 창의적 학교 환경

변인은 삭제하였다. 창의적 학교환경 문항이 학교 적응 문항과 유사도가 높고 해당 도구의 활용 대상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인 점에 근거하였다.

가정 협력에 대한 조사는 부모의 행사 참여 여부(부모), 부모의 학교 행사 참여 정도,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의 문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신규 문항으로 부모의 학교 상담 참여 정도를 추가하였다. 전년도에 보호자에게 물었던 진학 계획과 고교 진학유형은 올해는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중학교 3학년 시기인 16차년도 조사에 다시 질문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사교육 특성은 이용 특성과 사교육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14차년도 조사와 동일한 변인과 문항을 사용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표 Ⅲ-1-8〉 14,15차년도 학교 및 사교육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4차 (중1)	15차 (중2)
학교	이용 특성	학교 진학 여부, 대체 이용 기관	○	○
		미진학 사유	○	○
		전학 여부	○	○
	학교 특성	학교 유형_중학교	○■	○■
		남녀공학여부	■	■
		시범학교 유형	■	■
		학교 서비스 만족도	○	○
		학교 풍토	-	■
		학생 비행	-	■
	물리적 특성	학급 수, 학급 학생 수	■	■
		학교 환경	■	■
	교사 특성	성별, 연령, 최종학력, 교사 경력, 근무 시간	■	■
		교사 담당 과목	■	■
		업무 스트레스	■	■
		교사효능감_중고등		■
	학급 운영	교사-아동 관계	■	■
		창의적 학교 환경	◉	삭제
	가정 협력	부모의 행사 참여 여부(부모)	○	○
		부모의 학교 행사 참여 정도	■	■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	■	■
		부모의 학교 상담 참여 정도		■
		학교생활 연락 정도	■	삭제
		진학계획	○	-
		고교 진학유형	○	-
사교육	이용 특성	이용 종류 및 기관, 시간, 비용, 비용 부담 정도,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4차 (중1)	15차 (중2)
특성		만족도		
		사교육 교재비	○	○
		사교육 이용 이유	○	○
	사교육 인식	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사교육 부담, 사교육 개수 적당)	◉	◉
		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사교육 효과 인식)	◉	◉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 ◉:아동응답, ■:교사응답)

마. 지역·정책 특성 조사변인

지역·정책 특성은 일반적 특성과 양육환경을 포함하는 지역 특성과 국가지원, 기타 지원에 해당하는 정책 특성으로 조사하였다.

지역 특성에서 가구 특성은 14차년도 조사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양육환경 특성의 경우 교육·복지·의료·문화·여가에 대한 문항을 수정하였다. 즉, 13문항으로 나누어 묻던 내용을 공간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지역사회복지시설의 6개 문항으로 재범주화하여 응답 피로도를 줄이는 동시에 지금까지 조사해왔던 문항과의 연결성을 유지하여 종단의 성격이 이어지도록 하였다. 변인명도 기존 '교육·의료·복지 시설, 공공 여가 공간·시설, 문화시설 접근 편리성 및 이용 만족도'에서 '지역시설 편의성 및 이용 만족도'로 통합·간소화하여 수정하였다.

정책 특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구분, 교육정책추진 동의 정도, 생활비 지원 여부 및 지원처를 계속해서 조사하며, 일부 문항은 삭제하였다. 14차년도 조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조사했던 문항(코로나19 대응 정책 만족도, 코로나19 대응 수업운영 방식 및 만족도,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은 올해 별도로 조사하지 않으며 관련 사항을 교육정책추진 동의 정도 변인 안에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한 문항으로 압축하여 포함시켰다.

〈표 Ⅲ-1-9〉 14,15차년도 지역 정책 특성 조사변인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4차 (중1)	15차 (중2)
지역 특성	일반적 특성	가구 특성	지난 조사 후 이사 횟수	○	○
			이사사유	○	○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4차 (중1)	15차 (중2)
			지역 규모, 6개 권역 구분, 시/군/구, 17개 시/도 구분	○	○
	양육 환경	교육·복지·의료 문화·여가	교육·의료·복지 시설, 공공 여가 공간 ·시설, 문화시설 접근 편리성 및 이용 만족도(지역시설 편의성 및 이용 만족도에 포함)	○	삭제
			지역시설 편의성 및 이용 만족도	-	○
		사회 안전	양육환경 안전성	○	○
정책 특성	국가 지원	수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구분	○	○
			교육정책추진 동의 정도	○	○
			코로나19 대응 정책만족도	○	삭제
			코로나19 대응 수업운영 방식 및 만족도	○	삭제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	○	삭제
	기타지원	시행 및 이용	생활비 지원 여부 및 지원처*	○	○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 ◉:아동응답, ■:교사응답)
*: TAPI 면담시 종단값 구현

2. 15차년도 조사준비

15차년도 조사준비에는 15차년도 조사에 사용될 설문지를 확정하고, 조사를 위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IRB)을 받고,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설문지를 태블릿 PC 및 온라인상에 구축하고, 가정에 방문하여 보호자 및 아동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진행할 조사원을 교육하는 과정 등이 포함되었다.

가. 15차년도 설문지 작성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는 패널아동, 패널아동의 보호자(주로 어머니), 패널아동의 어머니, 아버지를 비롯하여 패널아동의 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이러한 다면적인 조사를 통해, 아동 개인의 특성을 비롯하여,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정책 등 다양한 환경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아동의 발달과 환경과의 영향관계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15차년도 조사 역시 이러한 틀을 유지하면서, 중학교 2학년이 된 패널아동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설문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의 연구진 회의와 자문회

의를 통하여 최종 문항을 결정하였다. 중학교 2학년 교사 2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문회의에서는 현재 중2의 학업수행 평가과정 및 전국단위 시험유무 등에 대한 설명 및 중2학생들의 생활 및 학교설문에서 추가할만한 사항들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또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아동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전공 교수 10인을 대상으로 서면자문회의를 실시하여, 논의가 필요한 문항들에 대한 의견을 받아 연구진의 논의 후 최종결정하였다.

14차년도 조사(중학교 1학년 시기)에서 초등시기에 사용되던 문항을 청소년에게 적합한 문항으로 변경하고, 아동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직접 보고하는 자기보고 문항을 늘리는 작업을 진행하여, 15차년도 조사에서는 최소한의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되, 척도간 중복이 있거나 불필요한 확인 문항 등을 삭제하였다. 자세한 문항 변경에 대한 설명은 앞서 3장 1절의 15차년도 조사내용에서 설명하였다.

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미성년자인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5차년도에 확정된 설문내용으로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았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윤리 기구를 말한다[7].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연구계획서의 윤리 및 적합한 절차에 따른 동의 과정, 연구대상자의 안전에 대한 확인, 개인정보 처리 과정 등을 검토하고, 연구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기 전 연구에 참여하면서 겪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위험 및 보상 관련 정보 등에 대하여 IRB 심의를 받아 승인을 받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아동패널 연구 참여자인 아동, 보호자, 어머니, 아버지, 교사에 대해 각각 연구 참여 설명서 및 동의서를 미리 제공하여,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 참여자로서의 조사 시 있을 수 있는 상황에 정보를 획득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2022년 15차 조사에 대한 IRB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 6월 21일자로 승인을 받았다(부록 1).

7) 매경시사용어사전.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31XXXXX19564. (2022년 12월 26일 인출)

다. 조사원 선발 및 교육

한국아동패널과 같은 대규모 장기 종단연구에서 패널가구와 직접 대면하는 조사원의 역할은 조사의 성공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에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조사원의 잦은 변동을 지양하고(전년도 본조사 수행 조사원 투입률 96.4%),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동일조사원 배정 원칙을 고수하였다. 특히, 조사원이 단순히 당일 면접조사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패널가구의 조사 진행 상황, 가구 변동사항 등을 일괄 관리하게끔 하여 패널가구와 원활한 관계를 지속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패널가구의 조사참여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장기간 조사에 참여해온 조사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조사원을 대상으로 초반 성공률, 탈락패널 복구율, 꾸준한 진행률 등 포상기준을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하였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인의 가정방문을 기피하는 패널가구가 증가하여, 외부 카페 등에서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올해 조사부터는 조사원 업무비를 지원하여 조사 진행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다른 패널조사와 달리 조사대상과 방법이 다양하고, 아동이 성장함에 따른 문항변동이 잦은 편이라 조사원 집체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조사 준비단계에서 시행하는 조사원 집체교육을 통해, 조사원들이 각 조사의 방법과 방법, 절차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도록 진행하였다. 15차년도 조사원 집체교육은 2022년 7월 4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6개 권역에서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교육 일정과 세부계획은 〈표 Ⅲ-2-1〉과 〈표 Ⅲ-2-2〉와 같다.

〈표 Ⅲ-2-1〉 15차년도 조사원 집체교육 일정

일시	장소	대상자	
		지역	조사원(수퍼바이저 포함)
2022. 7. 4. (월)	서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22
2022. 7. 5. (화)	부산	부산, 울산, 경남	11
2022. 7. 6. (수)	대구	대구, 경북	10
2022. 7. 7. (목)	대전/광주	대전, 충남, 충북/광주, 전남, 전북	9/8
2022. 7. 8. (금)	제주	제주	1
계			61

〈표 Ⅲ-2-2〉 15차년도 조사원 집체교육 세부계획

시간	일정	세부내용
09:50~10:00	*체온 측정, 출입대장 작성 및 교육 준비	
10:00-10:10	연구진 소개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 소개 및 인사말
10:10~10:20	조사개요	- 15차년도(2022년) 조사개요 - 설문지 종류 설명
10:20~10:50	조사진행 및 코로나19 대응	- 조사준비물 설명 - IRB 관련 동의서 설명 - 조사진행 절차 - 코로나19 대응
10:50~11:00	*환기 및 휴식	
11:00~11:30	조사 시 유의사항 및 패널관리	- 조사원 기본소양 교육 - 조사 시 유의 사항 - 과거 사례 공유 - 패널조사 정의 및 관리방안 공유
11:30~12:00	PAPI(부모) 에디팅 교육 및 담임교사 조사 안내	- 종이질문지 에디팅 - 담임교사 조사 안내 등
12:00~13:10	*점심식사 및 휴식	
13:10~14:10	TAPI(보호자) 에디팅 교육	- 보호자 조사 현장 에디팅 - 문항별 주의사항
14:10~14:20	*환기 및 휴식	
14:20~15:20	TAPI(아동용) 에디팅 교육	- 아동 조사 현장 에디팅 - 문항별 주의사항 - 신체계측 요령 등
15:20~15:50	TAPI 조사 시연 및 실습	- TAPI 진행 절차 및 활용법 - 조사 실습
15:50~16:00	질의응답 및 마무리	

3. 15차년도 실사진행

가. 패널가구 사전 연락 및 패널 유지관리

한국아동패널 사업에는 여름방학부터 하반기까지 진행되는 본조사 외에도 조사를 위한 연락, 패널 유지를 위한 관리 연락이 포함된다. 2022년 15차년도 조사를 위한 한국아동패널 패널관리 업무를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하면 〈표 Ⅲ-3-1〉과 같다.

특별히 15차년도부터는 사춘기에 접어든 패널아동들의 조사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14차년도 조사 과정 중에 수집한 패널아동의 휴대전화를 통해 한국아동패널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오픈하여 운영하였다. 다만, 채널을 추가한 개별 회원의 정보를 운영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품발송이 수반되는 경우는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일반적인

레터링 발송은 문자서비스와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병행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1월에는 카카오톡 채널 개설 및 운영을 위한 패널아동 개인정보 수집동의 안내문이 발송되었고, 2월은 한국아동패널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한 패널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1회 웰컴 기프트가 제공되었다. 퀴즈와 열공간식이 매월 1회 정도 간격으로 진행되는데, 퀴즈는 한국아동패널 조사 관련 간단한 퀴즈를 제출하여 정답자 대상으로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하였다. 연 6회, 회당 50명 규모로 운영하여 최대한 많은 패널아동들이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열공간식 퀴즈는 학교 시험 준비기간에 진행하며 실제 중학교 2학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하여 연 4회, 회당 30명 정답자를 대상으로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하였다. 이 외에도 패널아동 생일날에는 생일축하 레터링 발송, 신학기 시즌에는 신학기 축하 레터링 발송, 아동 대상 가정의 달 선물 발송 등 아동을 중심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패널아동이 보다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덧붙여 초등시기와 비교 시 아동이 응답해야 할 내용이 확연히 증가했고, 중학교 진학 이후 바쁜 스케줄로 인해 아동조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15차년도 조사부터는 패널아동에 대한 답례비를 기존 문화상품권 2만원에서 2만 5천원으로 증액하여 진행하였다.

이번 15차년도 조사에서는 2021년 조사를 기준으로 4년 연속 미참여 67가구를 최종적으로 삭제하고, 1,521가구를 유효표본으로 확정하였다. 확정된 유효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7월부터는 15차년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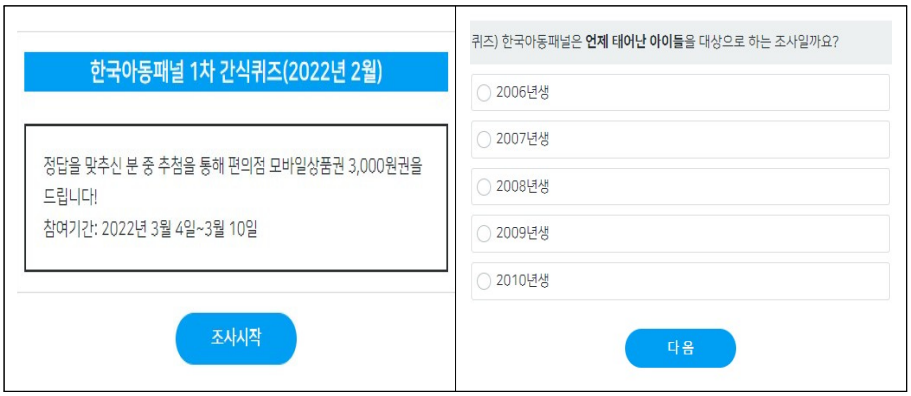
〈표 Ⅲ-3-1〉 2022년 15차년도 조사를 위한 패널가구 연락 일정 및 과정

일정	연락 내용	세부 내용
1월	정보 확인 조사	- 카카오톡 채널 개설 및 운영을 위한 패널아동 개인정보 수집동의 안내문 발송
2월	카카오톡 채널 운영	- 최초 1회 웰컴 기프트 제공
3월	카카오톡 채널 운영	- 새학기 축하 레터링 발송 - 퀴즈 1차 발송 및 경품 제공
4월	카카오톡 채널 운영	- 퀴즈 2차 발송 및 경품 제공 - 열공간식 1차 퀴즈 발송 및 경품 제공
5월	가정의 달 선물 발송	- 전화번호, 주소 등 기초 정보 확인 조사 진행 - 아동 대상 모바일 상품권(편의점 상품권) 선물 발송 *휴대전화번호 미수집 시 카드상품권 우편 발송
	카카오톡 채널 운영	- 퀴즈 3차 발송 및 경품 제공

6월	카카오톡 채널 운영	- 열공간식 2차 퀴즈 발송 및 경품 제공
7월- 11월	조사 실시 및 실사 모니터링	- 조사원과 보호자 시간 약속 후 기간 내 조사 완료 - 실사 현장 모니터링 진행 - 퀴즈 4차, 5차 발송 및 경품 제공(7월, 11월) - 열공간식 3차 퀴즈 발송 및 경품 제공(10월)
12월	경품 추첨 카카오톡 채널 운영	- 카드뉴스 발송 진행 - 퀴즈 6차, 열공간식 4차 퀴즈 발송 및 경품 제공
23년 1월 예정	설 선물 및 경품 추첨	- 연하장 및 설 선물 제공 - 조사 참여 패널가구 대상 경품 추첨 행사 진행
상시	카카오톡 채널 운영	- 생일자 대상 당일 생일축하 레터링 발송

[그림 Ⅲ-3-1] 카카오톡 채널 레터링 이미지

[그림 Ⅲ-3-2] 카카오톡 채널 퀴즈 이미지



[그림 Ⅲ-3-3] 가정의 달 선물

나. 실사 진행과정

15차년도 조사는 2022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각 패널가구에 배정된 담당조사원들은 패널가구와 사전 연락을 통해 조사일정을 잡아서 방문하였다. 사전에 우편발송된 어머니/아버지 대상 종이설문지를 수령하고, 조사원 방문 전까지 작성해둔다.

조사원이 패널가구를 방문하여 대면 면접조사 방법으로 보호자용 설문(TAPI), 아동용 설문(TAPI)을 진행하였다. 아동용 조사는 크게 신체계측과 면접조사로 진행되는데, 초반에 진행되는 신체계측 문항 이후부터는 보호자와 떨어진 장소에서 면접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신체계측 문항도 이전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청소년 시기에 진입한 이후로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호자 지원 없이 조사원과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아동용 설문과 보호자용 설문의 순서는 각 가정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조정하여 진행하고, 당일 2종의 조사(아동용 면접조사, 보호자용 면접조사)를 완료하고, 사전에 작성한 어머니/아버지 대상 종이설문지 2종을 수거해오도록 하였다. 조사원은 어머니/아버지 대상 설문지를 수거하면서 누락된 문항이 없는지 등의 에디팅 과정을 진행하였다.

교사용 설문은 보호자용 면접조사 시에 담임교사 조사수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가정에 한해 해당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원이 가구 방문 시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대한 홍보리플렛, 육아정책연구소장 발행의 편지글, 패널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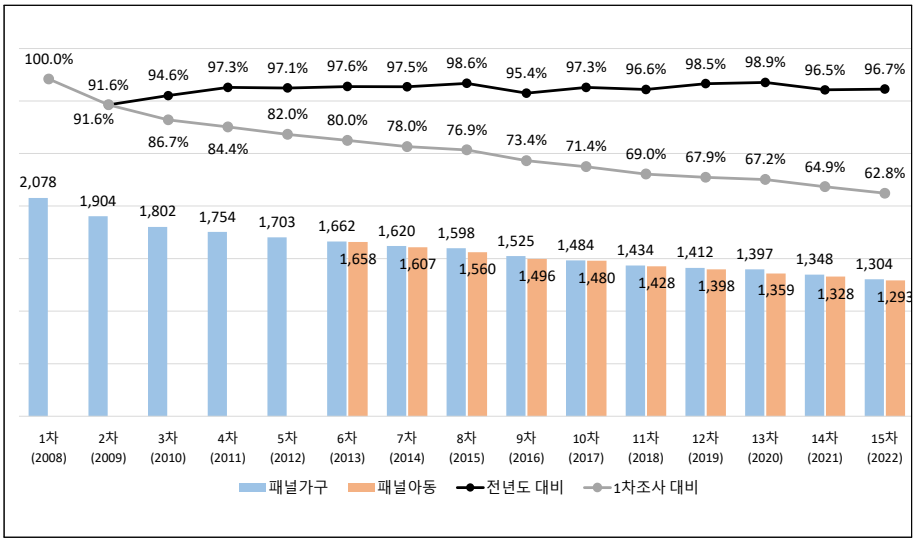
동이 재학 중인 학교장 대상의 공문, 조사참여 안내문 등의 자료세트를 패널아동에게 맡겨 담임교사에게 전달을 부탁하였다. 청소년 시기로 접어든 패널아동의 학교생활 중요도를 감안할 때, 교사 조사 참여율 제고를 위해, 올해 조사에서는 특별히 교사조사에 대한 보호자 동의 단계에서 조사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해당 자료세트를 전달받은 교사는 안내문에 기재된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조사에 참여하는데, 패널아동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고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교사에 한해서는 조사업체에서 추가로 접촉하여 본 조사의 중요성과 필요성, 목적 등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참여를 유도하였다.

2020년부터 이어온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15차년도 조사에서 역시 조사원과 응답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2020년 13차년도 조사에서 기수립한 조사단계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사 전반의 과정이 계획대로 잘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한 가구당 한 연구원만 참여하게 하였다. 수도권지역 1가정, 부산지역 1가정, 대구지역 1가정, 전남지역 1가정, 총 4번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다. 조사 성공률 및 표본 유지율

1차부터 2022년 실시한 15차년도 조사까지의 연도별 조사 참여율은 [그림 Ⅲ-3-4], 〈표 Ⅲ-3-2〉와 같다. 2022년 15차년도 조사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가구는 1,304가구(아동 1,293명)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이는 1차 조사에 참여한 패널 2,078가구의 62.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22년 조사 유효표본 1,521가구 대비 85.7%, 작년조사 수인 1,348명 대비는 96.7%의 유지율을 보였다.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개선되어 기존과 같이 방문면접조사 원칙을 고수하였고, 일부 패널에 대해서만 비대면 조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비대면 조사는 보호자의 경우 종이설문지를 발송한 후 전화면접을 통해 진행하였고, 아동의 경우 이메일 발송을 통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였다. 최종 보호자 3명(전체의 0.2%), 아동 2명(전체의 0.2%)이 비대면으로 참석하였다.

[그림 Ⅲ-3-4] 한국아동패널 2008~2022년 조사 참여율



주: 전년도 대비 조사 참여율 및 전체 패널 대비 조사 참여율 수치는 패널가구 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자료: 김지현·김동훈·조미라·배윤진·김혜진·박은영(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Ⅱ). 육아정책연구소. p. 82. 그림에서 15차 수치 추가한 자료임.

15차년도 조사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호자 응답을 기준으로 서울 167가구, 인천·경기 403가구, 대전·충청·강원 184가구, 대구·경북 140가구, 광주·전라·제주 231가구, 광주·전라·제주를 포함하여 총 1,293가구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아동의 참여수는 지역별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보호자 응답수와 동일하지 않으며, 최종 1,293명의 아동이 참여하여, 보호자 참여 수보다는 11명 정도 적게 응답하였다. 또한, 14차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인천·경기지역의 응답자 이탈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Ⅲ-3-2〉 한국아동패널 2008~2022년 보호자 응답(아동 응답)

단위: 명

패널 현황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계
전체 패널	335	683	281	248	371	232	2,150
1차(2008년)	328	662	272	242	348	226	2,078
2차(2009년)	280	604	275	221	315	209	1,904
3차(2010년)	260	580	251	209	308	194	1,802

패널 현황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계
4차(2011년)	246	562	243	211	299	193	1,754
5차(2012년)	231	553	234	199	291	195	1,703
6차(2013년)	226(224)	532(531)	223(222)	196(196)	287(287)	198(198)	1,662(1,658)
7차(2014년)	223(221)	508(502)	227(224)	188(188)	281(279)	193(193)	1,620(1,607)
8차(2015년)	209(192)	512(492)	226(226)	179(178)	283(283)	189(189)	1,598(1,560)
9차(2016년)	182(177)	481(265)	222(220)	178(176)	277(274)	185(184)	1,525(1,496)
10차(2017년)	175(174)	480(475)	212(212)	170(172)	261(262)	186(185)	1,484(1,480)
11차(2018년)	166(164)	454(450)	211(211)	163(163)	253(253)	187(187)	1,434(1,428)
12차(2019년)	169(163)	438(431)	208(207)	159(158)	251(251)	187(188)	1,412(1,398)
13차(2020년)	172(158)	443(418)	197(199)	157(157)	247(246)	181(181)	1,397(1,359)
14차(2021년)	166(158)	434(425)	184(183)	147(147)	236(234)	181(181)	1,348(1,328)
15차(2022년)	167(162)	403(399)	184(183)	140(140)	231(229)	179(180)	1,304(1,293)

자료: 김지현·김동훈·조미라·배윤진·김혜진·박은영(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Ⅱ). 육아정책연구소. p. 83. 표에서 15차 수치 추가한 자료임.

라. 조사원 간담회 개최

2022년 15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조사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연구진과 조사회사 연구진, 각 지역별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이 참여하였으며, 전국을 권역별로 묶어서 서울, 광주, 대전, 대구, 부산에서 총 5회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주로 당해 연도 조사를 진행하면서 겪은 어려운 점과 특이점, 차년도 조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구체적인 일정과 논의내용은 〈표 Ⅲ-3-3〉, 〈표 Ⅲ-3-4〉와 같다.

〈표 Ⅲ-3-3〉 15차년도 지역별 조사원 간담회 일정

일시	장소	대상자	
		지역	조사원(슈퍼바이저 포함)
2022. 11. 28.	서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18
2022. 11. 29.	광주	광주, 전남, 전북	10
2022. 11. 30.	대전	대전, 충남, 충북	12
2022. 11. 31.	대구	대구, 경북	11
2022. 12. 01.	부산	부산, 울산, 경남	15

구체적으로 조사원 간담회에서는 조사원 간담회날 기준으로 2022년 진행현황

을 공유하고, 패널 컨택과 관련한 내용, 조사내용과 진행 방식, 올해 변경된 부분에 대한 반응, 패널 유지를 위해 연구진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물 및 퀴즈 행사에 대해 가구별 반응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면접원 간담회 논의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Ⅴ장 4절 실사 진행 관련 시사점에서 제시하였다.

〈표 Ⅲ-3-4〉 15차년도 지역별 조사원 간담회 논의내용

구분	내용
2022년 진행현황	- 진행률 공유 - 2022년 특정 특이사항은 없는지, 작년 대비 코로나 관련 변동사항 - 잔여 할당 확인 및 진행 독려
패널 컨택	- 컨택 관련 애로사항 - 거절 의사를 표하는 아동의 증가, 어떤 식으로 응대하고 있는지 - 업무비(다과비) 지원 도입에 대한 의견
패널 유지 활동	- 선물(지급 일정, 품목 등) - 카카오톡 채널(퀴즈, 열공간식 등)
조사 진행	- 조사 분량 - 진행 방식 관련 의견(따로 진행 등) - 이혼 등 예민할 수 있는 문항들 대처 방식 - 담임교사 조사 협조도 - 올해 삭제된 재확인 문항에 대한 반응 - 가구 자산 관련 문항 간소화 등 변경된 문항 관련 의견 - 답례비 증액에 대한 반응 - TAPI 사용 불편사항
기타	- 조사 경험 공유 - 애로사항 - 개선 희망 건의사항

Ⅳ

14차년도(2021년) 조사결과 분석

01 14차년도 조사개요
02 아동 특성
03 부모 및 가구 특성
04 학교 및 사교육 특성
05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Ⅳ. 14차년도(2021년) 조사결과 분석

1. 14차년도 조사개요

가. 14차년도 조사 특성

14차년도 조사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응답자 수는 보호자응답 기준 1,348명, 아동 응답기준 1,328명이었다. 14차년도 조사가 이루어진 2021년은 패널아동이 중학교 1학년으로 진학한 해로, 이로 인한 시간부족,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조사거부 사례가 증가하여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하여 대부분 대면조사로 진행하였고, 코로나19가 극심해진 2021년 12월 후 비대면 조사를 일부 허용하여, 최종적으로 보호자 72명(전체의 5.34%), 아동 8명(전체의 0.59%)에 대해서만 비대면 조사가 이루어졌다. 비대면 조사방법은 보호자는 종이 설문지를 발송하여 전화면접을 진행하였고, 아동은 이메일 발송 후 온라인조사로 진행하였다. 2021년에 조사에 응답한 가구의 지역별 참여방법에 따른 참여자수를 〈표 Ⅳ-1-1〉에 나타내었다.

〈표 Ⅳ-1-1〉 한국아동패널 14차년도 조사 참여가구 수(보호자 응답기준)

단위: 가구

패널 현황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 세종·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	광주·전라 ·제주	계
14차(2021년)	169	430	185	147	236	181	1348
대면	141	388	185	147	235	180	1276
비대면	28	42	-	-	1	1	72

나. 14차년도 조사 응답자 특성[8)]

2021년도에 실시한 14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패널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을 〈표

8) 2021년(14차년도) 일반조사 결과 분석은, 횡단 가중치로 보정하지 않은 원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음.

Ⅳ-1-2〉에 제시하였다. 14차년도 조사 최종 참여자는 패널가구(보호자 응답기준) 1,348가구, 패널아동 1,328명, 어머니 1,343명, 아버지 1,343명이다.

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전체의 51.04%, 여학생이 48.96%였으며, 출생순위별로는 첫째인 경우가 36.20%, 둘째 이상인 경우는 52.89%, 외동아가 10.91%로 나타났다. 14차년도 조사 시 패널아동은 대부분이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며, 패널아동의 평균 월령은 159.84개월(만 13.32세)로 나타났다.

부모 특성으로는 어머니/아버지의 취·학업 상태 및 최종학력을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63.34%, 아버지의 97.51%가 취·학업 상태이며, 최종학력으로는 어머니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이상이 44.68%, 전문대 졸업 28.37%,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95%인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이상이 51.68%, 전문대 졸업 21.30%, 고등학교 졸업 이하 27.03%로 나타났다. 패널아동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은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만 45.06세, 아버지는 만 47.60세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87.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가구원수 4.58명이며, 자녀수 2.22명, 평균 소득 640.73만원, 평균 가구지출 510.63만원을 나타냈다.

〈표 Ⅳ-1-2〉 14차년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아동	구분	어머니	아버지
성별		취·학업 상태		
남	51.04(688)	취·학업 중	63.34(839)	97.51(1137)
여	48.96(660)	미취·미학업 중	36.66(485)	2.49(29)
출생순위		최종학력		
첫째	36.20(488)	대졸 이상	44.68(600)	51.68(694)
둘째 이상	52.89(713)	전문대 졸	28.37(381)	21.30(286)
외동아	10.91(147)	고졸 이하	26.95(362)	27.03(363)
월령		연령		
평균(표준편차)	159.84(1.75)	평균(표준편차)	45.06(3.66)	47.60(3.96)
계(수)	100.00(1348)	계(수)	100.00(1343)	100.00(1343)

구분	가구	구분	가구	
			평균	표준편차
가구 구성 형태				
부모+자녀	87.46(1179)	자녀 수(명)	2.22	0.70
조부모+부모+자녀	8.83(119)	가구원 수(명)	4.58	1.74
조부모+부모+자녀+친척	2.89(39)	가구 소득(만원)	640.73	858.52

구분	가구	구분	가구	
			평균	표준편차
부모+자녀+친척	0.74(10)	가구 지출(만원)	510.63	282.67
기타	0.07(1)	자녀 지출(만원)	196.39	108.65
계(수)	100.00(1348)			

2. 아동 특성

가. 아동 특성 관련 변인 구성

2021년 실시된 14차년도 조사에서 활용된 아동 특성 변인의 내용은 〈표 Ⅳ-2-1〉과 같다. 아동 특성은 인구학적 특성, 일상생활 특성, 신체 및 건강 특성, 인지 및 언어발달 특성, 사회 및 정서발달 특성으로 나뉜다. 패널아동이 중학교 1학년이 된 2021년부터는 아동의 일상생활 및 학습, 사회적 특성 등 아동 일상생활에서 행동하거나 느끼는 대부분의 내용을 아동이 답하였으며, 일부문항의 경우 보호자, 교사의 응답을 통해 수집되었다.

〈표 Ⅳ-2-1〉 14차년도 아동 특성 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 성별, 연령(월령) • 출생순위
일상생활 특성	식생활	• 식생활 진단 • 탄산음료 및 인스턴트식 섭취
	생활시간	• (주중, 주말) 기상 및 취침 시각, 수면시간 • (주중, 주말) 일과 활동 시간, 활동별 참여 빈도 • 시간사용 만족도(대화시간, 식사시간, 여가활동시간, 숙제시간 등) • 가족과의 식사 횟수 • 가사 참여 정도
	실내/외 활동	• 독서량 • 실내외 운동 정도 • 취미(악기연주, 스포츠 경험) 여부 • 취미 여부 및 종류
	미디어	• 미디어 이용(휴대폰 소유, 미디어 이용시간) • 스마트폰 중독(아동 진단), 미디어기기 중독(부모 진단)
	외출/활동 참여	• 여행·연수 빈도 • 문화체험, 예술감상, 종교활동 •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 장보기, 친척 방문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 건강 상태	• 체중, 신장, 허리둘레 • 시력 보정도구 착용 여부, 시기 • 주관적 건강 상태(보호자 인식) • 2차 성징이 나타난 시작 시기 • 신체적 자아상 • 체중조절경험 및 방법 • 체력검사 결과(PAPS)
	질환 및 치료	• 장애 유형별 판정 여부 및 정도 • 만성 질환별 진단 여부, 병원 치료 여부 • 심리사회적 질환별 진단, 치료 여부 • 응급실 치료 여부, 이유, 입원 치료 여부
언어 및 학습 특성	언어	• 비속어사용
	학습	• 학업 수행능력 중등 • 학업 스트레스 • 학업 이해도 • 과목 선호도 • 자기조절학습
사회 및 정서 특성	학교생활	• 학교적응 중고등 • 또래애착 • 이성관계 • 문제행동(CBCL, TRF) • 폭력피해(온/오프) • 폭력가해(온/오프)
	자아개념	•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 • 전반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 자율성 • 우울, 공감 • 사이버비행에 대한 인식 • 경제개념 및 경제행동
	미래/진로	• 미래희망모습 • 진로성숙도
	사회관련 의식	• 결혼관/자녀관 • 안전의식 및 대처

주: 14차 신규문항 밑줄로 표시.

나. 일상생활 특성

1) 식생활

가) 식생활 진단

식생활 진단 문항은 14차년도 조사부터 아동에게 직접 응답을 받았다. 섭취 권장 항목으로, ‘우유나 유제품을 매일 2병 이상 마신다’, ‘육류, 생선, 달걀, 콩, 두부 등으로 된 음식을 끼니마다 먹는다’, ‘김치 이외의 채소를 끼니마다 먹는다’의 문항으로 아동에게 섭취 정도를 질문하였다. 우유/유제품 섭취, 단백질 섭취의 경우 남학생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채소 과일 섭취에 있어서는 남학생, 여학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외 미취업모 자녀의 과일섭취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단백질류 섭취 정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표 Ⅳ-2-2〉 아동의 식생활 진단: 섭취 권장 항목

단위: (명), 점

구분	(수)	우유/유제품		단백질류		채소		과일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1.87	0.75	2.35	0.65	2.24	0.71	2.21	0.77
아동 성별									
남	(677)	1.95	0.77	2.38	0.64	2.25	0.70	2.17	0.76
여	(649)	1.79	0.73	2.31	0.66	2.24	0.72	2.25	0.77
t		3.72***		2.13*		0.35		−1.92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1.87	0.75	2.33	0.65	2.23	0.71	2.18	0.77
미취업	(489)	1.88	0.77	2.38	0.64	2.27	0.71	2.27	0.76
t		−0.29		−1.22		−0.89		−2.12*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5)	1.81	0.74	2.25[a]	0.67	2.15	0.75	2.12	0.78
400초과~550만원	(327)	1.93	0.77	2.36[a]	0.63	2.29	0.69	2.22	0.78
550초과~700만원	(316)	1.90	0.74	2.35[a]	0.66	2.26	0.70	2.25	0.74
700만원 초과	(261)	1.90	0.78	2.39[a]	0.63	2.26	0.73	2.26	0.78
F		1.51		2.71*		2.35		2.10	

주: 1) 아동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그런편이다~3.아닌편이다’로 응답되었지만, 해석의 편의를 위해 모두 역코딩을 실시함).
3)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과잉섭취 자제 권장항목으로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주 2회 이상 먹는다’, ‘지방이 많은 육류 및 생선류를 주 2회 이상 먹는다’, ‘식사할 때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는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과자류, 탄산음료를 간식으로 주 2회 이상 먹는다’에 대해 아동에게 직접 질문하였다. 그 결과 ‘지방 많은 단백질’, ‘짠 음식’은 남학생의 섭취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 소득 700만원 초과의 가구의 자녀

가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가구의 자녀보다 '지방 많은 단백질'의 섭취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섭취자제가 필요해 보인다.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2-3〉 아동의 식생활 진단: 과잉섭취 자제 권장 항목

단위: (명), 점

구분	(수)	튀김/볶음요리		지방 많은 단백질		짠 음식		단순당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2.40	0.63	2.29	0.67	1.54	0.65	2.33	0.70
아동 성별									
남	(677)	2.43	0.62	2.39	0.64	1.62	0.69	2.36	0.70
여	(649)	2.37	0.64	2.17	0.68	1.45	0.60	2.30	0.70
t		1.91		5.98***		4.72***		1.48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2.42	0.62	2.28	0.67	1.56	0.67	2.32	0.70
미취업	(489)	2.37	0.64	2.29	0.67	1.49	0.62	2.35	0.70
t		1.37		-0.20		1.95		-0.65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5)	2.34	0.66	2.18^{a}	0.67	1.60	0.68	2.29	0.72
400초과~550만원	(327)	2.44	0.60	2.27^{ab}	0.66	1.51	0.64	2.37	0.68
550초과~700만원	(316)	2.41	0.65	2.32^{ab}	0.67	1.53	0.65	2.32	0.70
700만원 초과	(261)	2.39	0.64	2.37^{b}	0.68	1.48	0.64	2.33	0.71
F		1.24		4.27**		1.99		0.78	

주: 1) 아동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그런편이다~3.아닌편이다'로, 해석의 편의를 위해 모두 역코딩을 실시함, 높을수록 섭취 높음).
** $p < .01$, *** $p < .001$.

균형잡힌 식생활은 '식사는 매일 세끼를 규칙적으로 한다', '모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한다(편식을 하지 않는다)'의 두 문항으로 아동에게 질문하여 살펴보았다. 균형적인 식사는 2.15/3, 다양한 식품의 섭취는 2.29/3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규칙적이고 다양하게 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취업모의 자녀가 취업모의 자녀에 비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편이었고, 다양한 식품의 섭취는 가구 소득 55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 집단의 자녀가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집단의 자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Ⅳ-2-4〉 아동의 식생활 진단: 균형 잡힌 식생활

단위: (명), 점

구분	(수)	규칙적인 식사		다양한 식품의 섭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2.15	0.79	2.29	0.70
아동 성별					
남	(677)	2.25	0.78	2.35	0.68
여	(649)	2.05	0.79	2.23	0.72
t		4.66***		2.98**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2.10	0.79	2.29	0.71
미취업	(489)	2.24	0.78	2.30	0.69
t		-3.04**		-0.46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5)	2.15	0.82	2.17[a]	0.71
400초과~550만원	(327)	2.05	0.80	2.31[ab]	0.70
550초과~700만원	(316)	2.17	0.78	2.37[b]	0.68
700만원 초과	(261)	2.22	0.73	2.32[ab]	0.70
F		2.57		4.72**	

주: 1) 아동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그런편이다~3.아닌편이다'로, 해석의 편의를 위해 모두 역코딩을 실시함, 높을수록 섭취 높음).
** $p < .01$, *** $p < .001$.

나) 탄산음료 및 인스턴트식 섭취

다음은 탄산음료와 인스턴트식 섭취 빈도에 대해 아동이 직접 응답한 결과이다. 최근 7일 동안의 탄산음료 섭취를 물어본 결과, '주 1-2회'가 56.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최근 7일 동안 마시지 않음'이 23.76%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 차이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주 2-3회', '주 5회 이상' 탄산음료를 섭취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모취업 여부나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2-5〉 아동의 탄산음료 섭취 빈도

단위: %(명)

구분	계(수)	최근 7일 동안 마시지 않음	주 1~2회	주 2~3회	주 5회 이상
전체	100.00(1326)	23.76	56.26	16.52	3.47
아동 성별					
남	100.00(677)	20.53	54.95	19.50	5.02
여	100.00(649)	27.12	57.63	13.41	1.85
$\chi^2(df)$		23.54(3)***			

구분	계(수)	최근 7일 동안 마시지 않음	주 1~2회	주 2~3회	주 5회 이상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0(804)	24.50	54.35	17.16	3.98
미취업	100.00(489)	23.11	59.10	14.93	2.86
$x^2(df)$			3.47(3)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00.00(315)	24.13	55.24	17.14	3.49
400초과~550만원	100.00(327)	20.49	57.49	18.04	3.98
550초과~700만원	100.00(316)	24.05	54.75	17.72	3.48
700만원 초과	100.00(261)	27.97	56.70	12.26	3.07
$x^2(df)$			7.70(9)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01$.

최근 7일 동안의 인스턴트식 섭취 빈도를 물어본 결과, '주 1-2회'가 66.2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주 2-3회'가 23.76%로 나타나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주 5회 이상' 인스턴트식을 섭취한다는 빈도가 3.99%로 나타나고, '주 2-3회' 섭취한다는 비율도 더 높게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인스턴트 섭취 빈도의 경우도 모 취업 여부 및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2-6〉 아동의 인스턴트식(라면, 피자, 치킨, 편의점 음식 등) 섭취 빈도

단위: %(명)

구분	계(수)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음	주 1~2회	주 2~3회	주 5회 이상
전체	100.00(1326)	7.09	66.21	23.76	2.94
아동 성별					
남	100.00(677)	5.17	64.55	26.29	3.99
여	100.00(649)	9.09	67.95	21.11	1.85
$x^2(df)$			16.67(3)***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0(804)	8.33	65.55	23.13	2.99
미취업	100.00(489)	5.11	67.08	24.74	3.07
$x^2(df)$			4.88(3)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00.00(315)	5.08	66.98	24.76	3.17
400초과~550만원	100.00(327)	7.95	63.91	24.46	3.67
550초과~700만원	100.00(316)	7.59	66.46	23.42	2.53
700만원 초과	100.00(261)	8.43	69.35	20.31	1.92

구분	계(수)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음	주 1~2회	주 2~3회	주 5회 이상
$x^2(df)$		6.75(9)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01$.

2) 생활시간

일과 활동시간은 아동이 하루 일과 중 각 영역별로 사용하는 시간을 응답한 것으로 14차년도 조사부터 아동이 직접 응답하였다. 일과 활동시간은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으며, 수면시간, 학교교육시간, 학교 외를 포함한 교육기관 이용시간, 독서시간, 온라인 학습시간, 게임 시간, 스마트폰 이용시간, 여가교재 시간, 가사 돕기 시간 등이 포함된다.

가) 수면

중학교 1학년 패널아동의 취침시각, 기상시각을 주중·주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중 평균 취침시각은 오후 11시 34분, 주중 평균 기상시각은 평균 오전 7시 22분으로 나타났다. 주말 취침시각은 자정을 넘긴 0시 7분으로 주중보다 더 늦게 나타났으나, 주말 기상시각이 오전 9시 13분으로 주중보다 2시간가량 늦게 나타났다. 취침 및 기상시각은 주중 기상시각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취업모의 자녀가 미취업모의 자녀보다 주중 취침시각이 늦고, 주말 기상시각이 늦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이 550만원 초과인 가구의 자녀가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인 가구의 자녀보다 취침시각이 유의미하게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7〉 아동의 기상 및 취침시각

단위: (명), 시:분

구분	(수)	주중				주말			
		취침시각		기상시각		취침시각		기상시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23:34	1.12	7:22	0.77	24:07	1.30	9:13	1.39
아동 성별									
남	(677)	23:23	1.07	7:24	0.73	23:57	1.26	8:56	1.33
여	(649)	23:44	1.14	7:20	0.81	24:16	1.33	9:31	1.39
t		−5.92***		1.72		−4.44***		−7.88***	

구분	(수)	주중				주말			
		취침시각		기상시각		취침시각		기상시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23:37	1.12	7:22	0.76	24:09	1.32	9:16	1.42
미취업	(489)	23:26	1.07	7:22	0.75	24:06	1.23	9:07	1.31
t		2.74**		0.10		1.92		2.01*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5)	23:21[a]	1.13	7:23	0.83	23:58	1.30	9:10	1.40
400초과~550만원	(327)	23:35[ab]	1.10	7:20	0.78	24:08	1.36	9:14	1.46
550초과~700만원	(316)	23:41[b]	1.11	7:21	0.69	24:11	1.26	9:14	1.37
700만원 초과	(261)	23:40[b]	1.11	7:22	0.77	24:12	1.31	9:13	1.33
F		5.81***		0.22		1.94		0.16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취침시각과 기상시각으로 수면시간을 계산한 결과 중학교 1학년 아동패널 학생의 주중 수면시간은 7.81시간 (약 7시간 49분), 주말 수면시간은 9.11시간(약 9시간 7분)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에 있어 성별차이가 나타났는데, 주중에는 남학생이, 주말에는 여학생의 수면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모의 자녀가 평균 주중 수면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인 가구의 자녀가 가구 소득 550만원 초과인 가구의 자녀보다 평균 주중 수면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8〉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아동의 수면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수)	주중		주말		주말-주중 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7.81	1.16	9.11	1.37	1.30	1.45
아동 성별							
남	(677)	8.02	1.08	8.98	1.30	0.96	1.35
여	(649)	7.59	1.20	9.25	1.42	1.66	1.46
t		6.89***		-3.64***		-9.11***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7.75	1.13	9.13	1.34	1.38	1.46
미취업	(489)	7.92	1.17	9.11	1.36	1.19	1.41
t		-2.59**		0.23		2.28*	

구분	(수)	주중		주말		주말-주중 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5)	8.03[b]	1.17	9.20	1.41	1.17	1.53
400초과~550만원	(327)	7.76[a]	1.12	9.11	1.33	1.36	1.37
550초과~700만원	(316)	7.67[a]	1.13	9.04	1.3	1.37	1.38
700만원 초과	(261)	7.70[a]	1.17	9.02	1.44	1.33	1.42
F		6.57***		1.06		1.35	

주: 1) 9시간 미만 수면을 취하는 경우는 주중 80.92% 주말 36.80%.
2)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공·사교육 기관 이용시간

중학교 1학년 패널아동의 공·사교육 기관 이용시간을 주중, 주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학교에서 보내는 주중 평균시간은 6.49시간(약 6시간 29분), 주말 평균 4.16시간(약 4시간 10분)으로 나타났다. 학교이외의 기관에서 교육 및 돌봄 시간은 주중 2.31시간(약 2시간 19분), 주말 2.33시간(약 2시간 20분)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주중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보내는 교육시간이 주중, 주말 모두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가구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사교육 이용시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2-9〉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공·사교육 기관 이용

단위: 시간(명)

구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돌봄 시간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6.49	1.24	(44)	4.16	2.24	(1103)	2.31	0.92	(342)	2.33	1.25
아동 성별												
남	(677)	6.41	1.22	(24)	4.92	2.36	(548)	2.33	0.98	(171)	2.34	1.33
여	(649)	6.57	1.25	(20)	3.25	1.74	(555)	2.28	0.86	(171)	2.31	1.17
t		-2.42*			1.59			-1.01			-0.27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6.52	1.19	(25)	4.16	2.19	(667)	2.33	0.94	(192)	2.34	1.27
미취업	(489)	6.48	1.27	(14)	4.71	2.28	(410)	2.28	0.89	(140)	2.35	1.22
t		0.56			-0.12			0.36			-1.65	
가구 소득												

구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돌봄 시간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400만원 이하	(315)	6.45	1.42	(15)	3.90	2.20	(222)	2.26[a]	0.98	(48)	2.33[a]	1.21
400초과~550만원	(327)	6.54	1.11	(8)	4.19	1.51	(273)	2.26[b]	0.87	(75)	2.35[ab]	1.26
550초과~700만원	(316)	6.50	1.15	(8)	3.81	2.53	(275)	2.35[bc]	0.89	(102)	2.29[bc]	1.39
700만원 초과	(261)	6.57	1.22	(11)	4.91	2.77	(242)	2.37[c]	0.93	(92)	2.36[c]	1.19
F		0.53			1.25			14.21***			9.32***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100.00%, 주말 3.32%이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돌봄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83.18%, 주말 25.79%이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에 기숙학교 거주아동이 포함되어 있어, 주말 평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4)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01$.

다) 독서, 숙제 및 학습 관련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조사에서 살펴본 중학교 1학년 패널아동의 책읽기 시간을 〈표 Ⅳ-2-10〉에 나타내었다. 살펴본 결과, 주중에 책을 읽는다고 응답한 아동이 38.24%, 주말에 책을 읽는다고 응답한 44.57%였으며,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읽는 시간을 산출한 결과, 주중에는 0.75시간(45분), 주말 1.07시간(약 1시간 4분) 정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읽기 시간은 성별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미취업모의 자녀가 취업모의 자녀보다 주말의 책읽기 시간이 4분가량 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10〉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책읽기

단위: 시간(명)

구분	책읽기 시간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507)	0.75	0.36	(591)	1.07	0.65
아동 성별						
남	(251)	0.74	0.33	(301)	1.05	0.60
여	(256)	0.76	0.39	(290)	1.09	0.70
t		-1.13			-0.58	
모 취업 여부						
취업	(303)	0.72	0.34	(336)	1.04	0.67
미취업	(193)	0.79	0.38	(244)	1.11	0.61
t		-1.62			-3.05**	
가구 소득						

구분	책읽기 시간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400만원 이하	(118)	0.76[ab]	0.39	(124)	1.07	0.64
400초과~550만원	(100)	0.70[a]	0.28	(137)	1.08	0.59
550초과~700만원	(128)	0.78[b]	0.43	(154)	1.11	0.70
700만원 초과	(119)	0.74[b]	0.30	(129)	0.99	0.50
F	4.98**			1.82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책 읽기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38.24%, 주말 44.57%이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응답임.
** $p < .01$.

아동의 주당 독서량을 질문한 결과 읽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39.82%였으며, 1-2권 읽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46.61%로 가장 많았다. 책을 1주일에 1권 이상 읽는다고 응답한 아동을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 1주일 동안 평균 1.98권(표준편차 2.69)의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 빈도에 있어서는 모의 취업유무,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2-11〉 아동의 독서량(주당) 빈도표

단위: %(명), 권

구분	계(수)	읽지 않음	읽음							
			1~2권	3~4권	5~6권	7~10권	10권 초과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0(1326)	39.82	46.61	9.13	2.49	1.21	0.75	(798)	1.98	2.69
아동 성별										
남	100.00(677)	42.69	42.10	9.90	2.66	1.92	0.74	(388)	2.11	2.31
여	100.00(649)	36.83	51.31	8.32	2.31	0.46	0.77	(410)	1.86	3.00
$x^2(df)/t$		15.80(5)**							1.36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0(804)	42.66	45.15	8.46	2.11	1.00	0.62	(461)	1.90	2.17
미취업	100.00(489)	34.56	49.69	10.02	3.07	1.64	1.02	(320)	2.11	3.35
$x^2(df)/t$		9.96(5)							-1.06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00.00(315)	41.90	45.40	7.94	2.54	1.59	0.63	(183)	1.92	2.12
400초과-550만원	100.00(327)	42.20	46.18	9.48	1.53	0.31	0.31	(189)	1.69	1.85
550초과-700만원	100.00(316)	37.03	46.20	11.39	2.85	1.27	1.27	(199)	2.23	3.16
700만원 초과	100.00(261)	36.78	50.96	8.05	2.30	1.53	0.38	(165)	1.81	2.08
$x^2(df)/F$		12.70(15)							1.80	

주: 1) 아동의 응답임.
2) 평균과 표준편차는 1권 이상 책을 읽는다고 응답한 아동의 빈도를 계산함.
** $p < .01$.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조사에서 살펴본 중학교 1학년 패널아동의 ‘아동의 숙제 및 학습’, ‘학교수업 외 비대면교육’ 시간을 〈표 Ⅳ-2-12〉에 나타내었다. ‘아동의 숙제 및 학습시간’은 주중 평균 1.24시간(약 1시간 14분), 주말 평균 1.67시간(약 1시간 40분)으로 나타났으며, 주중, 주말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수업 외 비대면교육‘ 시간은 주중 1.17시간(약 1시간 10분)주말 1.33시간(약 1시간 20분)으로 주말이 주중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미취업모의 자녀가 주중 평균 숙제 및 학습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이 550만원 초과인 가구의 자녀가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인 가구의 자녀보다 숙제 및 학습시간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Ⅳ-2-12〉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숙제 및 학습, 학교수업 외 비대면교육

단위: 시간(명)

구분	아동의 숙제 및 학습시간						인터넷 강의 등 학교수업 외 비대면교육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79)	1.24	0.68	(979)	1.67	1.05	(310)	1.17	0.81	(224)	1.33	0.74
아동 성별												
남	(533)	1.18	0.64	(464)	1.56	0.97	(142)	1.16	0.87	(111)	1.30	0.74
여	(546)	1.29	0.72	(515)	1.76	1.11	(168)	1.18	0.76	(113)	1.36	0.75
t		-3.51***			-5.11***			-1.79			-0.72	
모 취업 여부												
취업	(653)	1.19	0.65	(592)	1.57	0.99	(180)	1.13	0.79	(117)	1.29	0.75
미취업	(402)	1.30	0.72	(364)	1.82	1.11	(125)	1.24	0.85	(100)	1.38	0.76
t		-2.27*			-3.01**			-1.74			-2.82**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242)	1.14^{a}	0.61	(211)	1.50^{a}	0.87	(83)	1.10	0.69	(66)	1.29^{a}	0.72
400초과~550만원	(263)	1.25^{ab}	0.79	(239)	1.72^{ab}	1.15	(79)	1.27	0.85	(62)	1.40^{a}	0.65
550초과~700만원	(267)	1.28^{b}	0.66	(245)	1.74^{b}	1.03	(67)	1.13	0.79	(38)	1.29^{a}	0.70
700만원 초과	(215)	1.29^{b}	0.69	(198)	1.78^{b}	1.13	(53)	1.06	0.68	(36)	1.31^{a}	0.89
F		4.26**			6.03***			1.50			3.27*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숙제 및 학습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81.37%, 주말 73.83%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인터넷 수업 등 통신교육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3.38%, 주말 16.89%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아동의 응답임.

4)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라) 미디어 이용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조사에서 살펴본 중학교 1학년 패널아동의 '영상 시청시간' 및 '게임 시간'을 〈표 Ⅳ-2-13〉에 나타내었다. 아동의 일과 중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 시청시간'은 주중 평균 1.41시간(1시간 25분), 주말 평균 2.56시간(2시간 34분)으로 나타났으며, '게임 시간'은 주중 1.32시간(1시간 19분), 주말 2.36시간(2시간 22분)으로 나타나, 주말 사용이 높게 나타났다. 영상 시청시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게임 이용시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말 게임 이용시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 1시간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자녀가 영상 시청시간이 높은 것(주중, 주말 모두)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인 가구의 자녀가 가구 소득 700만원 초과인 가구의 자녀보다 게임 이용시간이 유의미하게 많은 것(주중, 주말 모두)으로 나타났다.

〈표 Ⅳ-2-13〉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영상 시청 및 게임 이용

단위: 시간(명)

구분	영상 시청시간						게임 이용시간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59)	1.41	0.85	(1261)	2.56	1.47	(808)	1.32	0.85	(966)	2.36	1.60
아동 성별												
남	(587)	1.34	0.74	(644)	2.47	1.36	(537)	1.47	0.89	(614)	2.76	1.72
여	(572)	1.48	0.93	(617)	2.65	1.58	(271)	1.04	0.70	(352)	1.67	1.04
t		−2.80**			−1.97*			15.57***			19.05***	
모 취업 여부												
취업	(719)	1.45	0.87	(765)	2.65	1.50	(494)	1.34	0.90	(586)	2.46	1.66
미취업	(407)	1.30	0.77	(465)	2.38	1.40	(290)	1.29	0.74	(355)	2.20	1.46
t		4.17***			2.94**			1.04			1.97*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284)	1.49	0.92	(300)	2.82^{a}	1.68	(221)	1.40^{c}	0.96	(247)	2.47^{b}	1.63
400초과~550만원	(281)	1.40	0.82	(313)	2.45^{a}	1.46	(200)	1.37^{bc}	0.92	(244)	2.41^{ab}	1.65
550초과~700만원	(275)	1.38	0.85	(296)	2.49^{a}	1.37	(180)	1.31^{ab}	0.76	(220)	2.39^{ab}	1.54
700만원 초과	(224)	1.37	0.77	(249)	2.53^{a}	1.31	(137)	1.19^{a}	0.73	(172)	2.21^{a}	1.59

구분	영상 시청시간						게임 이용시간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F		2.14			3.55*			7.56***			3.98**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영상 시청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87.41%, 주말 95.10%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게임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60.94%, 주말 72.85%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아동의 응답임.
4)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휴대폰(스마트폰) 소지 여부를 물은 결과 중학교 1학년 패널아동 응답자의 98.11%가 휴대폰(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모 취업 여부, 가구 소득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스마트폰, PC(인터넷)을 1일 평균 사용하는 시간을 물었을 때, 평균 1일 이용시간이 6.56시간(6시간 34분)으로 꽤 많은 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용은 전체의 0.15%에 지나지 않았다. 취업모의 자녀의 스마트폰 및 인터넷 이용시간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스마트폰 및 인터넷 이용시간을 2020년 조사(초 6)와 비교해보면, 2020년 13차 조사의 경유 스마트폰 및 인터넷 이용 시간이 1일 평균 2.80시간으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 3.76시간 높게 나타났는데(김지현 외, 2021: 103), 이는 2020년 조사는 아동의 일과활동시간을 보호자가 응답하였으나, 2021년 조사부터 아동이 직접 아동의 일과활동시간을 응답했다는 차이가 있고, 중학교 1학년의 진학으로 또래관계의 변화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표 Ⅳ-2-14〉 아동의 휴대폰 소지, 스마트폰, PC(인터넷)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휴대폰(스마트폰) 소지			스마트폰, PC(인터넷) 이용 여부 및 시간					
	소지 여부			이용 여부			이용시간(1일)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이용	미이용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0(1326)	98.11	1.89	100.00(1326)	99.85	0.15	(1324)	6.56	3.71
아동 성별									
남	100.00(677)	97.64	2.36	100.00(677)	99.70	0.30	(675)	6.70	3.88
여	100.00(649)	98.61	1.39	100.00(649)	100.00	-	(649)	6.42	3.53

구분	휴대폰(스마트폰) 소지			스마트폰, PC(인터넷) 이용 여부 및 시간				
	소지 여부			이용 여부			이용시간(1일)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이용	미이용	(수)	평균 표준편차
$x^2(df)/t$		1.71(1)			1.92(1)			1.29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0(804)	98.63	1.37	100.00(804)	100.00	-	(804)	6.69 3.81
미취업	100.00(489)	97.34	2.66	100.00(489)	99.59	0.41	(487)	6.24 3.45
$x^2(df)/t$		2.78(1)			3.29(1)			2.25*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00.00(315)	98.10	1.90	100.00(315)	100.00	-	(315)	6.75 3.88
400초과~550만원	100.00(327)	98.17	1.83	100.00(327)	100.00	-	(327)	6.35 3.42
550초과~700만원	100.00(316)	97.78	2.22	100.00(316)	99.37	0.63	(314)	6.47 3.70
700만원 초과	100.00(261)	98.47	1.53	100.00(261)	100.00	-	(261)	6.33 3.65
$x^2(df)/F$		0.37(3)			5.73(3)			0.83

주: 1) 스마트폰, PC 이용시간(1일 평균)은 스마트폰, PC를 이용하는 아동 99.85%에 해당하는 수치임.
2) 아동의 응답임.
* $p < .05$.

아동의 스마트폰 및 인터넷 이용시간을 학습, 정보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3차년도 조사까지는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정도를 1-5점까지의 정도로 나타낸 반면(부모 응답), 14차년도 조사에서는 이용정도가 아닌 일별 이용시간 나타내어(아동 응답), 단순비교에 주의가 필요하다.

중학교 1학년 패널아동의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시간 평균 6.56시간 중 학습에 쓰는 시간은 2.35시간(2시간 21분), 정보검색은 0.39시간(약 23분), 게임은 1.34시간(약 1시간 20분), 엔터테인먼트 1.45시간(1시간 27분), SNS 1.02시간(약 1시간)으로 나타났다. 정보검색, 엔터테인먼트, SNS의 경우 여학생이 이용시간이 높았으며, 게임의 경우 남학생의 이용시간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취업모의 자녀가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 이용시간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의 가구의 자녀가 가구 소득 700만원 초과인 가구의 자녀보다 게임 이용시간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15〉 아동의 스마트폰, PC(인터넷) 이용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수)	학습		정보 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5)	2.35	2.63	0.39	0.49	1.34	1.52	1.45	1.21	1.02	1.05
아동 성별											
남	(676)	2.24	2.63	0.35	0.52	1.96	1.57	1.38	1.20	0.75	0.87
여	(649)	2.47	2.62	0.43	0.46	0.69	1.15	1.52	1.22	1.30	1.13
t		-1.62		-2.89**		16.71***		-2.19*		-10.02***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2.32	2.65	0.37	0.46	1.42	1.61	1.52	1.24	1.07	1.07
미취업	(488)	2.38	2.58	0.40	0.48	1.20	1.34	1.30	1.13	0.92	0.99
t		-0.44		-1.04		2.48*		3.10**		2.59**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5)	2.27	2.54	0.39	0.49	1.53^{b}	1.61	1.57	1.31	0.99	1.13
400초과-550만원	(326)	2.08	2.37	0.40	0.49	1.41^{b}	1.55	1.38	1.27	1.06	1.06
550초과-700만원	(316)	2.30	2.64	0.39	0.45	1.29^{ab}	1.47	1.46	1.25	0.99	0.95
700만원 초과	(261)	2.49	2.85	0.37	0.44	1.00^{a}	1.13	1.42	1.05	1.06	1.05
F		1.19		0.28		6.64***		1.38		0.45	

주: 1) 아동의 스마트폰, PC 이용 정도는 스마트폰, PC를 이용하는 아동 99.92%에 해당하는 수치임.
2) 아동의 응답임.
3) 항목별 구체적인 의미
-학습: 인터넷 강의 온라인 수업, 학교/학원 숙제 등
-정보 검색: 맛집, 쇼핑, 뉴스 검색 등
-엔터테인먼트: 동영상 감상, 웹툰 감상 등 (단, 게임과 SNS 제외)
-SNS: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 $p < .05$, ** $p < .01$, *** $p < .001$.

부모가 응답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은 ‘PC·스마트폰 사용문제로 가족들과 자주 싸운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고 한곳에서 PC·스마트폰을 한다’를 포함한 15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분석 결과, 고위험 사용자군이 44.58%로, 작년의 고위험사용자군 38.19%보다 약 6.39%p 높게 나타났다(김지현 외, 2021: 106). 성별 차이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위험 사용자군의 비율이 13.43%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 취업 여부 및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2-16〉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부모응답)

단위: %(명), 점

구분	계(수)	미디어기기 중독 집단 구분			총점(60점 만점)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0(1348)	44.88	10.53	44.58	28.28	7.08
아동 성별						
남	100.00(668)	38.23	10.61	51.16	29.41	7.06
여	100.00(660)	51.82	10.45	37.73	27.10	6.91
$x^2(df)/t$			27.51(2)***		6.07***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0(819)	44.57	10.62	44.81	28.53	7.10
미취업	100.00(496)	45.77	10.08	44.15	27.84	7.05
$x^2(df)/t$			0.22(2)		1.72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00.00(316)	46.20	11.08	42.72	27.87	7.49
400초과~550만원	100.00(332)	43.67	11.45	44.88	28.61	7.03
550초과~700만원	100.00(326)	42.33	12.58	45.09	28.70	6.69
700만원 초과	100.00(266)	51.50	6.02	42.48	27.63	7.17
$x^2(df)/F$			10.32(6)		1.70	

주: 1) 10번, 11번 문항 역코딩함.
2) 점수별 사용자군 구분
- 일반 사용자군: 총점이 27점 이하이고, 각 요인별 점수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 (1요인: 12점 이하, 3요인 : 10점 이하, 4요인 : 9점 이하)
-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총점 28~29점이거나, 각 요인별 점수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1요인: 13점 이상, 3요인 : 11점 이상, 4요인 : 10점 이상)
- 고위험 사용자군 : 총점이 30점 이상에 해당하거나, 각 요인별 점수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 (1요인: 14점 이상, 3요인 : 12점 이상, 4요인 : 11점 이상)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에 중복 해당될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
3) 총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이 심각함을 의미함.
4) 보호자의 응답임.
5)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 $p < .001$.

패널아동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2021년 조사에서는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을 아동이 직접 응답하였다. 아동이 응답한 스마트폰 중독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를 포함한 15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분석 결과, 고위험 사용자군이 1.77%인 반면 일반 사용자군이 85.93%로 나타났다.

〈표 Ⅳ-2-17〉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아동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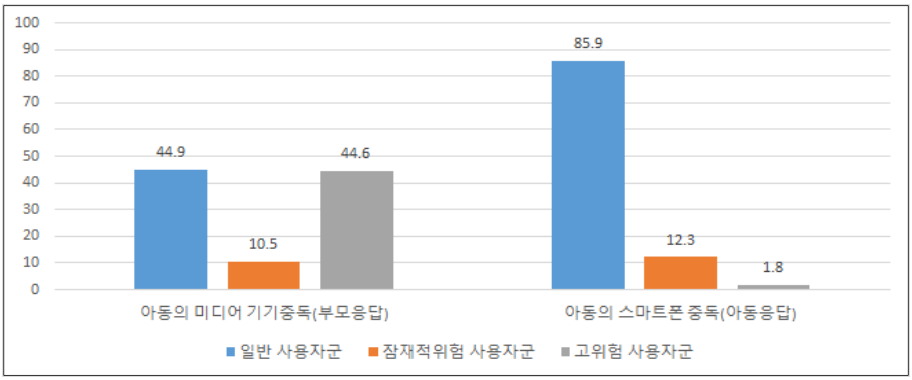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계(수)	스마트폰 중독 집단 구분			총점(60점 만점)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0(1301)	85.93	12.30	1.77	30.05	6.48
아동 성별						
남	100.00(661)	84.27	13.77	1.97	30.00	6.73
여	100.00(640)	87.66	10.78	1.56	30.10	6.21
$x^2(df)/t$			3.09(2)		-0.27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0(793)	85.62	12.23	2.14	30.06	6.55
미취업	100.00(476)	86.55	12.39	1.05	30.05	6.36
$x^2(df)/t$			2.09(2)		0.02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00.00(309)	86.41	11.97	1.62	30.17	6.27
400초과~550만원	100.00(321)	85.67	12.46	1.87	30.11	6.44
550초과~700만원	100.00(309)	86.73	11.65	1.62	29.92	6.75
700만원 초과	100.00(257)	85.60	12.45	1.95	29.83	6.73
$x^2(df)/F$			0.29(6)		0.17	

주: 1) 8번, 10번, 13번 문항 역코딩함.
2) 점수별 사용자군 구분
- 일반 사용자군: 총점이 41점 이하이고, 각 요인별 점수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 (1요인 : 13점 이하, 3요인 : 11점 이하, 4요인 : 12점 이하)
-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총점 42~44점이거나, 각 요인별 점수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1요인 : 14점 이상, 3요인 : 12점 이상, 4요인 : 13점 이상)
- 고위험 사용자군 : 총점이 45점 이상에 해당하거나, 각 요인별 점수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 (1요인 : 16점 이상, 3요인 : 13점 이상, 4요인 : 14점 이상)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에 중복 해당될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
3) 총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이 심각함을 의미함.
4) 스마트폰이 있는 아동의 응답임.
5)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그림 Ⅳ-2-1]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부모응답) vs.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아동응답)

단위: %



[그림 Ⅳ-2-1]에 미디어기기 부모응답 결과와 스마트폰 중독 아동응답 결과의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단, '부모응답'은 행동에, '아동응답'은 심리적 의존에 초점이 있어 내용과 대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비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 여가 및 교제

다음은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조사에서 살펴본 중학교 1학년 패널아동의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과 취미생활에 대해 주중과 주말 참여시간을 조사한 결과이다.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에는 26.77%, 주말에는 43.89%로 조사되었고, 시간 산출은 해당되는 사례만을 분석하였다. 패널아동은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에 주중에는 평균 0.97시간(약 58분), 주말에는 평균적으로 1.47시간(약 1시간 28분) 사용하였고,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등 취미 생활에는 주중 평균 0.90시간(54분), 주말 평균 1.41시간(약 1시간 25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가지 활동 모두 남녀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주중과 주말 모두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동호회 등 취미활동은 주중에는 여학생이, 주말에는 남학생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18〉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스포츠, 집 밖 레저 활동 및 취미 생활

단위: 시간(명)

구분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등 취미 생활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55)	0.97	0.56	(582)	1.47	0.87	(328)	0.90	0.45	(522)	1.41	0.82
아동 성별												
남	(213)	1.05	0.58	(348)	1.61	0.95	(126)	0.87	0.41	(222)	1.46	0.84
여	(142)	0.85	0.50	(234)	1.26	0.67	(202)	0.91	0.47	(300)	1.38	0.81
t		5.14***			7.53***			-4.98***			-3.41***	
모 취업 여부												
취업	(209)	0.98	0.60	(340)	1.46	0.82	(214)	0.88	0.43	(328)	1.39	0.80
미취업	(134)	0.97	0.50	(229)	1.52	0.94	(99)	0.94	0.49	(179)	1.45	0.81
t		-0.39			-1.74			1.70			0.72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89)	1.01	0.67	(135)	1.56	1.00	(74)	0.97	0.55	(126)	1.46	0.92
400초과-550만원	(91)	1.02	0.61	(147)	1.50	0.87	(76)	0.95	0.49	(119)	1.42	0.79
550초과-700만원	(83)	0.91	0.41	(142)	1.53	0.83	(84)	0.85	0.36	(137)	1.40	0.83
700만원 초과	(60)	0.93	0.52	(108)	1.37	0.82	(67)	0.82	0.38	(100)	1.36	0.73

구분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등 취미 생활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F		1.33			0.94			0.08			0.86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6.77%, 주말 43.89%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취미 활동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4.74%, 주말 39.37%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아동의 응답임.
*** $p < .001$.

패널아동의 하루 일과활동시간 중 사교활동 부분을 대면과 비대면 교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아동의 하루일과 중에 대면 사교활동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40.20%, 주말 64.86%이었고, 비대면 교제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70.51%, 주말 76.77%이었으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하였다. 패널아동들은 친인척, 친구들과의 만남 등의 사교활동에 주중 평균 1.07시간(약 1시간 4분)을, 주말에는 2.55시간(2시간 33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등 통신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교제의 경우는 주중엔 평균 0.88시간(약 53분), 주말은 평균 1.29시간(약 1시간 17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대면 교제활동과 비대면 교제활동 모두에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주중, 주말 모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였다. 이외에도 어머니가 취업한 가정의 패널아동이 어머니가 미취업한 가정의 패널아동 보다 대면 교제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가구 소득이 400만원 이하인 가정의 패널아동이 다른 집단 보다 주말 대면 교제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2-19〉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사교활동 대면 및 비대면 교제

단위: 시간(명)

구분	친인척, 친구 등과의 놀이 사교 활동(대면)						SNS 등 통신기기를 활용한 교제(비대면)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533)	1.07	0.67	(860)	2.55	1.61	(935)	0.88	0.50	(1,018)	1.29	0.80
아동 성별												
남	(236)	1.01	0.52	(396)	2.39	1.50	(426)	0.80	0.44	(481)	1.16	0.73
여	(297)	1.11	0.76	(464)	2.68	1.68	(509)	0.95	0.53	(537)	1.40	0.85
t		-4.26***			-5.42***			-7.80***			-6.87***	

구분	친인척, 친구 등과의 놀이 사교 활동(대면)						SNS 등 통신기기를 활용한 교제(비대면)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모 취업 여부												
취업	(331)	1.11	0.72	(539)	2.65	1.65	(564)	0.88	0.49	(620)	1.32	0.81
미취업	(181)	1.00	0.57	(300)	2.39	1.49	(348)	0.88	0.52	(372)	1.25	0.80
t		2.24*			3.09**			-0.10			1.24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17)	0.97[a]	0.54	(174)	2.38[a]	1.52	(222)	0.85	0.53	(244)	1.31	0.79
400초과-550만원	(151)	1.10[a]	0.79	(223)	2.60[b]	1.61	(229)	0.90	0.46	(248)	1.30	0.83
550초과-700만원	(128)	1.07[a]	0.61	(223)	2.50[b]	1.55	(228)	0.90	0.53	(245)	1.30	0.86
700만원 초과	(97)	1.13[a]	0.69	(168)	2.73[b]	1.77	(185)	0.89	0.49	(203)	1.27	0.76
F		2.64*			5.05**			0.33			0.05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사교활동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40.20%, 주말 64.86%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비대면 교제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70.51%, 주말 76.77%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아동의 응답임.
4)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주중에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패널아동은 전체의 3.92%, 주말은 14.25%였으며, 해당 패널아동들은 주중에는 0.93시간(약 56분), 주말에는 1.56시간(약 1시간 34분)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중에 애완(반려)동물을 돌본다고 응답한 패널아동은 전체의 15.54%였고, 주말에 대해서는 전체의 19.46%라고 보고한 가운데, 해당 패널아동들은 주중에는 평균 0.72시간(약 43분), 주말에는 0.99시간(약 59분) 애완(반려)동물 돌보기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20〉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종교 활동, 애완(반려)동물 돌보기

단위: 시간(명)

구분	종교 활동						애완(반려)동물 돌보기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52)	0.93	0.51	(189)	1.56	0.94	(206)	0.72	0.36	(258)	0.99	0.61
아동 성별												
남	(24)	0.94	0.40	(104)	1.54	0.80	(98)	0.71	0.31	(124)	0.94	0.61
여	(28)	0.93	0.60	(85)	1.59	1.10	(108)	0.74	0.40	(134)	1.04	0.62
t		-0.60			0.79			-1.21			-1.64	

구분	종교 활동						애완(반려)동물 돌보기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모 취업 여부												
취업	(25)	0.82	0.35	(95)	1.47	0.80	(122)	0.73	0.40	(158)	0.99	0.64
미취업	(25)	1.00	0.61	(87)	1.68	1.09	(77)	0.70	0.30	(94)	0.98	0.57
t		-2.23*			-3.38***			0.05			0.26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8)	1.08	0.75	(52)	1.82[a]	1.15	(43)	0.71	0.43	(52)	0.96	0.52
400초과~550만원	(9)	0.94	0.46	(51)	1.67[a]	0.75	(50)	0.77	0.35	(66)	1.10	0.75
550초과~700만원	(9)	0.83	0.25	(43)	1.30[a]	0.60	(51)	0.68	0.31	(59)	0.94	0.57
700만원 초과	(10)	0.75	0.26	(27)	1.48[a]	1.30	(49)	0.73	0.36	(65)	0.98	0.59
F		2.39			3.21*			0.94			2.00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종교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3.92%, 주말 14.25%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애완(반려) 동물 돌보기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15.54%, 주말 19.46%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응답임.
3)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1주일 동안 등하교 시 걷는 것을 제외하고 실내외에서 땀이 날 정도의 신체활동을 30분 이상 한 일수를 조사한 결과, 하루도 없다고 응답한 패널아동이 17.80%였고, 3일은 23.08%, 2일이 18.40%, 5일 이상 18.33% 순으로 나왔다. 이러한 응답비율에 남녀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 중 5일 이상 신체활동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3.63%였는데 반해, 여학생은 12.79%였다. 또 1주일 간 30분 이상 신체활동한 날이 하루도 없다고 응답한 여학생은 21.26%로 남아의 응답 14.48% 보다 확연히 높은 비율이었다.

〈표 Ⅳ-2-21〉 아동의 한 번에 30분 이상 실내외에서 신체활동 일수(지난 7일간)

단위: %(명)

구분	없음	1일	2일	3일	4일	5일 이상	계(수)
전체	17.80	13.35	18.40	23.08	9.05	18.33	100.00(1326)
아동 성별							
남	14.48	12.41	18.02	22.16	9.31	23.63	100.00(677)
여	21.26	14.33	18.80	24.04	8.78	12.79	100.00(649)
$\chi^2(df)$			31.48(5)***				
모 취업 여부							
취업	16.04	12.81	18.91	24.00	9.58	18.66	100.00(804)

구분	없음	1일	2일	3일	4일	5일 이상	계(수)
미취업	19.84	14.72	18.40	21.06	8.59	17.38	100.00(489)
$x^2(df)$			5.11(5)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21.59	11.11	16.83	21.90	6.98	21.59	100.00(315)
400초과~550만원	17.13	15.90	18.04	21.71	9.48	17.74	100.00(327)
550초과~700만원	15.51	12.97	19.62	25.00	10.44	16.46	100.00(316)
700만원 초과	19.16	13.03	19.92	22.99	10.34	14.56	100.00(261)
$x^2(df)$			15.36(15)				

주: 1) 신체 활동: 탁구, 수영, 배구, 배드민턴, 빠르게 걷기,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골프, 체육시간에 실제 운동한 시간, 운동장·놀이터에서 놀기 등 격렬하거나 중증도의 신체 활동(등·하교시 걷는 것은 제외)
2) 아동의 응답임.
*** $p < .001$.

패널아동의 73.00%는 악기와 운동을 포함한 취미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취미가 있다고 응답한 아동 중 37.71%는 운동/스포츠/댄스를 취미로 한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음악 및 영화 감상 17.05%, 노래/악기 연주 15.39%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신체활동 일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취미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응답차이가 뚜렷했는데, 남학생의 50.41%는 운동/스포츠/댄스를 취미로 두었다고 하였고, 그에 반해 여학생은 운동/스포츠/댄스 24.69%, 음악 및 영화감상 22.38%, 노래/악기연주 19.87%로 고른 응답분포를 보였다.

〈표 Ⅳ-2-22〉 취미 유무 및 주로 하는 취미의 종류: 1순위

단위: %(명)

구분	취미(악기, 운동 포함)			종류							계(수)
	계(수)	있음	없음	노래/악기 연주	운동/스포츠/댄스	그림 그리기 (웹툰 포함)	영상 제작 (유튜브 포함)	독서 (e-book 포함)	음악 및 영화 감상	기타	
전체	100.00 (1326)	73.00	27.00	15.39	37.71	9.61	2.17	4.34	17.05	13.74	100.00 (968)
아동 성별											
남	100.00 (677)	72.38	27.62	11.02	50.41	4.08	2.65	3.67	11.84	16.33	100.00 (490)
여	100.00 (649)	73.65	26.35	19.87	24.69	15.27	1.67	5.02	22.38	11.09	100.00 (478)

주: 아동의 응답임.

취미의 종류를 2순위까지 합산하여 분석한 결과, 1순위 응답결과와 유사하게 운동/스포츠/댄스가 52.58%로 가장 많았고, 음악 및 영화 감상이 44.32%, 노래/악기연주 29.13%, 기타 21.28%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23〉 주로 하는 취미의 종류: 1+2순위

단위: %(명)

구분	노래/악기연주	운동/스포츠/댄스	그림그리기(웹툰 포함)	영상 제작(유튜브 포함)	독서(e-book 포함)	음악 및 영화 감상	기타	(수)
전체	29.13	52.58	16.12	5.99	9.19	44.32	21.28	(968)
아동 성별								
남	22.45	63.67	7.55	5.92	8.57	42.24	25.51	(490)
여	35.98	41.21	24.90	6.07	9.83	46.44	16.95	(478)

주: 아동의 응답임.

전공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악기 연주를 취미로 둔 경우는 전체의 33.26%였고, 운동이 취미라고 응답한 비율은 53.17%였다. 악기 연주는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취미로 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이와 반대로 운동은 남학생이 더 많이 취미로 두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가구 소득이 높은 집단의 패널아동이 취미로 악기를 다루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표 Ⅳ-2-24〉 아동의 취미 유무(악기, 운동)

단위: %(명)

구분	계(수)	악기		운동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100.00(1326)	33.26	66.74	53.17	46.83
아동 성별					
남	100.00(677)	26.44	73.56	61.74	38.26
여	100.00(649)	40.37	59.63	44.22	55.78
$x^2(df)$		28.97(1)***		40.85(1)***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0(804)	30.97	69.03	53.48	46.52
미취업	100.00(489)	37.22	62.78	52.15	47.85
$x^2(df)$		5.34(1)*		0.22(1)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00.00(315)	32.06	67.94	50.16	49.84
400초과~550만원	100.00(327)	29.05	70.95	55.05	44.95
550초과~700만원	100.00(316)	35.44	64.56	56.33	43.67

구분	계(수)	악기		운동	
		있음	없음	있음	없음
700만원 초과	100.00(261)	39.46	60.54	50.96	49.04
$x^2(df)$		7.85(3)*		3.39(3)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01$.

바) 기본생활 및 가사 돕기

아동의 일과활동시간 조사에서 살펴본 중학교 1학년 패널아동의 식사, 씻기, 옷 입기 등 기본생활에 소용하는 시간은 주중은 1.26시간(약 1시간 16분), 주말은 1.58시간(약 1시간 35분)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등 가사일을 돕는 데는 주중 0.64시간(약 38분), 주말 0.84시간(약 50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가사일 소요시간에서는 성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주중과 주말 모두에 있어 가사일 돕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25〉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기본생활 및 가사일 돕기

단위: 시간(명)

구분	식사,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음식준비, 청소, 정리 등 가사일 돕기				
	(수)	주중		주말		주중			주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1.26	0.58	1.58	0.70	(615)	0.64	0.25	(848)	0.84	0.42
아동 성별											
남	(677)	1.24	0.59	1.56	0.69	(295)	0.64	0.23	(406)	0.83	0.38
여	(649)	1.27	0.58	1.59	0.72	(320)	0.65	0.27	(442)	0.85	0.46
t		-0.93		-0.55			-2.26*			-2.99**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1.25	0.56	1.54	0.69	(395)	0.63	0.23	(528)	0.83	0.43
미취업	(489)	1.27	0.62	1.62	0.72	(204)	0.67	0.28	(295)	0.85	0.42
t		-0.40		-1.95			1.52			1.09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5)	1.30	0.64	1.58	0.70	(142)	0.69	0.30	(205)	0.92[a]	0.50
400초과~550만원	(327)	1.19	0.53	1.52	0.67	(155)	0.66	0.27	(213)	0.87[a]	0.47
550초과~700만원	(316)	1.26	0.55	1.57	0.73	(139)	0.61	0.21	(196)	0.78[a]	0.35
700만원 초과	(261)	1.25	0.56	1.57	0.71	(125)	0.61	0.21	(165)	0.78[a]	0.33
F		1.90		0.51			1.13			3.54*	

주: 1)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음식 준비, 청소, 정리 등 가사일 돕기가 포함된 경우는 주중 46.38%, 주말 63.95%이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2) 아동의 응답임.
3)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아동의 평소 가사참여 정도를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는데, 의생활 영역은 평균 2.26점, 식생활 2.61점, 주생활 2.29점, 돌봄 2.41점으로 네 영역에서 모두 대체적으로 가끔 하는 수준으로 보고하였다. 주생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아동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일부 영역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의생활과 식생활 관련 가사일에 있어 어머니가 취업 중인 가정의 패널아동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왔다.

〈표 Ⅳ-2-26〉 아동의 가사참여 정도

단위: 점(명)

구분	(수)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돌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2.26	0.75	2.61	0.81	2.29	0.75	2.41	0.83
아동 성별									
남	(677)	2.17	0.74	2.54	0.81	2.26	0.74	2.35	0.82
여	(649)	2.36	0.75	2.68	0.79	2.32	0.76	2.47	0.83
t		-4.45***		-3.21**		-1.58		-2.63**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2.32	0.75	2.68	0.79	2.31	0.74	2.43	0.84
미취업	(489)	2.18	0.75	2.51	0.82	2.25	0.76	2.37	0.82
t		3.27**		3.65***		1.52		1.18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5)	2.24	0.74	2.56	0.79	2.25	0.75	2.39	0.82
400초과~550만원	(327)	2.30	0.76	2.64	0.84	2.32	0.72	2.43	0.83
550초과~700만원	(316)	2.21	0.77	2.56	0.81	2.30	0.75	2.36	0.84
700만원 초과	(261)	2.31	0.74	2.66	0.79	2.28	0.79	2.44	0.85
F		1.27		1.33		0.50		0.52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하지 않음~4.매일 함).
3) 각 하위영역별 해당 가사일
- 의생활: 벗은 옷을 옷걸이에 걸기, 빨랫감 모으기, 세탁기 돌리기, 빨래 널거나 개기,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기 등
- 식생활: 반찬이나 수저를 식탁에 놓기, 요리 돕기, 간식 만들어 먹거나 밥 챙겨 먹기, 과일 깎기, 식탁 정리, 설거지 등
- 주생활: 내방 정리, 청소기 돌리기, 쓰레기 분리수거, 화분에 물주기, 현관의 신발 정리, 간단한 집안 수리(못질하기, 전구 갈기) 등

- 돌봄: 부모님 심부름, 동생 돌보기, 가족이 아플 때 돕기, 우편물 챙기기, 집안행사(명절, 생일 등) 준비 등

** $p < .01$, *** $p < .001$.

3) 외출/활동 참여 빈도

패널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패널아동의 지난 1년간 활동별 참여빈도를 조사한 결과, 장보기 및 쇼핑은 77.23%, 친인척 방문은 87.46%로 대다수의 패널아동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9년 조사(김은설 외, 2020: 95)에서 장보기 및 쇼핑 참여율 91.3%, 친인척 방문 96.1%, 2020년 조사(김지현 외, 2021: 115) 장보기 및 쇼핑 참여율 88.55%, 친인척 방문 95.20%에 비해, 지속적으로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한 적이 있는 사례만을 대상으로 연간 참여 횟수를 살펴보면, 장보기 및 쇼핑은 연간 약 32회(2020년 조사 32.76회, 김지현 외, 2021: 115), 친인척 방문은 연 18.05회(2020년 조사 20.10회, 김지현 외, 2021: 115)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특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장보기 및 쇼핑에 참여하는 비율과 연간 참여 횟수 모두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표 Ⅳ-2-27〉 아동의 활동별 참여빈도: 장보기 및 쇼핑, 친인척 방문

단위: %, 회(명)

구분	계(수)	장보기 및 쇼핑				친인척 방문			
		참여 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0(1348)	77.23	22.77	32.03	33.41	87.46	12.54	18.05	31.06
아동 성별									
남	100.00(668)	70.78	29.22	28.80	31.02	87.35	12.65	18.80	31.34
여	100.00(660)	83.94	16.06	34.87	35.17	87.58	12.42	17.28	30.77
$x^2(df)/t$		33.14(1)***		-2.94**		0.02(1)		0.84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0(819)	79.24	20.76	31.65	30.95	88.64	11.36	18.69	32.48
미취업	100.00(496)	73.99	26.01	33.04	37.70	86.09	13.91	17.05	28.59
$x^2(df)/t$		4.85(1)*		-0.63		1.87(1)		0.87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00.00(316)	78.16	21.84	35.96	38.56	84.81	15.19	16.44	24.88
400초과~550만원	100.00(332)	80.42	19.58	31.52	31.18	90.66	9.34	20.58	37.24
550초과~700만원	100.00(326)	73.62	26.38	32.03	33.94	84.66	15.34	16.24	26.25
700만원 초과	100.00(266)	73.68	26.32	30.13	31.15	89.10	10.90	17.34	31.27
$x^2(df)/F$		6.02(3)		1.27		7.95(3)*		1.27	

주: 1) 한 달은 12개월, 일주일은 48주를 기준으로 연간 참여 횟수를 환산함.

2) 보호자의 응답임.
3) 연간 참여 횟수 평균/표준편차는 참여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 $p < .05$, ** $p < .01$, *** $p < .001$.

패널아동의 당일여행 및 나들이, 1박 이상의 국내여행, 해외여행 및 연수에 대한 참여빈도를 조사한 결과, 당일여행 및 나들이는 78.26%, 1박 이상의 국내여행은 59.05%, 해외여행 및 연수는 1.04%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차 조사결과(김지현 외, 2021: 116), 당일여행 및 나들이 참여가 92.84%, 1박 이상의 국내여행 경험이 80.31%, 해외여행 및 연수 경험이 14.60%로 참여한 것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가족여행, 나들이 활동이 줄어들고 패널아동이 성장함에 따른 변화가 복합된 결과로 추정된다.

참여한 적이 있는 사례만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참여횟수를 조사한 결과, 당일여행 및 나들이 연간참여횟수는 12.55회, 1박 이상의 국내여행 연 4.05회, 해외여행 및 연수 연 2.36회로 나왔다. 특별히 1박 이상의 국내여행의 경우는 가구 소득이 높은 집단의 경우 참여 여부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Ⅳ-2-28〉 아동의 활동별 참여빈도: 당일여행 및 나들이, 국내여행, 해외연수

단위: %, 회(명)

구분	계(수)	당일여행 및 나들이				1박 이상의 국내여행				해외여행 및 연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0.00(1348)	78.26	21.74	12.55	14.57	59.05	40.95	4.05	11.89	1.04	98.96	2.36	3.05
아동 성별													
남	100.00(668)	76.45	23.55	12.08	13.64	59.01	40.99	3.48	6.13	1.16	98.84	1.13	0.35
여	100.00(660)	80.15	19.85	13.02	15.45	59.09	40.91	4.65	15.79	0.91	99.09	4.00	4.29
$\chi^2(df)/t$		2.71(1)		-1.05		0.001(1)		-1.40		0.21(1)		-1.91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0(819)	78.75	21.25	12.41	14.36	58.97	41.03	4.17	14.21	1.22	98.78	2.50	3.47
미취업	100.00(496)	78.43	21.57	12.95	15.09	60.08	39.92	3.89	7.01	0.81	99.19	2.00	2.00
$\chi^2(df)/t$		0.02(1)		-0.57		0.16(1)		0.31		0.50(1)		0.27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00.00(316)	73.10	26.90	11.34	13.59	48.10	51.90	4.15	10.42	-	100.00	-	-
400초과-550만원	100.00(332)	78.01	21.99	13.13	15.31	54.82	45.18	2.81	2.87	0.90	99.10	6.00	5.57
550초과-700만원	100.00(326)	76.99	23.01	12.71	13.11	61.96	38.04	5.49	21.05	1.23	98.77	1.75	1.50
700만원 초과	100.00(266)	82.71	17.29	12.96	16.51	71.05	28.95	3.70	4.06	2.26	97.74	1.17	0.41
$\chi^2(df)/F$		7.74(3)		0.72		34.79(3)***		1.57		7.25(3)		3.57	

주: 1) 한 달은 12개월, 일주일은 48주를 기준으로 연간 참여 횟수를 환산함.
2) 보호자의 응답임.
*** $p < .001$.

패널아동의 문화체험/예술 감상/견학과 종교활동 연간 참여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Ⅳ-2-29〉와 같다. 문화체험/예술 감상/견학활동은 전체의 36.28%(연간 참여횟수 5.65회)가, 종교활동은 18.77%(연간 참여횟수 46.59회)가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는데, 2020년 조사결과(김지현 외, 2021: 117) 각각 57.91%, 27.42%였던 것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참여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2-29〉 아동의 활동별 참여빈도: 문화체험 및 예술감상, 견학, 종교활동

단위: %, 회(명)

구분	계(수)	문화체험, 예술감상, 견학				종교활동			
		참여 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0.00(1348)	36.28	63.72	5.65	8.23	18.77	81.23	46.59	35.22
아동 성별									
남	100.00(668)	34.59	65.41	5.34	7.15	19.33	80.67	46.16	35.22
여	100.00(660)	38.03	61.97	5.96	9.14	18.18	81.82	47.08	35.36
$x^2(df)/t$		1.72(1)		-0.83		0.29(1)		-0.21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0(819)	34.07	65.93	5.57	7.29	17.58	82.42	44.05	33.72
미취업	100.00(496)	40.93	59.07	5.78	9.49	21.17	78.83	50.03	37.70
$x^2(df)/t$		6.26(1)*		-0.27		2.59(1)		-1.31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00.00(316)	29.43	70.57	5.61	7.78	18.67	81.33	55.88	39.48
400초과~550만원	100.00(332)	34.34	65.66	4.52	5.21	15.96	84.04	52.43	44.49
550초과~700만원	100.00(326)	37.42	62.58	7.09	11.82	20.25	79.75	41.15	26.81
700만원 초과	100.00(266)	44.36	55.64	5.64	6.30	19.17	80.83	41.43	29.65
$x^2(df)/F$		14.67(3)**		1.93		2.16(3)		2.63	

주: 1) 한 달은 12개월, 일주일은 48주를 기준으로 연간 참여 횟수를 환산함.
2)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보호자를 대상으로 패널아동의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참여 빈도를 조사한 결과, 봉사활동은 패널아동의 14.61%가, 동아리활동은 18.92%가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2020년 조사결과(김지현 외, 2021: 118) 각각 8.73%, 10.81% 보다 다소 높아진 수치였다. 해당 사례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간 참여 횟수도 봉사활동 19.32회, 동아리활동 49.71회로 전년도 0.80회, 2.54회(김지현 외, 2021: 118)에 비해 확

연히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1년차였던 2020년 전면 중단된 학교 내 여러 활동이 2년차인 2021년에 들어서면서 일부 가능해진 결과로 추정된다.

〈표 Ⅳ-2-30〉 아동의 활동별 참여빈도: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단위: %, 회(명)

구분	계(수)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참여 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 횟수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0.00(1348)	14.61	85.39	19.32	35.92	18.92	81.08	49.71	41.97
아동 성별									
남	100.00(668)	13.66	86.34	19.19	34.20	17.59	82.41	48.06	36.40
여	100.00(660)	15.61	84.39	19.44	37.58	20.30	79.70	51.19	46.51
$x^2(df)/t$		1.02(1)		-0.05		1.62(1)		-0.60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0(819)	13.43	86.57	19.52	31.57	19.54	80.46	51.81	43.03
미취업	100.00(496)	16.94	83.06	19.42	41.63	18.35	81.65	46.99	40.53
$x^2(df)/t$		2.59(1)		0.02		0.28(1)		0.87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00.00(316)	14.56	85.44	22.13	44.05	16.46	83.54	59.73	43.62
400초과-550만원	100.00(332)	15.36	84.64	18.12	23.19	17.77	82.23	46.93	44.00
550초과-700만원	100.00(326)	14.42	85.58	21.06	49.08	17.79	82.21	46.53	39.99
700만원 초과	100.00(266)	15.41	84.59	19.44	24.86	25.19	74.81	47.61	41.57
$x^2(df)/F$		0.20(3)		0.11		8.57(3)*		1.22	

주: 1) 한 달은 12개월, 일주일은 48주를 기준으로 연간 참여 횟수를 환산함.
2)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4) 시간사용 만족도 및 가족 식사

패널아동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 친구/휴식/여가활동으로 보내는 시간, 숙제/가족을 도와주는 시간에 대해 얼마큼 만족하는지를 8개의 세부문항으로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는데, 부족한 경우는 1점, 충분하면 2점,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3점이다.

먼저 가족과의 대화시간에 대해서는 1.94점(전년도 1.96점, 김지현 외, 2021: 122), 가족과의 식사시간 1.94점(전년도 1.98점, 김지현 외, 2021: 122), 가족과의 여가시간 1.73점(전년도 1.78점, 김지현 외, 2021: 122)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체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수준이다. 전년도 조사결과에 비해 세 가지 문항에서 모두 소폭 하락한 수치이다. 특히, 가족과의 식사시간은 남학생(1.96점)이 여학생(1.91점)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었고, 어머니가 취업 중인 가구의 패널아동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가족과의 식사시간에 대한 만족도 다소 낮았다.

〈표 Ⅳ-2-31〉 아동의 시간사용 만족도: 가족과의 시간

단위: 점(명)

구분	(수)	가족과 대화시간		가족과의 식사시간		가족과의 여가 활동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1.94	0.37	1.94	0.37	1.73	0.50
아동 성별							
남	(677)	1.95	0.34	1.96	0.35	1.74	0.50
여	(649)	1.94	0.39	1.91	0.39	1.72	0.50
t		0.19		2.44*		0.96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1.95	0.35	1.93	0.35	1.74	0.49
미취업	(489)	1.95	0.38	1.97	0.38	1.73	0.52
t		0.09		-2.08*		0.38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5)	1.94	0.39	1.94	0.39	1.72[a]	0.51
400초과~550만원	(327)	1.93	0.38	1.95	0.37	1.71[a]	0.50
550초과~700만원	(316)	1.96	0.35	1.93	0.38	1.80[a]	0.49
700만원 초과	(261)	1.97	0.33	1.93	0.33	1.69[a]	0.49
F		0.84		0.30		2.70*	

주: 1) 아동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부족함. 2.충분함. 3.지나치게 많음).
3)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 1.88점, 휴식시간은 2.01점, 취미, 운동 등을 포함하는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1.87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 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은 전년도 1.91점, 휴식시간 2.06점, 여가활동 1.98점(김지현 외, 2021: 123)으로 앞서 살펴본 가족과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조금씩 만족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32〉 아동의 시간사용 만족도: 친구, 휴식, 여가활동 시간

단위: 점(명)

구분	(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휴식시간		여가활동 (취미, 운동 등) 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1.88	0.51	2.01	0.49	1.87	0.47
아동 성별							
남	(677)	1.86	0.52	2.01	0.48	1.86	0.47
여	(649)	1.90	0.51	2.00	0.50	1.88	0.47
t		-1.16		0.72		-0.78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1.90	0.50	2.02	0.48	1.89	0.46
미취업	(489)	1.85	0.53	1.98	0.51	1.84	0.48
t		1.59		1.69		1.88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5)	1.87	0.52	2.02	0.48	1.90	0.48
400초과~550만원	(327)	1.88	0.54	1.98	0.53	1.83	0.48
550초과~700만원	(316)	1.91	0.47	2.01	0.51	1.88	0.47
700만원 초과	(261)	1.85	0.51	2.02	0.43	1.88	0.48
F		0.51		0.40		1.24	

주: 1) 아동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부족함. 2.충분함. 3.지나치게 많음).

패널아동이 숙제하는 시간과 집에서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숙제시간은 1.92점,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에 대해서는 1.82점으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에서 숙제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2.04점,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은 1.91점이었는데(김지현 외, 2021: 124), 이 문항 역시 소폭 하락하였다. 특히, 집에서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은 어머니가 취업 중인 패널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가구 소득이 400만원 이하인 집단이 5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인 집단의 패널아동 보다 더 충분하다고 여겼다.

〈표 Ⅳ-2-33〉 아동의 시간사용 만족도: 숙제,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

단위: 점(명)

구분	(수)	숙제하는 시간		집에서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1.92	0.43	1.82	0.48

구분	(수)	숙제하는 시간		집에서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아동 성별					
남	(677)	1.92	0.42	1.82	0.49
여	(649)	1.91	0.43	1.82	0.47
t		0.40		0.35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1.94	0.43	1.86	0.46
미취업	(489)	1.89	0.43	1.76	0.51
t		1.78		3.59***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5)	1.92	0.41	1.88[b]	0.47
400초과~550만원	(327)	1.91	0.45	1.81[ab]	0.46
550초과~700만원	(316)	1.92	0.45	1.75[a]	0.51
700만원 초과	(261)	1.92	0.39	1.84[ab]	0.47
F		0.04		3.90**	

주: 1) 아동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부족함. 2.충분함. 3.지나치게 많음).
** $p < .01$, *** $p < .001$.

보호자를 대상으로 패널아동의 일주일 간 가족과의 식사 횟수를 조사한 결과, 주 8회 이상 함께 식사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6.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주 6-7회 20.99%, 주 3-5회 16.02% 순이었다. 2020년 조사에서는(김지현 외, 2021: 125) 주 8회 이상 식사한다는 응답이 61.49%였던 것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이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가구가 취업한 가구 보다 주 8회 이상 식사횟수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Ⅳ-2-34〉 가족과의 식사 횟수(일주일 평균)

단위: %(명)

구분	거의 안함	주 1~2회	주 3~5회	주 6~7회	주 8회 이상	계(수)
전체	0.89	6.01	16.02	20.99	56.08	100.00(1348)
아동 성별						
남	1.02	6.54	15.26	20.93	56.25	100.00(668)
여	0.76	5.45	16.82	21.06	55.91	100.00(660)

구분	거의 안함	주 1~2회	주 3~5회	주 6~7회	주 8회 이상	계(수)
$x^2(df)$			1.44(4)			
모 취업 여부						
취업	0.98	6.72	17.95	21.86	52.50	100.00(819)
미취업	0.81	4.84	12.30	19.35	62.70	100.00(496)
$x^2(df)$			14.77(4)**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90	5.38	14.56	19.30	58.86	100.00(316)
400초과-550만원	0.60	7.53	16.27	23.49	52.11	100.00(332)
550초과-700만원	0.61	5.21	16.87	21.47	55.83	100.00(326)
700만원 초과	0.38	5.64	16.54	19.17	58.27	100.00(266)
$x^2(df)$			11.01(12)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1$.

다. 신체 및 건강 특성

1) 신체 특성 및 주관적 건강 상태

아동의 신체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장, 체중 및 BMI와 허리둘레를 측정하였다. 아동의 신장은 평균 161.63cm, 체중은 55.15kg, BMI는 평균 21.00kg/m^2, 허리둘레는 평균 75.79cm로 측정되었다. 전년도에 비해 아동들이 신장과 체중이 성장한(전년도 신장 평균 155.41cm, 체중 평균 50.00kg, 김지현 외, 2021:125) 것으로 보여지며 체질량지수인 BMI도 정상범위(18.5~22.9)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2-35〉 아동의 신체 치수(신장, 허리둘레, 체중, BMI)

단위: cm, kg, kg/m^2, (명)

구분	최소	최대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수)
신장	135.00	185.40	161.90	161.63	6.85	(1311)
체중	30.00	116.00	53.00	55.15	11.89	(1305)
허리둘레	22.00	120.00	75.00	75.79	11.45	(1118)
BMI	12.98	37.62	20.40	21.00	3.66	(1299)

아동 특성에 따라 신체치수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신장은 164.15cm, 여학생의 신장은 158.99cm, 남학생의 체중은 58.99kg, 여학생의 체중은 51.13kg이었고 각각의 BMI는 21.79, 20.17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라 남학생들이 여학생

에 비하여 신장, 체중, 허리둘레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허리둘레는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Ⅳ-2-36〉 아동의 특성별 신체 치수

단위: cm, kg, kg/m^2, (명)

구분	(수)	신장		(수)	허리둘레		(수)	체중		(수)	BMI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11)	161.63	6.85	(1118)	75.79	11.45	(1305)	55.15	11.89	(1299)	21.00	3.66
아동 성별												
남	(670)	164.15	7.16	(576)	79.11	11.89	(667)	58.99	12.90	(664)	21.79	4.01
여	(641)	158.99	5.37	(542)	72.27	9.81	(638)	51.13	9.15	(635)	20.17	3.04
t		14.73***			10.47***			12.65***			8.20***	
모 취업 여부												
취업	(797)	161.65	6.93	(678)	76.22	11.31	(790)	55.43	11.95	(787)	21.09	3.67
미취업	(482)	161.50	6.77	(413)	75.08	11.39	(483)	54.56	11.71	(480)	20.81	3.61
t		0.39			1.61			1.28			1.32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4)	161.40	6.74	(272)	77.13^{b}	11.08	(313)	55.64	12.55	(312)	21.25	3.90
400초과-550만원	(325)	161.81	7.22	(286)	76.09^{ab}	11.84	(325)	55.30	12.23	(324)	20.99	3.62
550초과-700만원	(311)	161.95	6.64	(268)	75.96^{ab}	11.80	(309)	55.38	11.82	(308)	21.03	3.68
700만원 초과	(259)	161.67	6.69	(214)	73.33^{a}	10.65	(255)	54.07	11.02	(254)	20.57	3.41
F		0.37			4.65**			0.92			1.65	

** $p < .01$, *** $p < .001$.

다음은 아동에게 본인의 신체적 자아상에 대해 4점 척도로 답하도록 하였다. 아동들은 본인의 신체적 자아상에 대해 2.76점(전년도 2.86점, 김지현 외, 2021: 129)으로 응답하였으며, 대체적으로 2점 후반대로 응답하였다. 외모 만족에 대하여는 2.94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하여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신장 만족에 대하여는 2.60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적 자아상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외모를 바꾸고 싶은 욕구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37〉 신체적 자아상

단위: 점(명)

구분	전체		외모 만족		체중 만족		거울 속 모습 만족		외모 교체 불필요 의사		신장 만족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76	0.52	2.94	0.65	2.65	0.88	2.89	0.68	2.73	0.85	2.60	0.89	(1326)
아동 성별													
남	2.87	0.50	3.03	0.59	2.74	0.87	2.97	0.66	2.95	0.83	2.67	0.89	(677)
여	2.65	0.52	2.84	0.68	2.55	0.89	2.81	0.68	2.50	0.82	2.54	0.89	(649)
t	8.00***		5.61***		3.97***		4.26***		9.80***		2.69**		
모 취업 여부													
취업	2.75	0.51	2.94	0.65	2.63	0.88	2.87	0.66	2.70	0.85	2.60	0.89	(804)
미취업	2.78	0.53	2.94	0.64	2.66	0.88	2.93	0.69	2.76	0.85	2.59	0.89	(489)
t	-1.01		-0.03		-0.49		-1.76		-1.30		0.12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2.80	0.50	2.93	0.65	2.67	0.91	2.92	0.68	2.78	0.87	2.71	0.86	(315)
400초과-550만원	2.74	0.51	2.92	0.62	2.67	0.83	2.86	0.66	2.73	0.85	2.54	0.87	(327)
550초과~700만원	2.78	0.56	2.98	0.69	2.65	0.91	2.91	0.71	2.73	0.85	2.61	0.94	(316)
700만원 초과	2.74	0.51	2.90	0.62	2.67	0.89	2.87	0.63	2.70	0.84	2.56	0.86	(261)
F	0.96		0.84		0.06		0.65		0.37		2.42		

주: 1) 아동 응답임.
2) 체중 만족(나는 내 체중에 불만스럽다), 외모교체 욕구(할 수 있다면 나의 외모에 대해 바꾸고 싶은 부분이 많다) 문항은 역코딩
3)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 $p < .01$, *** $p < .001$.

한편, 본인의 체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44.87%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약간 비만 26.55%, 약간 마른 편 19.76%, 매우 비만 5.96%, 매우 마른 편 2.87% 순이었다. 아동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이 자신의 체형을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응답에서는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표 Ⅳ-2-38〉 아동이 인식한 아동의 체형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마른편	약간 마른편	보통	약간 비만	매우 비만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87	19.76	44.87	26.55	5.96	100.00(1326)	3.13	0.89
아동 성별								
남	4.43	23.19	37.08	28.36	6.94	100.00(677)	3.10	0.98
여	1.23	16.18	53.00	24.65	4.93	100.00(649)	3.16	0.79

구분	매우 마른편	약간 마른편	보통	약간 비만	매우 비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x^2(df)/t$			42.78(4)***				-1.16	
모 취업 여부								
취업	3.11	19.28	43.16	28.73	5.72	100.00(804)	3.15	0.90
미취업	2.66	20.25	47.44	23.52	6.13	100.00(489)	3.10	0.88
$x^2(df)/t$			4.78(4)				0.87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2.86	17.78	47.62	25.08	6.67	100.00(315)	3.15	0.89
400초과~550만원	2.75	19.57	47.09	25.08	5.50	100.00(327)	3.11	0.88
550초과~700만원	3.48	18.99	41.46	31.01	5.06	100.00(316)	3.15	0.91
700만원 초과	3.07	22.99	43.68	23.75	6.51	100.00(261)	3.08	0.92
$x^2(df)/F$			8.83(12)				0.45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마른편이다~5.매우 비만이다).
*** $p < .001$.

아동에게 체중조절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패널아동의 36.43%가 감량 노력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감량 노력 31.75%, 유지 노력 22.78%, 증량 노력 9.05% 순이었다. 아동 성별에 따라 체중 조절 경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감량 노력과 유지 노력을 많이 하고 증량 노력을 상대적으로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39〉 체중조절 경험

단위: %(명)

구분	감량 노력	유지 노력	증량 노력	노력 안함	계(수)
전체	31.75	22.78	9.05	36.43	100.00(1326)
아동 성별					
남	24.22	22.01	14.03	39.73	100.00(677)
여	39.60	23.57	3.85	32.97	100.00(649)
$x^2(df)$		67.13(3)***			
모 취업 여부					
취업	33.71	21.52	9.08	35.70	100.00(804)
미취업	28.83	24.74	9.00	37.42	100.00(489)
$x^2(df)$		3.91(3)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75	23.49	11.43	33.33	100.00(315)
400초과~550만원	31.80	20.80	8.26	39.14	100.00(327)
550초과~700만원	31.01	26.27	8.23	34.49	100.0(316)

구분	감량 노력	유지 노력	증량 노력	노력 안함	계(수)
700만원 초과	31.42	19.92	7.66	41.00	100.0(261)
$x^2(df)$	9.53(9)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01$.

패널아동에게 자신의 체중조절 방법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운동 78.01%, 식사량 감량 53.67%, 결식 16.74%, 건강기능 식품 5.12%, 기타 3.60%, 원푸드 다이어트 2.35% 순으로 응답하였다.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체중조절 방법으로 결식을 꼽은 아동의 비율이 높았다.

〈표 Ⅳ-2-40〉 체중조절 방법(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운동	식사량 감량	결식	건강기능 식품	원푸드 다이어트	기타	(수)
전체	78.01	53.67	16.74	5.12	2.35	3.60	(723)
아동 성별							
남	81.79	45.69	9.58	5.75	1.60	2.88	(313)
여	75.12	59.76	22.20	4.63	2.93	4.15	(410)
모 취업 여부							
취업	79.50	53.15	15.54	5.18	2.03	2.93	(444)
미취업	75.95	55.34	18.70	5.34	1.91	4.96	(262)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78.74	52.30	17.24	4.60	2.30	5.17	(174)
400초과~550만원	76.74	52.33	15.70	4.65	2.91	3.49	(172)
550초과~700만원	80.66	54.14	13.81	6.63	1.66	2.21	(181)
700만원 초과	73.88	61.19	15.67	5.97	2.99	2.99	(134)

주: 아동의 응답임.

아동의 51.34%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으며(전년도 45.67%, 김지현 외, 2021: 127), 시력 교정도구를 사용하는 아동은 4.15%(전년도 3.58%, 김지현 외, 2021: 127)로 전년도에 비하여 안경 및 시력도구를 사용하는 비율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을 착용한 평균 연령은 9.54세이며 시력 교정 도구를 사용한 평균 연령은 이보다 조금 늦은 10.18세였다.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안경을 착용하는 연령이 다소 낮아졌으며, 아동 성별 및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표 Ⅳ-2-41〉 아동의 시력 보정 도구 착용 시기

단위: 세(명)

구분	안경		(수)	시력 교정도구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9.54	2.16	(692)	10.18	2.54	(56)
아동 성별						
남	9.47	2.10	(331)	10.25	1.92	(24)
여	9.60	2.22	(361)	10.13	2.95	(32)
t	-0.76			0.18		
모 취업 여부						
취업	9.45	2.20	(429)	10.11	2.37	(38)
미취업	9.70	2.06	(247)	10.33	2.93	(18)
t	-1.47			-0.31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9.75[a]	2.05	(163)	10.83	1.72	(6)
400초과~550만원	9.52[a]	2.12	(157)	10.15	1.91	(13)
550초과~700만원	9.69[a]	2.13	(178)	11.13	1.50	(16)
700만원 초과	9.12[a]	2.28	(138)	9.41	2.67	(17)
F	2.62*			2.04		

주: 1) 전체 참여 아동의 51.34%는 안경, 4.15%는 시력 교정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함.
2) 보호자의 응답임.
3)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아동의 2차 성징의 발현 여부 및 시기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몽정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62.33%(전년도 82.20%, 김지현 외, 2021: 128)로 나타나, 남학생의 경우 과반 이상이 2차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첫 몽정이 발현된 시기가 2021년(중학교 1학년)인 경우가 14.62%, 2020년(초등 6학년)인 경우가 17.13%, 2019년(초등 5학년)인 경우가 4.14%, 2018년 이전인 경우가 1.78%로 나타났다.

〈표 Ⅳ-2-42〉 남학생의 2차 성징(몽정) 발현 여부 및 처음 나타난 시기

단위: %(명)

구분	계(수)	몽정 발현 여부					
		나타남(처음 나타난 시기)					나타나지 않음
		(2021)	(2020)	(2019)	(2018)	(2017년 이전)	
전체	100.00(677)	14.62	17.13	4.14	1.48	0.30	62.33

주: 아동의 응답임.

여학생의 경우 초경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90.91%로 전년도 37.89%(김지현 외, 2021: 128)에 비해 약 2.4배 증가했다. 초경이 처음 나타난 시기를 살펴본 결과,

2020년이 43.91%로 가장 높았고 2021년 15.66%, 2019년 25.42%, 2018년 5.24%, 2017년 이전 0.77% 순이었다.

〈표 Ⅳ-2-43〉 여학생의 2차 성징(초경) 발현 여부 및 처음 나타난 시기

단위: %(명)

구분	계(수)	초경 발현 여부					
		나타남(처음 나타난 시기)					나타나지 않음
		(2021)	(2020)	(2019)	(2018)	(2017년 이전)	
전체	100.00(649)	15.66	43.91	25.42	5.24	0.77	9.09

주: 아동의 응답임.

아동의 보호자가 인식한 자녀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이 60.61%, 매우 건강하다는 응답이 26.78%로 보호자는 아동이 대체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 기준으로는 평균 4.12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미취업모 보호자는 취업모 보호자에 비해 자녀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Ⅳ-2-44〉 보호자가 인식한 아동의 주관적 건강 상태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은편임	보통임	건강한 편임	매우 건강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37	1.04	11.20	60.61	26.78	100.00(1348)	4.12	0.66
아동 성별								
남	0.29	1.31	11.92	57.70	28.78	100.00(688)	4.13	0.68
여	0.45	0.76	10.45	63.64	24.70	100.00(660)	4.11	0.64
$x^2(df)/t$			5.92(4)				0.56	
모 취업 여부								
취업	0.37	0.98	12.45	61.29	24.91	100.00(819)	4.09	0.66
미취업	0.40	1.21	8.87	59.27	30.24	100.00(496)	4.18	0.67
$x^2(df)/t$			7.21(4)				-2.21*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0.32	0.95	11.08	64.56	23.10	100.00(316)	4.09	0.63
400초과~550만원	0.30	0.60	9.94	58.43	30.72	100.00(332)	4.19	0.65
550초과~700만원	0.31	0.92	12.58	57.98	28.22	100.00(326)	4.13	0.68
700만원 초과	0.38	1.50	11.28	59.40	27.44	100.00(266)	4.12	0.68
$x^2(df)/F$			7.33(12)				1.18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건강하지 않음~5.매우 건강함).
* $p < .05$

아동의 담임교사가 응답한 중학교 1학년 학생건강체력평가 시스템 (PAPS) 결과를 살펴보면, 3등급 35.62%, 2등급 33.41%, 4등급 13.94%, 5등급 8.63%, 1등급 8.4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높은 등급(1~2등급)인 경우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비율이 높았고, 낮은 등급(3~5등급)인 경우 남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 소득 400만원 초과 550만원 이하에 속하는 아동들의 등급이 다른 소득 그룹의 아동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45〉 아동의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 결과

단위: %(명), 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8.41	33.41	35.62	13.94	8.63	100.00(452)	2.81	1.06
아동 성별								
남	6.49	27.27	38.53	17.32	10.39	100.00(231)	2.98	1.06
여	10.41	39.82	32.58	10.41	6.79	100.00(221)	2.63	1.03
$x^2(df)/t$			14.07(4)**				3.50***	
모 취업 여부								
취업	8.74	34.97	35.66	13.99	6.64	100.00(286)	2.75	1.02
미취업	8.50	30.07	35.95	14.38	11.11	100.00(153)	2.90	1.11
$x^2(df)/t$			3.17(4)				-1.40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7.14	30.95	31.75	20.63	9.52	100.00(126)	2.94^{b}	1.09
400초과-550만원	11.86	42.37	33.90	5.93	5.93	100.00(118)	2.52^{a}	0.98
550초과-700만원	9.18	28.57	38.78	12.24	11.22	100.00(98)	2.88^{ab}	1.11
700만원 초과	3.49	31.40	38.37	17.44	9.30	100.00(86)	2.98^{b}	1.01
$x^2(df)/F$			21.68(12)*				4.61**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0-19점: 5등급, 20-39점: 4등급, 40-59점: 3등급, 60-79점: 2등급, 80-100.0점: 1등급
* $p < .05$, ** $p < .01$, *** $p < .001$.

2) 질환 및 치료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난 1년간 자녀의 응급실 치료 경험 및 입원 여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응급실 치료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7.18%였으며, 입원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97.92%로 대부분 응급실 치료 및 입원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 어머니의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2-46〉 아동의 치료 및 입원 여부

단위: %(명)

구분	응급실 치료 경험		입원 경험		계(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2.82	97.18	2.08	97.92	100.00(1348)
아동 성별					
남	3.34	96.66	2.62	97.38	100.00(688)
여	2.27	97.73	1.52	98.48	100.00(660)
$x^2(df)$	1.41(1)		2.01(1)		
모 취업 여부					
취업	2.93	97.07	1.71	98.29	100.00(819)
미취업	2.62	97.38	2.62	97.38	100.00(496)
$x^2(df)$	0.11(1)		1.28(1)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80	96.20	3.16	96.84	100.00(316)
400초과-550만원	2.71	97.29	1.81	98.19	100.00(332)
550초과-700만원	2.76	97.24	2.15	97.85	100.00(326)
700만원 초과	2.63	97.37	1.50	98.50	100.00(266)
$x^2(df)$	0.98(3)		2.23(3)		

주: 보호자의 응답임.

보호자에게 패널아동의 장애 여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지적장애 8명, 지체장애 3명, 시각장애, 심장장애, 자폐성 장애, 기타 장애가 각 2명,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간질장애가 각 1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2-47〉 아동의 장애 여부

단위: %(명)

구분	계(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체장애	100.00(3)	33.33	66.67
뇌병변장애	100.00(1)	100.00	-
시각장애	100.00(2)	50.00	50.00
청각장애	100.00(1)	-	100.00
언어장애	100.00(1)	-	100.00
안면장애	-	-	-
신장장애	-	-	-
심장장애	100.00(2)	-	100.00
간장애	-	-	-
호흡기장애	-	-	-
장루,요루장애	-	-	-
간질장애	100.00(1)	-	100.00

구분	계(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적장애	100.00(8)	87.50	12.50
정신장애	-	-	-
자폐성장애	100.00(2)	-	100.00
기타 장애	100.00(2)	-	100.00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아동의 만성질환별 진단 및 치료 여부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문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아동의 17.58%가 만성 비염을 진단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토피 피부염 6.82%, 알레르기 결막염 2.74%, 기타 질환 2.00%,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및 식품 알레르기, 천식은 각각 1.85%로 조사되었다. 이외의 질환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Ⅳ-2-48〉 아동의 만성 질환별 진단 및 치료 여부

단위: %(명)

구분	진단받은 비율 (중복응답)	계(수)	치료 여부		
			정기적으로 받음	간헐적으로 받음	받지 않음
선천성 심장질환	0.59	100.00(8)	75.00	12.50	12.50
뇌전증(간질)	0.15	100.00(2)	100.00	-	-
당뇨	0.15	100.00(2)	50.00	-	50.00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1.85	100.00(25)	4.00	52.00	44.00
만성 중이염	0.37	100.00(5)	40.00	20.00	40.00
만성 요로감염	0.07	100.00(1)	-	-	100.00
천식	1.85	100.00(25)	16.00	32.00	52.00
만성 비염	17.58	100.00(237)	6.75	65.85	27.43
아토피 피부염	6.82	100.00(92)	7.61	55.43	36.96
식품 알레르기	1.85	100.00(25)	4.00	32.00	64.00
알레르기 결막염	2.74	100.00(37)	2.70	75.69	21.62
기타 질환	2.00	100.00(27)	22.22	18.52	59.26

주: 1) 진단받은 비율은 응답한 보호자를 전체로 산출됨.
2) 치료여부는 해당 질환을 진단받은 아동에 한정하여 분석됨.
3) 보호자의 응답임.

보호자에게 패널아동이 심리사회적 질환을 진단 받은 적이 있는지 대해 질문한 결과, 의사소통 장애를 진단 받은 경우는 0.74%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질환을 진단 받는 경우는 대부분 1% 미만이었다. 심리사회적 질환에 대한 상담 및 치

료를 지속 또는 간헐적으로 받는 경우를 조사해본 결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및 파괴적, 충동통제 및 품행장애, 불안 장애의 경우 진단 받은 모든 아동들이 지속적 상담 및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의사소통 장애를 진단 받은 아동의 70.00%가 상담 및 치료를 받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운동장애, 기타장애를 진단 받은 경우에도 상담 및 치료를 받지 않는 비율이 50.0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Ⅳ-2-49〉 아동의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진단 및 상담·치료 여부

단위: %(명)

구분	진단받은 비율 (중복응답)	계(수)	상담 및 치료 여부		
			지속적으로 받음	간헐적으로 받음	받지 않음
의사소통 장애	0.74	100.00(10)	30.00	-	70.00
자폐 스펙트럼장애	0.15	100.00(2)	100.00	-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0.37	100.00(5)	60.00	-	40.00
특정 학습장애	-	-	-	-	-
운동장애	0.59	100.00(8)	37.50	12.50	50.00
파괴적, 충동통제 및 품행장애	0.07	100.00(1)	100.00	-	-
배설장애	-	-	-	-	-
급식 및 섭식장애	-	-	-	-	-
불안 장애	0.15	100.00(2)	100.00	-	-
기타 장애	0.30	100.00(4)	25.00	25.00	50.00

주: 1) 치료여부는 해당 질환을 진단받은 아동에 한정하여 분석됨.
2) 보호자의 응답임.

라. 언어 및 학습 관련 특성

1) 언어 관련

아동에게 비속어 사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21.57%로 13차년도 32.65%(김지현 외, 2021: 137)에 비해 낮아졌고,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이 49.32%로 전년도 조사의 52.17%(김지현 외, 2021: 137)에 비해 낮아졌다. 평균은 4점 만점 기준으로 2.15점 수준으로 전년도 1.85점(김지현 외, 2021: 13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속어 사용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고 모의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2-50〉 비속어 사용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사용하지 않음	가끔 사용함	자주 사용함	매일 사용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1.57	49.32	22.02	7.09	100.00(1326)	2.15	0.84
아동 성별							
남	16.84	50.66	24.82	7.68	100.00(677)	2.23	0.82
여	26.50	47.92	19.11	6.47	100.00(649)	2.06	0.84
$x^2(df)/t$	20.44(3)***					3.90***	
모 취업 여부							
취업	19.90	49.75	22.76	7.59	100.00(804)	2.18	0.84
미취업	23.93	49.28	20.45	6.34	100.00(489)	2.09	0.83
$x^2(df)/t$	3.72(3)					1.85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8.10	52.70	20.95	8.25	100.00(315)	2.19	0.83
400초과~550만원	20.80	48.32	21.71	9.17	100.00(327)	2.19	0.87
550초과~700만원	22.15	48.73	24.68	4.43	100.00(316)	2.11	0.80
700만원 초과	26.05	44.06	21.84	8.05	100.00(261)	2.12	0.89
$x^2(df)/F$	13.23(9)					0.84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사용하지 않음~4.매일 사용함).
*** $p < .001$.

2) 학습 관련

아동이 재학 중인 중학교 교과목 담당교사가 평가한 패널아동의 학업수행 능력 응답 결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과목에서 상위 60~80%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30~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수행 능력이 중간 40~60%, 상위 80~100%에 해당하는 아동들도 26%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2-51〉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

단위: %(명)

구분	하위 20% 이하	하위 20~40%	중간 40-60%	상위 60-80%	상위 80-100%	계(수)
국어	3.03	7.02	27.11	35.57	27.27	100.00(627)
영어	4.94	10.21	26.16	30.14	28.55	100.00(627)
수학	4.78	9.25	28.23	31.58	26.16	100.00(627)
사회	2.71	7.66	29.67	33.01	26.95	100.00(627)
과학	3.35	8.45	29.67	32.22	26.32	100.00(627)

주: 해당 교과목 담당교사의 응답임.

다음은 패널아동에게 학업이해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이다. 특히, 국어의 경우 60~80%의 이해도를 갖춘 아동들은 43.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과목에 비해 이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였다.

〈표 Ⅳ-2-52〉 아동의 학업이해도

단위: %(명)

구분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100%	계(수)
국어	0.83	4.75	27.00	43.44	23.98	100.00(1326)
영어	2.56	11.09	23.23	30.17	32.96	100.00(1326)
수학	1.96	10.03	21.79	31.60	34.62	100.00(1326)
사회	1.13	8.52	32.50	36.80	21.04	100.00(1326)
과학	1.73	9.13	30.62	34.69	23.83	100.00(1326)

주 1) 아동의 응답임.
2) 20% 이하: 거의 이해하지 못함, 20-40% 미만: 잘 이해하지 못함, 40-60% 미만: 보통, 60-80% 미만: 잘 이해함, 80-100%: 매우 잘 이해함.

〈표 Ⅳ-2-53〉은 〈표 Ⅳ-2-51〉에서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을 5등급으로 나눈 것을 5점 척도로 가정하고, '하위 20% 이하'를 1, '하위 20~40%'를 2, '중간 40-60%'을 3, '상위 60-80%'를 4, '상위 80-100%'를 5점으로 두고 평균을 내어 집단간 차이를 알아본 것으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동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든 과목에서 교사가 학업수행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였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패널아동의 학업수행 능력을 높게 나타난 경향을 보였다.

〈표 Ⅳ-2-53〉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평균)

단위: 점(명)

구분	(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627)	3.77	1.02	3.67	1.14	3.65	1.11	3.74	1.02	3.70	1.05
아동 성별											
남	(317)	3.58	1.05	3.44	1.16	3.49	1.14	3.55	1.05	3.53	1.08
여	(310)	3.97	0.96	3.91	1.06	3.82	1.05	3.93	0.97	3.87	0.99
t		-4.86***		-5.30***		-3.81***		-4.68***		-4.06***	
모 취업 여부											
취업	(404)	3.75	1.02	3.64	1.13	3.63	1.09	3.72	1.02	3.66	1.05
미취업	(207)	3.81	1.02	3.71	1.15	3.68	1.14	3.76	1.03	3.75	1.06
t		-0.65		-0.73		-0.55		-1.00		-0.43	

구분	(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62)	3.56[a]	1.12	3.40[a]	1.20	3.42[a]	1.19	3.56	1.07	3.51[a]	1.11
400초과~550만원	(168)	3.76[a]	0.96	3.60[ab]	1.12	3.60[ab]	1.08	3.74	0.95	3.60[ab]	1.04
550초과~700만원	(139)	3.88[a]	0.97	3.81[b]	1.05	3.79[b]	1.05	3.86	1.00	3.88[b]	0.97
700만원 초과	(123)	3.87[a]	1.02	3.88[b]	1.10	3.80[b]	1.05	3.82	1.09	3.80[ab]	1.06
F		3.33*		5.43**		3.96**		2.47		3.84**	

주: 1) 해당 교과목 담당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하위 20% 이내~5.상위 20% 이내).
3)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표 Ⅳ-2-54〉은 〈표 Ⅳ-2-52〉에 나타난 것처럼 아동의 학업이해도를 5등급으로 나눈 것을 5점 척도로 가정하고, '20% 이하'를 1, '20-40% 미만'을 2, '40-60% 미만'을 3, '60-80% 미만'을 4, '80-100%'를 5점으로 두고 평균을 계산한 것으로 해석에 주희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아동이 인식한 아동의 학업이해도는 5점 만점에 수학이 3.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가 3.68점으로 가장 낮았다. 아동 성별로 살펴보면, 국어와 영어 과목에서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과학의 경우에는 남학생의 평균 점수가 약간 높아, 국어, 영어는 여학생이, 과학은 남학생이 스스로 잘 이해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또한, 모든 과목에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이 인식한 학업이해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54〉 아동의 학업이해도(평균)

단위: 점(명)

구분	(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3.85	0.87	3.80	1.09	3.87	1.06	3.68	0.94	3.70	0.99
아동 성별											
남	(677)	3.73	0.87	3.70	1.12	3.87	1.09	3.67	0.91	3.76	0.98
여	(649)	3.97	0.85	3.90	1.06	3.86	1.03	3.69	0.97	3.63	0.99
t		-5.07***		-3.46***		0.15		-0.41		2.27*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3.86	0.85	3.78	1.08	3.87	1.05	3.68	0.94	3.71	0.96
미취업	(489)	3.84	0.90	3.84	1.10	3.87	1.08	3.69	0.94	3.70	1.01

구분	(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0.43		-0.86		0.02		0.27		-0.21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5)	3.73[a]	0.87	3.48[a]	1.18	3.58[a]	1.17	3.57[a]	0.93	3.58[a]	0.97
400초과-550만원	(327)	3.81[a]	0.85	3.69[a]	1.09	3.80[a]	1.04	3.63[ab]	0.92	3.68[ab]	0.97
550초과-700만원	(316)	3.90[ab]	0.90	3.98[b]	1.01	4.05[b]	1.01	3.82[b]	0.91	3.83[b]	0.97
700만원 초과	(261)	4.01[b]	0.81	4.05[b]	0.96	4.11[b]	0.90	3.80[b]	0.93	3.82[b]	0.95
F		5.51***		18.49***		16.73***		5.69***		4.43**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20% 이하. 거의 이해하지 못함, 2: 20-40% 미만. 잘 이해하지 못함, 3: 40-60% 미만: 보통. 4: 60-80% 미만, 잘 이해함. 5: 80-100.0%, 매우 잘 이해함).
* $p < .05$, ** $p < .01$. *** $p < .001$.

패널아동이 받는 학업스트레스를 살펴보면, 전체 스트레스 점수는 2.42점 이었다. 구체적으로 숙제/시험 스트레스 평균 점수가 2.64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공부 스트레스는 2.56점 순이며 대입/취업 스트레스가 2.04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로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받는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학교 성적 스트레스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미취업 상태인 아동의 전체적 학업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입/취업 스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Ⅳ-2-55〉 학업 스트레스

단위: 점(명)

구분	(수)	전체		학교성적 스트레스		숙제/시험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대입/취업 스트레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2.42	0.86	2.06	0.93	2.64	1.08	2.56	1.09	2.04	1.05
아동 성별											
남	(677)	2.32	0.85	1.92	0.89	2.53	1.09	2.51	1.11	1.92	1.03
여	(649)	2.53	0.85	2.22	0.94	2.76	1.05	2.62	1.06	2.17	1.07
t		-5.04***		-5.96***		-3.95***		-1.92		-4.44***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2.39	0.84	2.04	0.92	2.60	1.06	2.54	1.05	1.99	1.01
미취업	(489)	2.47	0.89	2.10	0.93	2.72	1.09	2.60	1.14	2.14	1.11

구분	(수)	전체		학교성적 스트레스		숙제/시험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대입/취업 스트레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2.04*		-1.04		-1.94		-0.87		-2.55*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5)	2.33	0.84	2.03	0.90	2.48[a]	1.03	2.46	1.05	1.93	1.02
400초과~550만원	(327)	2.45	0.88	2.11	0.97	2.63[ab]	1.05	2.61	1.08	2.03	1.05
550초과~700만원	(316)	2.41	0.89	2.03	0.94	2.68[ab]	1.15	2.53	1.13	2.07	1.08
700만원 초과	(261)	2.48	0.82	2.05	0.90	2.75[b]	1.03	2.64	1.06	2.13	1.06
F		2.12		0.49		3.43*		1.58		1.80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그런 적 없다~5.항상 그렇다).
* $p < .05$, *** $p < .001$

아동이 선호하는 과목선호도(1순위)를 보면, 체육이 41.7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학 12.44%, 미술 8.67%, 국어 7.32%, 영어 7.09%, 과학 6.56%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체육이 50.66%, 수학 14.48%, 과학 7.83%, 사회 5.61% 순이었고, 여학생은 체육 32.36%, 미술 14.33%, 수학 10.32%, 국어 10.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56〉 아동의 과목선호도: 1순위

단위: %(명)

구분	계(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기술가정	음악	미술	체육	정보	진로
전체	100.00(1326)	7.32	7.09	12.44	4.68	6.56	1.36	2.19	4.52	8.67	41.70	1.89	1.58
아동 성별													
남	100.00(677)	4.73	4.87	14.48	5.61	7.83	0.59	2.22	2.66	3.25	50.66	2.66	0.44
여	100.00(649)	10.02	9.40	10.32	3.70	5.24	2.16	2.16	6.47	14.33	32.36	1.08	2.77

주: 아동의 응답임.

선호하는 과목선호도(1+2순위)를 보면, 체육이 57.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학 25.26%, 미술 20.14%, 영어 16.74%, 과학 16.52%, 음악 15.16%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체육이 66.17%, 수학 27.92%, 과학 20.83%, 사회 16.54% 순이었고, 여학생은 체육 47.46%, 미술 29.28%, 수학 22.50%, 영어 19.57%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57〉 아동의 과목선호도: 1+2순위

단위: %(명)

구분	(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기술 가정	음악	미술	체육	정보	진로
전체	(1326)	13.12	16.74	25.26	13.35	16.52	4.68	6.64	15.16	20.14	57.01	5.35	6.03
아동 성별													
남	(677)	9.60	14.03	27.92	16.54	20.83	3.84	6.35	12.11	11.37	66.17	7.68	3.55
여	(649)	16.80	19.57	22.50	10.02	12.02	5.55	6.93	18.34	29.28	47.46	2.93	8.63

주: 아동의 응답임.

자기조절학습은 처음으로 추가한 내용으로서 '① 나는 어려운 과목을 공부할 때는 시간과 노력을 좀 더 많이 기울인다', '② 나는 싫어하는 과목이나 어려운 과목이라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열심히 해야지 다짐을 한다', '③ 나는 지루하지 않게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한다', '④ 나는 과목별 특징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한다', '⑤ 공부할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중간 중간에 스스로 점검한다' 등의 5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질문에 응답한 결과,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전체 평균은 2.61점이었다. 아동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2.55점, 여학생은 2.67점으로 여학생의 자기조절학습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취업한 아동의 경우 2.58점, 미취업인 경우 2.65점으로 나타나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아동의 자기조절학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2-58〉 자기조절학습

단위: 점(명)

구분	(수)	자기조절학습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2.61	0.54
아동 성별			
남	(677)	2.55	0.56
여	(649)	2.67	0.51
t		-3.97***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2.58	0.54
미취업	(489)	2.65	0.53
t		-2.33*	

구분	(수)	자기조절학습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5)	2.56	0.51
400초과~550만원	(327)	2.62	0.53
550초과~700만원	(316)	2.62	0.58
700만원 초과	(261)	2.65	0.53
F		1.49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 $p < .05$, *** $p < .001$.

마. 사회성 및 정서적 특성

1) 사회성 발달

가) 학교적응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12-13차년도 조사에서는 초등학생용 척도(민병수, 1991)를 사용하였으나, 패널아동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14차 조사부터는 중학생 대상으로 개발되어 청소년기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척도(이규미, 2005)를 사용하였다. 학교적응은 학교공부(8문항), 학교친구(10문항), 학교교사(10문항), 학교생활(10문항) 영역과 각 영역별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먼저, 각 영역의 평균을 살펴보면, 학교공부는 3.69점, 학교친구는 4.10점, 학교교사는 3.62점, 학교생활은 4.01점이었다. 학교친구와 학교생활의 경우 남학생(4.06점, 3.97점)보다는 여학생(4.15점, 4.05점)의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취업모 아동(4.13점)이 미취업모 아동(4.05점)보다 학교친구 점수가 높았으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학교공부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Ⅳ-2-59〉 아동의 학교적응(중고등학교)

단위: 점(명)

구분	(수)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3.69	0.64	4.10	0.61	3.62	0.73	4.01	0.59

구분	(수)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아동 성별									
남	(677)	3.70	0.64	4.06	0.61	3.59	0.75	3.97	0.63
여	(649)	3.67	0.63	4.15	0.61	3.64	0.71	4.05	0.55
t		0.73		-2.68**		-1.04		-2.42*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3.68	0.64	4.13	0.60	3.62	0.72	4.01	0.58
미취업	(489)	3.70	0.64	4.05	0.63	3.62	0.74	4.01	0.62
t		-0.65		2.22*		0.01		0.22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5)	3.61^{a}	0.66	4.07	0.66	3.64	0.77	4.02	0.58
400초과~550만원	(327)	3.68^{ab}	0.61	4.07	0.57	3.61	0.71	3.99	0.60
550초과~700만원	(316)	3.71^{ab}	0.62	4.13	0.60	3.57	0.75	3.98	0.60
700만원 초과	(261)	3.77^{b}	0.65	4.13	0.63	3.61	0.73	4.03	0.57
F		3.35*		0.82		0.42		0.41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다음으로 영역별 요인 점수를 살펴보면, 학교공부 영역의 학업유능감(문항 예시: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과 학업가치(문항 예시: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는 각각 3.69점이며, 학업유능감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학교친구 영역의 친구관계(문항 예시: 학교에는 재미있는 친구가 많다)와 상호협조성(문항 예시: 나는 모둠활동을 할 때 협조를 잘 하려고 노력 한다)은 각각 4.18점, 4.02점이었으며, 친구관계는 취업모 아동(4.22점)이 미취업모 아동(4.13점)보다 점수가 높았고, 상호협조성은 여학생(4.10점)이 남학생(3.94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Ⅳ-2-60〉 아동의 학교적응(중고등학교): 학교공부 및 학교친구

단위: 점(명)

구분	(수)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업유능감		학업가치		친구관계		상호협조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3.69	0.69	3.69	0.79	4.18	0.66	4.02	0.65
아동 성별									
남	(677)	3.70	0.71	3.69	0.79	4.17	0.64	3.94	0.68

구분	(수)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업유능감		학업가치		친구관계		상호협조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여	(649)	3.67	0.68	3.68	0.80	4.20	0.69	4.10	0.61
t		0.84		0.34		-0.69		-4.36***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3.68	0.71	3.68	0.79	4.22	0.64	4.04	0.65
미취업	(489)	3.71	0.67	3.69	0.79	4.13	0.70	3.98	0.64
t		-0.69		-0.40		2.49*		1.64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5)	3.58^{a}	0.69	3.65	0.81	4.14	0.72	4.01	0.68
400초과~550만원	(327)	3.66^{ab}	0.66	3.71	0.72	4.16	0.64	3.99	0.61
550초과~700만원	(316)	3.76^{b}	0.67	3.63	0.83	4.22	0.63	4.03	0.64
700만원 초과	(261)	3.78^{b}	0.71	3.76	0.81	4.20	0.67	4.06	0.67
F		5.29**		1.56		1.06		0.67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학교교사 영역에서는 교사호감(문항 예시: 선생님들은 배울 점이 많다)과 교사친밀감(문항 예시: 고민이 있으면 상담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다)이 각각 3.92점, 3.31점이었으며, 학교생활 영역에서 질서/규칙준수(문항 예시: 나는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와 학교생활만족(문항 예시: 나는 요즈음 학교생활이 즐겁고 유쾌하다)이 각각 4.02점, 4.00점이었다. 학교생활 하위 두 요인은 모두 남학생(3.98점, 3.96점)보다 여학생(4.06점, 4.04점)의 점수가 높았다.

〈표 Ⅳ-2-61〉 아동의 학교적응(중고등학교): 학교교사 및 학교생활

단위: 점(명)

구분	(수)	학교교사				학교생활			
		교사호감		교사친밀감		질서/규칙준수		학교생활만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3.92	0.74	3.31	0.88	4.02	0.63	4.00	0.66
아동 성별									
남	(677)	3.91	0.77	3.28	0.89	3.98	0.67	3.96	0.69
여	(649)	3.93	0.70	3.34	0.87	4.06	0.58	4.04	0.64
t		-0.71		-1.14		-2.25*		-2.19*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3.92	0.73	3.31	0.88	4.01	0.62	4.01	0.64
미취업	(489)	3.92	0.74	3.31	0.89	4.03	0.65	3.98	0.70

구분	(수)	학교교사				학교생활			
		교사호감		교사친밀감		질서/규칙준수		학교생활만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0.16		-0.12		-0.36		0.73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5)	3.95	0.77	3.33	0.92	4.03	0.62	4.00	0.65
400초과-550만원	(327)	3.89	0.70	3.32	0.87	4.00	0.65	3.99	0.66
550초과-700만원	(316)	3.87	0.75	3.27	0.88	3.98	0.63	3.98	0.68
700만원 초과	(261)	3.93	0.75	3.29	0.86	4.06	0.61	4.00	0.64
F		0.65		0.30		0.99		0.05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5$.

나) 폭력 경험

폭력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각각의 문항에 대부분 아동이 폭력피해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그 중에서 '다른 학생(친구)에게 험담, 심한(상스러운) 욕설 등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여러 번 0.75%, 주 1~2회 1.73%, 월 2~3회 1.89% 등으로 응답하여 다른 문항에 비해 경험한 아동이 많은 편이었다. '다른 학생(친구)에게 뺨, 얼굴, 머리 등을 주먹이나 발로 맞은 적이 있다'는 문항에는 일주일에 여러 번 0.30%, 주 1~2회 1.36%, 월 2~3회 0.98% 등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학생(친구)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말이나 행동을 당한 적이 있다'는 문항에는 주 1~2회 0.30%, 월 2~3회 0.15%, 연 1~2회 3.24% 등으로 응답하였다.

〈표 Ⅳ-2-62〉 폭력피해 경험

단위: %(명)

구분	일주일에 여러번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연 1~2회	없다	계(수)
뺨, 얼굴, 머리 등을 맞은 경험	0.30	1.36	0.98	1.58	5.05	90.72	100.00 (1326)
왕따, 따돌림 경험	-	0.38	0.15	0.15	1.96	97.36	100.00 (1326)
험담, 심한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경험	0.75	1.73	1.89	1.89	9.35	84.39	100.00 (1326)
고의적으로 툭툭침, 심부름, 숙제를	-	0.53	0.45	0.23	1.21	97.59	100.00

구분	일주일에 여러번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연 1~2회	없다	계(수)
해오라는 등의 괴롭힘							(1326)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	0.23	0.23	0.30	1.43	97.81	100.00 (1326)
협박이나 위협을 당한 경험	-	0.15	0.45	-	0.68	98.72	100.00 (1326)
온라인상에서 신체적인 위협을 당한 경험	0.08	0.15	0.15	0.45	1.06	98.11	100.00 (1326)
온라인상에서 헛소문으로 괴롭힘 당한 경험	-	0.23	0.38	0.45	2.19	96.76	100.00 (1326)
신원미상의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힘 당한 경험	-	0.08	0.15	0.08	1.21	98.49	100.00 (1326)
학교 친구에게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힘 당한 경험	-	0.08	0.38	0.23	0.98	98.34	100.00 (1326)
학교 밖 사람에게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힘 당한 경험	-	0.08	0.15	0.30	0.45	99.02	100.00 (1326)
촬영된 사진, 영상을 통해 위협받거나 괴롭힘 당한 경험	0.15	0.23	0.15	-	0.83	98.64	100.00 (1326)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이나 행동을 당한 경험	-	0.30	0.15	0.45	3.24	95.85	100.00 (1326)

주: 아동의 응답임.

폭력가해 경험은 다수의 문항에서 해당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9%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친구를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거나 놀리거나 싫어하는 장난을 쳤다'라는 문항에는 경험이 있는 비율이 약 26.32%로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여러 번 0.90%, 주 1~2회 2.94%, 월 2~3회 3.70%, 연 1~2회 15.08% 등으로 응답하였다. '다른 친구를 의도적으로 혼자 남겨두거나 따돌렸다', '다른 친구를 때리거나, 차거나, 조르거나, 가두었다'에 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각각 약 3.32% 정도였다.

〈표 Ⅳ-2-63〉 폭력가해 경험

단위: %(명)

구분	일주일에 여러번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연 1~2회	없다	계(수)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거나 놀리거나, 싫어하는 장난친 경험	0.90	2.94	3.70	3.70	15.08	73.68	100.00 (1326)
의도적으로 따돌린 경험	0.15	0.23	0.08	0.60	2.26	96.68	100.00 (1326)

구분	일주일에 여러번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연 1~2회	없다	계(수)
때리거나 차거나 조르거나 가둔 경험	0.15	0.38	0.60	0.30	1.89	96.68	100.00 (1326)
나쁜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쪽지 등을 돌린 경험	-	-	0.08	0.30	0.30	99.32	100.00 (1326)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	-	0.15	0.15	-	0.45	99.25	100.00 (1326)
싫어하는 일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경험	-	-	-	0.53	0.30	99.17	100.00 (1326)
온라인상에서 신체적인 위협을 한 경험	0.08	0.08	0.15	0.30	0.23	99.17	100.00 (1326)
온라인상에서 친구에 대해 헛소문을 낸 경험	-	0.08	0.15	0.08	0.83	98.87	100.00 (1326)
누군지 모르게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힌 경험	-	-	0.23	0.15	0.23	99.40	100.00 (1326)
학교 친구에게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힌 경험	-	0.08	0.23	0.08	0.53	99.10	100.00 (1326)
학교 밖 사람에게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힌 경험	-	-	0.23	0.15	0.38	99.25	100.00 (1326)
사진, 영상 등을 촬영 후 상대를 위협하거나 괴롭힌 경험	0.08	-	0.08	0.30	0.23	99.32	100.00 (1326)
원하지 않는 성적인 괴롭힘을 가한 경험	-	0.08	0.15	0.08	0.23	99.47	100.00 (1326)

주: 아동의 응답임.

다)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은 보호자(부모)와 담임교사가 각각 응답하였으며, 증후군 척도, DSM 진단기준, 그리고 특수척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증후군 척도에 따른 문제행동 분석

증후군 척도는 총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분류된다. 총 문제행동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사회적 미성숙 등의 기타문제를 포함하며, 부모와 교사가 보고한 정상군은 각각 94.15%, 91.87%이었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정상군은 부모 평가 시 93.41%, 교사 평가 시 93.46%이었으며, 외현화 문제행동의 정상군은 부모 평가 시 92.20%, 교사 평가 시 92.1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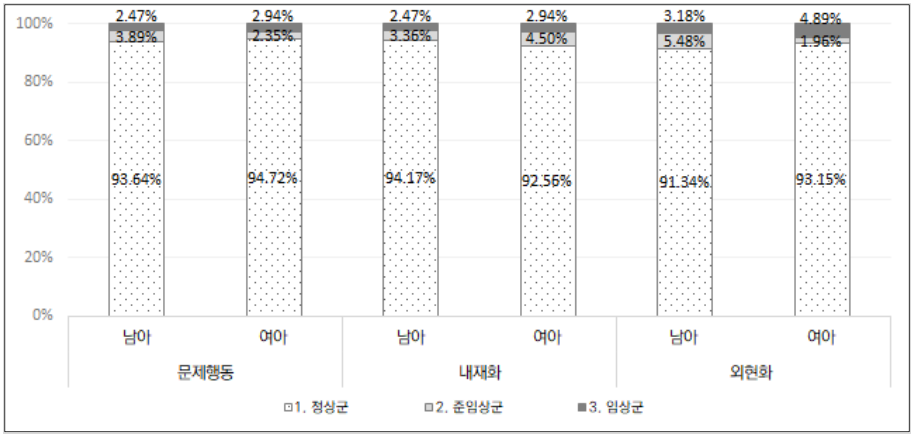
〈표 Ⅳ-2-64〉 증후군 척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단위: %

영역	구분	보호자의 증후군 평가(CBCL)				교사의 증후군 평가(TRF)			
		정상군	준임상군	임상군	계	정상군	준임상군	임상군	계
총 문제행동	전체	94.15	3.16	2.69	100.00	91.87	3.35	4.78	100.00
	남	93.64	3.89	2.47	100.00	88.01	4.73	7.26	100.00
	여	94.72	2.35	2.94	100.00	95.81	1.94	2.26	100.00
내재화 문제행동	전체	93.41	3.90	2.69	100.00	93.46	3.35	3.19	100.00
	남	94.17	3.36	2.47	100.00	91.17	4.42	4.42	100.00
	여	92.56	4.50	2.94	100.00	95.81	2.26	1.94	100.00
외현화 문제행동	전체	92.20	3.81	3.99	100.00	92.19	4.47	3.35	100.00
	남	91.34	5.48	3.18	100.00	88.33	6.62	5.05	100.00
	여	93.15	1.96	4.89	100.00	96.13	2.26	1.61	100.00

보호자 평가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준임상군 및 임상군 비율을 비교해보면, 내재화 문제행동의 경우 여학생(4.50%+2.94%)이 남학생(3.36%+2.47%)보다 더 많았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남학생(5.48%+3.18%)이 여학생(1.96%+4.89%)보다 더 많이 분류되었으나 임상군만 비교하였을 때는 남학생(3.18%)보다 여학생(4.89%)의 비율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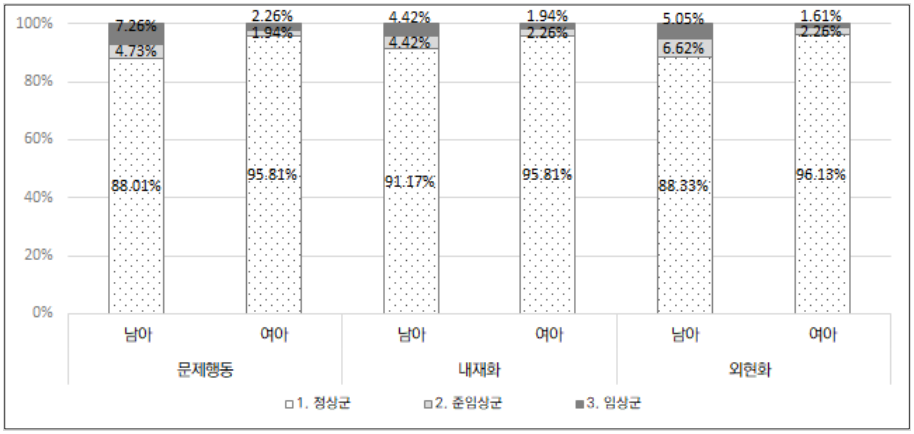
[그림 Ⅳ-2-2] 증후군 척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보호자 응답



하지만 교사 평가에서는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준임상군 및 임상군 비율이 총 문제행동 점수(4.73%+7.26%) 뿐만 아니라 내재화 문제행동

(4.42%+4.42%)과 외현화 문제행동(6.62%+5.05%)에서 모두 여학생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응답 경향의 차이는 아동이 가정과 학교라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보이는 행동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혹은 평소 보호자와 교사가 아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로 볼 수도 있다.

[그림 Ⅳ-2-3] 증후군 척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교사 응답



다음으로, 문제행동의 T점수를 분석하였을 때, 보호자가 응답한 전체 문제행동의 평균 T점수는 44.78점, 내재화 문제행동은 45.58점, 외현화 문제행동은 47.08점으로 정상군의 범위에 속하였다. 문제행동 총점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외현화 문제행동에서는 남학생(47.63점)이 여학생(46.47점)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가구 소득이 400만원 이하인 아동에게서 문제행동이 전반적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표 Ⅳ-2-65〉 문제행동 점수: 보호자 응답

단위: 점(명)

구분	(수)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외현화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77)	44.78	9.56	45.58	8.55	47.08	8.46
아동 성별							
남	(566)	45.22	9.30	45.58	8.26	47.63	8.36
여	(511)	44.29	9.81	45.58	8.88	46.47	8.54
t		1.60		0.01		2.25*	

구분	(수)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외현화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 취업 여부							
취업	(658)	44.63	9.37	45.51	8.20	46.98	8.39
미취업	(395)	45.21	9.81	45.84	9.13	47.39	8.57
t		-0.96		-0.61		-0.76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262)	46.38[b]	9.97	46.82[a]	9.12	48.39[b]	9.07
400초과-550만원	(282)	44.68[ab]	9.64	45.21[a]	8.42	47.03[ab]	8.46
550초과-700만원	(256)	43.68[a]	9.15	44.82[a]	8.23	45.97[a]	7.81
700만원 초과	(192)	43.96[ab]	9.87	45.47[a]	8.67	46.55[ab]	8.71
F		3.97**		2.66*		3.73*	

주: 1) T점수가 64점 이상이면 임상, 60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2)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한편 교사 응답에 따르면 전체 문제행동의 평균 T점수는 46.67점, 내재화 문제행동은 48.04점, 외현화 문제행동은 48.21점으로 정상군의 범위에 속하였으나 보호자 응답보다는 비교적 높게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임상군 비율에서도 나타났듯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문제행동 전체,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 소득이 400만원 이하인 아동에게서 내재화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았다.

〈표 Ⅳ-2-66〉 문제행동 점수: 교사 응답

단위: 점(명)

구분	(수)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외현화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627)	46.67	8.76	48.04	8.00	48.21	7.43
아동 성별							
남	(317)	48.59	9.23	49.27	8.78	49.71	7.81
여	(310)	44.71	7.79	46.79	6.91	46.68	6.70
t		5.68***		3.93***		5.21***	
모 취업 여부							
취업	(404)	46.94	9.22	48.24	8.56	48.47	7.70
미취업	(207)	46.07	7.80	47.68	6.91	47.57	6.88
t		1.17		0.81		1.42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62)	47.81[a]	9.63	49.42[b]	9.91	48.37	7.20
400초과-550만원	(168)	45.21[a]	8.77	46.64[a]	7.28	47.70	7.14

구분	(수)	문제행동 총점		내재화		외현화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550초과~700만원	(139)	47.30[a]	7.47	48.48[ab]	7.47	48.60	6.89
700만원 초과	(123)	46.36[a]	8.78	47.61[ab]	6.79	48.13	8.22
F		2.79*		3.55*		0.43	

주: 1) T점수가 64점 이상이면 임상, 60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2)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문제행동 T점수를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기타문제 각각의 하위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별 평균 T점수를 살펴보면, 보호자 응답의 경우 불안/우울은 52.08점, 위축/우울은 52.35점, 신체증상은 51.65점이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그 수치의 차이는 적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위축/우울은 여학생(52.68점)이 남학생(52.05점)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신체증상은 남학생(51.89점)이 여학생(51.38점)보다 점수가 높았다. 취업모 아동(51.43점)보다 미취업모 아동(52.07점)의 신체증상 점수가 더 높게 보고되었다.

〈표 Ⅳ-2-67〉 내재화 문제행동: 보호자 응답

단위: 점(명)

구분	(수)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77)	52.08	4.39	52.35	4.65	51.65	3.86
아동 성별							
남	(566)	52.05	4.25	52.05	4.39	51.89	3.75
여	(511)	52.12	4.54	52.68	4.90	51.38	3.96
t		-0.27		-2.23*		2.16*	
모 취업 여부							
취업	(658)	51.95	4.23	52.40	4.63	51.43	3.50
미취업	(395)	52.32	4.65	52.29	4.72	52.07	4.43
t		-1.31		0.36		-2.60**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262)	52.50	4.60	53.02[a]	5.33	52.13	4.28
400초과~550만원	(282)	51.95	4.38	52.16[a]	4.18	51.55	3.89
550초과~700만원	(256)	51.77	3.82	51.93[a]	4.41	51.43	3.42
700만원 초과	(192)	52.21	4.92	52.35[a]	4.73	51.54	3.89
F		1.34		2.63*		1.68	

주: 1)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2)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교사 응답의 경우 불안/우울은 52.63점, 위축/우울은 52.27점, 신체증상은 51.49점이었다. 보호자 응답과는 달리 불안/우울 및 위축/우울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두 영역에서 모두 남학생(53.18점, 52.75점)이 여학생(52.06점, 51.78점)보다 문제수준이 더 높았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아동(53.32점)의 위축/우울 수준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68〉 내재화 문제행동: 교사 응답

단위: 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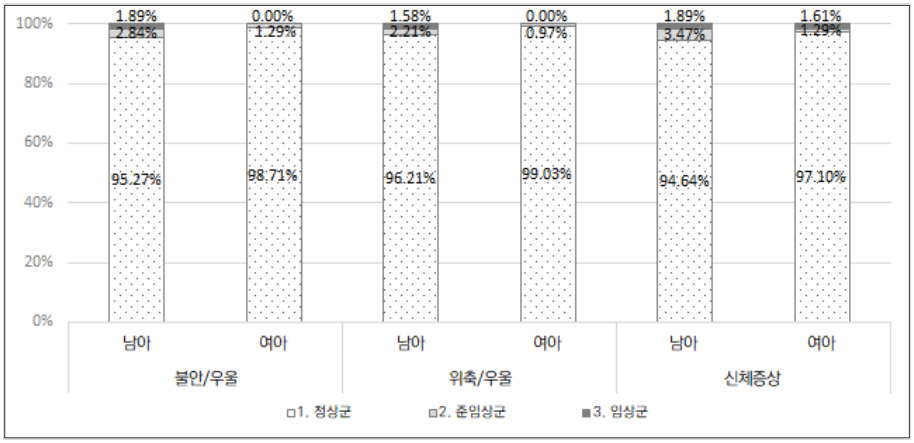
구분	(수)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627)	52.63	4.79	52.27	4.58	51.49	4.88
아동 성별							
남	(317)	53.18	5.61	52.75	5.38	51.71	5.28
여	(310)	52.06	3.70	51.78	3.52	51.28	4.44
t		2.96**		2.66**		1.10	
모 취업 여부							
취업	(404)	52.83	5.32	52.38	5.03	51.53	5.01
미취업	(207)	52.31	3.69	52.09	3.64	51.26	4.37
t		1.25		0.72		0.66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62)	53.20	5.93	53.32^{b}	5.58	52.12	6.56
400초과-550만원	(168)	52.23	4.55	51.52^{a}	3.41	51.07	3.64
550초과-700만원	(139)	52.65	4.36	52.32^{ab}	5.37	51.57	4.97
700만원 초과	(123)	52.28	3.87	52.08^{ab}	3.78	51.32	3.98
F		1.38		4.27**		1.33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1$.

패널아동의 학교생활을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 응답에 비해 비교적 성별 차이가 두드러진 교사 응답에서 내재화 문제행동 준임상군+임상군 비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불안/우울은 2.84%+1.89%, 위축/우울은 2.21%+1.58%, 신체증상은 3.47%+1.89%이었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비교적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영역별 평균 T점수를 살펴보면, 보호자가 응답한 경우 규칙위반은 52.45점, 공격행동은 52.15점이었다. 또한 남학생(52.49점)이 여학생(51.78점)보다 공격행동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그림 Ⅳ-2-4] 내재화 문제행동 정도: 교사 응답



〈표 Ⅳ-2-69〉 외현화 문제행동: 보호자 응답

단위: 점(명)

구분	(수)	규칙위반		공격행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77)	52.45	4.47	52.15	4.35
아동 성별					
남	(566)	52.55	4.28	52.49	4.39
여	(511)	52.34	4.68	51.78	4.29
t		0.77		2.67**	
모 취업 여부					
취업	(658)	52.40	4.46	52.13	4.44
미취업	(395)	52.57	4.50	52.21	4.21
t		-0.58		-0.30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262)	53.06	4.85	52.79[a]	4.75
400초과-550만원	(282)	52.32	4.49	52.14[a]	4.33
550초과-700만원	(256)	52.12	4.09	51.72[a]	3.85
700만원 초과	(192)	52.49	4.68	51.86[a]	4.56
F		2.09		2.95*	

주: 1)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2)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교사가 응답한 경우 평균 T점수는 규칙위반 52.29점, 공격행동 52.52점이었다. 공격행동 수준은 보호자가 응답한 점수와 유사하게 남학생(53.46점)이 여학생(51.55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표 Ⅳ-2-70〉 외현화 문제행동: 교사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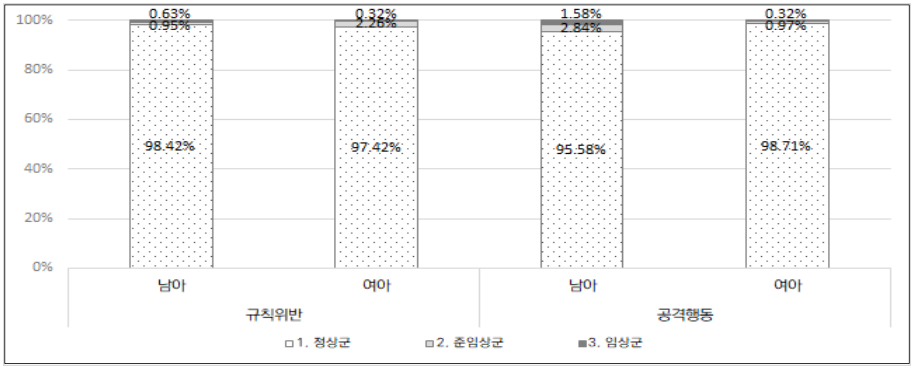
단위: 점(명)

구분	(수)	규칙위반		공격행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627)	52.29	4.34	52.52	4.64
아동 성별					
남	(317)	52.52	4.58	53.46	5.42
여	(310)	52.06	4.07	51.55	3.44
t		1.33		5.24***	
모 취업 여부					
취업	(404)	52.50	4.68	52.65	4.85
미취업	(207)	51.84	3.58	52.21	4.11
t		1.77		1.12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62)	52.49	4.30	52.51	4.47
400초과-550만원	(168)	51.89	3.62	52.45	4.63
550초과-700만원	(139)	52.54	4.22	52.50	3.85
700만원 초과	(123)	52.26	5.20	52.42	5.18
F		0.75		0.01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01$.

교사가 응답한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준임상군+임상군 비율을 살펴보면, 규칙위반은 남학생 0.95%+0.63%, 여학생 2.26%+0.32%로 여학생이 다소 많은 편이었으나, 공격행동은 남학생 2.84%+1.58%, 여학생 0.97%+0.32%로 남학생이 더 많아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림 Ⅳ-2-5] 외현화 문제행동 정도: 교사 응답



셋째, 기타 문제행동은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기타문제(문항 예시: 손톱을 깨문다)로 나누어진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보호자 응답에서 사회적 미성숙은 52.23점, 사고문제는 52.79점, 주의집중문제는 51.50점, 기타문제는 52.56점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회적 미성숙(남: 52.66점, 여: 51.75점)과 기타문제(남: 52.90점, 여: 52.18점)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표 Ⅳ-2-71〉 기타 문제행동: 보호자 응답

단위: 점(명)

구분	(수)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기타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77)	52.23	4.73	52.79	4.85	51.50	3.99	52.56	4.69
아동 성별									
남	(566)	52.66	4.98	52.77	4.69	51.56	3.99	52.90	4.87
여	(511)	51.75	4.39	52.81	5.02	51.44	3.98	52.18	4.45
t		3.16**		-0.15		0.51		2.52*	
모 취업 여부									
취업	(658)	52.22	4.72	52.63	4.67	51.39	3.62	52.58	4.69
미취업	(395)	52.27	4.76	53.11	5.20	51.71	4.56	52.58	4.77
t		-0.17		-1.54		-1.26		-0.001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262)	52.71	5.09	53.37	5.17	51.90	4.55	52.95	5.06
400초과-550만원	(282)	52.27	4.95	53.03	5.29	51.55	4.54	52.65	4.79
550초과-700만원	(256)	51.61	3.76	52.48	4.68	51.09	3.08	52.27	4.33
700만원 초과	(192)	52.54	5.39	52.29	4.16	51.47	3.70	52.36	4.63
F		2.52		2.40		1.74		1.06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5$, ** $p < .01$.

교사가 응답한 기타 문제행동 하위영역으로는 사회적 미성숙 52.42점, 사고문제 51.98점, 주의집중문제 52.24점, 기타문제 51.91점이었다. 주의집중문제와 기타문제에서 남학생이 각각 53.18점, 52.27점으로 여학생(51.29점, 51.53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사고문제에서 차이가 나타나, 취업모 아동(52.33점)의 경우 미취업모 아동(51.39점)보다 사고문제 수준이 더 높았다.

〈표 Ⅳ-2-72〉 기타 문제행동: 교사 응답

단위: 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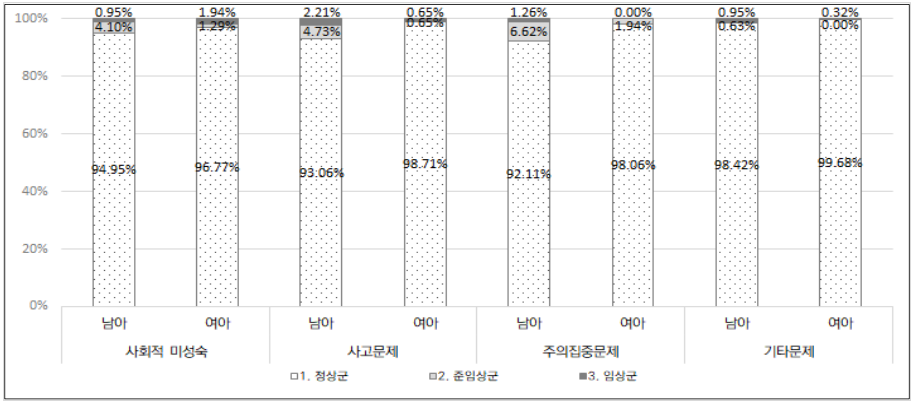
구분	(수)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기타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627)	52.42	4.97	51.98	4.97	52.24	4.52	51.91	3.53
아동 성별									
남	(317)	52.79	5.13	52.37	5.61	53.18	5.25	52.27	3.94
여	(310)	52.04	4.78	51.59	4.18	51.29	3.38	51.53	3.02
t		1.90		1.95		5.34***		2.66**	
모 취업 여부									
취업	(404)	52.49	5.16	52.33	5.38	52.40	4.72	52.02	3.73
미취업	(207)	52.32	4.70	51.39	4.07	51.90	4.13	51.65	3.06
t		0.41		2.20*		1.28		1.24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62)	53.28[a]	5.94	52.49	6.09	52.57	4.88	52.47[a]	4.52
400초과-550만원	(168)	51.71[a]	4.15	51.69	4.40	52.21	4.27	51.38[a]	2.92
550초과-700만원	(139)	52.28[a]	4.75	51.81	4.63	52.01	4.03	51.96[a]	3.24
700만원 초과	(123)	52.34[a]	4.74	51.95	4.66	52.07	4.51	51.81[a]	3.12
F		2.83*		0.80		0.50		2.65*	

주: 1)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2)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기타 문제행동에서 교사 응답의 임상군 비율을 분석해보면,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준임상군+임상군에 속해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미성숙은 4.10%가 준임상군, 0.95%가 임상군이었으며, 사고문제는 각각 4.73%, 2.21%이었고, 주의집중문제는 각각 6.62%, 1.26%이었다.

[그림 Ⅳ-2-6] 기타 문제행동 정도: 교사 응답



(2) DSM(정신병 진단) 기준에 따른 문제행동 분석

DSM 기준에 따라 문제행동을 정서문제, 불안문제, 신체화문제, 과잉행동/주의력결핍(ADHD), 반항행동문제, 품행문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정서문제는 보호자 평가에서 97.40%가, 교사 평가에서 96.65%가 정상군에 속하였다. 불안문제는 보호자 평가와 교사 평가에서 각각 97.31%, 97.13%가, 신체화문제는 각각 97.03%, 97.29%가, 반항행동문제는 각각 95.73%, 96.49%가 정상군이었다. 한편 ADHD와 품행문제에서 보호자 평가와 교사 평가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ADHD의 경우 보호자 평가에서 98.24%가 정상군, 1.30%가 준임상군, 0.46%가 임상군이었으나, 교사 평가에서는 95.22%가 정상군, 4.15%가 준임상군, 0.64%가 임상군으로 교사 평가에서 준임상군+임상군이 좀 더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품행문제의 경우 보호자 평가에서 95.73%가 정상군, 3.25%가 준임상군, 1.02%가 임상군이었으나, 교사 평가에서는 97.77%가 정상군, 1.44%가 준임상군, 0.80%가 임상군으로 부모 평가에서 준임상군+임상군에 속하는 비율이 더 많이 보고되었다.

〈표 Ⅳ-2-73〉 DSM 척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단위: %

영역	구분	보호자의 DSM 평가(CBCL 6-18)				교사의 DSM 평가(TRF)			
		정상군	준임상군	임상군	계	정상군	준임상군	임상군	계
정서문제	전체	97.40	1.86	0.74	100.00	96.65	2.23	1.12	100.00
	남	97.53	2.12	0.35	100.00	94.64	3.47	1.89	100.00
	여	97.26	1.57	1.17	100.00	98.71	0.97	0.32	100.00
불안문제	전체	97.31	2.14	0.56	100.00	97.13	1.91	0.96	100.00
	남	97.17	2.65	0.18	100.00	95.90	3.15	0.95	100.00
	여	97.46	1.57	0.98	100.00	98.39	0.65	0.97	100.00
신체화 (somatic) 문제	전체	97.03	2.32	0.65	100.00	97.29	1.12	1.59	100.00
	남	97.53	2.12	0.35	100.00	96.21	1.58	2.21	100.00
	여	96.48	2.54	0.98	100.00	98.39	0.65	0.97	100.00
과잉행동/ 주의력결핍 (ADHD)	전체	98.24	1.30	0.46	100.00	95.22	4.15	0.64	100.00
	남	98.59	1.06	0.35	100.00	92.74	5.99	1.26	100.00
	여	97.85	1.57	0.59	100.00	97.74	2.26	0.00	100.00
반항행동 문제	전체	95.73	3.53	0.74	100.00	96.49	2.23	1.28	100.00
	남	95.23	4.24	0.53	100.00	94.64	3.15	2.21	100.00
	여	96.28	2.74	0.98	100.00	98.39	1.29	0.32	100.00
품행문제	전체	95.73	3.25	1.02	100.00	97.77	1.44	0.80	100.00
	남	95.94	3.18	0.88	100.00	97.48	1.26	1.26	100.00
	여	95.50	3.33	1.17	100.00	98.06	1.61	0.32	100.00

다음으로 DSM 기준에 따른 T점수를 영역별로 살펴보았다. 보호자가 응답한 정서문제의 평균 T점수는 51.88점, 불안문제는 52.04점, 신체화문제는 51.85점으로 정상군 범위에 속하였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모 취업 여부 및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불안문제와 신체화문제에서 취업모 아동(51.82점, 51.65점)보다 미취업모 아동(52.45점, 52.29점)의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가구 소득이 400만원 이하인 아동(52.67점)의 경우 정서문제 점수가 다른 아동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Ⅳ-2-74〉 DSM 진단척도 1: 보호자 응답

단위: 점(명)

구분	(수)	정서문제		불안문제		신체화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77)	51.88	4.22	52.04	4.17	51.85	4.16
아동 성별							
남	(566)	51.81	4.03	52.04	4.13	51.84	3.98
여	(511)	51.97	4.41	52.04	4.20	51.87	4.35
t		-0.63		0.04		-0.12	
모 취업 여부							
취업	(658)	51.80	4.18	51.82	3.80	51.65	3.88
미취업	(395)	52.00	4.27	52.45	4.71	52.29	4.64
t		-0.77		-2.39*		-2.41*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262)	52.67^{b}	4.82	52.29	4.33	52.08	4.35
400초과-550만원	(282)	51.64^{ab}	4.09	51.96	4.03	51.65	4.13
550초과-700만원	(256)	51.45^{a}	3.88	51.77	3.63	51.80	3.81
700만원 초과	(192)	51.87^{ab}	4.14	52.33	4.94	51.86	4.49
F		4.14**		0.98		0.49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5$, ** $p < .01$.

이어서 보호자가 응답한 ADHD의 평균 T점수는 51.84점, 반항행동문제는 52.54점, 품행문제는 52.05점이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반항행동문제 및 품행문제에서, 가구 소득에 따라 품행문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항행동문제와 품행문제에서 남학생(52.84점, 52.32점)이 여학생(52.22점, 51.75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가구 소득이 400만원 이하인 아동(52.73점)의 경우 다른 아동들에 비해 품행문제 점수가 높게 보고되었다.

〈표 Ⅳ-2-75〉 DSM 진단척도 2: 보호자 응답

단위: 점(명)

구분	(수)	ADHD		반항행동문제		품행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77)	51.84	4.06	52.54	4.71	52.05	4.43
아동 성별							
남	(566)	52.05	4.21	52.84	4.80	52.32	4.43
여	(511)	51.62	3.87	52.22	4.59	51.75	4.41
t		1.73		2.15*		2.09*	
모 취업 여부							
취업	(658)	51.82	4.00	52.60	4.85	52.05	4.41
미취업	(395)	51.94	4.23	52.48	4.47	52.06	4.49
t		-0.46		0.40		-0.05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262)	52.06	4.02	53.02	4.90	52.73^{b}	5.02
400초과-550만원	(282)	51.98	4.96	52.68	5.14	52.09^{ab}	4.57
550초과-700만원	(256)	51.49	3.21	52.03	4.01	51.58^{a}	3.65
700만원 초과	(192)	51.80	3.87	52.10	4.53	52.04^{ab}	4.63
F		0.99		2.54		2.90*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5$.

교사 응답에서 평균 T점수를 살펴보면, 정서문제는 52.40점, 불안문제는 52.26점, 신체화문제는 51.14점으로 정상군 범위에 속하였다. 보호자 응답과는 달리 정서문제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53.09점)이 여학생(51.69점)보다 정서문제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보호자 응답과 유사하게 정서문제에서 가구 소득이 400만원 이하인 아동(53.46점)이 다른 아동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Ⅳ-2-76〉 DSM 진단척도 1: 교사 응답

단위: 점(명)

구분	(수)	정서문제		불안문제		신체화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627)	52.40	4.60	52.26	4.96	51.14	4.57
아동 성별							
남	(317)	53.09	5.39	52.52	5.69	51.42	5.13
여	(310)	51.69	3.49	52.00	4.09	50.85	3.91
t		3.84***		1.30		1.57	

구분	(수)	정서문제		불안문제		신체화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 취업 여부							
취업	(404)	52.49	4.93	52.33	5.34	51.14	4.59
미취업	(207)	52.17	3.87	52.23	4.28	50.96	4.18
t		0.81		0.23		0.48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62)	53.46[b]	5.75	53.06	6.05	51.62	6.16
400초과-550만원	(168)	51.84[a]	3.90	51.70	4.39	50.96	3.69
550초과-700만원	(139)	52.22[ab]	4.44	52.15	5.09	51.29	4.77
700만원 초과	(123)	52.11[ab]	3.97	51.97	4.07	50.79	3.26
F		3.89**		2.22		0.91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1$, *** $p < .001$.

또한 교사가 응답한 ADHD의 평균 T점수는 52.23점, 반항행동문제는 52.31점, 품행문제는 52.29점이었다. 세 영역에서 모두 아동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ADHD는 남학생 53.09점, 여학생 51.35점, 반항행동문제는 남학생 53.12점, 여학생 51.48점, 품행문제는 남학생 52.90점, 여학생 51.67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모 취업 여부나 가구 소득에 따른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Ⅳ-2-77〉 DSM 진단척도 2: 교사 응답

단위: 점(명)

구분	(수)	ADHD		반항행동문제		품행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627)	52.23	4.49	52.31	4.86	52.29	4.71
아동 성별							
남	(317)	53.09	5.18	53.12	5.85	52.90	5.16
여	(310)	51.35	3.46	51.48	3.39	51.67	4.13
t		4.96***		4.27***		3.28**	
모 취업 여부							
취업	(404)	52.36	4.68	52.36	4.86	52.39	4.97
미취업	(207)	51.93	4.11	52.18	4.86	52.07	4.20
t		1.10		0.43		0.78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62)	52.17	4.41	52.23	4.49	52.35	4.01
400초과-550만원	(168)	52.40	4.28	52.28	5.11	52.04	4.15

구분	(수)	ADHD		반항행동문제		품행문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550초과-700만원	(139)	52.17	4.49	52.33	4.28	52.45	4.38
700만원 초과	(123)	51.98	4.47	52.08	4.99	52.15	5.82
F		0.23		0.08		0.26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1$, *** $p < .001$.

(3) 특수척도 기준에 따른 문제행동 분석

마지막으로 특수척도 기준에 따른 문제행동인 강박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 인지속도 부진을 살펴보았다. 먼저, 보호자가 평가한 경우 정상군의 비율은 강박증상 97.21%,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 97.40%, 인지속도 부진 98.14%이었다. 교사가 평가한 경우에는 정상군에 속하는 비율이 강박증상 95.85%,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 95.37%, 인지속도 부진 96.17%로 보호자 평가보다는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교사 평가에서 남학생의 준임상군+임상군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그리고 보호자 평가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즉, 남학생의 준임상군+임상군 비율은 강박증상의 경우 3.15%+2.5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3.47%+2.52%, 인지속도 부진은 4.10%+2.21%이었다.

〈표 Ⅳ-2-78〉 특수척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

단위: %

영역	구분	보호자의 특수척도 평가(CBCL 6-18)				교사의 특수척도 평가(TRF)			
		정상군	준임상군	임상군	계	정상군	준임상군	임상군	계
강박증상	전체	97.21	1.95	0.84	100.00	95.85	2.71	1.44	100.00
	남	97.17	2.30	0.53	100.00	94.32	3.15	2.52	100.00
	여	97.26	1.57	1.17	100.00	97.42	2.26	0.32	100.00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	전체	97.40	1.86	0.74	100.00	95.37	3.03	1.59	100.00
	남	97.17	2.47	0.35	100.00	94.01	3.47	2.52	100.00
	여	97.65	1.17	1.17	100.00	96.77	2.58	0.65	100.00
인지속도 부진	전체	98.14	1.02	0.84	100.00	96.17	2.55	1.28	100.00
	남	98.23	1.24	0.53	100.00	93.69	4.10	2.21	100.00
	여	98.04	0.78	1.17	100.00	98.71	0.97	0.32	100.00

다음으로 T점수를 살펴보면, 보호자가 응답한 강박증상의 평균 T점수는 52.43점,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는 52.08점, 인지속도 부진은 51.76점으로, 정상군 범위에 속하였다. 아동의 성별, 모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른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2-79〉 문제행동 특수척도: 보호자 응답

단위: 점(명)

구분	(수)	강박증상		외상후 스트레스 문제		인지속도부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77)	52.43	4.61	52.08	4.18	51.76	4.39
아동 성별							
남	(566)	52.34	4.43	52.07	4.05	51.69	4.13
여	(511)	52.54	4.82	52.08	4.32	51.84	4.67
t		-0.72		-0.04		-0.56	
모 취업 여부							
취업	(658)	52.39	4.46	51.93	3.95	51.71	4.42
미취업	(395)	52.51	4.87	52.33	4.49	51.88	4.42
t		-0.44		-1.48		-0.63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262)	52.56	4.54	52.47	4.43	52.21	4.99
400초과-550만원	(282)	52.34	4.87	52.06	4.16	51.89	4.28
550초과-700만원	(256)	52.38	4.51	51.68	3.62	51.38	4.63
700만원 초과	(192)	52.61	4.75	52.09	4.66	51.61	3.75
F		0.20		1.54		1.63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교사 응답의 경우 강박증상의 평균 T점수는 53.61점,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는 52.21점, 인지속도부진 52.55점으로 정상군 범위에 속하였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는 남학생(52.88점)이 여학생(51.52점)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으며, 인지속도부진 또한 남학생이 53.37점으로 여학생(51.70점)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Ⅳ-2-80〉 문제행동 특수척도: 교사 응답

단위: 점(명)

구분	(수)	강박증상		외상후 스트레스 문제		인지속도부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627)	53.61	5.56	52.21	4.93	52.55	5.25
아동 성별							
남	(317)	53.55	6.18	52.88	5.77	53.37	6.33
여	(310)	53.68	4.86	51.52	3.77	51.70	3.68
t		-0.30		3.48***		4.03***	
모 취업 여부							
취업	(404)	53.70	5.90	52.43	5.36	52.73	5.76

구분	(수)	강박증상		외상후 스트레스 문제		인지속도부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미취업	(207)	53.55	4.98	51.86	4.06	52.18	4.18
t		0.31		1.33		1.22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62)	54.00	6.70	53.03	6.33	53.38	6.27
400초과-550만원	(168)	52.70	4.83	51.93	4.52	52.14	4.77
550초과~700만원	(139)	54.09	5.31	51.90	4.23	52.34	4.85
700만원 초과	(123)	53.74	5.15	51.78	3.95	52.43	5.08
F		2.12		2.18		1.75	

주: T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임상, 65점 이상이면 준임상 수준임.
*** $p < .001$.

라) 친구관계

아동의 친구관계는 이성친구 유무와 또래애착 변인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이성친구 유무를 조사한 결과, 이성친구가 '있다'는 응답은 8.14%, '없다'는 응답은 91.86%이었다. 아동의 성별, 모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2-81〉 아동의 이성친구 유무

단위: %(명)

구분	계(수)	이성친구(%)	
		있음	없음
전체	100.00(1326)	8.14	91.86
아동 성별			
남	100.00(677)	8.57	91.43
여	100.00(649)	7.70	92.30
$x^2(df)$		0.33(1)	
모 취업 여부			
취업	100.00(804)	7.46	92.54
미취업	100.00(489)	8.59	91.41
$x^2(df)$		0.53(1)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00.00(315)	7.62	92.38
400초과-550만원	100.00(327)	9.17	90.83
550초과~700만원	100.00(316)	8.86	91.14
700만원 초과	100.00(261)	7.66	92.34
$x^2(df)$		0.78(3)	

주: 아동의 응답임.

아동의 또래애착은 아동이 직접 응답하며, 의사소통, 신뢰, 소외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의사소통은 평균 3.15점, 신뢰는 3.19점, 소외는 1.91점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의사소통과 신뢰 영역에서 여학생(3.21점, 3.23점)이 남학생(3.10점, 3.15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 취업 여부에 있어 소외 영역의 경우 취업모 아동(1.88점)보다 미취업모 아동(1.97점)의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 및 신뢰 영역에서 가구 소득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가구 소득이 550만원 초과~700만원인 경우 점수가 가장 높았다.

〈표 Ⅳ-2-82〉 아동의 또래애착

단위: 점(명)

구분	(수)	의사소통		신뢰		소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3.15	0.52	3.19	0.57	1.91	0.65
아동 성별							
남	(677)	3.10	0.51	3.15	0.56	1.93	0.66
여	(649)	3.21	0.52	3.23	0.58	1.89	0.65
t		-3.96***		-2.55*		1.14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3.16	0.51	3.21	0.57	1.88	0.65
미취업	(489)	3.15	0.54	3.16	0.59	1.97	0.66
t		0.25		1.44		-2.61**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5)	3.13^{ab}	0.52	3.18^{a}	0.59	1.90	0.61
400초과-550만원	(327)	3.09^{a}	0.49	3.13^{a}	0.56	1.99	0.66
550초과-700만원	(316)	3.21^{b}	0.54	3.26^{a}	0.58	1.89	0.69
700만원 초과	(261)	3.19^{ab}	0.50	3.20^{a}	0.56	1.89	0.70
F		3.92**		2.78*		1.55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3)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의 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함.
4)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2) 자아 발달

가)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

아동에게 '나는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나에게는 좋은 면이 많다.' 등의 5문항을 질문하여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3.19점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 차이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학생(3.25점)이 여학생(3.13점)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83〉 아동의 자아존중감

단위: 점(명)

구분	(수)	자아존중감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3.19	0.53
아동 성별			
남	(677)	3.25	0.52
여	(649)	3.13	0.52
t		4.30***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3.18	0.52
미취업	(489)	3.21	0.54
t		-1.18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5)	3.18	0.50
400초과-550만원	(327)	3.21	0.51
550초과-700만원	(316)	3.21	0.54
700만원 초과	(261)	3.19	0.53
F		0.28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 $p < .001$.

자아개념은 자아탄력성과 자아정체감으로 측정한다. 조사 결과, 자아탄력성의 전체 평균은 2.91점이고, 자아정체감의 전체 평균은 2.65점으로 나타난다. 두 변인 모두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아탄력성과 자아정체감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표 Ⅳ-2-84〉 아동의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및 자아정체감

단위: 점(명)

구분	(수)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2.91	0.42	2.65	0.38
아동 성별					
남	(677)	2.94	0.43	2.68	0.39
여	(649)	2.88	0.40	2.62	0.37
t		2.48*		2.44*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2.90	0.42	2.65	0.39
미취업	(489)	2.91	0.41	2.65	0.37
t		-0.33		-0.01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5)	2.86	0.41	2.64	0.37
400초과-550만원	(327)	2.94	0.41	2.62	0.37
550초과-700만원	(316)	2.93	0.39	2.69	0.40
700만원 초과	(261)	2.90	0.45	2.66	0.39
F		2.47		2.00	

주: 1) 아동의 응답임.
2) 모두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 $p < .05$.

아동에게 전반적 행복감에 대한 6문항을 '전혀 행복하지 않다(1점)'~'매우 행복하다(4점)'로 답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 전체 평균이 2.93점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아동에게 '나는 사는 게 즐겁다'와 같은 삶의 만족도 문항을 1점(그렇지 않다)~4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전체 평균이 3.00점으로 나타났다. 14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전반적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모두 작년과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성별, 모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른 집단별 차이 분석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85〉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수)	전반적 행복감		삶의 만족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2.93	0.45	3.00	0.54
아동 성별					
남	(677)	2.94	0.46	3.07	0.57
여	(649)	2.92	0.44	2.93	0.51
t		0.97		4.50***	

구분	(수)	전반적 행복감		삶의 만족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2.93	0.43	3.02	0.55
미취업	(489)	2.95	0.46	2.97	0.53
t		-0.81		1.46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5)	2.90	0.45	2.99	0.53
400초과-550만원	(327)	2.97	0.44	3.01	0.56
550초과-700만원	(316)	2.93	0.44	3.03	0.56
700만원 초과	(261)	2.93	0.46	3.00	0.50
F		1.24		0.31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전반적 행복감: 4점 척도임(1.전혀 행복하지 않다~4.매우 행복하다).
3) 삶의 만족감 :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 $p < .001$.

자율성은 격년 문항에 해당하므로, 13차년도에 미조사되었고 14차년도에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나는 내 생활 속에서 압박감에 시달린다(역코딩 문항)’, ‘나는 내 생활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5개 문항을 ‘그렇지 않다(1점)’, ‘보통이다(2점)’, ‘그렇다(3점)’의 3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전체 평균은 2.56점으로 나타났다. 이후 성별, 모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라 집단별로 분석해보았는데,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집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 Ⅳ-2-86〉 아동의 자율성

단위: 점(명)

구분	(수)	자율성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2.56	0.40
아동 성별			
남	(677)	2.56	0.41
여	(649)	2.56	0.40
t		-0.11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2.56	0.40
미취업	(489)	2.55	0.40
t		0.31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5)	2.54	0.40
400초과-550만원	(327)	2.55	0.39
550초과-700만원	(316)	2.58	0.41

구분	(수)	자율성	
		평균	표준편차
700만원 초과	(261)	2.57	0.40
F		0.66	

주: 1) 아동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그렇지 않다~3.그렇다).
3) 1번 문항(나는 내 생활 속에서 압박감을 시달린다)은 역코딩

아동의 우울은 14차년도에 처음 조사된 내용으로, ‘기분이 우울했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슬픈 기분이 들었다’ 등의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지난 1주 동안 느끼고 행동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극히 드물다(1점)’부터 ‘거의 대부분(4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평균은 4점 만점 중 1.49점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모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른 집단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집단은 없었다.

〈표 Ⅳ-2-87〉 아동의 우울

단위: 점(명)

구분	(수)	우울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1.49	0.41
아동 성별			
남	(677)	1.47	0.39
여	(649)	1.51	0.42
t		-1.57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1.48	0.40
미취업	(489)	1.50	0.43
t		-0.92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5)	1.50	0.39
400초과-550만원	(327)	1.50	0.42
550초과-700만원	(316)	1.48	0.41
700만원 초과	(261)	1.47	0.39
F		0.49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극히 드물다(일주일 동안 1일 이하) 2.가끔 있었다(1~2일) 3.자주 있었다(3~4일) 4.거의 대부분(5~7일)).

나) 공감

공감은 사회 및 발달의 긍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4차년도에 신규 추가된 변인으로, 총 17개 문항의 청소년 공감 척도(6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표현적 공감 7문항, 인지적 공감 5문항, 정서적 공감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현적 공감은 '무리에 끼지 못하고 혼자 있는 친구가 있다면 같이 놀자고 먼저 얘기한다', '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간다', '기운 없이 앉아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먼저 말을 건다' 등의 문항으로, 인지적 공감은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쉽게 알아차린다',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등의 문항으로, 정서적 공감은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이 고통 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한다.

공감의 하위 영역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현적 공감의 평균은 4.20점, 인지적 공감의 평균은 4.30점, 정서적 공감의 평균은 4.19점으로, 세 영역 중 인지적 공감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 분석 결과, 세 영역에서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공감 수준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아동의 공감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 소득이 400만원 이하, 400만원 초과~550만원, 550만원 초과~700만원인 아동보다 가구 소득이 700만원 초과인 아동의 인지적 공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Ⅳ-2-88〉 아동의 공감

단위: 점(명)

구분	(수)	표현적 공감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4.20	0.92	4.30	0.85	4.19	0.90
아동 성별							
남	(677)	4.10	0.97	4.20	0.83	3.99	0.89
여	(649)	4.30	0.85	4.41	0.86	4.39	0.86
t		-3.85***		-4.60***		-8.43***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4.25	0.87	4.35	0.83	4.24	0.87

구분	(수)	표현적 공감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미취업	(489)	4.13	0.99	4.24	0.87	4.10	0.92
t		2.27*		2.11*		2.77**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5)	4.16	0.99	4.24[a]	0.86	4.14	0.95
400초과-550만원	(327)	4.19	0.92	4.23[a]	0.84	4.15	0.91
550초과-700만원	(316)	4.20	0.93	4.30[ab]	0.87	4.19	0.94
700만원 초과	(261)	4.21	0.86	4.44[b]	0.83	4.27	0.84
F		0.14		3.86**		1.11	

주: 1) 11번, 13번 문항 역코딩함.
2) 아동의 응답임.
3) 6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6.항상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다)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인식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기'는 평균 4.45점,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기'는 평균 4.26점,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허락받지 않고 다운로드 받거나 이용하기'는 평균 4.32점으로 확인된다. 즉, 대부분의 아동들이 인터넷(모바일 포함) 이용 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사용, 타인 비방, 불법 다운로드를 문제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집단분석 결과에서는 세 영역에서 모두 아동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세 영역의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의식의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Ⅳ-2-89〉 아동의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인식 1

단위: 점(명)

구분	(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기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기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허락받지 않고 다운로드 받거나 이용하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4.45	1.08	4.26	1.05	4.32	1.10
아동 성별							
남	(677)	4.35	1.13	4.12	1.08	4.20	1.17
여	(649)	4.55	1.01	4.39	0.99	4.45	1.00
t		-3.37***		-4.73***		-4.12***	

구분	(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기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기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허락받지 않고 다운로드 받거나 이용하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4.46	1.07	4.26	1.05	4.32	1.10
미취업	(489)	4.44	1.09	4.26	1.05	4.31	1.11
t		0.40		-0.07		0.24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5)	4.36	1.18	4.19	1.09	4.27	1.18
400초과-550만원	(327)	4.44	1.07	4.20	1.07	4.28	1.12
550초과-700만원	(316)	4.50	1.00	4.30	1.01	4.39	1.03
700만원 초과	(261)	4.46	1.11	4.31	1.06	4.29	1.10
F		0.96		1.08		0.72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5.매우 문제 된다).
*** $p < .001$.

이어서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더 살펴보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는 평균 4.38점, ‘불건전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는 평균 4.48점, ‘집단 따돌림에 가담하기’는 평균 4.53점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전에 살펴본 경향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아동들이 부정확한 정보 전달, 불건전한 정보 전달, 집단 따돌림 가담을 문제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이버 비행 인식 6개 문항 중 ‘집단 따돌림에 가담하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인지 정도가 가장 높은 것에 주목해볼만 하다.

세 영역 역시 모두 아동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정확한 정보 전달, 불건전한 정보 전달, 집단 따돌림 가담을 문제로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90〉 아동의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인식 2

단위: 점(명)

구분	(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		불건전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		집단 따돌림에 가담하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4.38	1.10	4.48	1.11	4.53	1.10
아동 성별							

구분	(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		불건전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		집단 따돌림에 가담하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	(677)	4.26	1.17	4.36	1.20	4.43	1.18
여	(649)	4.51	1.00	4.60	1.00	4.63	0.99
t		-4.21***		-3.94***		-3.33***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4.38	1.09	4.49	1.11	4.54	1.10
미취업	(489)	4.38	1.10	4.45	1.12	4.51	1.11
t		-0.02		0.60		0.50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5)	4.30	1.16	4.39	1.21	4.43	1.23
400초과-550만원	(327)	4.38	1.14	4.44	1.14	4.48	1.12
550초과-700만원	(316)	4.43	1.00	4.53	1.04	4.59	1.00
700만원 초과	(261)	4.37	1.11	4.52	1.09	4.58	1.09
F		0.75		1.04		1.33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5.매우 문제 된다).
*** $p < .001$.

3) 진로 및 결혼의향

가) 진로

아동들에게 어른이 되면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에 대하여 6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돈을 잘 버는 사람’으로 응답한 아동이 39.89%로 가장 많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 20.59%, ‘일보다 취미/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14.40%, ‘유명한 사람’이 11.39%로 그 뒤를 이었다.

〈표 Ⅳ-2-91〉 아동의 미래기대(장래희망)

단위: %(명)

구분	돈을 잘 버는 사람	유명한 사람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	일보다 취미/여가를 즐기는 사람	계(수)
전체	39.89	11.39	4.75	8.97	20.59	14.40	100.00(1326)
아동 성별							
남	38.85	13.59	4.87	9.31	19.05	14.33	100.00(677)
여	40.99	9.09	4.62	8.63	22.19	14.48	100.00(649)
$\chi^2(df)$	8.07(5)						

구분	돈을 잘 버는 사람	유명한 사람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	일보다 취미/여가를 즐기는 사람	계(수)
모 취업 여부							
취업	39.93	11.82	4.48	9.08	21.02	13.68	100.00(804)
미취업	39.67	10.22	5.11	8.79	20.86	15.34	100.00(489)
$\chi^2(df)$	1.57(5)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40.00	6.98	3.49	12.06	21.27	16.19	100.00(315)
400초과-550만원	40.06	12.54	5.50	7.65	22.63	11.62	100.00(327)
550초과-700만원	37.66	12.97	6.01	7.91	16.77	18.67	100.00(316)
700만원 초과	39.85	13.03	4.21	8.43	24.14	10.34	100.00(261)
$\chi^2(df)$	28.24(15)*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아동의 진로 성숙 정도에 대하여 7문항, 4점 척도로 아동에게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Ⅳ-2-92〉와 같다. 전체 평균은 2.94점으로 확인되며, 이는 전년도 전체 평균인 2.02점보다 상당 수준 증가한 수치로 보인다(김지현 외, 2021: 162).

한편, 아동 성별, 모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갖는 집단은 없었다.

〈표 Ⅳ-2-92〉 아동의 진로성숙도

단위: 점(명)

구분	(수)	진로성숙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2.94	0.55
아동 성별			
남	(677)	2.94	0.57
여	(649)	2.94	0.52
t		-0.04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2.95	0.53
미취업	(489)	2.93	0.56
t		0.77	
가구 소득			

구분	(수)	진로성숙도	
		평균	표준편차
400만원 이하	(315)	3.01[a]	0.57
400초과-550만원	(327)	2.89[a]	0.54
550초과-700만원	(316)	2.93[a]	0.55
700만원 초과	(261)	2.98[a]	0.53
F		2.83*	

주: 1) 모든 문항 역코딩함.
2) 아동의 응답임.
3) 4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4.매우 그렇다).
4)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나) 결혼 및 양육 의향

아동들에게 미래에 결혼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는데, 이에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50.75%, '없다'고 응답한 아동이 10.71%, 모른다고 응답한 아동이 38.54%였다. 또한, 자녀를 가질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42.84%, '없다'고 응답한 아동이 16.06%, 모른다고 응답한 아동이 41.10%로 나타난다. 여전히 '모름'으로 응답한 아동이 적지 않으나. 전년도(결혼 의사 44.22%, 자녀 양육 의사 46.50%)에 비해 일정 수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김지현 외, 2021: 163).

집단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혼과 자녀 양육을 할 의사가 있는 아동은 남학생이, 결혼과 자녀 양육을 할 의사가 없는 아동은 여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구 소득에 따라서도 결혼 의사 및 자녀 양육 의사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표 Ⅳ-2-93〉 아동의 결혼 의사/자녀양육 의사

단위: %(명)

구분	결혼 의사				자녀양육 의사			
	있음	없음	모름	계(수)	있음	없음	모름	계(수)
전체	50.75	10.71	38.54	100.00(1326)	42.84	16.06	41.10	100.00(1326)
아동 성별								
남	53.18	8.71	38.11	100.00(677)	46.97	11.82	41.21	100.00(677)
여	48.23	12.79	38.98	100.00(649)	38.52	20.49	40.99	100.00(649)
$\chi^2(df)$	6.80(2)*				21.06(2)***			

구분	결혼 의사				자녀양육 의사			
	있음	없음	모름	계(수)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모 취업 여부								
취업	50.75	10.57	38.68	100.00(804)	44.53	16.29	39.18	100.00(804)
미취업	51.12	10.63	38.24	100.00(489)	41.10	15.34	43.56	100.00(489)
$\chi^2(df)$	0.03(2)				2.43(2)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44.13	10.48	45.40	100.00(315)	40.00	13.02	46.98	100.00(315)
400초과-550만원	56.57	10.09	33.33	100.00(327)	46.79	13.15	40.06	100.00(327)
550초과-700만원	50.00	12.34	37.66	100.00(316)	40.82	18.67	40.51	100.00(316)
700만원 초과	54.41	9.20	36.40	100.00(261)	45.21	19.92	34.87	100.00(261)
$\chi^2(df)$	13.55(6)*				14.96(6)*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01$.

4) 경제관념 및 경제행동

아동이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가정형편(경제수준)을 사다리에 빗대어 '1점:매우 못산다'부터 '10점:매우 잘산다'의 10개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6점으로 응답한 아동이 25.11%로 가장 많았고, 7점 24.28%, 5점 20.06%가 그 뒤를 이었다. 약 70%의 아동들이 본인의 가정형편을 5~7점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에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평균뿐만 아니라 개별 점수 분포에 대해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다.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구 소득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400만원 초과~550만원 이하 집단의 아동들은 5점에서 7점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고, 가구 소득 55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 700만원 초과 집단의 아동들은 6점에서 8점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개별 구간과 평균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표 Ⅳ-2-94〉 아동의 상대적 박탈지수(가정형편)

단위: %(명), 점

구분	점 수										계(수)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전체	-	0.75	2.49	7.39	20.06	25.11	24.28	12.37	4.52	3.02	100.00(1326)	6.29	1.54
아동 성별													
남	-	0.44	3.25	6.94	19.65	20.83	25.70	14.03	4.73	4.43	100.00(677)	6.41	1.62

구분	점 수										계(수)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여	-	1.08	1.69	7.86	20.49	29.58	22.80	10.63	4.31	1.54	100.00(649)	6.18	1.45
x2(df)/t					29.15(8)***							2.72**	
모 취업 여부													
취업	-	0.75	1.74	6.09	20.77	25.37	24.88	12.44	4.60	3.36	100.00(804)	6.36	1.52
미취업	-	0.61	3.48	8.38	19.02	26.18	23.52	12.27	3.89	2.66	100.00(489)	6.22	1.55
x2(df)/t					7.81(8)							1.61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	0.63	4.44	16.19	27.94	22.54	13.65	8.25	3.17	3.17	100.00(315)	5.76[a]	1.62
400초과-550만원	-	1.53	3.98	4.28	23.55	27.22	22.63	11.01	3.67	2.14	100.00(327)	6.14[b]	1.53
550초과-700만원	-	0.32	1.27	4.11	16.77	25.32	28.80	15.19	5.38	2.85	100.00(316)	6.57[c]	1.42
700만원 초과	-	0.38	0.77	1.53	9.58	28.74	31.80	16.09	6.90	4.21	100.00(261)	6.85[c]	1.35
x2(df)/F					145.57(24)***							30.14***	

주: 1) 아동의 응답임.
2) 10점 척도임(1.매우 못 산다~10.매우 잘 산다).
** $p < .01$, *** $p < .001$.

용돈 지급 여부와 지급액, 용돈 사용처를 묻는 문항은 14차년도 조사부터 응답자에 변화가 있었다. 13차년도까지는 보호자가 응답했으나 패널아동이 중학교 1학년이 된 14차년도부터는 아동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전까지 '귀하는 ○○(이)에게 용돈을 줍니까?', '○○(이)가 일주일간 받는 용돈은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와 같이 지급의 주체에게 하는 질문에서, '용돈을 받습니까?', '일주일간 받는 용돈은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와 같이 지급 받은 대상에게 하는 질문으로 수정되었다. 다만, 질문을 통해 알고자 하는 정보가 동일하다는 관점에서, 종단 분석이 가능한 동일한 변인으로 보았다.

아동에 대한 용돈 지급 여부 및 지급 시 액수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아동의 50.30%가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응답했고, 37.25%는 용돈을 필요시 받는다고 응답한 한편, 약 12.44%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용돈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가구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 소득이 700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음이 두드러진다.

일주일 간 받는 용돈의 전체 평균은 12,470원으로 조사되었다. 이 또한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 소득이 400만원 이하 구간인 가정의 아동들과 400만원 초과 구간인 가정의 아동들의 일주일 용돈액 평균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95〉 아동에 대한 용돈 지급 여부 및 지급 시 액수

단위: %(가구), 천원(명)

구분	용돈 지급 여부				일주일 용돈 지급액		
	받지않음	필요시 받음	정기적으로 받음	계(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2.44	37.25	50.30	100.00(1326)	12.47	12.91	(1115)
아동 성별							
남	14.18	37.52	48.30	100.00(677)	12.18	14.36	(555)
여	10.63	36.98	52.39	100.00(649)	12.76	11.29	(560)
$\chi^2(df)/t$		4.48(2)			-0.74		
모 취업 여부							
취업	11.69	36.69	51.62	100.00(804)	12.61	13.35	(686)
미취업	14.11	37.22	48.67	100.00(489)	12.16	12.11	(398)
$\chi^2(df)/t$		1.96(2)			0.55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3.97	41.90	44.13	100.00(315)	10.62[a]	10.86	(257)
400초과-550만원	8.87	38.53	52.60	100.00(327)	13.21[a]	12.54	(286)
550초과-700만원	14.87	34.81	50.32	100.00(316)	13.42[a]	13.27	(259)
700만원 초과	13.03	31.03	55.94	100.00(261)	13.55[a]	16.15	(222)
$\chi^2(df)/F$		14.94(6)*			2.83*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문항 응답자가 바뀌고, 대상 아동이 중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아동의 용돈 사용처에 대한 선택지를 일부 수정하였다. '교통비'와 '의류, 화장품'이 추가되었고, '간식 및 군것질하기'가 '간식 및 군것질하기(식사포함)'으로, '장난감이나 취미, 오락 활동'이 '문화생활(음악, 게임)' 으로 일부 수정되었다. 조사 결과, 50.30%의 아동들이 용돈을 주로 간식 및 군것질(식사포함)에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저축 16.02%, 문화생활(음악, 게임) 10.77%가 그 뒤를 이었다.

아동의 용돈 사용처는 성별에 따라, 모 취업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성별의 차이에서는 '저축'과 '간식 및 군것질(식사포함)'에서 차이를 보이고, 특히 '의류, 화장품'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저축', '문화생활(음악, 게임)'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표 Ⅳ-2-96〉 아동의 용돈 사용처

단위: %(명)

구분	학습자료 (학용품, 준비물 등)	저축	간식 및 군것질 (식사포함)	교통비	문화생활 (음악, 게임)	의류, 화장품	기타	계(수)
전체	4.65	16.02	50.30	5.94	10.77	5.25	7.06	100.00(1161)
아동 성별								
남	3.79	17.73	53.70	6.37	11.70	0.69	6.02	100.00(581)
여	5.52	14.31	46.90	5.52	9.83	9.83	8.10	100.00(580)
$x^2(df)$	55.88(6)***							
모취업								
취업	3.94	13.80	51.13	6.76	11.97	5.07	7.32	100.00(710)
미취업	5.71	20.48	48.10	4.29	8.81	5.71	6.90	100.00(420)
$x^2(df)$	14.98(6)*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4.06	14.76	53.14	8.49	9.96	4.43	5.17	100.00(271)
400초과-550만원	7.38	16.78	45.97	4.36	11.41	6.38	7.72	100.00(298)
550초과-700만원	4.09	17.47	52.04	4.09	11.15	5.58	5.58	100.00(269)
700만원 초과	3.96	12.78	51.98	7.93	8.81	4.41	10.13	100.00(227)
$x^2(df)$	23.72(18)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01$.

아동의 저축 실태 조사 결과, 평소 저축을 한다는 아동이 66.29%, 저축을 하지 않는다는 아동이 33.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을 하는 아동에게 주로 어떤 돈으로 저축하는지를 물어보았는데, 명절 등에 친척, 손님이 비정기적으로 주는 용돈으로 저축한다는 아동이 61.43%에 해당했고,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으로 저축한다는 아동이 35.04%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저축하는 용돈의 출처는 성별과 가구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정기적으로 받은 용돈으로 저축하는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고, 비정기적인 용돈으로 저축하는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가구 소득 구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경향성은 유사하나 가구 소득 구간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집안 일 돕기, 부모님 심부름,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으로 저축한다는 아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주목해볼만 하다.

〈표 Ⅳ-2-97〉 아동의 저축 실태

단위: %(명)

구분	평소 저축 실태			주로 어떤 돈으로 저축하는지				
	저축함	저축하지 않음	계(수)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	명절 등에 친척, 손님이 비정기적으로 주는 용돈	집안 일 돕기, 부모님 심부름,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	기타	계(수)
전체	66.29	33.71	100.00(1326)	35.04	61.43	2.62	0.91	100.00(879)
아동 성별								
남	66.62	33.38	100.00(677)	39.02	56.98	3.10	0.89	100.00(451)
여	65.95	34.05	100.00(649)	30.84	66.12	2.10	0.93	100.00(428)
$x^2(df)$	0.07(1)			8.03(3)*				
모 취업 여부								
취업	65.42	34.58	100.00(804)	34.60	61.98	2.28	1.14	100.00(526)
미취업	68.51	31.49	100.00(489)	35.52	60.60	3.28	0.60	100.00(335)
$x^2(df)$	1.30(1)			1.53(3)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63.17	36.83	100.00(315)	30.65	63.32	5.53	0.50	100.00(199)
400초과~550만원	66.06	33.94	100.00(327)	41.67	56.48	1.85	-	100.00(216)
550초과~700만원	65.51	34.49	100.00(316)	29.47	67.63	0.97	1.93	100.00(207)
700만원 초과	67.82	32.18	100.00(261)	38.98	58.19	2.26	0.56	100.00(177)
$x^2(df)$	1.42(3)			23.81(9)**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1$.

이어서 아동의 저축 방식을 물었다. 이에 '내가 직접 은행에 저금'에 27.65%의 아동들이 응답했으며 '지갑에 모아둔다'가 26.85%, '부모님께 맡겨 모은다'가 22.75%로 유사한 수준의 응답 비율을 보인다. 성별, 모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른 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구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2-98〉 아동의 저축 방식

단위: %(명)

구분	저축 방식					
	저금통에 모은다	내가 직접 은행에 저금	지갑에 모아둔다	부모님께 맡겨 모은다	기타	계(수)
전체	19.91	27.65	26.85	22.75	2.84	100.00(879)

구분	저축 방식					
	저금통에 모은다	내가 직접 은행에 저금	지갑에 모아둔다	부모님께 맡겨 모은다	기타	계(수)
아동 성별						
남	19.29	26.61	27.05	23.73	3.33	100.00(451)
여	20.56	28.74	26.64	21.73	2.34	100.00(428)
$\chi^2(df)$			1.69(4)			
모 취업 여부						
취업	21.67	25.86	25.48	23.95	3.04	100.00(526)
미취업	16.72	30.75	28.96	20.90	2.69	100.00(335)
$\chi^2(df)$			6.16(4)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24.62	25.63	25.63	19.60	4.52	100.00(199)
400초과-550만원	21.30	27.31	28.70	22.22	0.46	100.00(216)
550초과-700만원	14.49	31.40	30.43	21.26	2.42	100.00(207)
700만원 초과	17.51	25.42	23.16	28.81	5.08	100.00(177)
$\chi^2(df)$			22.86(12)*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5) 사회 관련 인식

아동에게 집, 학교, 지역사회, 국가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그 정도를 1점(전혀 아니다)~4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13차에는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나 14차부터는 4점 척도로 변경되었기에 종단적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동들은 평균적으로 집에서 안전하다고 느꼈고(3.51점), 학교(3.38점)와 지역사회(3.25점)에서의 안전 체감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의 정도는 '아니다'와 '그렇다'의 중간 수준인 것으로 보여진다. 집단 분석 결과, 집과 학교에서의 안전 체감도는 가구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 55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 구간, 700만원 초과 구간의 아동이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구간의 아동보다 집을 더 안전하게 느끼는 것으로, 700만원 초과 구간의 아동이 가구 소득 400만원 초과~550만원 이하 구간의 아동보다 학교를 더 안전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와 국가에서의 안전 체감도는 성별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남

학생의 안전 체감도 평균이 각각 3.32점, 3.01점으로, 3.19점, 2.85점인 여학생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안전교육의 유용성을 묻는 문항에 전체 평균 3.07점으로, '그렇다'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아동들이 학교에서 받은 안전교육이 실제 위험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Ⅳ-2-99〉 아동의 안전 체감도 및 대처인식

단위: 점(명)

구분	(수)	안전 체감도								대처인식	
		집		학교		지역사회		국가		안전교육 유용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26)	3.51	0.54	3.38	0.61	3.25	0.64	2.93	0.78	3.07	0.72
아동 성별											
남	(677)	3.52	0.53	3.40	0.62	3.32	0.65	3.01	0.82	3.09	0.77
여	(649)	3.50	0.55	3.37	0.60	3.19	0.63	2.85	0.74	3.05	0.67
t		0.55		0.96		3.56***		3.62***		1.18	
모 취업 여부											
취업	(804)	3.50	0.55	3.40	0.59	3.26	0.65	2.94	0.78	3.07	0.72
미취업	(489)	3.54	0.53	3.37	0.63	3.25	0.63	2.92	0.79	3.07	0.73
t		-1.28		0.78		0.14		0.48		0.03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5)	3.42^{a}	0.58	3.38^{ab}	0.62	3.24	0.66	2.92	0.81	3.10	0.71
400초과-550만원	(327)	3.50^{ab}	0.52	3.32^{a}	0.60	3.22	0.62	2.91	0.76	3.07	0.67
550초과-700만원	(316)	3.58^{b}	0.53	3.41^{ab}	0.62	3.31	0.66	2.98	0.79	3.00	0.79
700만원 초과	(261)	3.57^{b}	0.52	3.48^{b}	0.56	3.30	0.64	2.94	0.80	3.08	0.75
F		6.08***		3.47*		1.47		0.59		1.28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4.매우 그렇다).
* $p < .05$, *** $p < .001$.

3. 부모 및 가구 특성

14차년도 조사의 부모 특성은 크게 개인 및 부부 특성, 신체 및 건강 특성, 직업 특성, 양육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가구 특성은 인구학적 특성, 물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 특성은 연령, 최종학력, 우울, 행복감 등의 개인 특성과 결혼만

족도 등의 부부 특성, 장애 유무, 음주 및 흡연 사항에 대한 신체 및 건강 특성, 취학업 상태 등에 대한 직업 특성, 양육스트레스, 성취압력 등에 대한 양육 특성을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 문항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직접 질문하여 각각 응답하게 하였고, 일부 아동학대, 성취압력 등과 같은 문항의 경우는 아동에게 부모에 대해 질문하여 응답받기도 하였다. 가구 특성으로는 가구 구성 등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 주거환경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가구의 소득, 지출 등의 경제적 특성을 알아보았고, 주로 보호자용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Ⅳ-3-1〉 14차년도 부모 및 가구 특성 변인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부모 특성	개인 및 부부 특성	인구학적 특성	• 연령, 최종학력
			• ○○(이)와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심리적 특성	• 우울
			• 주관적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 행동유형
			•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부부 특성	• 결혼 상태 및 유지 기간
			• 결혼만족도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	• 주관적 건강 상태
		질환/장애	• 장애 유무 및 정도
		음주 및 흡연	• 음주 여부 및 횟수, 양, 과음 횟수
			• 흡연 여부
	직업 특성	일반적 특성	• 취/학업 상태
		취업 특성	• 재직 상태, 직장 변동 여부, 종사상 지위
			• 취업모/부의 (주중, 주말) 근무 일/시간
			• 취업모/부의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양육 특성	양육 실제	• 성취압력
			• 부모애착
			• 합리적 설명
			• 양육스트레스
			• 아동학대
			• 사회적 지원 정도
		부모 감독 및 참여	• 보호자가 인식한 친구 수
			• 부모 감독,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
가구 특성	인구학적 특성	가구 구성	• 가구 구성 형태, 가구원 수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물리적 특성	주거환경	• 패널아동 개별 방 여부
	경제적 특성	소득	• 가구 소득, 취업모/부의 근로 소득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가족의 걱정 빈도
		지출	• 가구 및 자녀에 대한 소비성, 비소비성 지출
		자산 및 부채	• 부동산, 금융자산
			• 부채 여부, 부채액, 월 상환액

가. 부모 특성

1) 가족 및 부부 특성

먼저 패널아동과의 동거 여부를 알아보고,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응답가구의 대부분은 부모와 패널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1.41%, 아버지 비동거 비율은 7.59%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의 타지역 근무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Ⅳ-3-2〉 아동과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이유

단위: %(명)

구분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동거	비동거	계(수)	타지역 근무 (학업)	아동의 국내외 유학중	장기 입원, 요양중	군 복무 중	기타	계(수)
어머니	98.59	1.41	100.00(1343)	22.22	11.11	-	-	66.67	100.00(18)
아버지	92.41	7.59	100.00(1343)	59.80	2.94	-	0.98	36.27	100.00(102)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가구 부모는 전체 응답가구의 93.6%가 유배우-초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사별이 0.67%, 이혼이 4.02%였다. 12차 조사 시 패널가구의 3.1%가 이혼 상태였고(김은설 외, 2020: 177), 13차 조사에서는 3.4%로 조사되었는데(김지현 외, 2021: 185), 아동패널 내 이혼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표 Ⅳ-3-3〉 부모의 결혼 상태 및 기간

단위: %(명), 년

구분	결혼 상태								결혼 기간	
	미혼	유배우-초혼	유배우-재혼	동거(사실혼)	사별	이혼	별거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0.15	93.60	1.27	-	0.67	4.02	0.30	100.00(1343)	16.96	3.23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가구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5점 척도로 조사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14차년도 조사에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9점, 아버지는 평균 3.96점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결혼생활에 대해 다소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부/모의 학력과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는 고졸 이하인 경우 보다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의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아버지의 경우는 고졸 이하인 집단에 비해 대졸 이상인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 소득의 경우도 어머니, 아버지 모두에서, 월 400만원 이하인 집단에 비해 월 550만원 초과인 집단이 결혼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4〉 부모의 결혼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59	0.80	(1315)	3.96	0.73	(1164)
모/부 학력						
고졸 이하	3.47[a]	0.85	(349)	3.87[a]	0.79	(304)
전문대졸	3.61[b]	0.78	(370)	3.93[ab]	0.72	(249)
대졸 이상	3.65[b]	0.76	(591)	4.01[b]	0.70	(608)
F	5.93**			3.94*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47[a]	0.95	(301)	3.84[a]	0.88	(264)
400초과-550만원	3.57[ab]	0.75	(328)	3.96[ab]	0.65	(301)
550초과-700만원	3.66[b]	0.72	(319)	4.02[b]	0.67	(282)
700만원 초과	3.67[b]	0.74	(259)	4.03[b]	0.69	(218)
F	4.25**			4.00**		
지역 규모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대도시	3.57	0.80	(469)	3.93	0.70	(418)
중소도시	3.62	0.78	(598)	3.99	0.72	(517)
읍면	3.55	0.82	(248)	3.93	0.81	(229)
F	0.91			1.11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
* $p < .05$, ** $p < .01$.

2) 개인 특성

가) 심리학적 특성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해 7점 만점으로 조사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평균 5.10점, 아버지는 평균 5.29점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은 앞서 살펴본 결혼만족도와 유사하게, 부/모의 학력과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고졸 이하의 집단보다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아버지의 경우는 전문대졸 이하의 집단 보다 대졸 이상의 집단에서 더 행복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을 가구 소득 수준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정확히는 아버지가 인식한 주관적 행복감에서 가구 소득 월 400만원 이하인 집단 보다 월 700만원 초과인 집단인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3-5〉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10	0.93	(1315)	5.29	0.99	(1164)
모/부 학력						
고졸 이하	4.92[a]	0.96	(349)	5.12[a]	1.03	(304)
전문대졸	5.11[b]	0.93	(370)	5.19[a]	1.03	(249)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대졸 이상	5.20[b]	0.90	(591)	5.42[b]	0.93	(608)
F	10.35***			11.53***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5.02[a]	0.98	(301)	5.12[a]	1.03	(264)
400초과~550만원	5.04[a]	0.95	(328)	5.29[ab]	0.98	(301)
550초과~700만원	5.14[a]	0.89	(319)	5.36[ab]	0.94	(282)
700만원 초과	5.22[a]	0.92	(259)	5.44[b]	0.94	(218)
F	2.73*			4.77**		
지역 규모						
대도시	5.04	0.90	(469)	5.24	0.95	(418)
중소도시	5.12	0.95	(598)	5.32	0.99	(517)
읍면	5.15	0.95	(248)	5.31	1.04	(229)
F	1.45			0.86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7점 척도임.
3)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음.
4)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14차년도에도 부모의 심리적 특성의 한축으로 우울감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우울감은 총 6개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문항의 예시로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등이 있다. 이러한 6개의 문항에 대해 6~13점은 정상 수준, 14~18점은 경도/중증도 우울, 19~30점은 중도 우울로 구분하였는데[9], 14차년도 조사 결과, 어머니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65.48%가 정상, 28.14%가 경도/중증도 우울 상태, 6.39%가 중도의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71.39%가 정상, 22.59%가 경도/중증도 우울 상태, 6.01%가 중도의 우울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우울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9)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자료실〉도구프로파일〉1차_[부모]우울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26&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C%9A%B0%EC%9A%B8&rowCount=10&viewPage=1 (2022년 10월 11일 인출)

왔는데, 학력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중도의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Ⅳ-3-6〉 부모의 우울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정상	경도/중등도	중도	계(수)	정상	경도/중등도	중도	계(수)
전체	65.48	28.14	6.39	100.00(1315)	71.39	22.59	6.01	100.00(1164)
모/부 학력								
고졸 이하	60.17	29.80	10.03	100.00(349)	71.05	21.05	7.89	100.00(304)
전문대졸	69.46	25.41	5.14	100.00(370)	72.29	21.29	6.43	100.00(249)
대졸 이상	66.16	28.93	4.91	100.00(591)	71.38	23.68	4.93	100.00(608)
$x^2(df)$	14.15(4)**				3.89(4)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63.12	26.58	10.30	100.00(301)	69.32	23.48	7.20	100.00(264)
400초과~550만원	63.72	30.18	6.10	100.00(328)	68.44	26.25	5.32	100.00(301)
550초과~700만원	68.97	27.90	3.13	100.00(319)	72.34	22.70	4.96	100.00(282)
700만원 초과	65.64	26.64	7.72	100.00(259)	75.69	16.97	7.34	100.00(218)
$x^2(df)$	11.87(6)				5.76(6)			
지역 규모								
대도시	62.90	29.85	7.25	100.00(469)	69.86	24.64	5.50	100.00(418)
중소도시	63.88	30.43	5.69	100.00(598)	70.02	23.21	6.77	100.00(517)
읍면	74.19	19.35	6.45	100.00(248)	77.29	17.47	5.24	100.00(229)
$x^2(df)$	13.01(4)*				5.82(4)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패널가구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큼 받는지에 대한 1개 항목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는 4점 만점에서 평균 2.89점 수준, 아버지는 2.88점 수준으로 두 그룹 모두 유사하게 스트레스를 약간 받는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3-7〉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89	0.56	(1315)	2.88	0.60	(1164)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모/부 학력						
고졸 이하	2.93	0.57	(349)	2.89	0.63	(304)
전문대졸	2.86	0.55	(370)	2.89	0.64	(249)
대졸 이상	2.88	0.56	(591)	2.88	0.57	(608)
F	1.64			0.09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2.91	0.54	(301)	2.89	0.61	(264)
400초과~550만원	2.87	0.58	(328)	2.88	0.62	(301)
550초과~700만원	2.86	0.53	(319)	2.91	0.56	(282)
700만원 초과	2.92	0.58	(259)	2.84	0.62	(218)
F	0.79			0.48		
지역 규모						
대도시	2.93	0.54	(469)	2.91	0.59	(418)
중소도시	2.86	0.58	(598)	2.86	0.60	(517)
읍면	2.88	0.54	(248)	2.90	0.60	(229)
F	2.32			1.09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음~4.많이 받음).

패널가구 부모의 삶의 만족도 역시 현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1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의 삶에 대해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패널가구 어머니는 본인의 삶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3.63점 정도로 만족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경우는 평균 3.71점으로, 아버지가 어머니 보다 본인의 삶에 대해 조금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세부특성별로 집단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부/모의 학력과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집단이 고졸 이하인 집단 보다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경우도 대졸 이상인 집단이 전문대졸 이하인 집단 보다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 소득의 경우에도, 어머니는 월 가구 소득 550만원 초과인 집단이 월 400만원 이하인 집단 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아버지는 월 가구 소득 700만원 초과인 집단이 월 400만원 이하인 집단 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8〉 부모의 삶의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63	0.68	(1315)	3.71	0.72	(1164)
모/부 학력						
고졸 이하	3.46[a]	0.71	(349)	3.60[a]	0.72	(304)
전문대졸	3.65[b]	0.66	(370)	3.60[a]	0.75	(249)
대졸 이상	3.73[b]	0.65	(591)	3.82[b]	0.69	(608)
F	16.70***			13.41***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53[a]	0.75	(301)	3.60[a]	0.74	(264)
400초과~550만원	3.59[ab]	0.67	(328)	3.69[ab]	0.72	(301)
550초과~700만원	3.70[b]	0.62	(319)	3.75[ab]	0.70	(282)
700만원 초과	3.71[b]	0.70	(259)	3.83[b]	0.70	(218)
F	4.76**			4.53**		
지역 규모						
대도시	3.61	0.66	(469)	3.68	0.71	(418)
중소도시	3.64	0.70	(598)	3.72	0.72	(517)
읍면	3.67	0.68	(248)	3.74	0.74	(229)
F	0.61			0.54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만족하지 못함~5.매우 만족).
** $p < .01$, *** $p < .001$.

다음으로는 취업 중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일과 가정/양육을 병행할 경우는 느끼는 이점과 갈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일과 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문항은 각각 7문항, 9문항으로 이뤄져있고, 일과 양육 양립 시 이점과 갈등 문항은 각각 4문항,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일과 가정/양육을 병행에 대해 이점을 많이 느끼거나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문항의 예시로는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해서는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내 삶을 더 다양하게 해준다’(이점 문항), ‘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갈등 문항) 등이 있고, 일과 양육 양립 관련 문항으로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이점 문항),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갈등 문항) 등이 있다.

취업 중인 어머니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데 있어 이점은 5점 만점에 3.76점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갈등은 2.20점으로 나타났다. 패널가구 내 취업 중인 어머니는 일과 가정 양립 시 갈등 보다는 이점이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은 어머니의 세부특성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있었는데, 대졸 이상의 어머니 집단이 고졸 이하의 집단 보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였을 때의 이점이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가구 소득이 월 700만원 초과인 가구의 어머니가 400만원 이하의 가구 어머니 보다 일-가정 양립 시 이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표 Ⅳ-3-9〉 모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단위: 점(명)

구분	일-가정 양립: 일-가정 이점			일-가정 양립: 일-가정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76	0.60	(829)	2.20	0.73	(829)
모 학력						
고졸 이하	3.65[a]	0.64	(203)	2.30	0.77	(203)
전문대졸	3.78[ab]	0.57	(246)	2.18	0.72	(246)
대졸 이상	3.82[b]	0.60	(380)	2.16	0.71	(380)
F	5.01**			2.35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65[a]	0.64	(131)	2.24	0.79	(131)
400초과-550만원	3.76[ab]	0.59	(200)	2.17	0.74	(200)
550초과-700만원	3.80[ab]	0.57	(231)	2.17	0.70	(231)
700만원 초과	3.83[b]	0.65	(211)	2.20	0.72	(211)
F	2.70*			0.35		
지역 규모						
대도시	3.74	0.60	(292)	2.24	0.71	(292)
중소도시	3.76	0.62	(380)	2.19	0.71	(380)
읍면	3.81	0.57	(157)	2.15	0.82	(157)
F	0.62			0.74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한편, 취업 중인 어머니가 일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느끼는 긍정적인 면과 갈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일과 양육 병행의 이점은 5점 만점에서 3.59점, 갈등은 2.33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의 세부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Ⅳ-3-10〉 모 일-양육 양립 시 이점과 갈등

단위: 점(명)

구분	일-양육 양립: 일-양육 이점			일-양육 양립: 일-양육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59	0.71	(829)	2.33	0.75	(829)
모 학력						
고졸 이하	3.52	0.70	(203)	2.42	0.74	(203)
전문대졸	3.61	0.70	(246)	2.29	0.78	(246)
대졸 이상	3.60	0.71	(380)	2.30	0.73	(380)
F	1.01			2.29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56	0.75	(131)	2.28	0.82	(131)
400초과-550만원	3.57	0.73	(200)	2.28	0.75	(200)
550초과-700만원	3.57	0.72	(231)	2.33	0.75	(231)
700만원 초과	3.63	0.68	(211)	2.38	0.73	(211)
F	0.41			0.74		
지역 규모						
대도시	3.52	0.70	(292)	2.39	0.73	(292)
중소도시	3.61	0.71	(380)	2.32	0.75	(380)
읍면	3.64	0.70	(157)	2.24	0.78	(157)
F	1.89			2.14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다음은 취업 중인 아버지를 대상으로 일과 가정 병행 시 느끼는 이점과 갈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이점은 5점 만점에 3.75점으로 인식하고 있고, 갈등은 2.28점으로 나타났다. 〈표 Ⅳ-3-9〉에 나타난 것처럼, 어머니의 경우 이점은 5점 만점에 3.76점, 갈등은 2.20점으로 아버지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갈등에는 세부 집단간 차이가 없었고, 이점은 아버지의 세부특성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있었는데, 대졸 이상의 아버지 집단이 전문대졸 이하의 집단 보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였을 때의 이점이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가구 소득이 월 700만원 초과인 가구의 아버지가 550만원 이하 가구의 아버지 보다 일-가정 양립 시 이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표 Ⅳ-3-11〉 부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단위: 점(명)

구분	일-가정 양립: 일-가정 이점			일-가정 양립: 일-가정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75	0.63	(1135)	2.28	0.67	(1135)
부 학력						
고졸 이하	3.65[a]	0.66	(291)	2.30	0.72	(291)
전문대졸	3.69[a]	0.60	(244)	2.34	0.68	(244)
대졸 이상	3.83[b]	0.63	(597)	2.25	0.64	(597)
F	9.16***			1.74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67[a]	0.64	(247)	2.29	0.69	(247)
400초과-550만원	3.67[a]	0.61	(297)	2.34	0.67	(297)
550초과-700만원	3.79[ab]	0.63	(281)	2.29	0.63	(281)
700만원 초과	3.90[b]	0.64	(214)	2.19	0.67	(214)
F	7.47***			2.22		
지역 규모						
대도시	3.71	0.63	(408)	2.30	0.61	(408)
중소도시	3.79	0.61	(508)	2.28	0.71	(508)
읍면	3.72	0.70	(219)	2.25	0.67	(219)
F	1.80			0.45		

주: 1) 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01$.

이번에는 패널가구 아버지의 일과 양육 병행 시 느끼는 이점과 갈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버지들은 일과 양육 양립에 대해 이점은 5점 만점에 평균 3.84점, 갈등에 대해서는 평균 2.10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Ⅳ-3-10〉에 나타난 것처럼, 어머니 응답결과는 일과 양육 병행의 이점은 5점 만점에서 3.59점, 갈등은 2.33점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일-양육 병행 시 이점은 높게, 갈등은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과 가정 양립을 하면서 느끼는 이점과 갈등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 세부특성별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최종 학력이 전문대졸인 경우에 대졸 이상인 집단 보다 갈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가구 소득이 월 700만원 초과인 집단은 월 550만원 이하인 집단에 비해 이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12〉 부 일-양육 양립 시 이점과 갈등

단위: 점(명)

구분	일-가정 양립: 일-양육 이점			일-가정 양립: 일-양육 갈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84	0.69	(1135)	2.10	0.73	(1135)
부 학력						
고졸 이하	3.78[a]	0.70	(291)	2.17[ab]	0.76	(291)
전문대졸	3.78[a]	0.67	(244)	2.18[b]	0.73	(244)
대졸 이상	3.90[a]	0.69	(597)	2.03[a]	0.70	(597)
F	4.21*			5.53**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78[a]	0.70	(247)	2.09	0.73	(247)
400초과-550만원	3.75[a]	0.72	(297)	2.19	0.75	(297)
550초과-700만원	3.86[ab]	0.66	(281)	2.10	0.69	(281)
700만원 초과	3.99[b]	0.64	(214)	2.02	0.74	(214)
F	5.79***			2.51		
지역 규모						
대도시	3.99	0.64	(408)	2.11	0.71	(408)
중소도시	3.78	0.68	(508)	2.13	0.76	(508)
읍면	3.83	0.74	(219)	2.03	0.68	(219)
F	2.36			1.35		

주: 1) 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나) 행동적 특성

아동패널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행동유형을 조사하였다. 행동유형은 2020년 13차 조사 때 처음 조사한 변인으로, '나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싫어한다', '나는 무엇이든 경쟁적으로 하려 한다' 등의 문항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별 점수를 합산하여 각 응답자를 A형과 B형으로 구분하는데, 유형 구분에 대한 기준은 연구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는 13차년도 조사에서부터 사용한 기준[10]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A형 행동유형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시간적인 투쟁에 몰두하는 사람들에 의해 나타

10) 공소영(2007)에 따라 3.0 기준으로 A/B형을 분류함. 3.0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눠 t-test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평균점수가 3.0인 경우는 사례 수가 더 적은 A형 집단으로 분류함(김지현 외, 2021: 186).

내어지는 특징적 행위와 정서의 복합체를 의미한다[11].

14차년도 조사 결과, 어머니의 경우는 A형이 27.15%, B형이 72.85%로 분석되었고, 아버지의 경우는 A형이 34.19%, B형이 65.81%였다. 어머니, 아버지 세부 특성별 집단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3-13〉 부모의 행동유형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A형	B형	계(수)	A형	B형	계(수)
전체	27.15	72.85	100.00(1315)	34.19	65.81	100.00(1164)
모 취업 여부						
취업	28.77	71.23	100.00(810)	33.71	66.29	100.00(700)
미취업	24.39	75.61	100.00(645)	35.23	64.77	100.00(440)
$x^2(df)$	2.97(1)			0.27(1)		
모/부 학력						
고졸 이하	29.23	70.77	100.00(349)	37.50	62.50	100.00(304)
전문대졸	24.32	75.68	100.00(370)	30.12	69.88	100.00(249)
대졸 이상	27.58	72.42	100.00(591)	34.21	65.79	100.00(608)
$x^2(df)$	2.31(2)			3.31(2)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24.58	75.42	100.00(301)	34.85	65.15	100.00(264)
400초과-550만원	26.83	73.17	100.00(328)	37.54	62.46	100.00(301)
550초과-700만원	26.02	73.98	100.00(319)	31.56	68.44	100.00(282)
700만원 초과	32.05	67.95	100.00(259)	33.94	66.06	100.00(218)
$x^2(df)$	4.36(3)			2.35(3)		
지역 규모						
대도시	27.08	72.92	100.00(469)	33.73	66.27	100.00(418)
중소도시	27.09	72.91	100.00(598)	35.59	64.41	100.00(517)
읍면	27.42	72.58	100.00(248)	31.88	68.12	100.00(229)
$x^2(df)$	0.01(2)			1.03(2)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10개 문항을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배정하여 3점을 기준으로 두고 3.0 보다 높은 군을 A형 성격이 강한 개인으로, 3.0보다 낮은 군을 B형 성격이 강한 개인으로 규정함(공소영, 2007). 본 분석에서 3.0점인 사례는 A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음.
3) 행동유형 선행연구 중 신승욱(2008)의 경우 중앙값을 기준으로 A형, B형을 나누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앙값을 기준으로 A형, B형을 나눌 경우 A형, B형의 빈도가 달라질 수 있음.

11)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자료실〉도구프로파일〉13차_[부모] 행동유형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6415&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D%96%89%EB%8F%99%EC%9C%A0%ED%98%95&rowCount=10&viewPage=1 (2022년 10월 11일 인출)

3) 신체 및 건강 특성

가) 신체 건강 및 장애

어머니, 아버지에게 각각 본인의 현재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해 응답하게 한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응답하였다(어머니 평균 3.37점, 아버지 평균 3.42점). 어머니 집단의 경우, 세부특성별 집단 차이를 나타냈는데, 대졸 이상의 어머니가 고졸 이하의 어머니 보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다소 좋다고 인식하였고, 가구 소득이 월 550만원 초과인 어머니가 400만원 이하인 어머니 보다 건강 상태를 좋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3-14〉 부모의 주관적 건강 상태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37	0.69	(1315)	3.42	0.72	(1164)
모/부 학력						
고졸 이하	3.30[b]	0.71	(349)	3.36	0.76	(304)
전문대졸	3.36[ab]	0.71	(370)	3.38	0.68	(249)
대졸 이상	3.41[b]	0.66	(591)	3.46	0.71	(608)
F	3.21*			2.40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24[a]	0.73	(301)	3.39	0.76	(264)
400초과~550만원	3.37[ab]	0.67	(328)	3.45	0.67	(301)
550초과~700만원	3.40[b]	0.67	(319)	3.37	0.72	(282)
700만원 초과	3.44[b]	0.67	(259)	3.48	0.75	(218)
F	4.86**			1.09		
지역 규모						
대도시	3.32	0.74	(469)	3.42	0.73	(418)
중소도시	3.40	0.65	(598)	3.43	0.68	(517)
읍면	3.37	0.68	(248)	3.38	0.78	(229)
F	2.10			0.30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건강하지 않음~5.매우 건강함).
* $p < .05$, ** $p < .01$.

패널가구 부모들의 1,2급 장애 유무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가구 어머니의 0.98%, 아버지의 1.08%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15〉 부모의 1·2급 장애 유무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어머니	0.98	99.02	100.00(1329)
아버지	1.08	98.92	100.00(1292)

주: 보호자의 응답임.

나) 음주 및 흡연

패널가구 부모들의 음주 실태를 음주 횟수, 양, 과음 횟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경우는 최근 1년간 음주하지 않은 경우가 25.10%, 월 1회 이하나, 2~4회 이하인 경우가 31.63%, 32.02%로 대부분인 반면, 아버지의 경우는 월 2~4회 음주하는 비율은 36.68%, 주 2~3회 21.99%로 어머니에 비해 음주하는 횟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음주량도 어머니 보다는 아버지가 많은 경향을 보였고, 과음 횟수는 어머니 보다 아버지 과음 기준이 높음[12]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과음 빈도가 어머니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Ⅳ-3-16〉 부모의 음주 실태

단위: %(명)

음주 횟수			음주량			과음 횟수		
구분	어머니	아버지	구분	어머니	아버지	구분	어머니	아버지
최근 1년간 안 마심	25.10	13.40	1잔 또는 2잔	66.60	28.7	전혀 없음	42.94	17.56
월 1회 이하	31.63	17.44	3잔 또는 4잔	19.80	21.23	한 달에 1번 미만	32.28	28.57
월 2~4회	32.02	36.68	5잔 또는 6잔	7.01	18.65	한 달에 1번 정도	13.60	23.02
주 2~3회	9.35	21.99	7잔에서 9잔	4.26	17.06	일주일에 1번 정도	10.05	24.90
주 4회 이상	1.90	10.48	10잔 또는 그 이상	2.34	14.29	거의 매일	1.12	5.95
계 (수)	100.00 (1315)	100.00 (1164)	계 (수)	100.00 (985)	100.00 (1008)	계 (수)	100.00 (985)	100.00 (1008)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패널가구 어머니의 흡연률은 0.99%, 아버지는 39.09%였다.

12) 어머니의 과음 기준은 한 번의 술자리에서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이상) 마시는 경우이며, 아버지의 과음 기준은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이상)을 기준으로 응답하게 함.

〈표 Ⅳ-3-17〉 부모의 흡연 실태

단위: %(명)

구분	피움	피우지 않음	계(수)
어머니	0.99	99.01	100.00(1315)
아버지	39.09	60.91	100.00(1164)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4) 직업 특성

가) 취업/ 학업 여부

2021년 기준(14차년도 조사) 패널가구 어머니의 62.65%는 취업 중(취업 60.53% + 취업/학업 병행 중 2.12%)이고, 아버지가 취업 중인 경우는 97.34%(취업 중 96.31% + 취업/학업 병행 중 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차년도 조사에서는 패널가구 어머니의 60.3%(취업, 취업/학업 합산 수치), 아버지의 96.3%(취업, 취업/학업 합산 수치)가 취업 중(김지현 외, 2021: 193)이었던 것에 비해 어머니, 아버지 모두 취업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표 Ⅳ-3-18〉 부모 취/학업 상태

단위: %(명)

구분	취업 (휴직 포함)	학업 (휴학 포함)	취업/학업 병행	미취업 /미학업	계(수)
어머니	60.53	0.91	2.12	36.44	100.00(1320)
아버지	96.31	0.17	1.03	2.49	100.00(1164)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덧붙여 패널가구 어머니의 취업과 학업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최종 학력, 가구 소득, 거주하는 지역 규모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최종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거주하는 지역이 소규모일수록, 취업 중인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Ⅳ-3-19〉 모의 취/학업 상태(집단별 분석)

단위: %(명)

구분	취업 (휴직 포함)	학업 (휴학 포함)	취업/학업 병행	미취/미학업	계(수)
전체	60.53	0.91	2.12	36.44	100.00(1320)
모 학력					

구분	취업 (휴직 포함)	학업 (휴학 포함)	취업/학업 병행	미취/미학업	계(수)
전체	60.53	0.91	2.12	36.44	100.00(1320)
고졸 이하	55.40	0.85	2.27	41.48	100.00(352)
전문대졸	60.90	1.06	3.99	34.04	100.00(376)
대졸 이상	63.34	0.84	0.84	34.97	100.00(592)
$x^2(df)$		16.62(6)*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41.95	0.67	1.68	55.70	100.00(298)
400초과-550만원	59.63	0.61	1.22	38.53	100.00(327)
550초과-700만원	67.60	1.87	3.12	27.41	100.00(321)
700만원 초과	78.49	0.38	2.64	18.49	100.00(265)
$x^2(df)$		103.73(9)***			
지역 규모					
대도시	60.38	0.63	1.47	37.53	100.00(477)
중소도시	61.45	1.35	1.52	35.69	100.00(594)
읍면	58.63	0.40	4.82	36.14	100.00(249)
$x^2(df)$		13.39(6)*			

주: 어머니의 응답임.
* $p < .05$, *** $p < .001$.

나) 취업 특성 및 직업 만족도

부모가 취업상태이거나, 취업/학업 병행인 경우 부모의 재직 상태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는 99.03%가 재직, 아버지는 98.50% 재직으로 아버지의 휴직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Ⅳ-3-20〉 부모의 재직 상태 및 직장 변동 여부

단위: %(명)

구분	재직상태		직장/직위 변동 여부					
	재직	휴직	변동 없음	직장이 바뀜	직위가 바뀜	지난조사 시 미취/미학	2020 조사불참	계(수)
어머니	99.03	0.97	60.82	12.82	5.32	0.24	20.80	100.00(827)
아버지	98.50	1.50	93.95	5.61		-	0.44	100.00(1141)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부모의 종사상 지위는 어머니의 경우 상용직이 68.98%,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12.17%, 종업원을 둔 고용주가 7.06%였으며, 아버지의 경우 64.47%가 상용직,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5.79%, 종업원을 둔 고용주가 9.21%를 차지하였다. 2020년 조사한 데이터와 비교하면 아버지의 상용직 비율이 7.1%p 감소하였고,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6.0%p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김지현 외, 2021: 195)

〈표 Ⅳ-3-21〉 부모의 종사상 지위

단위: %(명)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종업원을 둔 고용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수)
어머니	68.98	8.52	1.34	7.06	12.17	1.95	100.00(822)
아버지	64.47	6.58	2.63	9.21	15.79	1.32	100.00(76)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취업부모의 근무일(주중 평균, 주말 평균, 1주일 전체) 및 시간을 살펴보았다. 그 중 1주일 전체 근무일 및 근무시간으로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경우 주 평균 5.15일, 근로시간은 주 평균 39.10시간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모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모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5.27일), 대졸 이상인 경우(5.06일)보다 일하는 일수가 더 높았으며, 일하는 시간도 모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40.71시간), 대졸 이상인 경우(37.95시간)보다 일을 하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는 주 평균 근무일 5.33일, 주 평균 근무시간 47.26시간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 경우 역시 학력별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경우 고졸 이하일 경우 전문대졸 이상일 경우보다 주 평균 근무일이 높게 나타났고, 고졸 이하인 경우(49.41시간), 대졸 이상인 경우(46.03시간)보다 근무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는 어머니의 경우와는 달리 가구 소득에 따른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차이를 나타냈는데, 400만원 이하의 가구 소득의 가구의 경우 50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의 가구보다 주 평균 근무일이 길게 나타났다.

〈표 Ⅳ-3-22〉 취업부모 근무일 및 시간

단위: 일, 시간(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근무일		근로시간		(수)	근무일		근로시간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주중 평균	4.87	0.48	7.57	1.85	(820)	4.92	0.36	8.92	1.47	(1133)

구분	어머니					아버지				
	근무일		근로시간		(수)	근무일		근로시간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주말 평균	0.28	0.53	5.12	3.78	(820)	0.40	0.60	3.15	4.36	(1133)
1주일 전체	5.15	0.68	39.10	11.69	(820)	5.33	0.63	47.26	10.80	(1133)
모/부 학력										
고졸 이하	5.27[b]	0.69	40.71[b]	11.92	(200)	5.46[b]	0.70	49.51[b]	11.46	(290)
전문대졸	5.18[ab]	0.67	39.54[ab]	12.16	(243)	5.34[a]	0.59	47.60[ab]	10.64	(244)
대졸 이상	5.06[a]	0.68	37.95[a]	11.15	(377)	5.26[a]	0.60	46.03[a]	10.37	(596)
F	6.82**		6.72**			10.38***		10.47***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5.25	0.66	39.08	11.87	(127)	5.44[b]	0.8	48.75[a]	12.34	(246)
400초과~550만원	5.14	0.78	37.63	12.96	(199)	5.36[ab]	0.56	47.94[a]	10.33	(296)
550초과~700만원	5.15	0.57	39.86	10.47	(224)	5.22[a]	0.57	46.21[a]	10.07	(281)
700만원 초과	5.14	0.69	39.99	11.12	(214)	5.29[ab]	0.57	46.52[a]	10.69	(214)
F	0.96		0.68			5.73***		3.1*		
지역 규모										
대도시	5.11	0.68	38.20[a]	11.69	(292)	5.32	0.60	46.95	10.33	(407)
중소도시	5.14	0.70	39.01[a]	11.33	(373)	5.32	0.60	47.05	11.13	(508)
읍면	5.24	0.65	41.00[a]	12.37	(155)	5.36	0.77	48.32	10.89	(218)
F	1.90		3.27*			0.34		1.31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취업부모 일자리 만족도는 어머니는 3.81점, 아버지 3.64점을 나타냈다. 일자리 만족도는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의 경우, 고졸 이하인 어머니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의 어머니보다 일자리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고, 아버지의 경우 대졸 이상의 아버지가 전문대졸 이하의 아버지보다 일자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 모두 가구 소득 700만원 초과의 가구의 경우가 400만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보다 일자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3-23〉 취업부모 일자리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81	0.63	(826)	3.64	0.71	(1133)
모/부 학력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고졸 이하	3.66[a]	0.70	(203)	3.52[a]	0.70	(290)
전문대졸	3.80[b]	0.61	(244)	3.50[a]	0.77	(244)
대졸 이상	3.89[b]	0.60	(379)	3.76[b]	0.67	(596)
F	9.62***			17.07***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68[a]	0.72	(130)	3.44[a]	0.72	(246)
400초과~550만원	3.76[ab]	0.61	(199)	3.58[ab]	0.69	(296)
550초과~700만원	3.82[ab]	0.61	(226)	3.70[bc]	0.61	(281)
700만원 초과	3.94[b]	0.63	(215)	3.86[c]	0.72	(214)
F	5.35**			15.7***		
지역 규모						
대도시	3.81	0.57	(294)	3.62	0.71	(407)
중소도시	3.81	0.66	(374)	3.65	0.71	(508)
읍면	3.80	0.68	(158)	3.66	0.70	(218)
F	0.01			0.20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만족하지 않음~5.매우 만족).
** $p < .01$, *** $p < .001$.

5) 양육 특성

가) 양육 행동

부모의 성취압력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학업성취에 대한 압박'을 말하며, '부모님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질까봐 걱정하신다' 등의 15문항의 5점 척도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14차 중학교 1학년의 부모의 성취압력은 평균 2.35점으로 남학생(2.40)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은 여학생(2.30)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성취압력은 모 학력, 가구 소득, 지역 규모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표 Ⅳ-3-24〉 부모의 성취압력

단위: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35	0.82	(1326)
아동 성별			
남	2.40	0.81	(677)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여	2.30	0.81	(649)
t	2.15*		
모 학력			
고졸 이하	2.32	0.84	(359)
전문대졸	2.35	0.79	(374)
대졸 이상	2.37	0.82	(588)
F	0.46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2.25	0.83	(312)
400초과-550만원	2.41	0.79	(327)
550초과-700만원	2.39	0.79	(316)
700만원 초과	2.32	0.83	(261)
F	2.45		
지역 규모			
대도시	2.33	0.81	(470)
중소도시	2.40	0.81	(601)
읍면	2.28	0.84	(255)
F	2.21		

주: 1) 아동 응답임(총 15 문항).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항상 그렇다).
* $p < .05$.

부모애착은 ‘아동이 부모와 밀접하게 느끼는 정도’로 아동대상 질문이며,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 각각 응답하였다.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있다. 의사소통의 경우, ‘아버지는 나의 감정을 존중한다’를 포함한 6문항, 소외감은 ‘아버지는 내가 화가 난 것을 모를 때가 많다(R)’를 포함한 3문항, 신뢰감은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한다’를 포함한 3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외감 영역 응답은 역채점하여, 소외감이 높을수록 점수가 낮게 나타나 부모애착이 높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어머니와의 부모애착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3.84점, 소외감 3.35점, 신뢰감 3.96점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의 경우 학력과 소득, 소외감의 경우 아동 성별, 신뢰감의 경우 가구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모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모 학력이 전문대졸 이하인 경우보다, 의사소통영역 부모애착이 높았으며, 700만원 초과 가구 아동이 400만원 이하의 가구 아동보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감 영역 부모애착이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은 어머니 대상 소외감 영역 부모애착이 3.31점으로, 여학생의 소외감 영역의 부모애착(3.39점)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Ⅳ-3-25〉 부모애착: 어머니

단위: 점(명)

구분	의사소통		소외감(R)		신뢰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84	0.76	3.35	0.73	3.96	0.75	(1326)
아동 성별							
남	3.84	0.75	3.31	0.76	3.95	0.74	(677)
여	3.84	0.76	3.39	0.70	3.98	0.76	(649)
t	−0.15		−2.04*		−0.79		
모 취업 여부							
취업	3.85	0.74	3.34	0.72	3.98	0.74	(808)
미취업	3.87	0.73	3.37	0.72	3.96	0.76	(490)
t	−0.39		−0.76		0.50		
모 학력							
고졸 이하	3.72[a]	0.83	3.31	0.76	3.89	0.80	(808)
전문대졸	3.80[a]	0.75	3.37	0.71	3.98	0.72	(490)
대졸 이상	3.94[b]	0.70	3.37	0.72	4.00	0.74	(588)
F	9.91***		0.71		2.70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72[a]	0.86	3.38	0.75	3.92[a]	0.77	(312)
400초과-550만원	3.88[ab]	0.70	3.31	0.70	3.92[ab]	0.73	(327)
550초과-700만원	3.87[ab]	0.73	3.37	0.73	3.94[ab]	0.77	(316)
700만원 초과	3.93[b]	0.69	3.36	0.72	4.09[b]	0.69	(261)
F	4.22**		0.48		3.33*		

주: 1) 아동 응답임(의사소통 6문항, 소외감 3문항, 신뢰감 3문항. 총 12문항).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애착이 높음: '소외감' 항목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감이 낮음을 의미함.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은 아버지에 대해 부모애착을 측정한 결과인데, 소외감과 신뢰감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의사소통의 경우 학력이 대졸 이상의 경우 전문대졸 이하보다, 가구 소득 700만원 이상보다 400만원 이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Ⅳ-3-26〉 부모애착: 아버지

단위: 점(명)

구분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7	0.83	3.25	0.73	3.80	0.79	(1326)
아동 성별							
남	3.50	0.84	3.23	0.75	3.80	0.79	(677)
여	3.43	0.83	3.28	0.70	3.80	0.78	(649)
t	1.52		-1.15		-0.15		
부 학력							
고졸 이하	3.34[a]	0.89	3.31	0.76	3.74	0.84	(360)
전문대졸	3.40[a]	0.79	3.21	0.69	3.81	0.75	(282)
대졸 이상	3.56[b]	0.81	3.24	0.72	3.83	0.77	(679)
F	9.10***		1.81		1.37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30[a]	0.94	3.29	0.77	3.75	0.87	(210)
400초과-550만원	3.50[b]	0.75	3.22	0.67	3.78	0.72	(400)
550초과-700만원	3.49[ab]	0.81	3.25	0.74	3.79	0.78	(236)
700만원 초과	3.55[b]	0.82	3.26	0.75	3.87	0.77	(373)
F	5.21**		0.58		1.21		

주: 1) 아동 응답임(의사소통 6문항, 소외감 3문항, 신뢰감 3문항. 총 12문항).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애착이 높음: '소외감' 항목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감이 낮음을 의미함.
** $p < .01$, *** $p < .001$.

양육행동 중 합리적 설명은 아동이 자신의 부모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준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인식하는 것으로, '부모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 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주신다'를 포함한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동이 인식한 부모의 합리적 설명 정도의 평균은 3.03점(표준편차 0.56)으로, 보통(3점) 정도로 나타났다.

〈표 Ⅳ-3-27〉 합리적 설명

단위: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03	0.56	(1326)
아동 성별			
남	3.03	0.57	(677)
여	3.03	0.54	(649)
t	-0.12		
모 취업 여부			
취업	3.03	0.57	(808)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미취업	3.04	0.54	(490)
t	-0.43		
모 학력			
고졸 이하	2.97[a]	0.58	(359)
전문대졸	3.03[a]	0.54	(374)
대졸 이상	3.07[a]	0.55	(588)
F	3.17*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2.96	0.58	(312)
400초과-550만원	3.05	0.52	(327)
550초과-700만원	3.06	0.54	(316)
700만원 초과	3.07	0.57	(261)
F	2.38		

주: 1) 아동 응답임(총 5문항).
2) 4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4.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아동이 응답한 부모로부터의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신체적 학대는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있다'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지난 6개월간 한두 번'의 비율이 높고, '전혀 없음'의 비율이 낮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적 학대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28〉 아동학대(신체적 학대 경험)

단위: %(명)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번	한 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두번	거의 매일	계(수)
전체	92.68	5.81	1.13	0.23	0.15	100.00(1326)
아동 성별						
남	89.22	8.27	1.92	0.44	0.15	100.00(677)
여	96.30	3.24	0.31	-	0.15	100.00(649)
$x^2(df)$	26.76(4)***					
모 취업 여부						
취업	92.57	5.69	1.36	0.25	0.12	100.00(808)
미취업	92.45	6.33	0.82	0.20	0.20	100.00(490)
$x^2(df)$	1.14(4)**					
모 학력						
고졸 이하	92.48	6.13	1.11	0.28	-	100.00(359)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번	한 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두번	거의 매일	계(수)
전문대졸	91.98	6.68	0.80	0.53	-	100.00(374)
대졸 이상	93.20	5.10	1.36	-	0.34	100.00(588)
$x^2(df)$			7.16(8)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91.99	6.09	1.92	-	-	100.00(312)
400초과~550만원	92.66	6.12	0.61	0.61	-	100.00(327)
550초과~700만원	94.94	4.11	0.63	0.32	-	100.00(316)
700만원 초과	93.10	5.36	1.15	-	0.38	100.00(261)
$x^2(df)$			11.95(12)			

주: 아동 응답임.
** $p < .01$, *** $p < .001$.

언어적 학대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있다'의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전혀 없음'의 비율이 81.60%, '지난 6개월간 한두번'의 비율이 12.29%로 총 90% 이상을 나타냈다.

아동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경우 '지난 6개월간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고, '전혀 없음'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낮게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언어적 학대 경험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3-29〉 아동학대(언어적 학대 경험)

단위: %(명)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번	한 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두번	거의 매일	계(수)
전체	81.60	12.29	3.85	1.73	0.53	100.00(1326)
아동 성별						
남	78.43	14.18	4.43	2.22	0.74	100.00(677)
여	84.90	10.32	3.24	1.23	0.31	100.00(649)
$x^2(df)$			9.95(4)*			
모 취업 여부						
취업	82.30	11.63	3.84	1.61	0.62	100.00(808)
미취업	80.20	13.67	3.67	2.04	0.41	100.00(490)
$x^2(df)$			1.78(4)			
모 학력						
고졸 이하	80.50	12.81	5.01	0.56	1.11	100.00(359)
전문대졸	81.02	13.10	2.94	2.67	0.27	100.00(374)
대졸 이상	82.48	11.56	3.74	1.87	0.34	100.00(588)
$x^2(df)$			10.74(8)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81.73	12.50	3.21	1.92	0.64	100.00(312)
400초과~550만원	81.65	12.23	3.98	1.83	0.31	100.00(327)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번	한 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두번	거의 매일	계(수)
550초과~700만원	82.91	12.66	2.85	1.58	-	100.00(316)
700만원 초과	81.61	10.73	4.60	1.92	1.15	100.00(261)
$x^2(df)$			6.39(12)			

주: 아동 응답임.
* $p < .05$.

정서적 학대는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전혀 없음' 이 89.89%, '지난 6개월간 한두 번'이 6.49%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 경험 또한 아동 성별 간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의 경우 '지난 6개월 간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응답한 경우가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전혀 없음'의 비율이 남학생(87.74%)이 여학생(92.14%)보다 낮게 나타나, 남학생이 정서적 학대 경험도 더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3-30〉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경험)

단위: %(명)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계(수)
전체	89.89	6.49	2.26	1.06	0.30	100.00(1326)
아동 성별						
남	87.74	7.09	3.25	1.62	0.30	100.00(677)
여	92.14	5.86	1.23	0.46	0.31	100.00(649)
$x^2(df)$			11.69(4)*			
모 취업 여부						
취업	90.22	5.82	2.35	1.11	0.50	100.00(808)
미취업	88.78	7.96	2.24	1.02	-	100.00(490)
$x^2(df)$			4.65(4)			
모 학력						
고졸 이하	91.36	6.13	1.39	0.56	0.56	100.00(359)
전문대졸	90.91	6.15	1.87	1.07	-	100.00(374)
대졸 이상	88.27	6.97	3.06	1.36	0.34	100.00(588)
$x^2(df)$			7.03(8)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90.06	5.77	2.88	1.28	-	100.00(312)
400초과~550만원	89.60	7.03	1.83	1.53	-	100.00(327)
550초과~700만원	92.72	4.75	1.58	0.95	-	100.00(316)
700만원 초과	87.74	8.05	2.68	0.38	1.15	100.00(261)
$x^2(df)$			17.9(12)			

주: 아동 응답임.
* $p < .05$.

방임은 ‘내가 아플 때에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 경우 ‘전혀 없음’ 의 경우가 96.68%로 높게 나타났고, 방임 문항은 그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3-31〉 아동학대(방임)

단위: %(명)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계(수)
전체	96.68	2.04	0.68	0.23	0.38	100.00(1326)
아동 성별						
남	96.16	2.07	1.03	0.44	0.30	100.00(677)
여	97.23	2.00	0.31	-	0.46	100.00(649)
$x^2(df)$			5.74(4)			
모 취업 여부						
취업	96.41	2.23	0.87	0.25	0.25	100.00(808)
미취업	97.55	1.22	0.41	0.20	0.61	100.00(490)
$x^2(df)$			3.70(4)			
모 학력						
고졸 이하	96.94	1.95	0.56	0.28	0.28	100.00(359)
전문대졸	97.86	1.07	0.80	0.27	-	100.00(374)
대졸 이상	95.92	2.55	0.68	0.17	0.68	100.00(588)
$x^2(df)$			5.88(8)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96.47	2.24	0.64	-	0.64	100.00(312)
400초과-550만원	96.94	2.14	0.61	0.31	-	100.00(327)
550초과-700만원	96.20	2.22	0.63	0.32	0.63	100.00(316)
700만원 초과	97.32	1.15	0.77	0.38	0.38	100.00(261)
$x^2(df)$			4.44(12)			

주: 아동 응답임.

나) 부모 감독과 학습에 대한 관여

보호자가 아동의 친구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알기 위해 ‘알고 있는 아동의 친구 수’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평균 5.93명으로 나타났다. 모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고졸 이하의 어머니보다 알고 있는 친구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32〉 보호자가 알고 있는 아동의 친구 수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93	5.32	(1348)
아동 성별			
남	5.85	5.25	(688)
여	6.01	5.41	(660)
t	-0.55		
모 취업 여부			
취업	5.81	5.07	(823)
미취업	6.31	5.80	(497)
t	-1.64		
모 학력			
고졸 이하	5.35[a]	4.11	(362)
전문대졸	5.89[ab]	5.21	(381)
대졸 이상	6.34[b]	5.99	(600)
F	3.99*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5.46	5.41	(313)
400초과-550만원	6.05	5.35	(332)
550초과-700만원	5.96	4.22	(326)
700만원 초과	6.53	6.64	(266)
F	1.90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부모감독은 부모가 아동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부모 행동을 파악하는 문항으로 보호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각각 측정하였다.

먼저, 보호자가 응답한 부모 감독은 5점 척도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디에서 누구와 있는지 알고 있다’는 4.62점,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있다’는 4.69점, ‘어른 없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4.39점, ‘어른 없이 혼자 있을 때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4.48점으로 모든 문항 4점 이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 간 차이를 본 결과 여학생의 부모가 응답한 ‘어디서 누구와 있는지 알고 있음’, ‘어른 없이 혼자 있을 때 연락 주고 받음’에 대한 부모감독의 점수가 남학생의 부모가 응답한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미취업 어머니의 경우 ‘어디에서 누구와 있는지 알고 있음’, ‘어른 없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음’, ‘어른 없이 혼자 있을 때 연락 주고받음’ 에 대해 취업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부모감독 점수를 나타냈다.

〈표 Ⅳ-3-33〉 부모 감독: 보호자 응답

단위: 점(명)

구분	어디에서 누구와 있는지 알고 있음		몇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있음		어른없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음		어른없이 혼자 있을 때 연락 주고받음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62	0.89	4.69	0.89	4.39	1.02	4.48	0.99	(1348)
아동 성별									
남	4.55	0.91	4.64	0.87	4.34	1.02	4.43	1.06	(688)
여	4.70	0.87	4.73	0.91	4.44	1.02	4.54	0.91	(660)
t	-3.10**		-1.87		-1.84		-2.11*		
모 취업 여부									
취업	4.58	0.91	4.66	0.92	4.32	1.08	4.42	1.02	(823)
미취업	4.71	0.87	4.75	0.85	4.52	0.92	4.59	0.95	(497)
t	-2.68**		-1.66		-3.34***		-2.90**		
모 학력									
고졸 이하	4.60	0.91	4.63	0.84	4.42	1.03	4.40	1.02	(362)
전문대졸	4.61	0.90	4.72	0.97	4.35	0.97	4.48	0.99	(381)
대졸 이상	4.65	0.87	4.70	0.88	4.40	1.05	4.54	0.97	(600)
F	0.49		1.06		0.51		2.49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4.65	0.96	4.69	0.90	4.51	1.07	4.55	0.94	(313)
400초과-550만원	4.59	0.89	4.63	0.81	4.37	0.99	4.44	1.07	(332)
550초과-700만원	4.66	0.93	4.69	0.89	4.37	1.00	4.52	1.04	(326)
700만원 초과	4.62	0.87	4.79	1.06	4.34	1.11	4.42	1.00	(266)
F	0.44		1.57		1.75		1.11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이 응답한 부모 감독 문항은 4점 척도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방과 후 어디 가는지 알고계심’은 3.45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계심’은 3.37점, ‘밤에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계심’은 3.50점,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계심’은 3.21점으로 모든 문항이 3점 이상으로 아동이 응답한 부모감독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응답한 부모감독 점수는 아동 성별, 모 취업 여부, 모 학력에 따라 차이

가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문항에서 여학생의 부모가 남학생의 부모보다, 미취업 부모가 취업부모보다, 대졸 이상의 부모가 고졸 이하 부모보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 감독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Ⅳ-3-34〉 부모 감독: 아동 응답

단위: 점(명)

구분	방과후 어디가는지 알고계심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계심		밤에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계심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계심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5	0.70	3.37	0.69	3.50	0.68	3.21	0.78	(1326)
아동 성별									
남	3.40	0.75	3.34	0.70	3.45	0.73	3.17	0.81	(677)
여	3.51	0.64	3.39	0.67	3.55	0.62	3.26	0.74	(649)
t	−2.76**		−1.33		−2.75**		−2.26*		
모 취업 여부									
취업	3.45	0.71	3.34	0.68	3.48	0.68	3.17	0.78	(808)
미취업	3.48	0.66	3.42	0.67	3.56	0.66	3.29	0.78	(490)
t	−0.90		−2.07*		−2.01*		−2.59**		
모 학력									
고졸 이하	3.30^{a}	0.80	3.27^{a}	0.76	3.38^{a}	0.75	3.11^{a}	0.83	(359)
전문대졸	3.47^{b}	0.62	3.37^{ab}	0.64	3.48^{ab}	0.66	3.14^{a}	0.78	(374)
대졸 이상	3.55^{b}	0.66	3.43^{b}	0.65	3.59^{b}	0.63	3.33^{b}	0.73	(588)
F	14.93***		5.99**		10.39***		12.01***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42	0.73	3.36	0.73	3.50	0.68	3.17	0.80	(312)
400초과-550만원	3.44	0.68	3.34	0.66	3.43	0.75	3.22	0.78	(327)
550초과-700만원	3.46	0.69	3.38	0.68	3.51	0.66	3.19	0.78	(316)
700만원 초과	3.56	0.63	3.40	0.65	3.57	0.61	3.29	0.76	(261)
F	2.19		0.35		2.08		1.21		

주: 1) 아동 응답임.
2) 4점 척도(1.전혀 아니다~4.매우 그렇다)임.
* $p < .05$, ** $p < .01$, *** $p < .001$.

보호자가 응답한 중학교 1학년의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은 ‘없음’의 경우가 21.81%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하루 중 ‘4시간 이상’ 성인 없이 있는 경우도 13.06%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룹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동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없음’과 ‘1시간

미만'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4시간 이상'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3-35〉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단위: %(명)

구분	없음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수)
전체	21.81	19.44	22.55	15.36	7.79	13.06	(1348)
아동 성별							
남	20.64	17.59	22.24	15.70	9.16	14.68	(688)
여	23.03	21.36	22.88	15.00	6.36	11.36	(660)
$\chi^2(df)$	9.95(4)*						
모 취업 여부							
취업	14.82	16.04	21.75	19.08	10.33	17.98	(823)
미취업	33.80	25.55	24.14	8.25	3.62	4.63	(497)
$\chi^2(df)$	150.63(5)***						
모 학력							
고졸 이하	22.38	15.19	24.03	14.64	7.18	16.57	(362)
전문대졸	21.52	15.22	24.41	17.59	9.19	12.07	(381)
대졸 이상	21.67	24.83	20.67	14.00	7.33	11.50	(600)
$\chi^2(df)$	25.89(10)**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26.84	17.57	21.41	18.21	5.43	10.54	(313)
400초과-550만원	18.07	16.27	26.20	16.27	8.73	14.46	(332)
550초과-700만원	25.77	20.86	22.39	12.88	7.36	10.74	(326)
700만원 초과	17.29	22.93	21.05	13.16	10.90	14.66	(266)
$\chi^2(df)$	30.53(15)*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성인 없이 있는 시간"은 절대 시간이 아닌, ① 없음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④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⑤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⑥ 4시간 이상으로 측정한 구간척도의 점수임.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은 부모가 가정에서 아동에게 학업적/교육적으로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총 7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1) 에서는 '집안의 공부 분위기 조성', '학교공부 숙제확인', '공부방법 조언', '성적관리에 신경 씀'의 4개 문항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모두 평균 3.33점~3.54점 사이로 나타났다. 특히, 집안의 공부 분위기 조성 문항은 각 가구별 특성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가 여학생일 경우,

어머니가 미취업일 때, 어머니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 소득이 400만원 이하 가구집단 보다는 5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집단일 경우 공부분위기 조성에 더 힘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3-36〉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1)

단위: 점(명)

구분	집안의 공부 분위기 조성		학교공부 및 숙제 확인		공부방법 조언		성적관리에 신경씀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3	0.82	3.33	0.92	3.49	0.81	3.54	0.82	(1348)
아동 성별									
남	3.38	0.80	3.36	0.90	3.51	0.82	3.53	0.84	(688)
여	3.48	0.84	3.30	0.93	3.48	0.8	3.55	0.81	(660)
t	-2.39*		1.21		0.58		-0.47		
모 취업 여부									
취업	3.39	0.84	3.32	0.91	3.47	0.81	3.54	0.80	(823)
미취업	3.51	0.79	3.38	0.93	3.55	0.81	3.57	0.84	(497)
t	-2.57*		-1.24		-1.76		-0.57		
모 학력									
고졸 이하	3.22^{a}	0.81	3.18^{a}	0.95	3.23^{a}	0.85	3.35^{a}	0.83	(362)
전문대졸	3.43^{b}	0.8	3.34^{b}	0.89	3.50^{b}	0.77	3.57^{b}	0.78	(381)
대졸 이상	3.56^{c}	0.82	3.43^{b}	0.90	3.65^{c}	0.77	3.64^{b}	0.82	(600)
F	20.61***		8.20***		31.02***		14.38***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33^{a}	0.81	3.27	0.94	3.43^{a}	0.84	3.41^{a}	0.87	(313)
400초과-550만원	3.36^{ab}	0.82	3.28	0.91	3.41^{a}	0.87	3.49^{ab}	0.80	(332)
550초과-700만원	3.56^{c}	0.78	3.41	0.90	3.56^{a}	0.70	3.63^{b}	0.78	(326)
700만원 초과	3.52^{bc}	0.86	3.38	0.93	3.58^{a}	0.82	3.65^{b}	0.85	(266)
F	6.19***		1.91		3.56*		5.79***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2)' 에서는 '진로진학 정보수집', '평소생활 확인 및 일정관리', '학부모 모임 및 인터넷 정보수집'의 3문항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았는데, '진로진학을 위한 정보수집' 항목은 3.33점, '평소생활 확인 및 일정관리' 항목

은 3.57점이었으나, '학부모 모임 및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의 경우 2.99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왔다.

세 문항 모두 모 학력에 따라 점수 차이가 나타났는데, 모 학력이 높은 집단, 가구 소득이 높은 집단이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2)'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Ⅳ-3-37〉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2)

단위: 점(명)

구분	진로진학 정보수집		평소생활 확인 및 일정관리		학부모 모임 및 인터넷 정보수집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33	0.85	3.57	0.80	2.99	0.99	(1348)
아동 성별							
남	3.31	0.85	3.59	0.79	2.97	0.98	(688)
여	3.36	0.85	3.55	0.81	3.01	1.00	(660)
t	-1.16		0.82		-0.87		
모 취업 여부							
취업	3.33	0.86	3.57	0.81	2.95	1.02	(823)
미취업	3.36	0.84	3.6	0.78	3.09	0.92	(497)
t	-0.72		-0.54		-2.66**		
모 학력							
고졸 이하	3.17^{a}	0.88	3.39^{a}	0.85	2.87^{a}	0.96	(362)
전문대졸	3.29^{a}	0.82	3.57^{b}	0.79	2.99^{ab}	0.97	(381)
대졸 이상	3.46^{b}	0.83	3.68^{b}	0.76	3.07^{b}	1.01	(600)
F	14.13***		15.6***		4.64**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21^{a}	0.87	3.45^{a}	0.85	2.84^{a}	0.96	(313)
400초과-550만원	3.28^{ab}	0.84	3.55^{ab}	0.79	3.00^{ab}	1.00	(332)
550초과-700만원	3.40^{ab}	0.84	3.62^{ab}	0.77	3.08^{b}	0.98	(326)
700만원 초과	3.45^{b}	0.85	3.71^{b}	0.77	3.04^{ab}	1.06	(266)
F	5.04**		5.58***		3.45*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다) 양육 지원

부모가 사회적 지원을 받는 정도는 정서적 지원 3.85점, 정보적 지원 3.74점, 사교적 지원 3.73점, 도구적 지원 3.85점이었다. 정보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에서 어머니 학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고졸 이하 집단보다 전문대졸이나 대졸 이상의 집단에서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Ⅳ-3-38〉 사회적 지원 정도

단위: 점(명)

구분	정서적		정보적		사교적		도구적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85	0.74	3.74	0.75	3.73	0.73	3.85	0.75	(1348)
모 취업 여부									
취업	3.86	0.73	3.76	0.73	3.75	0.72	3.88	0.73	(688)
미취업	3.85	0.75	3.73	0.76	3.72	0.74	3.81	0.78	(660)
t	0.19		0.61		0.80		1.59		
모 학력									
고졸 이하	3.78	0.73	3.65^{a}	0.76	3.68	0.75	3.77^{a}	0.75	(363)
전문대졸	3.88	0.73	3.78^{b}	0.68	3.77	0.67	3.91^{ab}	0.73	(286)
대졸 이상	3.87	0.74	3.77^{ab}	0.77	3.75	0.74	3.86^{a}	0.76	(694)
F	2.28		3.78*		1.59		3.42*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78	0.75	3.70	0.75	3.66	0.75	3.81	0.77	(313)
400초과-550만원	3.84	0.76	3.70	0.79	3.72	0.75	3.85	0.75	(332)
550초과-700만원	3.84	0.75	3.75	0.75	3.74	0.73	3.83	0.79	(326)
700만원 초과	3.89	0.73	3.79	0.73	3.81	0.69	3.87	0.75	(266)
F	0.93		1.03		1.99		0.30		
지역 규모									
대도시	3.82	0.82	3.75	0.75	3.74	0.74	3.86	0.79	(484)
중소도시	3.87	0.67	3.76	0.73	3.75	0.72	3.86	0.71	(606)
읍/면	3.84	0.73	3.69	0.77	3.68	0.73	3.80	0.78	(258)
F	0.83		0.86		0.76		0.69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5$.

라) 양육 스트레스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14차년도 조사부터 부모생활 스트레스 영역에 해당하는 7개 문항은 삭제하고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영역에 해당하는 17개 문항만을 조

사하였다. 부모생활 스트레스 영역의 문항이 ‘아이를 돌보는 것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등으로 청소년기 자녀를 지닌 부모보다는 어린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적절한 문항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4차년도 조사부터는 ‘아이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아이의 학업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학부모역할 스트레스만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해당 문항은 부와 모가 각각 응답하였으며, 어머니는 2.58점, 아버지는 2.4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2.38점, 아버지 2.34점이었던 13차년도 조사결과(김지현 외, 2021: 205-206)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어머니의 학부모역할 스트레스는 아동의 성별과 거주 지역 규모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있었으며, 남학생일 때 그리고 대도시에 거주할 때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았다.

〈표 Ⅳ-3-39〉 모의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단위: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58	0.68	(1315)
아동 성별			
남	2.63	0.68	(670)
여	2.53	0.68	(645)
t	2.47*		
모 취업 여부			
취업	2.59	0.69	(810)
미취업	2.56	0.67	(492)
t	0.90		
모 학력			
고졸 이하	2.65	0.72	(349)
전문대졸	2.54	0.67	(370)
대졸 이상	2.56	0.66	(591)
F	2.69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2.55	0.7	(301)
400초과-550만원	2.60	0.7	(328)
550초과-700만원	2.62	0.64	(319)
700만원 초과	2.54	0.66	(259)
F	0.95		
지역 규모			
대도시	2.63[b]	0.63	(469)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중소도시	2.59[ab]	0.67	(598)
읍면	2.49[a]	0.77	(248)
F	3.48*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3)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 $p < .05$.

아버지의 학부모역할 스트레스는 취업 여부와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취업 중인 경우 그리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수준을 더 높게 보고하였다.

〈표 Ⅳ-3-40〉 부의 학부모역할 스트레스

단위: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49	0.71	(1164)
아동 성별			
남	2.51	0.72	(598)
여	2.47	0.70	(566)
t	0.97		
부 취업 여부			
취업	2.50	0.71	(1135)
미취업	2.24	0.75	(31)
t	1.97*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2.52	0.68	(264)
400초과-550만원	2.42	0.73	(301)
550초과~700만원	2.55	0.70	(282)
700만원 초과	2.49	0.70	(218)
F	0.85		
지역 규모			
대도시	2.55[b]	0.70	(418)
중소도시	2.49[ab]	0.70	(517)
읍면	2.37[a]	0.73	(229)
F	4.75**		

주: 1) 아버지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
3)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 $p < .05$, ** $p < .01$.

나. 가구 특성

1) 가구 구성 및 방 여부

패널가구의 가구 구성 및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87.46%로 가장 많았으며, 조부모와 부모,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8.83%, 여기에 친척도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2.89% 등이었다. 평균 가구원 수는 4.58명이었다.

〈표 Ⅳ-3-41〉 가구 구성 및 가구원 수

단위: %(가구), 명

가구 구성						가구원 수	
부모+자녀	조부모+부모+자녀	부모+자녀+친척	조부모+부모+자녀+친척	기타	계(수)	평균	표준편차
87.46	8.83	0.74	2.89	0.07	100.00(1348)	4.58	1.74

주: 보호자의 응답임.

가구의 물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패널아동만을 위한 방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81.82%가 방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13차년도 조사결과인 74.3%보다 7.52%p 증가한 수치이다(김지현 외, 2021: 208).

〈표 Ⅳ-3-42〉 아동의 단독 방 여부

단위: %(명)

있음	없음	계(수)
81.82	18.18	100.00(1348)

주: 보호자의 응답임.

2) 가구의 경제적 특성

가) 객관적 경제적 상황(소득, 지출, 부채)

패널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 지출 및 부채 등 경제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약 642만원이었으며, 이 중 어머니의 소득(814명)은 약 309만원, 아버지의 소득(1118명)은 약 48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 소득의 경우 13차년도 조사(김지현 외, 2021: 208)에서는 764명이 월평균 247.32만원으로 보고한 결과와 비교하면 응답자의 수도 소득금액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Ⅳ-3-43〉 월평균 가구 소득 및 어머니/아버지 근로소득

단위: 만원(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수)
월평균 가구 소득	642.28	858.98	550.00	0.00	25000.00	(1237)
월평균 어머니 소득	309.20	926.60	210.00	30.00	25000.00	(814)
월평균 아버지 소득	483.50	438.57	400.00	30.00	10000.00	(1118)

주: 보호자의 응답임.

월평균 지출은 소비성 지출 약 297만원, 비소비성 지출 약 213만원으로 패널가구에서는 월평균 총 501.63만원을 지출한다고 보고하였다. 월평균 지출금액 중 자녀를 위한 소비성 지출은 약 144만원, 비소비성 지출은 약 51만원이었다. 13차년도 조사(김지현 외, 2021: 209)에서는 소비성 지출 262.86만원(자녀 109.54만원), 비소비성 지출 200.14만원(자녀 46.61만원)으로 지출에서도 1년 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44〉 월평균 지출

단위: 만원

구분	가구 전체					전체 자녀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소비성 지출	297.09	134.07	300.00	30.00	1250.00	144.86	83.83	130.00	0.00	750.00
비소비성 지출	213.54	212.88	200.00	0.00	6000.00	51.54	56.76	40.00	0.00	1400.00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가구의 부동산 규모는 약 4억 9902만원, 금융 자산 규모는 약 9635만원이었으며, 부채액은 1억 3522만원, 이에 따른 월 상환금은 약 71만원이었다.

〈표 Ⅳ-3-45〉 가구 자산 및 부채

단위: 만원(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수)
부동산	49902.18	60104.27	35000.00	0.00	800000.00	(1133)
금융 자산	9635.50	15704.02	5000.00	0.00	200000.00	(1077)
부채액	13522.35	15530.02	10000.00	100.00	180000.00	(832)
월 상환금	71.79	69.67	54.00	0.00	1000.00	(773)

주: 보호자의 응답임.

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

10점 척도의 사다리 질문을 통해 패널가구의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먼저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주관적인 경제적 지위는 평균 5.35점이었으며, 취업모인 경우,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지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나 공동체에서의 주관적인 경제적 지위는 평균 5.53점으로 보고하였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인식한 경제적 지위와 유사하게 취업모인 경우,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지위를 높게 인식하였다.

〈표 Ⅳ-3-46〉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단위: 점(명)

구분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주관적 경제적 지위 인식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서의 주관적 경제적 지위 인식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35	1.40	(1325)	5.53	1.41	(1314)
모 취업 여부						
취업	5.43	1.41	(809)	5.63	1.42	(801)
미취업	5.25	1.37	(489)	5.39	1.39	(486)
t	2.26*			2.90**		
모 학력						
고졸 이하	4.88[a]	1.32	(356)	5.10[a]	1.38	(352)
전문대졸	5.31[b]	1.33	(371)	5.54[b]	1.37	(366)
대졸 이상	5.67[c]	1.39	(593)	5.79[c]	1.38	(591)
F	38.13***			27.79***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4.72[a]	1.35	(311)	4.93[a]	1.40	(305)
400초과-550만원	5.01[a]	1.22	(329)	5.24[b]	1.25	(328)
550초과-700만원	5.65[b]	1.23	(321)	5.81[c]	1.19	(319)
700만원 초과	6.28[c]	1.33	(265)	6.31[d]	1.45	(265)
F	85.13***			61.72***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10점 척도임(1.가장 낮은 수준~10.매우 높은 수준).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패널아동을 대상으로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가족이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가끔 걱정한다는 응답이 56.11%로 가장 많았고, 전혀 걱정하지 않음 34.09%, 자주 걱정함 8.67% 등으로 나타났다. 패널아동의 성별에 따라

걱정 빈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1.83점)이 남학생(1.71점)보다 가족이 경제적 상황에 대해 더 자주 걱정한다고 응답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고, 고졸 이하인 경우 자주 걱정한다는 응답(11.42%)과 항상 걱정한다는 응답(1.67%)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많았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걱정하는 빈도가 더 낮은 편으로 보고되었다.

〈표 Ⅳ-3-47〉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가족의 걱정 빈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걱정하지 않음	가끔 걱정함	자주 걱정함	항상 걱정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09	56.11	8.67	1.13	100.00(1326)	1.77	0.65
아동 성별							
남	37.67	54.51	6.65	1.18	100.00(677)	1.71	0.64
여	30.35	57.78	10.79	1.08	100.00(649)	1.83	0.65
$x^2(df)/t$	12.41(3)**					-3.17**	
모 취업 여부							
취업	37.67	54.51	6.65	1.18	100.00(808)	1.76	0.65
미취업	30.35	57.78	10.79	1.08	100.00(490)	1.78	0.64
$x^2(df)/t$	1.54(3)					-0.43	
모 학력							
고졸 이하	30.08	56.82	11.42	1.67	100.00(359)	1.85^{a}	0.68
전문대졸	31.28	58.29	9.63	0.80	100.00(374)	1.80^{ab}	0.63
대졸 이상	38.27	54.25	6.46	1.02	100.00(588)	1.70^{b}	0.63
$x^2(df)/F$	14.42(6)*					6.15**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25.96	60.90	11.22	1.92	100.00(312)	1.89^{c}	0.66
400초과~550만원	31.19	57.49	11.01	0.31	100.00(327)	1.80^{bc}	0.63
550초과~700만원	35.13	57.59	6.01	1.27	100.00(316)	1.73^{ab}	0.63
700만원 초과	47.13	45.59	6.90	0.38	100.00(261)	1.61^{a}	0.63
$x^2(df)/F$	39.69(9)***					10.15***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걱정하지 않음~4.항상 걱정함).
* $p < .05$, ** $p < .01$, *** $p < .001$.

4. 학교 및 사교육 특성

4절에서는 학교 및 사교육 특성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학교 특성으로는 이용 특성, 학교 유형, 물리적 특성, 교사 특성, 학급운영, 가정협력 등을, 사교육 특성으로는 사교육 이용 및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Ⅳ-4-1〉 14차년도 학교·사교육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학교	이용 특성	• 학교 진학 여부, 미진학 사유, 대체 이용 기관
		• 전학 여부
	학교 특성	• 학교 유형, 남녀공학 여부
		• 시범학교 유형
	물리적 특성	• 학급 수, 학급 학생 수, 학교 환경
	교사 특성	• 성별, 연령, 최종학력, 교사 경력, 근무 시간, 담당과목
		• 업무 스트레스
	학급운영	• 교사-아동 관계(친밀, 갈등)
		• 창의적 학교 환경
	가정협력	•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정도 및 횟수, 학교생활 관심 정도
		• 진학 계획 및 유형
		• 학교서비스 만족도
사교육	이용 특성	• 사교육 여부, 이용 유형, 시간, 만족도, 비용, 비용 부담 정도, 이용 이유, 교재비
	사교육 인식	• 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 부담 정도, 효과인식

가. 학교 특성

1) 이용 특성

학교 이용 특성으로는 중학교 진학 여부, 미진학 사례, 전학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패널아동 중 99.78%가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아동이 중학교에 진학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중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는 총 3명으로, 학교 진학을 1년 늦게 해서 현재 장애인 학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1사례씩 있었으며, 부모의 교육철학에 따라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응답이 1사례 있었다.

〈표 Ⅳ-4-2〉 학교 진학 여부

단위: %(명)

구분	중학교 재학 중(대안학교 포함)	다니고 있지 않음	계(수)
전체	99.78	0.22	100.00(1348)
모 취업 여부			
취업	99.76	0.24	100.00(823)
미취업	99.80	0.20	100.00(497)
$x^2(df)$	0.02(1)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99.68	0.32	100.00(313)
400초과-550만원	100.00	-	100.00(332)
550초과-700만원	99.69	0.31	100.00(326)
700만원 초과	99.62	0.38	100.00(266)
$x^2(df)$	1.14(3)		
지역 규모			
대도시	99.59	0.41	100.00(484)
중소도시	99.83	0.17	100.00(606)
읍면	100.00	-	100.00(258)
$x^2(df)$	1.46(2)		

주: 보호자의 응답임.

지난 조사 이후 전학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46%가 전학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3차년도 조사 시 전학 경험 비율이 7.0%이었던 결과(김지현 외, 2021: 215)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한편 가구 소득에 따라서 전학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Ⅳ-4-3〉 전학 여부

단위: %(명)

구분	전학한적 없음	전학한적 있음	계(수)
전체	95.54	4.46	100.00(1346)
모 취업 여부			
취업	95.86	4.14	100.00(821)
미취업	94.77	5.23	100.00(497)
$x^2(df)$	0.85(1)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96.81	3.19	100.00(313)
400초과-550만원	93.67	6.33	100.00(332)
550초과-700만원	97.85	2.15	100.00(325)
700만원 초과	93.21	6.79	100.00(265)
$x^2(df)$	11.13(3)*		
지역 규모			
대도시	94.81	5.19	100.00(482)

구분	전학한적 없음	전학한적 있음	계(수)
중소도시	95.87	4.13	100.00(606)
읍면	96.12	3.88	100.00(258)
$\chi^2(df)$	0.96(2)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2) 학교 특성

패널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유형으로는 일반중학교가 98.81%로 대부분에 해당하였으며, 국제중학교 0.30%, 대안학교 0.30%, 예술중학교 0.22%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중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비율이 아주 낮기는 하지만, 체육중이나 국제중은 가구 소득이 700만원 초과하는 가구에 해당하였고, 예술중이나 대안학교는 가구 소득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부분 해당하였다.

〈표 Ⅳ-4-4〉 학교유형

단위: %(명)

구분	일반중	예술중	체육중	국제중	대안학교	기타	계(수)
전체	98.81	0.22	0.07	0.30	0.30	0.30	100.00(1346)
모 취업 여부							
취업	99.27	0.12	0.12	0.12	0.24	0.12	100.00(821)
미취업	97.99	0.40	-	0.60	0.40	0.60	100.00(497)
$\chi^2(df)$	6.72(5)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98.40	0.96	-	-	0.64	-	100.00(313)
400초과-550만원	99.40	-	-	-	-	0.60	100.00(332)
550초과-700만원	99.69	-	-	-	-	0.31	100.00(325)
700만원 초과	97.36	-	0.38	1.51	0.38	0.38	100.00(265)
$\chi^2(df)$	32.89(15)**						
지역 규모							
대도시	98.96	0.41	-	0.41	-	0.21	100.00(482)
중소도시	99.17	0.17	0.17	0.17	0.17	0.17	100.00(606)
읍면	97.67	-	-	0.39	1.16	0.78	100.00(258)
$\chi^2(df)$	14.14(10)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1$.

재학 중인 학교는 남녀공학이 81.02%이며, 여학교는 8.45%, 남학교는 10.53%이었다.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니지만, 중소도시인 경우 남녀공학의 비율이 대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다소 낮았다.

〈표 Ⅳ-4-5〉 남녀공학 여부

단위: %(명)

구분	남녀공학	여학교	남학교	계(수)
전체	81.02	8.45	10.53	100.00(627)
지역 규모				
대도시	83.19	6.47	10.34	100.00(232)
중소도시	78.33	9.89	11.79	100.00(263)
읍면	82.58	9.09	8.33	100.00(132)

주: 담임교사의 응답임.

또한 혁신학교에 다니는 패널아동은 12.76%, 연구학교는 5.26%, 시범학교는 0.32%이었으며, 다수에 해당하는 79.27%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패널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 중에서 일반학교는 대도시에, 혁신학교는 중소도시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편이었다.

〈표 Ⅳ-4-6〉 시범학교 유형

단위: %(명)

구분	일반학교	연구학교	시범학교	혁신학교	기타	계(수)
전체	79.27	5.26	0.32	12.76	2.39	100.00(627)
지역 규모						
대도시	81.47	7.76	0.43	7.33	3.02	100.00(232)
중소도시	76.43	2.66	-	19.01	1.90	100.00(263)
읍면	81.06	6.06	0.76	9.85	2.27	100.00(132)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기타에는 다행복학교(2사례), (에듀테크)선도학교(2사례), 자율학교(2사례), 행복(맞이)학교(2사례) 등이 포함됨.

재학 중인 학교의 평균 학급 수는 7.88학급이었고, 학급의 학생 수는 27.95명이었다. 학급 수와 학생 수는 지역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읍면지역일수록 학급 수나 학생 수가 도시지역에 비해 더 적었다. 또한 남녀공학의 경우 학급 내 남학생 대 여학생의 비율은 1:0.97로 남학생이 약간 더 많았다.

〈표 Ⅳ-4-7〉 전체 학급 수 및 해당 학급 학생 수

단위: 학급, 명, (명)

구분	학급 수		학생 수		(수)	학급 내 아동성별 비율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7.88	3.44	27.95	5.80	(627)	0.97	0.51	(488)
지역 규모								
대도시	8.10[b]	3.11	28.04[b]	6.65	(232)	0.97	0.51	(183)
중소도시	8.10[b]	3.38	29.18[b]	4.11	(263)	0.97	0.51	(198)

구분	학급 수		학생 수		(수)	학급 내 아동성별 비율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읍면	7.03[a]	3.95	25.32[a]	6.24	(132)	0.97	0.51	(107)
F	5.13**		20.76***			0.93		

주: 1) 학급 내 아동성별 비율=남학생 1명당 여학생 수
2) 담임교사의 응답임.
** $p < .01$, *** $p < .001$.

담임교사가 인식한 학교 환경의 경우, 건물상태는 3.70점, 기자재 및 시설은 3.80점, 주변 환경은 3.89점, 통학조건은 3.83점으로 응답하여 평균적으로는 보통이거나 좋은 편의 환경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학조건의 경우 읍면지역의 점수는 3.55점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의 교사들이 교통 편의성 측면에서 좀 더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Ⅳ-4-8〉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

단위: 점(명)

구분	건물상태		기자재 및 시설		주변 환경		통학조건(교통 편의성)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70	0.94	3.80	0.84	3.89	0.89	3.83	0.97	(627)
지역 규모									
대도시	3.72	0.93	3.84	0.83	3.88	0.90	3.95[b]	0.94	(232)
중소도시	3.68	0.92	3.78	0.83	3.95	0.85	3.86[b]	0.90	(263)
읍면	3.69	1.01	3.80	0.89	3.79	0.92	3.55[a]	1.08	(132)
F	0.11		0.32		1.57		7.85***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나쁘다~5.매우 좋다).
*** $p < .001$.

3) 교사 특성

담임교사의 특성은 담당과목, 성별, 연령, 경력, 근무시간, 최종 학력, 업무 스트레스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담임교사의 담당과목은 국어 14.19%, 사회(역사) 12.44%, 과학 12.28%, 수학 11.96%, 영어 11.48%, 체육 9.41% 등이었다. 기타에는 진로, 정보 등의 교과목이 해당한다.

〈표 Ⅳ-4-9〉 교사 담당과목

단위: %(명)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역사)	과학	도덕	기술 가정	음악	미술	체육	기타	계(수)
전체	14.19	11.48	11.96	12.44	12.28	6.22	7.18	6.38	4.78	9.41	3.67	100.00(627)
교사 연령												
20대	10.09	3.67	9.17	13.76	12.84	5.50	11.01	5.50	4.59	17.43	6.42	100.00(109)
30대	14.42	12.50	10.10	9.62	12.50	6.73	6.73	7.69	7.69	9.62	2.4	100.00(208)
40대	18.14	14.22	15.69	11.76	12.75	4.90	5.39	6.37	2.94	5.39	2.45	100.00(204)
50대 이상	10.38	12.26	11.32	17.92	10.38	8.49	7.55	4.72	2.83	8.49	5.66	100.00(106)
지역 규모												
대도시	12.07	11.21	13.79	13.36	13.36	7.76	6.03	6.03	5.60	6.47	4.31	100.00(232)
중소도시	16.73	12.55	11.79	10.27	11.03	4.94	8.37	6.08	3.80	11.41	3.04	100.00(263)
읍면	12.88	9.85	9.09	15.15	12.88	6.06	6.82	7.58	5.30	10.61	3.79	100.00(132)

주: 담임교사의 응답임.

담임교사의 75.92%는 여성으로 남교사보다 여교사의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평균 연령은 39.45세이었다. 패널아동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13차 조사(김지현 외, 2021: 217)에서는 여교사가 60.5%, 남교사가 39.5%로 중학생이 된 현재 여성 담임교사의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Ⅳ-4-10〉 교사 성별 및 연령

단위: %(명), 세

구분	교사 성별		계(수)	교사 연령		(수)
	여	남		평균	표준편차	
전체	75.92	24.08	100.00(627)	39.45	9.17	100.00(627)
지역 규모						
대도시	76.72	23.28	100.00(232)	39.19	8.91	100.00(232)
중소도시	75.67	24.33	100.00(263)	39.43	8.95	100.00(263)
읍면	75.00	25.00	100.00(132)	39.98	10.03	100.00(132)
$\chi^2(df)/F$	0.08			0.32		

주: 담임교사의 응답임.

담임교사의 경력은 평균 12.28년이었으며, 월평균 주중 근무시간은 184.81시간이었다. 이상의 교사 특성에서는 지역 규모에 따른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4-11〉 교사 경력 및 월평균 주중 근무시간

단위: 년, 시간(명)

구분	교사 경력		교사 월평균 주중 근무시간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28	9.33	184.81	19.59	(627)
지역 규모					
대도시	11.93	8.88	184.72	20.76	(232)
중소도시	11.99	9.03	183.96	18.68	(263)
읍면	13.48	10.57	186.67	19.29	(132)
F	1.39		0.84		

주: 1) 월 평균 주중 근무일을 22일로 상정하여 월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함.
2) 담임교사의 응답임.

담임교사의 최종학력은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이 60.45%로 가장 많았고, 석사학위 30.94%, 석사과정 6.54%, 박사과정 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교사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20대인 경우 대졸이 85.32%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많았고, 석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40대 40.20%, 50대 이상이 36.79%로 많이 분포하였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학원 진학을 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겠다.

〈표 Ⅳ-4-12〉 교사 최종학력

단위: %(명)

	대졸	석사과정	석사	박사과정	박사	계(수)
전체	60.45	6.54	30.94	1.44	0.64	100.00(627)
교사 연령						
20대	85.32	7.34	7.34	-	-	100.00(109)
30대	59.13	6.73	31.25	2.40	0.48	100.00(208)
40대	50.49	6.86	40.20	1.96	0.49	100.00(204)
50대 이상	56.60	4.72	36.79	-	1.89	100.00(106)
$x^2(df)$			50.24(12)***			
지역 규모						
대도시	59.48	6.47	32.76	0.86	0.43	100.00(232)
중소도시	65.02	4.94	27.38	1.52	1.14	100.00(263)
읍면	53.03	9.85	34.85	2.27	-	100.00(132)
$x^2(df)$			10.59(8)			

주: 담임교사의 응답임.
*** $p < .001$.

담임교사의 업무 스트레스는 학부모와의 관계, 학생 생활지도, 학생 수업지도, 행정업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학생 생활지도 스트레스는 3.41점, 행정업무 스트레스는 3.40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편이었으며, 학부모와의 관계 스트레스는 2.89점, 수업지도 스트레스는 2.64점이었다. 학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는 교사 연령이 증가할수록 약간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Ⅳ-4-13〉 교사 업무 스트레스

단위: 점(명)

구분	학부모와 관계		생활지도		수업지도		행정업무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89	1.10	3.41	1.15	2.64	1.01	3.40	1.06	(627)
교사 연령									
20대	2.64[a]	1.09	3.30	1.20	2.65	0.95	3.32	1.15	(109)
30대	2.88[a]	1.10	3.49	1.10	2.61	1.03	3.43	1.05	(208)
40대	3.00[a]	1.07	3.33	1.17	2.62	0.98	3.38	1.00	(204)
50대 이상	2.99[a]	1.14	3.50	1.15	2.74	1.10	3.46	1.11	(106)
F	2.84*		1.17		0.41		0.39		
교사 경력									
10년차 이하	2.78	1.09	3.39	1.15	2.64	0.99	3.39	1.09	(326)
11~20년	3.03	1.11	3.39	1.16	2.55	0.99	3.38	1.00	(186)
21~30년	2.97	0.99	3.44	1.15	2.85	1.09	3.55	1.06	(78)
31년차 이상	3.03	1.26	3.57	1.12	2.65	1.06	3.27	1.07	(37)
F	2.43		0.30		1.54		0.74		
지역 규모									
대도시	2.84	1.13	3.38	1.13	2.60	1.00	3.43	1.07	(232)
중소도시	2.92	1.09	3.42	1.16	2.68	0.98	3.30	1.04	(263)
읍면	2.92	1.10	3.41	1.18	2.64	1.09	3.54	1.07	(132)
F	0.38		0.07		0.40		2.29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5.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3)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4) 학급 환경

학급의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담임교사에게 아동과의 관계를 질문하였으며, 아동에게는 창의적 환경 척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아동과 교사의 관계를 살

펴보면, 친밀 정도는 평균 3.74점, 갈등 정도는 평균 1.40점이었다. 아동과의 친밀함 수준은 교사의 연령이 50대 이상일수록 더 높게 보고하였다.

〈표 Ⅳ-4-14〉 아동과 교사관계

단위: 점(명)

구분	친밀		갈등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74	0.55	1.40	0.51	(627)
교사 연령					
20대	3.71[ab]	0.51	1.35	0.45	(109)
30대	3.68[a]	0.58	1.42	0.58	(208)
40대	3.77[ab]	0.56	1.40	0.51	(204)
50대 이상	3.86[b]	0.49	1.40	0.46	(106)
F	2.92*		0.43		
교사 경력					
10년차 이하	3.71	0.57	1.39	0.54	(326)
11~20년	3.74	0.55	1.40	0.50	(186)
21~30년	3.82	0.52	1.38	0.47	(78)
31년차 이상	3.89	0.42	1.46	0.48	(37)
F	1.76		0.23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5$.

아동이 응답한 창의적인 학교 환경에 대해서는 친구 지지와 즐거운 분위기(문항 예시: 내 친구(들)는 내가 힘들 때 따뜻하게 위로해 준다), 교사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문항 예시: 선생님은 내가 무엇을 만들면 관심을 가지신다),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 분위기(문항 예시: 선생님은 내 말을 들어주기 보다는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친구 지지와 즐거운 분위기는 3.85점, 교사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3.67점이었으며, 두 영역의 점수는 읍면지역에서 도시지역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 분위기 영역의 평균은 3.48점이었다.

〈표 Ⅳ-4-15〉 창의적 학교환경

단위: 점(명)

구분	친구들의 지지와 즐거운 분위기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 분위기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85	0.72	3.67	0.70	3.48	0.73	(1326)
교사 연령							
20대	3.81	0.76	3.79	0.81	3.63	0.67	(109)
30대	3.93	0.73	3.71	0.71	3.59	0.75	(208)
40대	3.94	0.74	3.75	0.67	3.55	0.75	(203)
50대 이상	3.88	0.67	3.60	0.65	3.47	0.63	(106)
F	0.81		1.43		0.98		
교사 경력							
10년차 이하	3.89	0.72	3.74	0.72	3.60	0.72	(326)
11~20년	3.92	0.80	3.75	0.72	3.54	0.78	(185)
21~30년	3.83	0.65	3.58	0.65	3.55	0.56	(78)
31년차 이상	4.12	0.53	3.66	0.57	3.43	0.64	(37)
F	1.40		1.31		0.70		
지역 규모							
대도시	3.82^{a}	0.72	3.63^{a}	0.73	3.53	0.72	(470)
중소도시	3.82^{a}	0.73	3.65^{ab}	0.69	3.47	0.72	(601)
읍면	3.96^{b}	0.70	3.77^{b}	0.66	3.40	0.78	(255)
F	3.89*		3.30*		2.81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 분위기 영역은 역채점한 값으로 다른 영역과 동일하게 점수가 높을수록 창의적 환경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 $p < .05$.

5) 가정협력

패널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가정(부모)의 협력 정도를 학교생활 참여 횟수, 참여 정도, 관심 정도를 통해 알아보았다. 먼저,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에 대한 조사 결과, 자녀 관련 상담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1.63%), 그 외에는 다른 부모들과 정보교류 모임을 갖거나(15.16%),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12.55%), 학부모단체 가입 및 활동(8.99%), 진학설명회 참석(8.91%) 등의 참여를 보였다. 참여빈도를 살펴보면, 다른 부모들과의 정보교류 모임이 상반기 5회 이상 이루어진 비율이 1.71%로 다른 참여형태보다는 높아서 모임을 갖는다면 빈도가 가장 많은 편이었고, 자녀 관련 상담은 대부분 상반기 1~2회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Ⅳ-4-16〉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횟수: 부모 응답

단위: %(명)

구분	전혀 없음	상반기 1~2회	상반기 3-4회	상반기 5회 이상	계(수)
자녀 관련 상담	48.37	49.03	2.30	0.30	100.00(1346)
학교 내 자원봉사 활동	92.72	5.50	1.19	0.59	100.00(1346)
학교 내 학부모단체 가입 및 활동	91.01	7.58	0.89	0.52	100.00(1346)
부모교육 프로그램	87.44	11.14	1.26	0.15	100.00(1346)
타부모들과 정보교류 모임	84.84	10.48	2.97	1.71	100.00(1346)
진학설명회	91.08	8.47	0.22	0.22	100.00(1346)
기타 학교방문	91.90	6.98	0.74	0.37	100.00(1346)

주: 보호자의 응답임.

교사가 응답한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정도는 평균 3.50점이었으며, 대체로 참여함 37.16%, 보통 35.09%, 항상 참여함 14.35%, 참여하지 않는 편임 11.32% 등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가구 소득이나 지역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Ⅳ-4-17〉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정도: 교사 응답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참여하지 않음	참여하지 않는 편	보통	대체로 참여함	항상 참여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7	11.32	35.09	37.16	14.35	100.00(627)	3.50	0.94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13	8.75	40.63	38.13	9.38	100.00(160)	3.42	0.89
400초과-550만원	2.38	13.69	30.95	34.52	18.45	100.00(168)	3.53	1.02
550초과-700만원	0.72	14.39	35.97	35.25	13.67	100.00(139)	3.47	0.93
700만원 초과	2.44	8.94	34.15	39.02	15.45	100.00(123)	3.56	0.94
$\chi^2(df)/F$	13.23(12)						0.65	
지역 규모								
대도시	2.16	9.48	38.79	38.36	11.21	100.00(232)	3.47	0.89
중소도시	1.52	11.79	33.46	36.88	16.35	100.00(263)	3.55	0.95
읍면	3.03	13.64	31.82	35.61	15.91	100.00(132)	3.48	1.01
$\chi^2(df)/F$	6.59(8)						0.48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참여하지 않음~5.항상 참여함).

교사가 응답한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는 평균 3.96점으로 참여 정도에 비해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었으며, 대체로 관심을 보인다는 응답이 48.33%로 가장 많았다. 매우 관심 많음 25.84%, 보통 22.17%, 가끔 관심 모임 3.35% 등의 응답을 보였다.

〈표 Ⅳ-4-18〉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관심없음	가끔 관심보임	보통	대체로 관심보임	매우 관심많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32	3.35	22.17	48.33	25.84	100.00(627)	3.96	0.80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	3.75	26.88	52.50	16.88	100.00(160)	3.83	0.75
400초과-550만원	-	4.17	22.02	44.64	29.17	100.00(168)	3.99	0.83
550초과-700만원	0.72	2.88	17.99	50.36	28.06	100.00(139)	4.02	0.8
700만원 초과	0.81	2.44	21.14	45.53	30.08	100.00(123)	4.02	0.83
$x^2(df)/F$			14.27(12)				2.06	
지역 규모								
대도시	0.43	2.16	23.71	51.29	22.41	100.00(232)	3.93	0.76
중소도시	0.38	3.04	21.29	48.29	27.00	100.00(263)	3.98	0.80
읍면	-	6.06	21.21	43.18	29.55	100.00(132)	3.96	0.87
$x^2(df)/F$			7.93(8)				0.28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관심없음~5.매우 관심많음).

다음은 진학 계획에 대해 부모에게 질문하였다. 진학 계획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부모의 71.96%가 대학교 진학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대학원 석사 9.50%, 대학원 박사 7.72%, 잘 모르겠음 5.04%, 중학교 2.45%, 전문대학 2.00%, 고등학교 1.34% 순으로 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으로 진학을 계획한 보호자가 전체의 89.18%에 달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대학원 이상의 진학 계획 비율이 높았다. 대졸 이상의 어머니는 대학원 석사, 박사 진학 계획의 비율은 각각 14.67%, 11.50%에 달하여 나머지 경우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가구 소득에 따른 결과를 보면, 가구 소득이 550만원 초과인 경우 대학원 석사 진학 응답률이 높고 700만원 초과의 경우 대학원 박사 진학 응답률이 다른 소득 집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19〉 진학 계획

단위: %(명)

구분	중학교	고등 학교	전문 대학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잘 모르겠음	계(수)
전체	2.45	1.34	2.00	71.96	9.50	7.72	5.04	100.0(1348)
아동 성별								
남	2.47	1.31	2.03	73.11	8.87	7.12	5.09	100.00(688)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잘 모르겠음	계(수)
여	2.42	1.36	1.97	70.76	10.15	8.33	5.00	100.00(660)
$\chi^2(df)$			1.51(6)					
모 취업 여부								
취업	2.55	0.85	1.70	72.05	10.57	7.65	4.62	100.00(823)
미취업	2.21	2.01	2.62	72.03	8.05	7.85	5.23	100.00(497)
$\chi^2(df)$			6.97(6)					
모 학력								
고졸 이하	1.93	2.49	5.52	77.07	4.42	3.59	4.97	100.00(362)
전문대졸	2.36	1.31	1.31	77.69	6.30	5.77	5.25	100.00(381)
대졸 이상	2.67	0.50	0.33	65.67	14.67	11.50	4.67	100.00(600)
$\chi^2(df)$			97.21(12)***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51	4.15	4.79	71.57	5.11	6.07	4.79	100.00(313)
400초과-550만원	1.81	0.90	3.01	75.60	6.93	6.33	5.42	100.00(332)
550초과-700만원	3.68	-	0.31	71.17	13.80	5.83	5.21	100.00(326)
700만원 초과	1.13	0.38	-	66.54	13.16	14.29	4.51	100.00(266)
$\chi^2(df)$			91.24(18)***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01$.

진학 계획에 이어서 진학 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의 73.74%가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였고, 잘 모르겠음 5.34%, 특성화고(직업) 4.01%, 과학고 3.41%, 자율형 사립고 3.04%, 외국어고 2.82%, 예술고 2.30% 등의 순이었다.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경우 특성화고(직업)와 과학고, 국제고 진학 비율이 여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 외국어고 진학 비율은 4.55%로 남아 1.16%에 비해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일반고, 특성화고(직업), 특성화고(대안) 진학 비율이 높았으며,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과학고, 예술고,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적을수록 특성화고(직업), 특성화고(대안), 체육고 진학 비율이 높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예술고, 외국어고, 국제고 진학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4-20〉 진학 유형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계(수)
전체	73.74	4.01	0.52	3.41	0.59	2.30	2.82	1.48	0.89	0.45	1.26	3.04	0.15	5.34	100.00 (1348)
아동 성별															
남	73.11	5.23	0.44	4.94	0.87	0.73	1.16	2.18	1.16	0.73	1.02	3.34	0.29	4.80	100.00 (688)
여	74.39	2.73	0.61	1.82	0.30	3.94	4.55	0.76	0.61	0.15	1.52	2.73	-	5.91	100.00 (660)
$x^2(df)$					57.85(13)***										
모 취업 여부															
취업	73.51	4.50	0.61	3.89	0.61	2.07	2.92	1.09	0.73	-	1.82	3.04	0.12	5.10	100.00 (823)
미취업	74.04	3.02	0.40	2.62	0.60	2.62	2.82	2.01	1.21	1.01	0.40	3.02	0.20	6.04	100.00 (497)
$x^2(df)$					20.22(13)										
모 학력															
고졸 이하	76.80	6.63	0.55	2.21	0.83	1.66	2.76	2.21	-	1.10	0.28	1.66	-	3.31	100.00 (362)
전문대졸	76.12	4.72	0.52	2.62	0.52	1.84	2.10	1.31	0.52	0.52	1.31	2.10	0.26	5.51	100.00 (381)
대졸 이상	70.33	2.00	0.50	4.67	0.50	3.00	3.33	1.00	1.67	-	1.83	4.50	0.17	6.50	100.00 (600)
$x^2(df)$					56.88(26)***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73.48	6.39	1.28	2.56	0.64	1.92	0.64	2.88	-	0.64	1.60	1.60	-	6.39	100.00 (313)
400초과-550만원	78.01	5.42	0.30	1.51	-	2.41	2.41	1.81	0.30	0.90	1.51	1.51	-	3.92	100.00 (332)
550초과-700만원	75.15	1.23	0.31	3.99	0.92	2.76	3.68	0.92	0.31	-	1.23	3.99	0.61	4.91	100.00 (326)
700만원 초과	67.67	3.01	-	5.64	0.75	2.63	4.14	0.75	3.38	-	0.75	4.14	-	7.14	100.00 (266)
$x^2(df)$					92.42(39)***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① 일반고, ② 특성화고(직업), ③ 특성화고(대안), ④ 과학고, ⑤ 영재학교, ⑥ 예술고, ⑦ 외국어고 ⑧ 체육고, ⑨ 국제고, ⑩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⑪ 자율형 공립고, ⑫ 자율형 사립고, ⑬ 해외 유학, ⑭ 잘 모르겠음

*** $p < .001$.

다음으로는 학교 서비스 만족도의 기초능력향상, 자녀 수준에 맞는 교육, 교사들의 공정한 학생평가, 학교급식, 안전관리 교육에 대해 먼저 알아보았다. 학교 서비스 만족도의 기초능력향상, 자녀 수준에 맞는 교육, 교사들의 공정한 학생평가, 학교급식, 안전관리 교육 모두 3.58점 이상으로 나타나 학부모의 만족도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 어머니의 취업 여부,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교사들의 공정한 학생 평가에 대한 점수가 높았다.

〈표 Ⅳ-4-21〉 학교 서비스 만족도(1)

단위: 점(명)

구분	기초능력 향상		자녀수준에 맞는 교육		교사들의 공정한 학생평가		학교급식		안전관리 교육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58	0.61	3.58	0.65	3.62	0.67	3.66	0.78	3.66	0.66	(1346)
아동 성별											
남	3.57	0.60	3.55	0.65	3.62	0.66	3.67	0.77	3.63	0.68	(687)
여	3.60	0.62	3.61	0.65	3.62	0.67	3.66	0.79	3.69	0.64	(659)
t	-0.95		-1.86		-0.01		0.01		-1.80		
모 취업 여부											
취업	3.60	0.60	3.60	0.64	3.62	0.65	3.67	0.77	3.67	0.64	(821)
미취업	3.56	0.63	3.55	0.66	3.63	0.70	3.66	0.81	3.65	0.69	(497)
t	1.34		1.22		-0.22		0.21		0.43		
모 학력											
고졸 이하	3.54	0.65	3.54	0.68	3.54[a]	0.71	3.63	0.79	3.66	0.7	(362)
전문대졸	3.58	0.58	3.59	0.61	3.61[ab]	0.65	3.67	0.8	3.67	0.64	(381)
대졸 이상	3.61	0.60	3.59	0.64	3.67[b]	0.64	3.68	0.76	3.65	0.65	(598)
F	1.60		1.05		4.04*		0.40		0.06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55	0.61	3.55	0.63	3.62	0.64	3.63	0.83	3.65	0.67	(313)
400초과-550만원	3.61	0.62	3.62	0.65	3.62	0.73	3.67	0.79	3.65	0.72	(332)
550초과-700만원	3.59	0.60	3.59	0.65	3.61	0.64	3.68	0.73	3.65	0.61	(325)
700만원 초과	3.64	0.6	3.62	0.64	3.67	0.66	3.70	0.78	3.72	0.65	(265)
F	1.17		0.91		0.48		0.39		0.69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
* $p < .05$.

이어서 학교 서비스 만족도의 진로 탐색 및 진로지도, 인성 지도, 학교시설 환경,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응답 결과를 살펴보았다. 진로 탐색 및 진로지도, 인성 지도, 학교시설 환경,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모두 3.54점 이상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은 모든 항목에 대하여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아동 성별, 어머니의 취업 여부, 어머니의 학력,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Ⅳ-4-22〉 학교 서비스 만족도(2)

단위: 점(명)

구분	진로탐색 및 진로지도		인성지도		학교시설 환경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54	0.69	3.59	0.69	3.57	0.67	3.54	0.66	(1346)
아동 성별									
남	3.52	0.69	3.6	0.68	3.57	0.66	3.54	0.66	(687)
여	3.55	0.70	3.58	0.69	3.57	0.68	3.54	0.67	(659)
t	-0.79		0.42		-0.20		0.16		
모 취업 여부									
취업	3.56	0.69	3.61	0.67	3.59	0.67	3.56	0.65	(821)
미취업	3.51	0.69	3.55	0.71	3.53	0.67	3.50	0.69	(497)
t	1.17		1.50		1.38		1.44		
모 학력									
고졸 이하	3.53	0.72	3.58	0.72	3.52	0.7	3.50	0.73	(362)
전문대졸	3.56	0.66	3.62	0.67	3.54	0.63	3.56	0.61	(381)
대졸 이상	3.53	0.69	3.57	0.67	3.61	0.67	3.55	0.66	(598)
F	0.32		0.65		2.44		0.93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58	0.67	3.60	0.68	3.58	0.67	3.55	0.65	(313)
400초과-550만원	3.55	0.72	3.62	0.69	3.55	0.71	3.54	0.71	(332)
550초과-700만원	3.48	0.70	3.56	0.70	3.54	0.63	3.52	0.60	(325)
700만원 초과	3.58	0.70	3.60	0.68	3.67	0.65	3.60	0.67	(265)
F	1.47		0.50		2.11		0.78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

나. 사교육 특성

1) 사교육 이용 여부 및 종류

사교육 특성 중 사교육 이용 여부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조사 대상 부모들의 90.80%가 학교 수업 이외 교육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수업 이외 교육을 받는 경우는 어머니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83.43%, 전문대졸 93.44%, 대졸 이상 93.83%로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이용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사교육 이용의 경우에도 같은 경향성을 나타냈는데, 사교육은 조사 대상 부모들의 88.28%가 이용한다고 응답하였

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학교 수업 이외의 교육과 사교육 모두 이용 비율이 높았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중소도시의 경우의 모든 비율이 90% 이상으로 읍면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4-23〉 학교 수업 이외 교육 및 사교육 여부

단위: %(명)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여부			사교육 여부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계(수)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계(수)
전체	90.80	9.20	100.00(1348)	88.28	11.72	100.00(1348)
아동 성별						
남	89.97	10.03	100.00(688)	87.06	12.94	100.00(688)
여	91.67	8.33	100.00(660)	89.55	10.45	100.00(660)
$\chi^2(df)$	1.16(1)			2.00(1)		
모 취업 여부						
취업	90.29	9.71	100.00(824)	87.50	12.50	100.00(824)
미취업	92.15	7.85	100.00(497)	90.34	9.66	100.00(497)
$\chi^2(df)$	1.31(1)			2.47(1)		
모 학력						
고졸 이하	83.43	16.57	100.00(362)	79.28	20.72	100.00(362)
전문대졸	93.44	6.56	100.00(381)	91.08	8.92	100.00(381)
대졸 이상	93.83	6.17	100.00(600)	92.17	7.83	100.00(600)
$\chi^2(df)$	33.71(2)***			40.27(2)***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82.11	17.89	100.00(313)	75.40	24.60	100.00(313)
400초과~550만원	92.77	7.23	100.00(332)	90.96	9.04	100.00(332)
550초과~700만원	93.87	6.13	100.00(326)	92.64	7.36	100.00(326)
700만원 초과	95.11	4.89	100.00(266)	94.36	5.64	100.00(266)
$\chi^2(df)$	39.68(3)***			67.57(3)***		
지역 규모						
대도시	93.39	6.61	100.00(484)	90.08	9.92	100.00(484)
중소도시	91.91	8.09	100.00(606)	90.59	9.41	100.00(606)
읍면	83.33	16.67	100.00(258)	79.46	20.54	100.00(258)
$\chi^2(df)$	22(2)***			24.07(2)***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01$.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서비스 이용 유형(중복응답)은 수학이 1,0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어가 1,038명, 국어 386명, 과학 312명, 체육 257명, 논술

205명, 음악 126명, 기타 83명, 미술 55명, 컴퓨터 코딩 41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과목과 상관없이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체육이 79.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술 76.36%, 수학이 74.17%, 영어 68.21% 등의 순이었다. 국어의 경우 학원 외에 인터넷/화상 강의, 학습지(방문교사)의 비율이 높았고, 논술은 학원 외에 가정 내 개인/그룹 지도(과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과학의 경우는 인터넷/화상 강의의 비율이 학원 이용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으며, 컴퓨터·코딩 등은 교내 방과 후 교실,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이용 비율이 타 과목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4-24〉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학원	가정 내 개인/그룹 지도(과외)	학습지 (방문교사)	인터넷/화상 강의	교내 방과후 교실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사관 등 공공기관	(수)
국어	39.12	8.29	21.50	25.65	1.55	6.22	2.85	(386)
논술	44.88	32.68	8.78	12.68	0.49	0.98	0.49	(205)
영어	68.21	11.75	4.05	9.83	1.35	2.22	1.16	(1038)
수학	74.17	12.30	6.20	7.44	1.43	2.96	1.24	(1049)
과학	36.22	5.45	12.82	35.26	2.24	9.94	0.64	(312)
음악	57.94	17.46	1.59	3.97	15.08	-	4.76	(126)
미술	76.36	14.55	1.82	1.82	3.64	-	1.82	(55)
체육	79.38	4.67	0.78	-	12.45	0.78	5.06	(257)
컴퓨터, 코딩 등	41.46	2.44	-	9.76	36.59	-	12.20	(41)
기타	46.99	14.46	20.48	8.43	6.02	4.82	2.48	(83)

주: 보호자의 응답임.

2) 사교육 이용 특성

학교 외 교육 서비스 중 학원 이용자가 1,03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학교 외 교육 서비스 주당 이용 시간은 학습지가 평균 14.07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원 10.44시간, 인터넷 화상 강의 5.69시간,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4.83시간, 교내 방과 후 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4.77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4-25〉 학교 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수)
학원	0.50	30.00	10.44	5.07	(1037)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0.50	26.00	4.83	3.51	(275)
학습지(방문교사)	1.00	79.00	14.07	11.59	(145)
인터넷/화상 강의	0.50	32.00	5.69	5.22	(189)
교내 방과후 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0.50	27.00	4.77	4.62	(174)

주: 보호자의 응답임.

학교 외 교육서비스 만족도는 모든 서비스 유형이 3.53점 이상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 방과 후 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이 3.94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3.93점, 학원 3.88점, 인터넷/화상 강의 3.69점, 학습지(방문교사) 3.53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4-26〉 학교 외 교육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학원	3.88	0.55	(1038)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3.93	0.65	(275)
학습지(방문교사)	3.53	0.61	(145)
인터넷/화상 강의	3.69	0.73	(189)
교내 방과후 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3.94	0.77	(174)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만족하지 않음~5.매우 만족함).

다음으로 학교 외 교육서비스의 월 평균 이용비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들은 학원에 가장 높은 비용인 49.68만원을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35.98만원, 인터넷/화상 강의 13.89만원, 교내 방과 후 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12.67만원, 학습지(방문교사)에 11.6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4-27〉 학교 외 교육서비스 월 평균 이용비용

단위: 만원(명)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수)
학원	3.00	200.00	49.68	26.61	(1036)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2.00	170.00	35.98	27.58	(266)
학습지(방문교사)	2.00	68.00	11.63	10.00	(142)
인터넷/화상 강의	1.00	120.00	13.89	13.35	(169)
교내 방과후 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1.00	120.00	12.67	20.44	(69)

주: 보호자의 응답임.

이어서 학교 외 교육서비스 비용 부담 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모들은 학원,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에 대한 비용 부담이 보통 정도인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교내 방과 후 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학원이 3.17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3.07점, 학습지 2.71점, 인터넷/화상 강의 2.48점, 교내 방과후 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이 1.70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4-28〉 학교 외 교육서비스 비용 부담 정도

단위: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학원	3.17	0.87	(1038)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3.07	0.99	(275)
학습지(방문교사)	2.71	0.83	(145)
인터넷/화상 강의	2.48	1.06	(189)
교내 방과후 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1.70	0.97	(174)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부담되지 않음~5.매우 부담됨).

3) 아동의 사교육 이용 인식

아동에게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의 개수가 적절한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적당한 편’이라고 응답한 아동은 77.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적은

편' 17.12%,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아동은 5.14%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 어머니의 취업 여부, 어머니의 학력과 지역 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의 아동들이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의 개수가 적다고 응답한 비율이 22.01%로 가장 높았고, 사교육 개수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2.3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29〉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개수

단위: %(명)

구분	적은편	적당한편	많은편	계(수)
전체	17.12	77.75	5.14	100.00(1110)
아동 성별				
남	16.52	76.77	6.72	100.00(551)
여	17.71	78.71	3.58	100.00(559)
$x^2(df)$		5.68(2)		
모 취업 여부				
취업	15.85	79.41	4.74	100.00(675)
미취업	19.95	74.04	6.01	100.00(416)
$x^2(df)$		4.24(2)		
모 학력				
고졸 이하	18.35	77.90	3.75	100.00(267)
전문대졸	16.67	76.06	7.27	100.00(330)
대졸 이상	16.83	78.67	4.50	100.00(511)
$x^2(df)$		4.81(4)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22.01	75.60	2.39	100.00(209)
400초과-550만원	19.01	74.30	6.69	100.00(284)
550초과-700만원	12.50	81.43	6.07	100.00(280)
700만원 초과	15.79	78.54	5.67	100.00(247)
$x^2(df)$		13.00(6)*		
지역 규모				
대도시	16.13	77.92	5.96	100.00(403)
중소도시	16.57	79.14	4.29	100.00(513)
읍면	20.62	73.71	5.67	100.00(194)
$x^2(df)$		3.60(4)		

주: 아동 응답임.
* $p < .05$.

이어서 아동에게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부담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은 2.33점으로 보통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평균 점수는 가구 소득과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 소득이 높을수

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들이 인식하는 사교육에 대한 부담 정도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보통이다' 37.03%, '부담스럽지 않은 편' 27.03%, '전혀 부담스럽지 않음' 25.77%로 나타났다. 반면, '부담스러운 편' 8.83%, '매우 부담스러운 편'에는 1.35%가 응답하여 전체의 10.18%가 현재 받는 사교육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가구 소득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아동은 사교육 부담 정도를 '보통이다'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400만원 이하의 가구의 아동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지역 규모가 클수록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지역 규모가 작은 곳에 거주하는 아동은 사교육에 대해 전혀 부담스럽지 않거나 부담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4-30〉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부담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음	부담스럽지 않은편	보통	부담스러운 편	매우 부담스러움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5.77	27.03	37.03	8.83	1.35	100.00(1110)	2.33	1.00
아동 성별								
남	25.95	27.04	36.12	9.26	1.63	100.00(551)	2.34	1.01
여	25.58	27.01	37.92	8.41	1.07	100.00(559)	2.32	0.98
$x^2(df)/t$			1.13(4)				0.20	
모 취업 여부								
취업	25.04	27.70	38.07	8.15	1.04	100.00(675)	2.32	0.97
미취업	26.20	26.68	35.58	9.86	1.68	100.00(416)	2.34	1.02
$x^2(df)/t$			4.24(2)				-0.27	
모 학력								
고졸 이하	28.46	25.47	37.45	6.74	1.87	100.00(267)	2.28	1.01
전문대졸	26.06	26.97	36.67	8.18	2.12	100.00(330)	2.33	1.02
대졸 이상	24.27	27.79	37.18	10.18	0.59	100.00(511)	2.35	0.98
$x^2(df)/F$			8.31(8)				0.43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6.36	22.01	35.89	4.31	1.44	100.00(209)	2.12^{a}	1.01
400초과-550만원	24.65	28.87	35.21	9.51	1.76	100.00(284)	2.35^{ab}	1.01
550초과-700만원	25.71	26.43	34.64	12.14	1.07	100.00(280)	2.36^{ab}	1.03

구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음	부담스럽지 않은편	보통	부담스러운 편	매우 부담스러움	계(수)	평균	표준 편차
700만원 초과	20.65	28.74	41.30	8.50	0.81	100.00(247)	2.40[b]	0.94
$\chi^2(df)/F$			25.40(12)*				3.49*	
지역 규모								
대도시	22.08	24.81	41.94	9.18	1.99	100.00(403)	2.44[b]	1.00
중소도시	26.12	27.68	35.87	9.55	0.78	100.00(513)	2.31[ab]	0.99
읍면	32.47	29.90	29.90	6.19	1.55	100.00(194)	2.14[a]	1.00
$\chi^2(df)/F$			16.80(8)*				6.03**	

주: 1) 아동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부담되지 않음~5.매우 부담스러움).
* $p < .05$, ** $p < .01$.

조사대상 아동이 인식한 교육 서비스 효과 인식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이 3.96점으로 조사 대상 아동들은 교육 서비스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5.40%에 달하였는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51.35%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4.05%였다. 다음으로 ‘보통이다’ 21.62%, ‘그렇지 않다’ 2.25%,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 비율은 가장 낮은 0.72%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 서비스의 효과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 어머니의 취업 여부, 가구 소득, 지역 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4-31〉 아동이 인식한 교육서비스 효과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72	2.25	21.62	51.35	24.05	100.00(1110)	3.96	0.78
아동 성별								
남	1.09	2.54	20.33	52.81	23.23	100.00(551)	3.95	0.80
여	0.36	1.97	22.90	49.91	24.87	100.00(559)	3.97	0.77
$\chi^2(df)/t$			4.08(4)				-0.51	
모 취업 여부								
취업	0.59	2.22	21.93	52.15	23.11	100.00(675)	3.95	0.77
미취업	0.96	2.16	21.39	49.52	25.96	100.00(416)	3.97	0.80
$\chi^2(df)/t$			1.73(4)				-0.49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 편차
모 학력								
고졸 이하	0.75	1.87	28.09	49.44	19.85	100.00(267)	3.86[a]	0.78
전문대졸	0.61	3.03	21.52	52.73	22.12	100.00(330)	3.93[ab]	0.78
대졸 이상	0.78	1.96	18.20	51.47	27.59	100.00(511)	4.03[b]	0.78
$x^2(df)/F$			14.73(8)				4.73**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0.96	1.91	24.40	51.20	21.53	100.00(209)	3.90	0.78
400초과~550만원	0.70	2.46	22.54	53.52	20.77	100.00(284)	3.91	0.77
550초과~700만원	0.71	1.43	22.14	49.29	26.43	100.00(280)	3.99	0.78
700만원 초과	0.40	2.43	18.62	53.44	25.10	100.00(247)	4.00	0.76
$x^2(df)/F$			6.51(12)				1.15	
지역 규모								
대도시	0.99	2.98	22.58	50.12	23.33	100.00(403)	3.92	0.81
중소도시	0.39	1.75	20.86	54.00	23.00	100.00(513)	3.97	0.74
읍면	1.03	2.06	21.65	46.91	28.35	100.00(194)	3.99	0.82
$x^2(df)/F$			6.68(8)				0.86	

주: 1) 아동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1$.

다음으로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이용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학교수업 보충(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등)의 비율이 32.9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선행학습(학교 수업을 받는데 유리해서 등) 31.28%, 진학 준비(특목고, 대입 등 준비) 18.35%, 불안심리 8.01%, 취미·교양·재능 개발 7.84%, 자녀 감독(혼자 있거나, 집에 있는 경우 무엇을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1.00%, 기타(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등 기타 이유) 0.58%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가구 소득이 클수록 선행학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수업 보충을 이유로 선택한 비율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Ⅳ-4-32〉 사교육 이용 이유: 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전체	18.35	8.01	31.28	32.94	1.00	7.84	0.58	100.00(1199)
아동 성별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남	17.72	7.28	29.97	33.61	1.66	9.27	0.50	100.00(604)
여	18.99	8.74	32.61	32.27	0.34	6.39	0.67	100.00(595)
모 취업 여부								
취업	19.12	7.57	30.12	33.70	1.51	7.29	0.69	100.00(727)
미취업	16.89	8.89	32.89	32.44	-	8.44	0.44	100.00(450)
모 학력								
고졸 이하	17.24	7.24	32.07	33.45	0.69	8.62	0.69	100.00(290)
전문대졸	14.86	7.71	34.57	34.57	0.86	7.43	-	100.00(350)
대졸 이상	21.22	8.63	28.60	31.65	1.26	7.73	0.90	100.00(556)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4.05	7.85	28.10	38.02	1.65	9.50	0.83	100.00(242)
400초과~550만원	16.17	9.24	30.03	36.30	0.66	6.93	0.66	100.00(303)
550초과~700만원	22.11	6.27	30.69	32.01	0.99	7.59	0.33	100.00(303)
700만원 초과	19.05	9.13	34.13	26.98	1.19	8.73	0.79	100.00(252)
지역 규모								
대도시	16.78	7.03	33.56	34.47	0.68	6.80	0.68	100.00(441)
중소도시	20.36	9.45	29.45	30.36	1.27	8.91	0.18	100.00(550)
읍면	16.35	6.25	31.25	36.54	0.96	7.21	1.44	100.00(208)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① 진학준비(특목고, 대입 등 준비), ② 불안심리(남들이 다 하는데 안하면 성적이 떨어질까봐,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으므로 등), ③ 선행학습(학교수업을 받는데 유리해서 등), ④ 학교수업 보충(학교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등), ⑤ 자녀 감독 (혼자 있거나, 집에 있는 경우 무엇을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⑥ 취미·교양·재능개발, ⑦ 기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등 기타 이유)

이어서 사교육 이용 이유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선행학습이라 응답한 비율이 32.7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교 수업 보충 27.01%, 불안심리 13.60%, 진학 준비 12.09%, 취미·교양·재능 개발 8.03%, 자녀 감독 4.06%, 기타 비율이 가장 낮은 2.46%로 조사되었다. 어머니 취업 여부 및 학력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자녀 감독을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미취업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진학 준비를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진학준비의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기타를 선택한 비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선행학습, 학교수업 보충 응답 비율이 높았고, 자녀 감독의 이유로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응답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33〉 사교육 이용 이유: 1+2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
전체	12.09	13.60	32.77	27.01	4.06	8.03	2.46	(1199)
아동 성별								
남	10.86	13.33	32.00	27.24	4.38	8.95	3.24	(604)
여	13.30	13.86	33.52	26.78	3.75	7.12	1.69	(595)
모 취업 여부								
취업	12.34	13.44	33.28	25.78	5.31	8.13	1.72	(727)
미취업	12.25	14.50	31.50	28.00	2.25	8.00	3.50	(450)
모 학력								
고졸 이하	10.25	12.70	27.87	32.79	4.10	8.61	3.69	(290)
전문대졸	10.68	15.53	30.10	30.10	3.88	7.12	2.59	(350)
대졸 이상	13.92	12.92	36.78	22.07	4.17	8.35	1.79	(556)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0.05	12.06	32.16	29.65	3.52	8.04	4.52	(199)
400초과-550만원	10.57	17.36	31.32	26.04	4.91	6.79	3.02	(265)
550초과-700만원	11.27	12.00	36.73	27.27	2.55	9.09	1.09	(275)
700만원 초과	16.96	12.61	31.74	24.78	6.09	6.96	0.87	(230)
지역 규모								
대도시	12.37	13.38	29.80	25.51	6.06	9.85	3.03	(441)
중소도시	13.31	14.97	34.10	25.78	3.33	6.44	2.08	(550)
읍면	8.24	10.44	35.71	33.52	1.65	8.24	2.20	(208)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① 진학준비(특목고, 대입 등 준비), ② 불안심리(남들이 다 하는데 안하면 성적이 떨어질까봐,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으므로 등), ③ 선행학습(학교수업을 받는데 유리해서 등), ④ 학교수업 보충(학교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등), ⑤ 자녀 감독 (혼자 있거나, 집에 있는 경우 무엇을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⑥ 취미·교양·재능개발, ⑦ 기타(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등 기타 이유)

다음으로 사교육 교재 월평균 비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의 부모들은 월평균 사교육 교재 구입으로 평균 7.44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교재 월평균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 어머니의 취업 여부 및 학력,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Ⅳ-4-34〉 사교육 교재 월평균 비용

단위: 만원(명)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0.00	150.00	7.44	15	(1199)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수)
아동 성별					
남	0.00	150.00	7.07	14.38	(604)
여	0.00	150.00	7.82	15.61	(595)
t			-0.86		
모 취업 여부					
취업	0.00	150.00	7.85	16.41	(727)
미취업	0.00	150.00	6.83	12.64	(450)
t			1.12		
모 학력					
고졸 이하	0.00	110.00	7.18	12.92	(290)
전문대졸	0.00	100.00	7.19	13.41	(350)
대졸 이상	0.00	150.00	7.74	16.89	(556)
F			0.20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0.00	60.00	5.22[a]	9.56	(242)
400초과~550만원	0.00	63.00	6.99[a]	10.74	(303)
550초과~700만원	0.00	150.00	8.42[a]	16.95	(303)
700만원 초과	0.00	150.00	8.60[a]	20.87	(252)
F			2.71*		
지역 규모					
대도시	0.00	150.00	7.50	16.79	(441)
중소도시	0.00	150.00	7.54	14.27	(550)
읍면	0.00	100.00	7.05	12.75	(208)
F			0.09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
3)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5.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표 Ⅳ-5-1〉 14차년도 지역 규모 및 정책 특성 조사변인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역 규모 특성	일반적 특성	가구 특성	• 지난 조사 후 이사 횟수, 최근 이사 사유
			• 지역규모, 6개 권역 구분
	양육환경	교육·복지·의료 문화·여가	• 교육·의료·복지 시설/공공 여가 공간·시설/문화시설 접근의 편리성 • 교육·의료·복지 시설/공공 여가 공간·시설/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사회 안전	• 양육환경 안전성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책 특성	국가지원	수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 교육정책추진 동의 정도
			• 코로나19 관련 수업운영 방식, 진행 방식, 원격수업 만족도, 교육격차 인식
	기타지원	시행 및 이용	• 생활비 지원 여부 및 지원처

가. 지역사회 특성

1) 일반적 특성

아동의 출생 후 총 이사 횟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1.11회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사 횟수가 0회가 38.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회 30.57%, 2회 18.08%, 3회 9.04%, 4회 2.07%, 5회 1.38%, 6회 0.31%, 7회 0.08%로 조사되었다.

〈표 Ⅳ-5-2〉 출생 후 총 이사 횟수

단위: %(명), 회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계(수)	평균	표준편차
38.47	30.57	18.08	9.04	2.07	1.38	0.31	0.08	100.00(1305)	1.11	1.19

주: 보호자의 응답임.

최근 이사 사유에 대한 조사한 결과, 주거환경(주택, 교통)이라 응답한 비율이 36.0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교육환경 23.14%, 기타 18.43%, 집값 부담 9.80%, 주변 환경(의료, 문화) 8.63%, 안전 환경 3.92% 순이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취업모의 경우 주거환경(주택, 교통)을 사유로 선택한 응답이 미취업모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미취업모의 경우 집값 부담이라는 응답 비율이 취업모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의 경우 주거환경(주택, 교통)을 이사 사유로 선택한 비율이 다른 규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대도시, 중소도시의 경우, 교육환경 응답 비율이 읍면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읍면은 안전 환경을 사유로 든 응답 비율이 다른 지역 규모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3〉 최근 이사 사유

단위: %(명)

구분	주거환경 (주택,교통)	교육환경	주변환경 (의료,문화)	안전환경	집값부담	기타	계(수)
전체	36.08	23.14	8.63	3.92	9.80	18.43	100.00(255)
아동 성별							
남	32.03	25.00	7.81	4.69	10.94	19.53	100.00(128)
여	40.16	21.26	9.45	3.15	8.66	17.32	100.00(127)
$\chi^2(df)$			2.64(5)				
모 취업 여부							
취업	43.48	21.74	8.07	3.11	6.21	17.39	100.00(161)
미취업	22.73	26.14	10.23	5.68	13.64	21.59	100.00(88)
$\chi^2(df)$			12.57(5)*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3.90	16.95	6.78	1.69	16.95	23.73	100.00(59)
400초과-550만원	34.29	25.71	5.71	7.14	7.14	20.00	100.00(70)
550초과-700만원	34.55	25.45	10.91	3.64	9.09	16.36	100.00(55)
700만원 초과	46.43	23.21	8.93	3.57	5.36	12.50	100.00(56)
$\chi^2(df)$			13.73(15)				
지역 규모							
대도시	28.00	24.00	13.00	3.00	12.00	20.00	100.00(100)
중소도시	45.53	26.02	5.69	2.44	8.13	12.20	100.00(123)
읍면	25.00	9.38	6.25	12.50	9.38	37.50	100.00(32)
$\chi^2(df)$			29.49(10)**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거주 지역 규모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소도시에 사는 아동이 44.96%로 가장 많고, 대도시에 사는 아동은 35.91%이고 읍면지역은 19.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중소도시 거주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700만원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도 중소도시 거주 비율이 51.50%로 나타나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중소도시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 성별이나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5-4〉 지역 규모

단위: %(명)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계(수)
전체	35.91	44.96	19.14	100.00(1348)
아동 성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계(수)
남	35.32	45.49	19.19	100.00(688)
여	36.52	44.39	19.09	100.00(660)
$\chi^2(df)$		0.23(2)		
모 취업 여부				
취업	35.48	45.32	19.20	100.00(823)
미취업	37.22	44.47	18.31	100.00(497)
$\chi^2(df)$		0.44(2)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4.82	37.06	28.12	100.00(313)
400초과-550만원	33.43	46.08	20.48	100.00(332)
550초과-700만원	38.34	45.71	15.95	100.00(326)
700만원 초과	37.22	51.50	11.28	100.00(266)
$\chi^2(df)$		32.04(6)***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01$.

아동의 거주 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해보면 경인권에 31.90%의 아동이 거주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권에 17.51%, 대전/충청/강원권 13.72%, 광주/전라권/제주 13.43%, 서울권 12.54%, 대구/경북권 10.9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서울권, 경인권 거주 비율이 높았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거주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Ⅳ-5-5〉 6개 권역 구분

단위: %(명)

구분	서울권	경인권	대전/충청/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라권/제주	계(수)
전체	12.54	31.90	13.72	10.91	17.51	13.43	100.00(1348)
아동 성별							
남	11.19	31.54	13.52	12.50	17.01	14.24	100.00(668)
여	13.94	32.27	13.94	9.24	18.03	12.58	100.00(660)
$\chi^2(df)$			6.31(5)				
모 취업 여부							
취업	12.15	30.01	14.46	11.06	17.25	15.07	100.00(823)
미취업	13.48	35.21	12.27	10.06	17.91	11.07	100.00(497)
$\chi^2(df)$			8.16(5)				

구분	서울권	경인권	대전/충청/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라권/제주	계(수)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8.31	25.88	13.42	14.70	24.60	13.10	100.00(313)
400초과~550만원	10.54	30.12	12.95	12.35	18.67	15.36	100.00(332)
550초과~700만원	14.11	33.13	14.42	9.51	15.34	13.50	100.00(326)
700만원 초과	17.29	37.97	11.28	6.02	13.91	13.53	100.00(266)
$\chi^2(df)$	42.53(15)***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01$.

2) 양육환경

아동의 양육환경에 대하여 교육·의료·복지시설 편리성에 대해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의 경우 지역 규모와 상관없이, 교육기관, 공공복지기관의 경우에는 대도시, 중소도시의 응답 평균 점수가 3점 이상으로 교육·의료·복지 시설에 대해 보통 이상 편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모든 시설에 대해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교육·의료·공공복지시설에 대한 편리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읍면의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다른 지역 규모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6〉 교육·의료·복지시설 편리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의료기관	전체								
	대도시	0.62	3.72	24.38	56.82	14.46	100.00(484)	3.81[c]	0.75
	중소도시	1.49	8.25	27.89	49.34	13.04	100.00(606)	3.64[b]	0.86
	읍면	6.98	19.38	28.68	39.53	5.43	100.00(258)	3.17[a]	1.03
	$\chi^2(df)/F$	104.75(8)***						47.00***	
교육기관	전체								
	대도시	2.07	7.64	33.47	45.87	10.95	100.00(484)	3.56[b]	0.86
	중소도시	3.63	9.74	35.31	42.24	9.08	100.00(606)	3.43[b]	0.92
	읍면	14.73	29.07	28.29	24.81	3.10	100.00(258)	2.72[a]	1.09
	$\chi^2(df)/F$	160.31(8)***						72.55***	
공공복지시설	전체								
	대도시	2.48	7.85	42.15	42.56	4.96	100.00(484)	3.40[b]	0.80
	중소도시	2.97	9.90	46.53	33.99	6.60	100.00(606)	3.31[b]	0.85
	읍면	10.08	20.93	39.53	25.58	3.88	100.00(258)	2.92[a]	1.01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chi^2(df)/F$	74.07(8)***						26.61***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불편함~5.매우 편리함).
*** $p < .001$.

다음으로 아동의 양육환경 중 여가 공간과 시설의 접근 편리성에 대해 5점 척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원, 산책로를 제외한 시설에서는 지역 규모가 클수록 평균 점수가 높았고, 산책로의 경우에는 중소도시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산책로의 경우에는 중소도시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놀이공원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지역 규모가 클수록 보통 이상, 편리한 편이라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놀이 공원의 경우에도 대도시 2.72점, 중소도시 2.50점, 읍면 1.97점으로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지만 모든 지역에서 대체로 접근하기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놀이터, 공원, 산책로의 경우 대도시 거주자들이 편리한 편이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공원, 산책로는 중소도시의 평균 점수가 각각 3.88점, 3.96점으로 타 지역 규모에 비해 높았다. 한편, 실내 체육시설/놀이시설, 실외 체육시설은 대도시, 중소도시는 3점대인데 비해 읍면은 2점대로 나타났다.

〈표 Ⅳ-5-7〉 여가 공간·시설 편리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놀이터	전체								
	대도시	1.45	3.93	16.32	56.20	22.11	100.00(484)	3.94^{b}	0.82
	중소도시	1.16	3.80	18.15	53.96	22.94	100.00(606)	3.94^{b}	0.81
	읍면	8.91	10.47	21.71	39.92	18.99	100.00(258)	3.50^{a}	1.17
	$\chi^2(df)/F$	75.46(8)***						25.24***	
공원	전체								
	대도시	1.65	5.79	18.80	53.31	20.45	100.00(484)	3.85^{b}	0.87
	중소도시	1.49	3.80	21.78	51.32	21.62	100.00(606)	3.88^{b}	0.84
	읍면	7.36	12.02	19.77	41.47	19.38	100.00(258)	3.53^{a}	1.15
	$\chi^2(df)/F$	53.26(8)***						13.73***	
산책로	전체								
	대도시	2.07	5.79	19.21	52.89	20.04	100.00(484)	3.83^{ab}	0.88
	중소도시	1.32	2.64	20.30	50.66	25.08	100.00(606)	3.96^{b}	0.82
	읍면	3.49	8.91	19.77	45.74	22.09	100.00(258)	3.74^{a}	1.01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chi^2(df)/F$	24.54(8)**						6.09**	
놀이공원	전체								
	대도시	15.91	25.21	33.68	21.49	3.72	100.00(484)	2.72[c]	1.08
	중소도시	20.46	30.53	29.87	16.83	2.31	100.00(606)	2.50[b]	1.07
	읍면	37.98	37.60	15.12	7.75	1.55	100.00(258)	1.97[a]	0.99
	$\chi^2(df)/F$	90.84(8)***						42.02***	
실내 체육시설 / 놀이시설	전체								
	대도시	3.93	11.78	33.47	40.91	9.92	100.00(484)	3.41[b]	0.96
	중소도시	4.13	15.68	38.12	33.83	8.25	100.00(606)	3.26[b]	0.96
	읍면	15.89	25.19	24.42	26.74	7.75	100.00(258)	2.85[a]	1.20
	$\chi^2(df)/F$	86.83(8)***						26.10***	
실외 체육시설	전체								
	대도시	4.55	12.19	34.92	39.67	8.68	100.00(484)	3.36[b]	0.96
	중소도시	3.63	14.03	39.11	35.15	8.09	100.00(606)	3.30[b]	0.93
	읍면	14.73	21.71	34.50	24.03	5.04	100.00(258)	2.83[a]	1.11
	$\chi^2(df)/F$	67.10(8)***						27.30***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불편함~5.매우 편리함).
** $p < .01$, *** $p < .001$.

이어서 다음은 아동의 양육환경 중 문화시설의 접근 편리성에 대해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이다. 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문화시설에서 지역 규모가 클수록 접근 편리성을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영화관의 경우 대도시 3.55점, 중소도시 3.46점, 읍면은 2.74점이었고, 관람 및 체험시설, 공연시설의 경우에도 영화관처럼 지역 규모가 클수록 평균 점수가 높았으나 평균 점수는 모두 2점대로 다소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서관의 경우에는 지역 규모와 상관없이 편리성을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Ⅳ-5-8〉 문화시설 편리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영화관	전체								
	대도시	2.69	9.50	30.58	44.42	12.81	100.00(484)	3.55[b]	0.93
	중소도시	3.30	12.05	31.02	42.41	11.22	100.00(606)	3.46[b]	0.96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읍면	20.54	22.48	26.74	22.48	7.75	100.00(258)	2.74[a]	1.23
	$x^2(df)/F$	151.38(8)***						60.40***	
관람 및 체험시설	전체								
	대도시	7.85	22.11	39.88	26.45	3.72	100.00(484)	2.96[b]	0.97
	중소도시	9.74	24.42	33.83	28.55	3.47	100.00(606)	2.92[b]	1.03
	읍면	28.29	34.11	20.54	14.73	2.33	100.00(258)	2.29[a]	1.10
	$x^2(df)/F$	107.09(8)***						42.29***	
공연시설	전체								
	대도시	8.06	23.76	38.64	24.79	4.75	100.00(484)	2.94[b]	1.00
	중소도시	9.74	27.56	36.63	22.61	3.47	100.00(606)	2.83[b]	1.00
	읍면	28.29	40.70	21.32	8.14	1.55	100.00(258)	2.14[a]	0.97
	$x^2(df)/F$	125.04(8)***						59.46***	
도서관	전체								
	대도시	1.45	9.92	29.75	45.45	13.43	100.00(484)	3.60[b]	0.89
	중소도시	1.98	7.76	28.38	45.54	16.34	100.00(606)	3.67[b]	0.91
	읍면	7.75	18.22	21.32	38.76	13.95	100.00(258)	3.33[a]	1.16
	$x^2(df)/F$	53.87(8)***						11.33***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불편함~5.매우 편리함).
*** $p < .001$.

교육·의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5점 척도로 분석 결과, 평균 만족도 점수가 의료기관 3.50점, 교육기관 3.29점, 공공복지시설 3.21점 순으로 이용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의료기관, 교육기관, 공공복지시설에서 도시 지역의 만족도보다 읍면 지역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Ⅳ-5-9〉 교육·의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하지 않음	약간 만족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의료기관	전체	2.74	9.89	31.66	46.27	9.44	100.00(1314)	3.50	0.90
	지역 규모								
	대도시	0.85	4.44	28.96	56.24	9.51	100.00(473)	3.69[b]	0.74

구분		매우 만족하지 않음	약간 만족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중소도시	2.51	10.55	31.16	44.72	11.06	100.00(597)	3.51[a]	0.91
	읍면	6.97	18.85	38.11	30.74	5.33	100.00(244)	3.09[a]	0.99
	$\chi^2(df)/F$	100.12(10)***						9.82***	
교육기관	전체	5.07	12.72	37.04	38.00	7.17	100.00(1242)	3.29	0.95
	지역 규모								
	대도시	2.88	7.96	35.40	46.90	6.86	100.00(452)	3.47[ab]	0.85
	중소도시	3.62	14.14	37.76	36.03	8.45	100.00(580)	3.32[a]	0.94
	읍면	13.81	19.05	38.57	24.29	4.29	100.00(210)	2.86[b]	1.07
	$\chi^2(df)/F$	126(10)***						6.63**	
공공 복지시설	전체	5.06	11.27	46.14	33.10	4.44	100.00(1127)	3.21	0.88
	지역 규모								
	대도시	3.35	6.44	44.85	40.46	4.90	100.00(388)	3.37[b]	0.81
	중소도시	3.17	13.04	47.67	31.84	4.28	100.00(537)	3.21[a]	0.84
	읍면	13.37	15.84	44.55	22.28	3.96	100.00(202)	2.88[ab]	1.03
	$\chi^2(df)/F$	79.24(10)***						9.98***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만족하지 않음~5.매우 만족함).
** $p < .01$, *** $p < .001$.

여가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산책로가 3.75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원이 3.72점, 놀이터 3.61점, 실내 체육시설/놀이시설 3.25점, 실외 체육시설 3.21점, 놀이공원 2.86점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과 산책로, 놀이터에 대한 이용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 이상의 응답 비중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실내 체육시설/놀이시설, 실외 체육시설, 놀이공원 이용에 있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 보았을 때 실내 체육시설/놀이시설 이용에 있어서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의 만족도가 보통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으며, 읍면은 전체 응답에 있어서 보통 이하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5-10〉 여가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하지 않음	약간 만족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놀이터	전체	2.35	5.41	29.12	55.62	7.50	100.00(1147)	3.61	0.80
	지역 규모								
	대도시	1.97	3.69	29.73	57.00	7.62	100.00(407)	3.65[ab]	0.76
	중소도시	1.64	4.93	27.37	58.21	7.85	100.00(548)	3.66[a]	0.76
	읍면	5.21	10.42	32.81	45.31	6.25	100.00(192)	3.37[b]	0.94
	$\chi^2(df)/F$	60.67(10)***						9.61***	
공원	전체	1.91	4.78	25.82	54.74	12.75	100.00(1255)	3.72	0.82
	지역 규모								
	대도시	1.79	3.13	25.00	59.38	10.71	100.00(448)	3.74[ab]	0.76
	중소도시	1.71	4.10	25.13	54.36	14.70	100.00(585)	3.76[a]	0.81
	읍면	2.70	9.91	29.28	46.40	11.71	100.00(222)	3.55[b]	0.92
	$\chi^2(df)/F$	55.58(10)***						5.36**	
산책로	전체	1.88	4.47	25.63	52.51	15.52	100.00(1276)	3.75	0.84
	지역 규모								
	대도시	1.34	4.24	24.33	56.47	13.62	100.00(448)	3.77[a]	0.79
	중소도시	1.86	3.55	23.99	52.87	17.74	100.00(592)	3.81[a]	0.83
	읍면	2.97	7.20	32.20	44.07	13.56	100.00(236)	3.58[a]	0.92
	$\chi^2(df)/F$	40.26(10)***						3.37*	
놀이공원	전체	12.27	21.17	37.98	25.12	3.46	100.00(1011)	2.86	1.04
	지역 규모								
	대도시	6.28	16.12	40.71	32.51	4.37	100.00(366)	3.13[b]	0.95
	중소도시	13.81	20.62	38.76	23.71	3.09	100.00(485)	2.82[a]	1.04
	읍면	21.25	34.38	29.38	12.50	2.50	100.00(160)	2.41[b]	1.04
	$\chi^2(df)/F$	89.04(10)***						9.85***	
실내 체육시설 /놀이시설	전체	5.63	14.48	36.91	35.12	7.86	100.00(1119)	3.25	0.99
	지역 규모								
	대도시	3.31	9.41	39.44	40.46	7.38	100.00(393)	3.39[b]	0.88
	중소도시	5.02	15.99	35.50	34.76	8.74	100.00(538)	3.26[a]	1.00
	읍면	12.23	20.74	35.64	25.00	6.38	100.00(188)	2.93[b]	1.10
	$\chi^2(df)/F$	73.41(10)***						10.82***	
실외 체육시설	전체	5.36	15.28	39.68	32.71	6.97	100.00(1119)	3.21	0.97
	지역 규모								

구분		매우 만족하지 않음	약간 만족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대도시	3.82	10.43	40.20	38.68	6.87	100.00(393)	3.34[b]	0.90
	중소도시	4.66	16.20	39.48	32.22	7.45	100.00(537)	3.22[a]	0.96
	읍면	10.58	22.75	39.15	21.69	5.82	100.00(189)	2.89[b]	1.05
	$x^2(df)/F$	66.04(10)***						10.34***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만족하지 않음~5.매우 만족함).
3) 일부 값에서 t/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서관 3.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화관 3.47점, 관람 및 체험시설 3.05점, 공연시설 2.96점 순으로 도서관과 영화관 이용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지역 규모별로 보았을 때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응답 비중은 보통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읍면의 만족하지 않음에 대한 응답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중 읍면 지역의 공연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11〉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만족하지 않음	약간 만족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영화관	전체	4.41	9.31	31.29	44.69	10.29	100.00(1224)	3.47	0.95
	지역 규모								
	대도시	2.07	5.52	31.72	50.57	10.11	100.00(435)	3.61[b]	0.82
	중소도시	3.29	9.34	31.66	45.67	10.03	100.00(578)	3.50[a]	0.91
	읍면	12.32	17.06	29.38	29.86	11.37	100.00(211)	3.11[b]	1.19
	$x^2(df)/F$	107.16(10)***						8.54***	
관람 및 체험시설	전체	7.90	17.26	40.77	29.94	4.13	100.00(1089)	3.05	0.98
	지역 규모								
	대도시	4.92	11.40	43.26	36.53	3.89	100.00(386)	3.23[b]	0.88
	중소도시	6.19	18.18	41.78	29.59	4.26	100.00(517)	3.08[a]	0.94
	읍면	18.82	26.88	32.80	17.20	4.30	100.00(186)	2.61[b]	1.11
	$x^2(df)/F$	86.94(10)***						5.48**	

구분		매우 만족하지 않음	약간 만족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공연시설	전체	8.94	19.41	43.20	24.07	4.38	100.00(1051)	2.96	0.98
	지역 규모								
	대도시	4.86	12.43	49.46	28.38	4.86	100.00(370)	3.16^{b}	0.88
	중소도시	7.57	20.52	42.43	25.10	4.38	100.00(502)	2.98^{a}	0.97
	읍면	21.23	30.73	32.40	12.29	3.35	100.00(179)	2.46^{ab}	1.06
	$x^2(df)/F$	95.25(10)***						5.91**	
도서관	전체	3.51	9.77	31.80	43.32	11.60	100.00(1198)	3.50	0.94
	지역 규모								
	대도시	2.38	8.10	34.52	46.90	8.10	100.00(420)	3.50	0.85
	중소도시	2.68	9.12	29.70	44.01	14.49	100.00(559)	3.58	0.94
	읍면	7.76	14.61	31.96	34.70	10.96	100.00(219)	3.26	1.09
	$x^2(df)/F$	48.35(10)***						1.81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만족하지 않음~5.매우 만족함).
** $p < .01$, *** $p < .001$.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양육환경을 살펴하기 위해 주변으로부터의 위해성을 고려하여 양육환경 안전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가장 먼저, 취객, 싸움 등으로부터 안전한 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평균 4.13점을 나타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아동의 주거주변에 정기순찰을 하거나 유해시설로부터 안전함을 나타낸 점수도 각각 3.82점, 시설물 설치와 안전설비 구비에 대해서도 3.73점을 보고했다. 하위항목에 대한 모든 점수가 3.5점 이상을 나타낸 것을 보아 아동의 양육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낮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하위요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 취객이나 싸움 등으로부터의 안전성은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읍면일 때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정기순찰, 시설물 설치, 안전설비 구비에 대해서는 아동의 거주 지역이 읍면일 때보다 대도시이거나 중소도시일 때 더 높은 안전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Ⅳ-5-12〉 양육환경 안전성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잘모름	계(수)	평균	표준편차
취객, 싸움 없음	전체	1.04	2.97	12.98	49.93	32.64	0.45	100.00(1348)	4.13	0.87
	지역 규모									
	대도시	1.86	3.10	15.08	49.59	30.37	-	100.00(484)	4.04[a]	0.86
	중소도시	0.33	3.30	12.05	53.30	30.36	0.66	100.00(606)	4.14[ab]	0.86
	읍면	1.16	1.94	11.24	42.64	42.25	0.78	100.00(258)	4.28[b]	0.92
	$\chi^2(df)/F$			26.52(10)**					6.50**	
범죄로부터 안전	전체	7.64	10.53	21.36	41.84	18.18	0.45	100.00(1348)	3.55	1.19
	지역 규모									
	대도시	6.61	9.30	23.97	45.04	14.88	0.21	100.00(484)	3.54	1.09
	중소도시	7.59	10.40	21.12	41.25	18.81	0.83	100.00(606)	3.58	1.24
	읍면	9.69	13.18	17.05	37.21	22.87	-	100.00(258)	3.50	1.25
	$\chi^2(df)/F$			20.76(10)*					0.46	
유해시설로부터의 안전	전체	5.71	7.57	16.39	41.32	28.64	0.37	100.00(1348)	3.82	1.15
	지역 규모									
	대도시	4.34	7.23	16.94	46.07	25.00	0.41	100.00(484)	3.83	1.08
	중소도시	5.45	6.93	17.33	40.59	29.37	0.33	100.00(606)	3.83	1.14
	읍면	8.91	9.69	13.18	34.11	33.72	0.39	100.00(258)	3.76	1.31
	$\chi^2(df)/F$			20.98(10)*					0.37	
정기순찰	전체	2.52	6.31	33.83	40.58	12.02	4.75	100.00(1348)	3.82	1.45
	지역 규모									
	대도시	1.65	5.37	32.44	42.36	13.84	4.34	100.00(484)	3.87[b]	1.38
	중소도시	1.82	5.61	36.30	40.76	9.57	5.94	100.00(606)	3.86[b]	1.52
	읍면	5.81	9.69	30.62	36.82	14.34	2.71	100.00(258)	3.60[a]	1.37
	$\chi^2(df)/F$			32.75(10)***					3.47*	
협조 분위기	전체	2.00	10.83	42.95	32.49	8.31	3.41	100.00(1348)	3.55	1.33
	지역 규모									
	대도시	1.86	9.50	43.80	32.85	7.85	4.13	100.00(484)	3.60	1.39
	중소도시	1.82	12.71	45.21	29.70	7.10	3.47	100.00(606)	3.48	1.34
	읍면	2.71	8.91	36.05	38.37	12.02	1.94	100.00(258)	3.60	1.19
	$\chi^2(df)/F$			20.16(10)*					1.27	
행동 바로 잡아주기	전체	3.19	16.77	46.36	22.70	4.60	6.38	100.00(1348)	3.47	1.67
	지역 규모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잘모름	계(수)	평균	표준편차
	대도시	3.72	13.84	46.49	24.59	4.34	7.02	100.00(484)	3.54	1.72
	중소도시	2.64	19.64	48.18	18.65	3.47	7.43	100.00(606)	3.45	1.76
	읍면	3.49	15.50	41.86	28.68	7.75	2.71	100.00(258)	3.38	1.32
	$\chi^2(df)/F$			31.67(10)***					0.85	
시설물 설치	전체	1.63	7.57	30.86	45.40	12.09	2.45	100.00(1348)	3.73	1.19
	지역 규모									
	대도시	1.24	6.40	31.40	47.11	12.19	1.65	100.00(484)	3.73^{ab}	1.07
	중소도시	1.49	7.10	29.37	47.19	11.22	3.63	100.00(606)	3.81^{b}	1.30
	읍면	2.71	10.85	33.33	37.98	13.95	1.16	100.00(258)	3.57^{a}	1.12
	$\chi^2(df)/F$			19.54(10)*					3.94*	
안전설비 구비	전체	1.93	5.86	33.68	44.88	11.05	2.60	100.00(1348)	3.73	1.20
	지역 규모									
	대도시	1.24	6.20	35.54	43.39	11.78	1.86	100.00(484)	3.69^{ab}	1.10
	중소도시	1.49	5.28	32.51	46.70	10.40	3.63	100.00(606)	3.81^{b}	1.28
	읍면	4.26	6.59	32.95	43.41	11.24	1.55	100.00(258)	3.60^{a}	1.15
	$\chi^2(df)/F$			16.44(10)					3.09*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평균값은 잘모름을 제외하고 분석함.
3) 취객, 싸움 없음(술 취한 사람이나 싸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문항은 역코딩을 실시함.
4)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음~5.매우 그러함).
* $p < .05$, ** $p < .01$, *** $p < .001$.

나. 정책 특성

1) 국가지원

패널가구의 특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수급구분에 따라 분석하였다. 전체 가구 중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96.90%였으나, 차상위계층이 2.35%,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0.76%로 조사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학력, 가구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지역의 규모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단위: %(명)

구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없음	계(수)
전체	0.76	2.35	96.90	100.00(1321)
모 취업 여부				
취업	0.49	2.47	97.04	100.00(677)
미취업	1.04	1.86	97.10	100.00(644)
$\chi^2(df)$		4.73(3)		
모 학력				
고졸 이하	1.71	2.85	95.44	100.00(351)
전문대졸	0.53	3.73	95.73	100.00(375)
대졸 이상	0.17	1.18	98.65	100.00(591)
$\chi^2(df)$		18.12(6)**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3.29	5.92	90.79	100.00(304)
400초과-550만원	-	0.92	99.08	100.00(327)
550초과-700만원	-	0.62	99.38	100.00(322)
700만원 초과	-	2.29	97.71	100.00(262)
$\chi^2(df)$		57.21(9)***		
지역 규모				
대도시	0.84	2.73	96.44	100.00(477)
중소도시	0.51	2.20	97.30	100.00(592)
읍면	1.19	1.98	96.83	100.00(252)
$\chi^2(df)$		2.86(6)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1$, *** $p < .001$.

지난 1년간 생활비 지원여부와 지원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생활비를 지원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9.15%,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90.85%로 나타났다. 생활비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 지원처의 49.18%가 정부보조금인 경우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친척, 친지 등 이웃 28.69%, 회사 25.41%, 복지관/종교단체 8.20%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지원여부를 집단구분별로 살펴본 결과, 가구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5-14〉 생활비 지원 여부 및 지원처(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지원 받음	지원받지 않음	계(수)	정부 보조금	친척, 친지 등 이웃	복지관/ 종교단체	회사	(수)
전체	9.15	90.85	100.00(1333)	49.18	28.69	8.20	25.41	(122)
모 취업 여부								
취업	8.96	91.04	100.00(815)	42.47	30.14	9.59	26.03	(73)
미취업	9.16	90.84	100.00(491)	55.56	28.89	6.67	26.67	(45)
$\chi^2(df)$	0.02(1)							
모 학력								
고졸 이하	11.20	88.80	100.00(357)	41.94	12.50	10.00	12.50	(40)
전문대졸	8.20	91.80	100.00(378)	32.00	32.26	6.45	38.71	(31)
대졸 이상	8.42	91.58	100.00(594)	29.51	40.00	8.00	28.00	(50)
$\chi^2(df)$	2.61(2)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20.52	79.48	100.00(307)	73.02	20.63	9.52	7.94	(63)
400초과-550만원	5.44	94.56	100.00(331)	44.44	33.33	5.56	33.33	(18)
550초과~700만원	4.95	95.05	100.00(323)	6.25	43.75	-	62.50	(16)
700만원 초과	5.66	94.34	100.00(265)	13.33	26.67	6.67	53.33	(15)
$\chi^2(df)$	64.06(3)***							
지역 규모								
대도시	10.48	89.52	100.00(477)	50.00	24.00	10.00	34.00	(50)
중소도시	7.51	92.49	100.00(599)	44.44	40.00	6.67	15.56	(45)
읍면	10.51	89.49	100.00(257)	55.56	18.52	7.41	25.93	(27)
$\chi^2(df)$	3.52(2)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01$.

2) 학교 정책

14차 조사에서는 13차 조사의 국가지원 정책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정책 수혜 여부 및 만족도 변인이 삭제되고 교육정책별 추진 동의 정도에 대해 조사 되었다. 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5점 척도로 측정 되었으며, 조사변인은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자유 학년제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체제 단순화, 고교 학점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확대 등 8가지로 분류하여 가구 소득과 지역 규모의 집단에 따라 분석하였다.

교육정책별 추진 동의 정도의 분류에 따른 분석 결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동의 정도가 4.2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 급여 지원 확대(4.00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확대(3.78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3.68점), 고등학교 체제 단순화(3.53점) 등에 대해 높은 순으로 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15〉 교육정책별 추진 동의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평균	표준편차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2.74	13.87	31.31	44.73	7.34	100.00(1348)	3.40	0.91
자유 학년제 운영	6.45	17.73	31.08	36.87	7.86	100.00(1348)	3.22	1.04
고등학교 무상교육	0.74	2.08	10.83	43.25	43.10	100.00(1348)	4.26	0.79
고등학교 체제 단순화	4.30	11.57	27.97	38.65	17.51	100.00(1348)	3.53	1.04
고교 학점제	4.45	12.09	37.46	35.61	10.39	100.00(1348)	3.35	0.97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확대	1.56	5.27	25.45	48.74	18.99	100.00(1348)	3.78	0.87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8	5.93	29.90	46.14	15.95	100.00(1348)	3.68	0.88
교육 급여 지원 확대	0.96	3.19	19.96	46.51	29.38	100.00(1348)	4.00	0.84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동의하지 않음~5.매우 동의함).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에 대한 동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동의함이 4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31.31%, 동의하지 않음 13.87%, 매우 동의함 7.34%, 전혀 동의하지 않음 2.74% 순으로 나타나 단가 인상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 소득과 지역규모의 집단별 응답에 있어서도 전체 평균과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5-16〉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단위: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전체	2.74	13.87	31.31	44.73	7.34	100.00(1348)
가구 소득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400만원 이하	2.56	13.74	35.14	43.13	5.43	100.00(313)
400초과-550만원	3.01	13.55	28.92	45.78	8.73	100.00(332)
550초과-700만원	2.76	13.50	30.06	46.93	6.75	100.00(326)
700만원 초과	2.63	13.53	31.95	42.86	9.02	100.00(266)
$\chi^2(df)$			6.78(12)			
지역 규모						
대도시	2.27	14.26	30.99	46.69	5.79	100.00(484)
중소도시	2.97	14.36	33.17	41.75	7.76	100.00(606)
읍면	3.10	12.02	27.52	48.06	9.30	100.00(258)
$\chi^2(df)$			8.64(8)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동의하지 않음~5.매우 동의함).

자유 학년제 운영에 대한 동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동의함이 36.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31.08%, 동의하지 않음 17.73%, 매우 동의함 7.86%, 전혀 동의하지 않음 6.45%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 집단에서는 전체 평균과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으나 지역규모 중 중소도시에서는 보통이 35.64%로 동의함 33.5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동의하지 않음 17.16%, 매우 동의함 7.92%, 전혀 동의하지 않음 5.78%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5-17〉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자유 학년제 운영

단위: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전체	6.45	17.73	31.08	36.87	7.86	100.00(1348)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4.47	17.57	31.31	38.02	8.63	100.00(313)
400초과-550만원	5.12	16.57	31.02	40.06	7.23	100.00(332)
550초과-700만원	7.98	20.86	31.29	33.13	6.75	100.00(326)
700만원 초과	9.77	13.91	29.32	37.97	9.02	100.00(266)
$\chi^2(df)$			16.23(12)			
지역 규모						
대도시	7.85	20.04	28.31	38.84	4.96	100.00(484)
중소도시	5.78	17.16	35.64	33.50	7.92	100.00(606)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읍면	5.43	14.73	25.58	41.09	13.18	100.00(258)
$\chi^2(df)$			31.05(8)***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동의하지 않음~5.매우 동의함).
*** $p < .001$.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동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동의함이 43.25%, 매우 동의함 43.10%, 보통 10.83%, 동의하지 않음 2.08%, 전혀 동의하지 않음 0.7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 중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에 대한 응답 비중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으며 동의함 이상의 비중이 86.35%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책 추진 동의가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보았을때 가구 소득에서는 400만원 이하, 지역 규모에서는 읍면에서 매우 동의함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5-18〉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위: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전체	0.74	2.08	10.83	43.25	43.10	100.00(1348)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0.32	1.28	9.58	43.45	45.37	100.00(313)
400초과-550만원	0.30	2.11	11.75	43.07	42.77	100.00(332)
550초과-700만원	0.92	2.76	10.12	43.25	42.94	100.00(326)
700만원 초과	1.50	2.63	13.16	43.61	39.10	100.00(266)
$\chi^2(df)$			9.26(12)			
지역 규모						
대도시	0.83	1.65	11.98	45.25	40.29	100.00(484)
중소도시	0.83	1.98	11.22	43.07	42.90	100.00(606)
읍면	0.39	3.10	7.75	39.92	48.84	100.00(258)
$\chi^2(df)$			9.20(8)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동의하지 않음~5.매우 동의함).

고등학교 체제 단순화에 대한 동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동의함이 38.6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27.97%, 매우 동의함 17.51%, 동의하지 않음

11.57%, 전혀 동의하지 않음 4.30%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역 규모의 집단에서는 전체 평균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가구 소득 집단의 7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가장 많은 응답이 보통으로 나타났다.

〈표 Ⅳ-5-19〉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고등학교 체제 단순화

단위: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전체	4.30	11.57	27.97	38.65	17.51	100.00(1348)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60	8.95	27.80	43.45	18.21	100.00(313)
400초과-550만원	3.61	9.34	28.61	39.76	18.67	100.00(332)
550초과-700만원	3.68	14.11	25.77	40.18	16.26	100.00(326)
700만원 초과	9.40	13.16	30.83	29.70	16.92	100.00(266)
$\chi^2(df)$			37.21(12)***			
지역 규모						
대도시	4.75	14.26	27.07	37.40	16.53	100.00(484)
중소도시	4.13	10.40	30.69	37.95	16.83	100.00(606)
읍면	3.88	9.30	23.26	42.64	20.93	100.00(258)
$\chi^2(df)$			12.55(8)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동의하지 않음~5.매우 동의함).
*** $p < .001$.

고교 학점제에 대한 동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보통 37.46%, 동의함 35.61%, 동의하지 않음 12.09%, 매우 동의함 10.39%, 전혀 동의하지 않음 4.45% 순으로 응답하였다. 가구 소득 집단에서는 전체 평균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지역 규모의 읍면에서는 동의함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Ⅳ-5-20〉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고교 학점제

단위: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전체	4.45	12.09	37.46	35.61	10.39	100.00(1348)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28	8.63	40.89	38.66	10.54	100.00(313)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400초과-550만원	5.42	10.54	35.84	35.84	12.35	100.00(332)
550초과-700만원	6.13	14.42	34.97	33.74	10.74	100.00(326)
700만원 초과	5.26	13.16	37.97	35.71	7.89	100.00(266)
$\chi^2(df)$			21.22(12)*			
지역 규모						
대도시	4.34	11.98	40.29	33.47	9.92	100.00(484)
중소도시	4.62	13.70	36.80	35.64	9.24	100.00(606)
읍면	4.26	8.53	33.72	39.53	13.95	100.00(258)
$\chi^2(df)$			11.91(8)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동의하지 않음~5.매우 동의함).
* $p < .0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동의함이 48.7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25.45%, 매우 동의함 18.99%, 동의하지 않음 5.27%, 전혀 동의하지 않음 1.56% 순으로 응답하였다. 가구 소득 집단에서는 400만원 이하와 400만원 초과~550만원 구간에서, 지역 규모 집단에서는 읍면에서 동의함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Ⅳ-5-21〉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확대

단위: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전체	1.56	5.27	25.45	48.74	18.99	100.00(1348)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0.32	3.51	21.73	53.67	20.77	100.00(313)
400초과-550만원	2.11	5.42	22.59	50.60	19.28	100.00(332)
550초과-700만원	2.45	6.13	29.14	43.87	18.40	100.00(326)
700만원 초과	1.50	5.64	28.57	44.36	19.92	100.00(266)
$\chi^2(df)$			18.05(12)			
지역 규모						
대도시	1.24	4.55	26.45	49.59	18.18	100.00(484)
중소도시	1.65	5.78	27.39	47.03	18.15	100.00(606)
읍면	1.94	5.43	18.99	51.16	22.48	100.00(258)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chi^2(df)$			9.48(8)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동의하지 않음~5.매우 동의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동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동의함이 4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29.90%, 매우 동의함 15.95%, 동의하지 않음 5.93%, 전혀 동의하지 않음 2.08% 순으로 응답하였다. 가구 소득과 지역규모 집단에서도 전체 평균과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5-22〉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단위: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전체	2.08	5.93	29.90	46.14	15.95	100.00(1348)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92	5.11	30.35	48.24	14.38	100.00(313)
400초과-550만원	2.11	5.72	30.12	46.08	15.96	100.00(332)
550초과-700만원	1.84	5.52	28.22	46.63	17.79	100.00(326)
700만원 초과	2.63	6.77	28.95	43.61	18.05	100.00(266)
$\chi^2(df)$			3.88(12)			
지역 규모						
대도시	2.89	6.20	30.79	45.87	14.26	100.00(484)
중소도시	0.99	5.94	29.70	46.37	17.00	100.00(606)
읍면	3.10	5.43	28.68	46.12	16.67	100.00(258)
$\chi^2(df)$			8.12(8)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동의하지 않음~5.매우 동의함).

교육 급여 지원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동의함이 46.5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동의함 29.38%, 보통 19.96%, 동의하지 않음 3.19%, 전혀 동의하지 않음 0.96%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에 있어 동의함 이상의 응답 비중이 75.89%로 아동가구의 교육 급여 지원 확대에 대한 정책 추진 동의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Ⅳ-5-23〉 교육정책 추진 동의 정도: 교육 급여 지원 확대

단위: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계(수)
전체	0.96	3.19	19.96	46.51	29.38	100.00(1348)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0.96	1.92	17.89	48.88	30.35	100.00(313)
400초과-550만원	0.90	2.71	20.48	46.69	29.22	100.00(332)
550초과-700만원	1.53	4.60	20.55	45.71	27.61	100.00(326)
700만원 초과	0.75	3.38	20.68	44.74	30.45	100.00(266)
$\chi^2(df)$			6.98(12)			
지역 규모						
대도시	0.83	2.89	19.01	48.97	28.31	100.00(484)
중소도시	0.99	3.30	22.28	43.56	29.87	100.00(606)
읍면	1.16	3.49	16.28	48.84	30.23	100.00(258)
$\chi^2(df)$			6.40(8)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동의하지 않음~5.매우 동의함).

14차 조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국가지원 정책 특성 변인으로 코로나19 대응 정책만족도, 코로나19 대응 수업운영 방식 및 만족도,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조사 되었다.

코로나19 대응 정책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학생/교직원 자가진단서비스 운영’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3.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방역체계‘ 3.62점, ‘긴급돌봄 지원’ 3.41점, ‘온라인개학 및 원격-등교수업 병행 운영 방식’ 3.35점,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지원’ 3.33점 순으로 만족도에 대한 응답이 나타났다.

〈표 Ⅳ-5-24〉 코로나19 대응 정책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 편차
학생/교직원 자가진단서비스 운영	1.06	5.83	29.90	48.37	14.84	100.00(1321)	3.70	0.83
온라인개학 및 원격-등교수업 병행 운영 방식	3.15	14.19	36.86	36.19	9.61	100.00(1332)	3.35	0.95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지원	3.04	11.71	42.51	34.30	8.44	100.00(1315)	3.33	0.90
학교 방역체계	1.67	4.94	34.83	47.22	11.33	100.00(1315)	3.62	0.81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 편차
긴급돌봄 지원	1.99	8.80	45.18	34.55	9.47	100.00(1204)	3.41	0.85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

코로나19 대응 수업운영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원격+등교'가 73.66%, '등교수업'은 26.34%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된 집단별로 보았을 때 가구 소득 집단에서는 전체 평균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지역 규모의 읍면에서는 '등교수업' 51.55%, '원격+등교' 48.45%로 등교수업의 비중이 원격+등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Ⅳ-5-25〉 코로나19 대응 수업운영 방식

단위: %(명)

구분	등교수업	원격+등교	계(수)
전체	26.34	73.66	100.00(1348)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28.75	71.25	100.00(313)
400초과-550만원	30.12	69.88	100.00(332)
550초과-700만원	27.30	72.70	100.00(326)
700만원 초과	17.29	82.71	100.00(266)
$\chi^2(df)$	14.78(3)**		
지역 규모			
대도시	22.31	77.69	100.00(484)
중소도시	18.81	81.19	100.00(606)
읍면	51.55	48.45	100.00(258)
$\chi^2(df)$	106.27(2)***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2021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기준
** $p < .01$, *** $p < .001$.

코로나19 대응 원격+등교수업 병행 시 등교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격주 등 주단위 등교'가 89.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매일 1~4일 등교' 7.75%, 기타 2.9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의 읍면과 대도시 집단에서는 매일 1~4일 등교하는 빈도가 있는 편으로 응답하였다.

〈표 Ⅳ-5-26〉 코로나19 대응 원격+등교수업 병행 시 등교 방식

단위: %(명)

구분	매일 1-4일 등교	격주 등 주단위 등교	기타	계(수)
전체	7.75	89.33	2.92	100.00(993)

구분	매일 1-4일 등교	격주 등 주단위 등교	기타	계(수)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9.42	87.44	3.14	100.00(223)
400초과-550만원	7.76	88.79	3.45	100.00(232)
550초과-700만원	5.91	92.83	1.27	100.00(237)
700만원 초과	9.55	86.36	4.09	100.00(220)
$x^2(df)$		6.56(6)		
지역 규모				
대도시	11.44	86.17	2.39	100.00(376)
중소도시	3.66	93.09	3.25	100.00(492)
읍면	12.80	84.00	3.20	100.00(125)
$x^2(df)$		23.49(4)***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2021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기준
*** $p < .001$.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80.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16.62%, ‘과제 수행 중심 사업’ 2.11%, 기타 1.01%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85.6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Ⅳ-5-27〉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 진행 방식

단위: %(명)

구분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기타	계(수)
전체	80.26	16.62	2.11	1.01	100.00(993)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78.03	17.49	3.59	0.90	100.00(223)
400초과-550만원	75.00	20.26	2.59	2.16	100.00(232)
550초과-700만원	83.54	14.35	1.69	0.42	100.00(237)
700만원 초과	82.73	15.45	0.91	0.91	100.00(220)
$x^2(df)$		11.77(9)			
지역 규모					
대도시	77.66	18.88	2.66	0.80	100.00(376)
중소도시	80.89	15.65	2.03	1.42	100.00(492)
읍면	85.60	13.60	0.80	-	100.00(125)
$x^2(df)$		6.74(6)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2021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기준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 만족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조사한 결과, 보통 49.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 29.00%, 불만족 16.82%, 매우 불만족 2.62%, 매우만족 1.71%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5-28〉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62	16.82	49.85	29.00	1.71	100.00(993)	3.10	0.79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1.35	14.80	48.88	32.29	2.69	100.00(223)	3.20	0.77
400초과-550만원	4.31	14.22	52.59	27.59	1.29	100.00(232)	3.07	0.80
550초과-700만원	2.53	18.99	47.68	29.96	0.84	100.00(237)	3.08	0.79
700만원 초과	2.73	16.82	48.18	30.00	2.27	100.00(220)	3.12	0.81
$\chi^2(df)/F$	10.11(12)						1.3	
지역 규모								
대도시	1.86	16.76	50.00	29.79	1.60	100.00(376)	3.13[a]	0.77
중소도시	3.66	17.68	52.03	25.41	1.22	100.00(492)	3.03[a]	0.79
읍면	0.80	13.60	40.80	40.80	4.00	100.00(125)	3.34[b]	0.79
$\chi^2(df)/F$	20.77(8)**						7.92***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2021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기준
3) 5점 척도임(1.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
** $p < .01$, *** $p < .001$.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 인식에 대해 그렇다 51.34%로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조사 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매우 그렇다 26.11%, 보통이다 19.21%, 그렇지 않다 2.82%, 전혀 그렇지 않다 0.52%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집단별로 보았을 때 전체 평균과 동일한 응답순으로 나타났으나 가구 소득 중 400만원 이하의 가구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없었다.

〈표 Ⅳ-5-29〉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52	2.82	19.21	51.34	26.11	100.00(1348)	4.00	0.78
가구 소득								
400만원 이하	-	2.56	22.36	53.99	21.09	100.00(313)	3.90	0.72
400초과-550만원	1.20	4.22	19.58	44.58	30.42	100.00(332)	3.99	0.85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편차
550초과~700만원	0.31	2.45	16.87	52.76	27.61	100.00(326)	4.03	0.82
700만원 초과	0.75	2.63	21.43	51.13	24.06	100.00(266)	4.00	0.75
$x^2(df)/F$			19.32(12)				1.27	
지역 규모								
대도시	0.41	1.86	17.56	52.89	27.27	100.00(484)	4.05^{b}	0.75
중소도시	0.66	3.47	18.48	49.83	27.56	100.00(606)	4.00^{ab}	0.81
읍면	0.39	3.10	24.03	51.94	20.54	100.00(258)	3.89^{a}	0.77
$x^2(df)/F$			11.26(8)				3.37*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2021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기준
3)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5$.

V

한국아동패널 조사 정리 및 시사점

01 한국아동패널 1-14차 추이 분석
02 2021년(14차년도) 조사 주요 특성
03 정책적 시사점
04 실사 진행 관련 시사점

V. 한국아동패널 조사 정리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기술하였던 14차 조사(2021년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1-14차년도의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측정된 아동, 부모 변수에 대한 종단적 추이를 살펴보고, 14차년도 조사의 주요 내용을 13차년도 조사와 응답이 달라진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한국아동패널 1-14차 추이 분석

가. 1-14차년도 아동 특성 추이

1) 아동 체중

학년이 올라갈수록 체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초등 5학년에 남학생 체중 평균 44.76kg, 여학생 평균 42.05kg, 초등 6학년에 남학생 평균 52.22kg, 여학생 평균 47.72kg으로 1년 사이 남학생 평균 7.46kg, 여학생 평균 5.67kg의 증가가 있었던 것에 비해, 중등 1학년 남학생 평균 체중 58.99kg, 여학생 평균 체중 51.13kg으로 초등 6년에서 중등 1년 사이에 남학생 평균 6.77kg, 여학생 평균 3.41kg 증가로 증가폭은 작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하지만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 6학년에 4.50kg에 비해 중등 1학년은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의 차이가 7.86kg으로 남녀사이의 차이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1〉 아동의 체중

단위: kg(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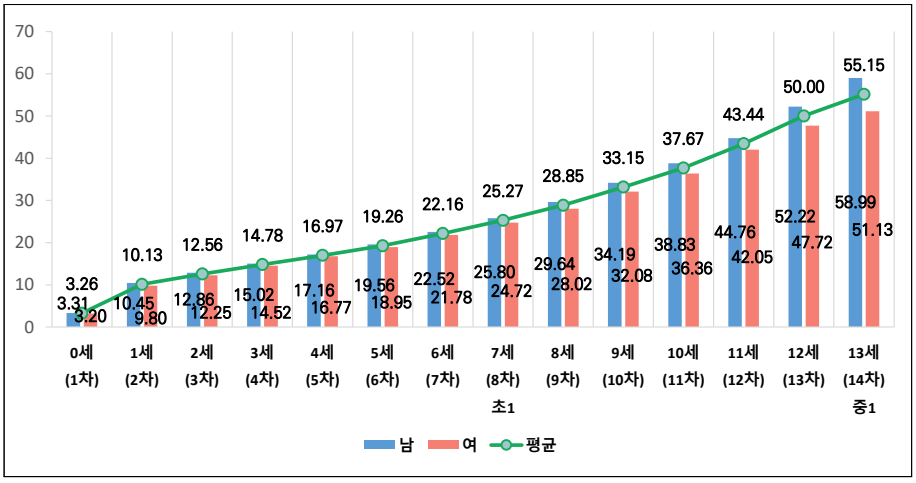
구분	체중(남)					체중(여)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0세(1차)	3.31	0.41	1.4	4.7	(1055)	3.20	0.40	1.2	4.9	(1018)
1세(2차)	10.45	1.09	5.7	15.0	(858)	9.80	1.03	7.0	13.0	(851)
2세(3차)	12.86	1.44	7.0	21.0	(883)	12.25	1.37	8.6	20.0	(854)

구분	체중(남)					체중(여)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3세(4차)	15.02	1.67	11.0	21.0	(902)	14.52	1.66	10.0	21.0	(852)
4세(5차)	17.16	2.09	11.0	25.0	(870)	16.77	2.14	11.6	29.6	(833)
5세(6차)	19.56	2.67	13.0	33.0	(853)	18.95	2.63	11.0	34.5	(802)
6세(7차)	22.52	3.65	15.4	38.8	(794)	21.78	3.49	14.0	38.6	(756)
7세(8차)	25.80	4.64	16.8	48.2	(797)	24.72	4.34	17.0	48.7	(759)
8세(9차)	29.64	5.88	19.4	54.3	(769)	28.02	5.36	18.0	55.0	(726)
9세(10차)	34.19	7.38	20.6	69.3	(751)	32.08	6.64	18.8	60.0	(724)
10세(11차)	38.81	8.68	20.0	75.5	(725)	36.49	8.01	21.3	75.6	(696)
11세(12차)	44.76	10.05	23.4	75.0	(706)	42.05	8.55	24.4	75.0	(666)
12세(13차)	52.22	11.34	25.0	95.0	(671)	47.72	8.87	27.0	91.5	(653)
13세(14차)	58.99	12.90	30.0	116.0	(667)	51.13	9.15	32.0	105.0	(638)

자료: 한국아동패널 1-14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1-1] 아동의 체중

단위: kg



자료: 한국아동패널 1-14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2) 아동 신장

아동의 신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남학생이 초등 6학년에 평균 155.93cm, 여학생이 평균 154.89cm이었던 것에 반해, 중등 1학년에 남학생 평균 164.15cm, 여학생 평균 158.99cm로 남학생 여학생 각각 8.22cm, 4.10cm의 신장 증가를 보였다. 그리고 초등 5학년에 남녀차이가 -0.57cm이고 6학년에는 남녀차이가 1.16cm 였던

것에 비해, 중등 1학년에는 남녀 신장차이가 5.16cm로 나타나 신장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2〉 아동의 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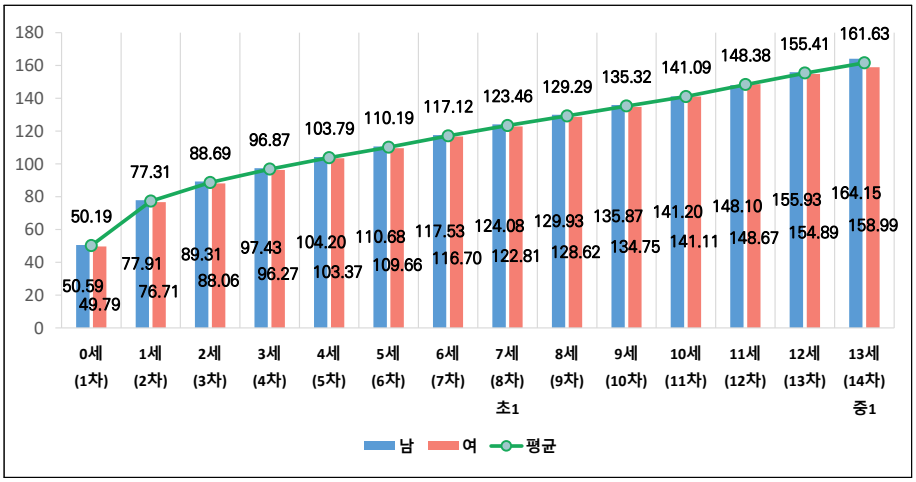
단위: cm(명)

구분	신장(남)					신장(여)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0세(1차)	50.59	2.35	36.5	60.0	(908)	49.79	2.74	29.4	58.0	(907)
1세(2차)	77.91	4.09	60.0	96.0	(558)	76.71	3.98	60.0	100.0	(561)
2세(3차)	89.31	4.11	65.0	110.0	(716)	88.06	3.89	69.0	100.0	(699)
3세(4차)	97.43	3.82	85.0	111.0	(902)	96.27	3.56	85.0	110.0	(851)
4세(5차)	104.20	4.19	85.0	125.0	(870)	103.37	3.93	91.2	120.0	(833)
5세(6차)	110.68	4.55	97.0	130.0	(851)	109.66	4.31	98.0	125.0	(801)
6세(7차)	117.53	4.70	103.0	132.0	(791)	116.70	4.62	104.0	130.5	(757)
7세(8차)	124.08	5.02	109.0	144.0	(798)	122.81	4.98	107.2	140.5	(761)
8세(9차)	129.93	5.27	114.0	148.8	(769)	128.62	5.19	113.0	147.0	(727)
9세(10차)	135.87	5.58	119.0	155.0	(750)	134.75	5.68	116.0	154.0	(724)
10세(11차)	141.11	6.24	123.1	172.2	(718)	141.06	6.44	120.3	164.7	(687)
11세(12차)	148.10	6.70	129.0	172.0	(709)	148.67	6.43	122.3	168.0	(675)
12세(13차)	155.93	7.36	134.5	180.0	(678)	154.89	5.88	126.4	172.0	(662)
13세(14차)	164.15	7.16	139.9	185.4	(670)	158.99	5.37	135.0	180.0	(641)

자료 :한국아동패널 1-14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1-2] 아동의 신장

단위: cm



자료: 한국아동패널 1-14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3) 아동 BMI

아동 BMI는 남학생의 경우 21.79, 여학생의 경우 20.17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지면서, 체중도 증가하고 신장도 증가하고 있지만, 비만도를 나타내는 BMI의 경우 약간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표 V-1-3〉 아동의 B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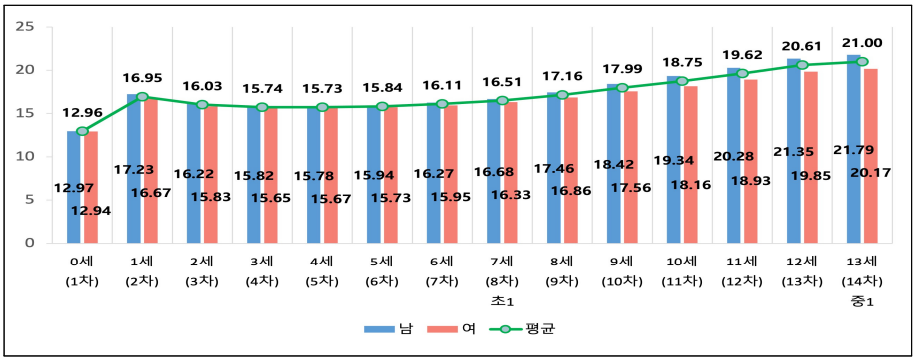
단위: kg/m^2(명)

구분	BMI(남)					BMI(여)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0세(1차)	12.97	1.45	5.40	28.37	(908)	12.94	1.73	7.89	34.01	(907)
1세(2차)	17.23	1.90	10.85	33.33	(557)	16.67	2.02	9.50	30.56	(559)
2세(3차)	16.22	1.78	8.33	30.28	(714)	15.83	1.72	10.63	24.69	(698)
3세(4차)	15.82	1.42	10.68	22.71	(902)	15.65	1.43	10.37	22.45	(851)
4세(5차)	15.78	1.39	11.70	22.07	(870)	15.67	1.48	12.08	23.97	(833)
5세(6차)	15.94	1.64	11.34	24.35	(851)	15.73	1.69	9.26	24.65	(800)
6세(7차)	16.27	2.05	12.42	30.85	(790)	15.95	1.97	11.57	24.86	(753)
7세(8차)	16.68	2.33	12.49	28.80	(797)	16.33	2.24	11.21	27.49	(759)
8세(9차)	17.46	2.72	12.76	26.80	(769)	16.86	2.46	12.68	28.06	(726)
9세(10차)	18.42	3.19	11.81	32.07	(749)	17.56	2.80	12.25	28.70	(724)
10세(11차)	19.37	3.45	12.71	30.30	(716)	18.21	3.17	12.74	40.89	(683)
11세(12차)	20.28	3.66	12.27	30.82	(704)	18.93	3.02	13.23	32.67	(664)
12세(13차)	21.35	3.76	12.57	34.89	(668)	19.85	3.04	13.57	35.61	(650)
13세(14차)	21.79	4.01	13.92	37.62	(664)	20.17	3.04	12.98	34.00	(635)

주: BMI는 몸무게(kg)/신장(m)^{2}로 계산하며, 체지방축적을 나타내어 비만도 판정에 많이 사용함(정상범위 18.5-23). 단, BMI는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지수이므로 아동에게 적용 시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자료: 한국아동패널 1-14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1-3] 아동의 BMI

단위: kg/㎡



자료: 한국아동패널 1-14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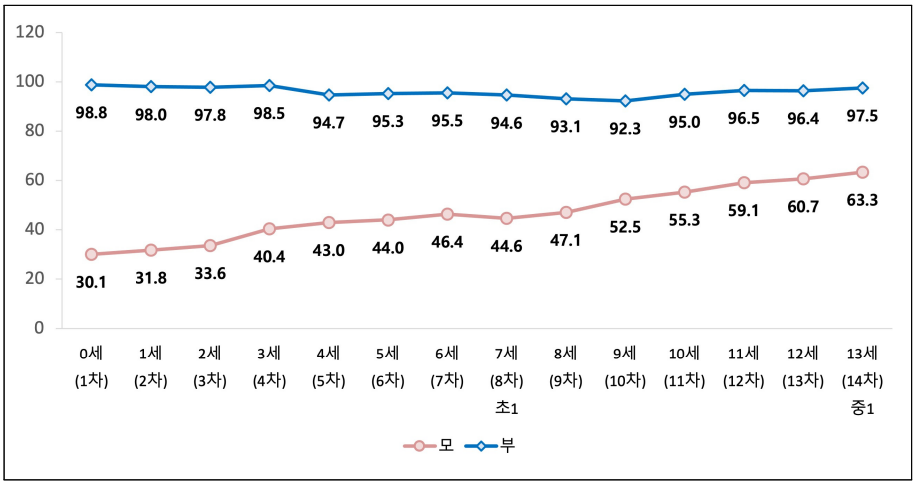
나. 1-14차년도 부모 특성 추이

1) 부모의 취/학업 상태

어머니의 취업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등 1학년이 되면서 초등 5학년에 59.1%, 초등 6학년에 60.7%이었던 모 취업률이 63.3%로 증가하였다. 아버지의 취업률은 시간에 따라 큰 변동은 없으나 96.5%였던 초등 6학년에 비해 중등 1학년에서 97.5%를 나타내 약간의 증가를 보였다.

[그림 V-1-4] 부모의 취업상태

단위: %



자료: 1) 1-10차: 김은설 외(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한국아동패널 Ⅱ). 육아정책연구소. p. 244.
2) 11-14차: 한국아동패널 11-14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표 V-1-4〉 부모의 취/학업 상태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취/학업 중	미취/미학업 중	계(수)	취/학업 중	미취/미학업 중	계(수)
0세(1차)	30.1	69.9	100.0(2078)	98.8	1.2	100.0(2010)
1세(2차)	31.8	68.2	100.0(1887)	98.0	1.7	100.0(1892)
2세(3차)	33.6	66.4	100.0(1801)	97.8	2.2	100.0(1788)
3세(4차)	40.4	59.6	100.0(1741)	98.5	1.5	100.0(1740)
4세(5차)	43.0	57.0	100.0(1683)	94.7	5.3	100.0(1616)
5세(6차)	44.0	56.0	100.0(1638)	95.3	4.7	100.0(1540)
6세(7차)	46.4	53.6	100.0(1587)	95.5	4.5	100.0(1483)
7세(8차)	44.6	55.4	100.0(1568)	94.6	5.4	100.0(1469)
8세(9차)	47.1	52.9	100.0(1492)	93.1	6.9	100.0(1371)

구분	어머니			아버지		
	취/학업 중	미취/미학업 중	계(수)	취/학업 중	미취/미학업 중	계(수)
9세(10차)	52.5	47.5	100.0(1442)	92.3	7.7	100.0(1304)
10세(11차)	58.2	41.8	100.0(1391)	95.6	4.4	100.0(1333)
11세(12차)	59.1	40.9	100.0(1365)	96.5	3.5	100.0(1244)
12세(13차)	60.7	39.3	100.0(1365)	96.4	3.6	100.0(1232)
13세(14차)	63.3	36.7	100.0(1320)	97.5	2.5	100.0(1164)

자료: 1) 1-10차: 김은설 외(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한국아동패널 Ⅱ). 육아정책연구소. p. 243.
2) 11-14차: 한국아동패널 11-14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2)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패널아동 만0세인 1차 조사 시 85.7%였던 정규직/상용직 비율이 그 이후 점차 낮아져 8세(초등 1학년 시기) 이후 62% 안팎으로 정체한 경향을 보였다. 초등 6학년 시기에 62.7%였던 정규직/상용직 비율이 중등 1학년 시기에 69.0%로 6.3%p 높아져, 자녀의 중등입학 이후 취업비율이 늘었고 그 중 정규직 비율도 늘어남을 알 수 있다.

〈표 Ⅴ-1-5〉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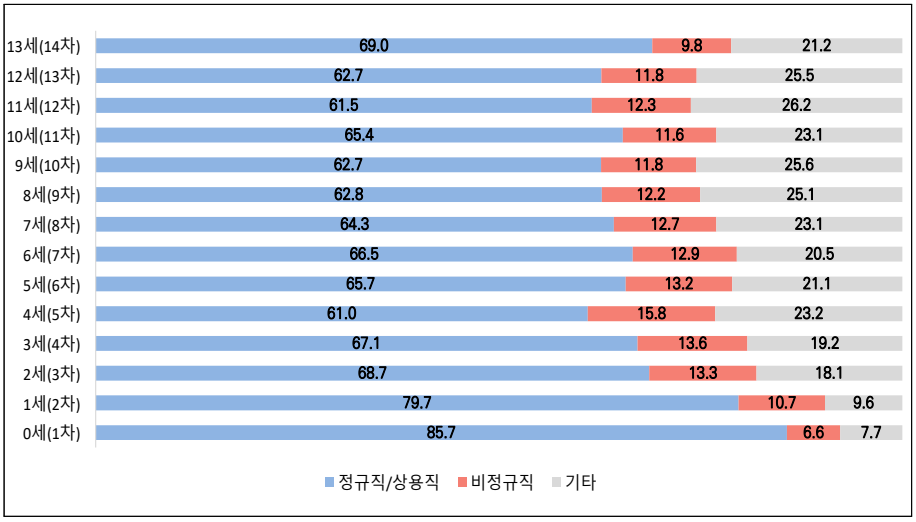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어머니				
	정규직/상용직	비정규직		기타	계(수)
		임시직	일용직		
0세(1차)	85.7	4.8	1.8	7.7	100.0(622)
1세(2차)	79.7	8.3	2.4	9.6	100.0(591)
2세(3차)	68.7	11.6	1.7	18.1	100.0(588)
3세(4차)	67.1	12.4	1.2	19.2	100.0(691)
4세(5차)	61.0	12.9	2.9	23.2	100.0(715)
5세(6차)	65.7	11.7	1.5	21.1	100.0(711)
6세(7차)	66.5	12.1	0.8	20.5	100.0(725)
7세(8차)	64.3	11.1	1.6	23.1	100.0(694)
8세(9차)	62.8	10.9	1.3	25.1	100.0(698)
9세(10차)	62.7	10.3	1.5	25.6	100.0(751)
10세(11차)	64.4	9.3	1.9	24.4	100.0(807)
11세(12차)	61.5	10.1	2.2	26.2	100.0(802)
12세(13차)	62.7	9.7	2.1	25.5	100.0(821)
13세(14차)	69.0	8.5	1.3	21.2	100.0(822)

주: 취업 중인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기타는 자영업, 가족기업 종사자수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1) 1-10차: 김은설 외(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한국아동패널 Ⅱ). 육아정책연구소. p. 244-245.
2) 11-14차: 한국아동패널 11-14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1-5]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

단위: %



주: 취업 중인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비정규직 수치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산한 수치임.
자료: 1) 1-10차: 김은설 외(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한국아동패널 Ⅱ). 육아정책연구소. p. 245.
2) 11-14차: 한국아동패널 11-14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3) 부모의 결혼만족도

다음은 부모의 결혼만족도를 1차 조사부터 14차 조사까지 살펴보았다. 1차~8차 조사까지는 매해 부모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였고, 전반적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점차 낮아져서 6세에 3.20점으로 최저점을 찍고 점차 올라 12차 조사에서는 다시 3.79점을 나타냈으나, 14차 조사에서 3.59점으로 다시 다소 낮아진 점수를 보였다.

반면 아버지의 만족도도 점차 낮아져서 6세 3.4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점차 올라 12차 조사에서는 다시 4.11점으로 올랐으나, 3.96점으로 다시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의 유사한 패턴을 나타냈다.

〈표 V-1-6〉 부모의 결혼만족도

단위: 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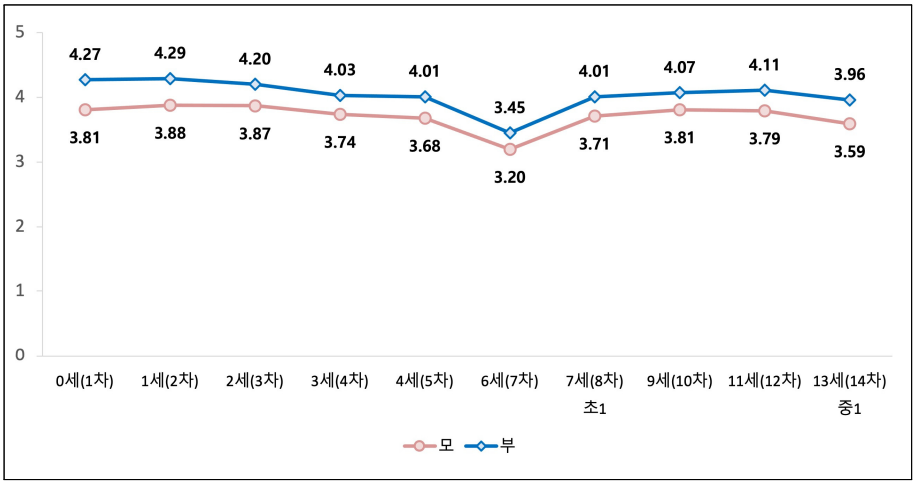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3.81	0.77	(1,857)	4.27	0.68	(1,648)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1세(2차)	3.88	0.79	(1,874)	4.29	0.71	(1,788)
2세(3차)	3.87	0.77	(1,756)	4.20	0.72	(1,673)
3세(4차)	3.74	0.73	(1,690)	4.03	0.65	(1,622)
4세(5차)	3.68	0.76	(1,665)	4.01	0.66	(1,611)
6세(7차)	3.20	0.67	(1,564)	3.45	0.56	(1,479)
7세(8차)	3.71	0.81	(1,547)	4.01	0.73	(1,467)
9세(10차)	3.81	0.94	(1,394)	4.07	0.85	(1,304)
11세(12차)	3.79	0.82	(1,260)	4.11	0.75	(1,182)
13세(14차)	3.59	0.80	(1,315)	3.96	0.73	(1,164)

주: 결혼만족도는 8차 조사 이후 격년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자료: 1) 1-10차: 김은설 외(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한국아동패널 Ⅱ). 육아정책연구소. p. 248.
2) 12-14차: 한국아동패널 12차, 14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Ⅴ-1-6] 부모의 결혼만족도

단위: 점



주: 결혼만족도는 8차 조사 이후 격년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자료: 1) 1-10차: 김은설 외(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한국아동패널 Ⅱ). 육아정책연구소. p. 248.
2) 12-14차: 한국아동패널 12차, 14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4)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의 부부갈등과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격년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4차 조사에서는 부모의 부부갈등은 조사되지 않았다. 1차 조사부터 13차 조사까지 진행된 부모의 부부갈등은 큰 변동 없이 2점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다.

〈표 V-1-7〉 부모의 부부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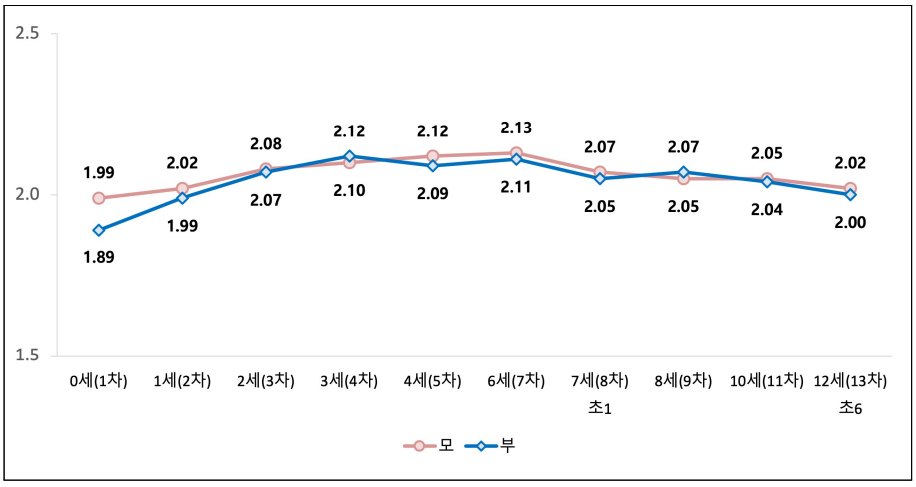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1.99	0.77	(18,58)	1.89	0.70	(1,649)
1세(2차)	2.02	0.76	(1,815)	1.99	0.70	(1,727)
2세(3차)	2.08	0.77	(1,710)	2.07	0.74	(1,620)
3세(4차)	2.10	0.76	(1,696)	2.12	0.73	(1,621)
4세(5차)	2.12	0.78	(1,664)	2.09	0.72	(1,607)
6세(7차)	2.13	0.84	(1,563)	2.11	0.77	(1,479)
7세(8차)	2.07	0.82	(1,545)	2.05	0.73	(1,467)
8세(9차)	2.05	0.82	(1,435)	2.07	0.77	(1,359)
10세(11차)	2.05	0.81	(1,401)	2.04	0.79	(1,182)
12세(13차)	2.02	0.79	(1,303)	2.00	0.75	(1,232)

주: 부부갈등은 9차 조사 이후 격년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자료: 1) 1-11차: 김은설 외(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9(한국아동패널 Ⅱ). 육아정책연구소, p. 247.
2) 13차: 한국아동패널 13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V-1-7] 부모의 부부갈등

단위: 점



주: 부부갈등은 9차 조사 이후 격년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자료: 1) 1-11차: 김은설 외(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9(한국아동패널 Ⅱ). 육아정책연구소, p. 247.
2) 13차: 한국아동패널 13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5) 부모의 사회적 지지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주변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정서적 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패널아동이 만0세였던 1차 조사에서는 네 가지 모두 4.1점 전후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점차 낮아져서 6세에 3.5점 전후로 낮아진 후 다시 상승하였다. 초등 4~6학년 시기에는 3.9점 전후의 사회적 지지를 나타내었으나, 중등 1학년이 된 14차 조사에서 도구적, 사회적, 정보적, 정서적 지지가 3.85점, 3.73점, 3.74점, 3.85점으로 11차에 비해 다소 낮아져, 자녀의 중등시기에는 주변의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V-1-8〉 사회적 지지

단위: 점(명)

구분	도구적 지지		사교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0세(1차)	4.18	0.78	4.08	0.84	4.10	0.80	4.12	0.81	(2,075)
1세(2차)	3.91	0.83	3.87	0.86	3.81	0.85	3.80	0.87	(1,895)
2세(3차)	3.89	0.82	3.89	0.84	3.80	0.82	3.80	0.85	(1,772)
3세(4차)	3.84	0.85	3.85	0.85	3.74	0.83	3.76	0.85	(1,703)
5세(6차)	3.70	0.94	3.73	0.88	3.80	0.86	3.86	0.81	(1,331)
6세(7차)	3.42	1.04	3.49	0.97	3.47	0.99	3.55	0.93	(1,614)
7세(8차)	3.89	0.76	3.87	0.80	3.81	0.75	3.84	0.81	(1,594)
8세(9차)	3.88	0.74	3.86	0.78	3.80	0.77	3.87	0.78	(1,619)
9세(10차)	3.95	0.76	3.95	0.79	3.91	0.76	3.93	0.79	(1,477)
10세(11차)	3.95	0.74	3.91	0.72	3.90	0.76	3.94	0.75	(1,429)
12세(13차)	3.96	0.69	3.89	0.68	3.82	0.72	3.94	0.68	(1,397)
13세(14차)	3.85	0.75	3.73	0.73	3.74	0.75	3.85	0.74	(1,348)

주: 6, 7차 조사에서는 친가, 외가, 친구 및 동료, 이웃으로 부터의 지원을 구분하여 각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음. 본 표에는 전체 집단의 평균을 제시함.

자료: 1) 1-10차: 도남희 외(2018).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8(한국아동패널 II).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p. 202.
2) 11-14차: 한국아동패널 11-14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다. 1-14차년도 지역사회 특성 추이

지역사회 특성으로 육아 관련 여가시설 및 문화시설의 이용편리성을 1차부터 14차까지 살펴보았다. 여가시설 접근 편리성과 문화시설 접근 편리성은 0세 이후 해마다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들이 성장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여가 및 문화시설이 많아지고, 아동의 연령대 증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 문화시설 등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V-1-9〉 여가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단위: 점(명)

구분	여가시설 접근 편리성			문화시설 접근 편리성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3.25	1.08	(1,864)	2.57	1.10	(1,855)
1세(2차)	3.15	1.07	(1,895)	2.51	1.06	(1,897)
2세(3차)	3.23	1.05	(1,771)	2.53	1.04	(1,770)
3세(4차)	3.12	1.02	(1,700)	2.50	1.02	(1,701)
4세(5차)	3.13	1.19	(1,673)	2.41	1.10	(1,672)
5세(6차)	3.13	1.18	(1,613)	2.43	1.09	(1,613)
6세(7차)	3.24	1.16	(1,565)	2.50	1.07	(1,565)
7세(8차)	3.18	1.18	(1,556)	2.92	1.15	(1,556)
8세(9차)	3.25	1.08	(1,525)	3.03	1.06	(1,525)
9세(10차)	3.38	1.03	(1,484)	3.16	1.05	(1,484)
10세(11차)	3.35	0.78	(1,434)	3.18	0.86	(1,434)
11세(12차)	3.40	0.75	(1,412)	3.23	0.82	(1,412)
12세(13차)	3.42	0.72	(1,397)	3.16	0.82	(1,397)
13세(14차)	3.41	0.72	(1,348)	3.12	0.82	(1,348)

주: 1) 5차 조사부터는 각 항목을 세분화 하여 조사하였음. 이에 따라 '여가 공간/시설'은 놀이터, 공원, 산책로의 접근 편리성을, '문화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영화관, 장난감 대여센터, 도서관의 접근 편리성 평균값을 계산하여 분석함.
2) 8차 조사 이후에는 '여가 공간·시설'은 놀이터, 공원, 산책로, 놀이공원, 실내 체육시설, 실외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문화시설'은 영화관, 관람 및 체육시설, 공연시설, 도서관의 접근 편리성 평균값을 계산하여 분석함.

자료: 1) 1-10차: 도남희 외(2018).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8 (한국아동패널 II).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p. 203.
2) 11-14차: 한국아동패널 11-14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2. 2021년(14차년도) 조사 주요 특성

가. 아동 특성

본 절의 아동 특성에서는 14년도조사에서 13년도조사와 응답대상이 달라진 문항에 대한 연속성 부분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패널아동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보호자 응답보다 아동의 직접 응답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대상이 보호자에서 아동으로 변경된 문항들이 다수 있었으며, 해당문항에 집중하여 특성을 기술하였다.

1) 일상생활 특성

가) 식생활

섭취 권장항목, 자제 권장 항목, 인스턴트식품 및 카페인 음료 섭취 등으로 살펴본 식생활 문항의 경우 13차 조사까지는 보호자가 응답하고,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한 14차 조사부터 아동이 응답하였으나, 결과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작년과 세부항목은 다르지만, 남학생의 자제 권장 항목(지방 많은 단백질, 짠 음식)섭취 비율이 지속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학생의 탄산음료와 인스턴트식 섭취 빈도도 여학생보다 높았다. 반면, 규칙적인 식사(하루 세끼 섭취 빈도) 및 다양한 식품 섭취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점수가 높게 나타나 학생 성별에 따른 식생활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수면 시간

초등 1학년인 8차 조사부터 초등 6학년인 13차 조사까지 자녀의 일과시간(수면시간, 학습시간, 여가시간, 미디어 이용시간 등 포함)을 보호자 응답으로 측정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이 되는 14차 조사부터는 아동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주중 기상시각은 각각 7시 35분[13](초등 6학년) 7시 22분(중학교 1학년)으로

13) 김지현·김동훈·조미라·배윤진·김혜진·박은영(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2023년 1월 31일자로 교체된 파일 기준 p. 96. https://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230&board_idx=44497&manage_idx=32&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

큰 차이가 없음에도, 주중 취침시각이 초등 6학년 기준 평균 10시 49분[14](에서 중학교 1학년 기준 평균 11시 34분으로 나타나, 취침시각이 45분 시간가량 취침시각이 늦어지고 수면시간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주말은 중학교 1학년 기준 취침시각이 오전 0시 7분, 기상시각 9시 13분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6학년 기준 취침시각 11시 25분, 기상시각 8시 53분[15]에 비해서도 늦어지는 경향을 보여, 취침과 기상시각이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 독서시간 및 독서량

생활시간에 포함되는 책읽기 시간의 경우는 아동이 초등 6학년인 13차 조사에서는 보호자가, 중학교 1학년인 14차 조사에서는 아동이 응답하였음에도 13차 조사, 14차 조사의 주중 평균 독서량이 각각 0.76시간(김지현 외, 2021: 99), 0.75시간이고, 주말 평균 독서량이 13차 조사, 14차 조사 모두 1.07시간(김지현 외, 2021: 99)로 거의 같은 수치의 응답이 나왔다.

하지만 독서량에는 13차 조사, 14차 조사 모두 아동이 응답하였음에도 그 결과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 초등 6학년의 경우(13차 조사) 책을 0권 읽는 비율은 7.86%에 불과하고, 7~10권, 10권 초과의 경우가 각각 8.06%, 5.31%로 높았던 반면(김지현 외, 2021: 100), 중학교 1학년의 경우(14차 조사)는 책을 0권 읽는 비율이 40%에 달하고, 7~10권, 10권 초과의 경우는 1% 안팎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6학년 시기에 비해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독서량이 현저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라) 미디어 이용

생활시간에 포함되는 영상 시청시간 및 게임시간 문항은 13차 조사에서는 보호자 응답하고, 14차 조사에서는 아동 응답하였음에도 큰 차이가 없었으나(김지현 외, 2021: 102-103), 절대적 이용 시간을 기입하는 스마트폰, PC 이용 전체 시간을 물어본 미디어 이용시간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초등 6학년 시기(보호자 응

rch_text=&rowCount=10&viewPage=1 (2023년 1월 31일 인출)
14) 각주 13번과 동일
15) 각주 13번과 동일

답)의 경우(김지현 외, 2021: 103-104) 일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이 2.8시간이었으나, 중학교 1학년 시기(아동 응답)의 일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은 6.6시간으로 3.8시간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 정보 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로 미디어 종류를 나누었을 때, 13차 조사(초등 6학년)에서는 각 종류에 대해 5점 척도를 이용한 이용정도로, 14차 조사(중학교 1학년)에서는 각 미디어 종류에 대한 이용시간으로 질문하여, 단순비교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남녀차이를 보았을 때, 미디어를 이용한 학습시간에는 차이가 없고, 정보검색, 엔터테인먼트, SNS 영역의 이용정도 및 이용시간은 여학생이 높고, 게임시간은 이용정도 및 이용시간이 남학생이 높았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이용패턴을 보였다. 또한, 취업모 자녀가, 미취업모 자녀보다,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 이용시간이 높았다는 점도에서도 유사성을 나타냈다.

마) 여가 및 사교 활동

생활시간 조사의 여가 및 사교 활동 중 스포츠 및 레저활동 13차 조사(보호자 응답), 14차 조사(아동 응답)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김지현 외, 2021: 107), 친구 등과의 놀이 사교 활동 시간이 작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말의 경우 초등 6학년에 비해 중학교 1학년 시기의 놀이 사교 활동이 53분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0년에 비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놀이사교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NS 등 통신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교제도 주말의 경우 1시간 20분 정도로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 대면·비대면을 포함한 놀이 사교 시간에도 성별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또한 '문화체험, 예술감상, 견학' 참여와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초등 6학년 시기인 13차 조사에서 57.9%, 27.4%였으나(김지현 외, 2021: 117), 중학교 1학년 시기인 14차 조사에서는 각각 36.3%, 18.8% 정도로 참여 정도가 많이 감소하였고, 봉사 활동의 경우 참여 비율이 초등 6학년 8.7%(김지현 외, 2021: 118)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 14.61%로 증가, 동아리 활동은 초등 6학년 10.8%(김지현 외, 2021: 118)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에 18.9%로 증가하였다.

2) 신체 및 건강 특성

아동이 한번에 30분 이상 실내외 신체활동을 한 일수는 13차 조사(보호자 응답)에서는 '없다'는 경우가 38.7%였음에도(김지현 외, 2021: 110) 14차 조사(아동 응답)에서는 17.8%로 줄어들었다. 13차 조사, 14차 조사 모두 다 남녀차이가 나타났는데, 중학교 1학년의 경우 남학생은 5일 이상 30분 이상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한다고 한 비율이 23.6%로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3) 학습 관련 특성

학습 관련 특성은 중학생이 되면서 문항에 변경이 생겨 초등 6학년과 비교는 불가능하다. 중학교 1학년부터 패널아동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대해서 스스로 학업이해정도를 측정하였다. 수학, 국어, 영어에 비해 사회, 과학의 이해도가 낮은 편이며, 국어, 영어의 경우 여학생이, 과학은 남학생이 스스로 인식한 학업 이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낸다.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의 경우도 초등 6학년은 학업성취문제를 통해 5단계(하위 20% 이내~상위 20% 이내)로 분류하였고, 중학교 1학년은 담임교사의 평가에 근거해 5단계(하위 20% 이하~상위 80-100%)로 분류하여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초등 6학년 시기보다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상위 80-100%에 해당하는 비율이 평균 20%p정도 줄어들고, 중간 50-60%에 해당하는 비율이 평균 15%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5점 중 2점대로 낮은 편으로 나타냈으나, 학교성적, 숙제시험, 공부, 대입취업 스트레스 네 가지 영역에서 모두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기조절학습 정도를 아동 스스로 평가한 결과는 2.61/4점 정도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미취업모의 자녀가 취업모의 자녀보다 스스로 인식한 자기조절 학습 정도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 및 정서 발달

가) 학교적응

중학교 1학년인 14차 조사부터 청소년용 학교적응문항으로 변경하였는데, 크게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학교친구와 학교생활에 대한 점수는 4점 이상으로 높았으나, 학교공부와 학교교사에 대한 점수는 3.6점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 친구 중 '상호협조성', 학교생활 중 '질서/규칙준수', '학교생활만족'에서는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나) 폭력경험

폭력 피해경험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온라인 폭력과 오프라인 폭력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초등 6학년 시기에도 동일하게 측정된 오프라인 폭력피해 경험과 비교했을 때, 중학교 1학년 때가 폭력피해의 모든 영역에서 '전혀 없다'의 비율이 높아졌다. 가장 높은 빈도가 나타난 '험담, 심한 욕설을 들은 경험'은 '연 1-2회'가 9.3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폭력피해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헛소문으로 괴롭힘 당한 경험'이 연 1-2회 이상에서 주 1-2회까지 총 3.2%의 경험으로 온라인 폭력 피해 중 빈도가 가장 높았다.

중학교 1학년 시점에 폭력 가해 경험을 처음으로 질문하였는데, '듣기 실은 별명으로 부르거나 놀리고, 싫어하는 장난친 경험'의 문항은 연 1-2회가 15.08%, 월 1회-3회 7.4%, 주 1-2회 2.9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의도적으로 따돌린 경험, 때리거나 차거나 조르거나 가둔 경험 등도 연 1-2회 이상에서 일주일 여러 번을 포함하여, 각각 3.3%의 비율로 나타나 꽤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다) 친구관계

이성친구 유무는 초등 6학년 기준 5.08%에서 중학교 1학년 기준 8.14%로 3%p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아동의 또래애착도 하위 척도가 모두 3/4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의사소통과 신뢰감 영역의 또래 애착이 높은 편이었고, 미취업모의 경우 취업모보다 소외감 영역이 높게 나타나, 소외감 영역의 또래애착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다.

라) 정서발달

중학교 1학년 시점의 14차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 영역을 심도 있게

파악해보고자 아동의 우울과 아동의 공감 정도를 측정하였다.

우울은 평균 1.5/4점으로 '극히 드물다'와 '가끔 있었다' 사이의 점수로 우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그룹 간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공감은 표현적 공감,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으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모든 영역에서 평균 4.2/5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세 영역 모두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취업모의 자녀가 미취업모의 자녀보다 세 영역에서 보두 높은 공감능력을 나타냈고, 인지적 공감능력은 가구 소득이 700만원 초과인 가구의 자녀가 가구 소득 550만원 이하 가구의 아동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비행에 대한 문제의식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 및 '집단 따돌림에 가담하기' 등을 포함한 모든 문항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초등 6학년 시기보다는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조사에서 문제인식 평균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마)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은 격년마다 측정되는 항목으로 12차 조사(초등 5학년)에 이어 14차 조사(중학교 1학년)에 시행하였으며, 보호자가 응답한 CBCL, 교사가 측정한 TRF로 측정되었으며, 다각도로 측정함으로써 다면적 분석이 가능하다.

증후군 척도로 살펴본 문제행동 진단에서는 보호자의 평가와 교사의 평가가 임상군 비율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아동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의 경우 교사가 측정한 평가의 임상군 비율이 7.26%임에도 보호자가 평가한 임상군 비율은 2.47%에 불과했다. 하지만, 여학생의 경우 부모가 평가한 임상군 비율이 2.94%로 교사가 평가한 임상군 비율(2.26%)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DSM 척도로 살펴본 문제행동에서도 보호자와 교사 간에 응답 차이를 나타냈는데, 특히 신체화문제, 과잉행동/주의력결핍(ADHD), 반항행동문제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경우 보호자 평가에 비해 교사 평가에서 높은 비율의 임상군 수치를 보였고, 여학생의 경우는 품행문제에 있어서 보호자 평가보다 교사 평가에서 더 높은 임상군 비율을 보여, 영역에 따라, 성별에 따라 보호자와 교사의 평가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나. 학교 및 사교육 특성

1) 학교 특성

가) 학교, 학급 특성

패널아동이 중학교 1학년이 된 시점의 학교 유형은 일반중이 98.8%이었고, 국제중학교, 예술중학교,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다소 있었다. 패널아동이 재학 중인 중학교 중 남녀공학인 경우가 81%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평균 학급 수는 8학급 정도, 학급당 학생 수는 28명 정도였다. 시범학교 유형으로 혁신학교, 연구학교가 각각 12.8%, 5.3% 정도 차지하였다.

나) 교사 특성

교사의 담당과목으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12~14%정도 차지하였고, 도덕, 기술가정, 음악, 미술, 체육 등이 6~9%를 차지하였다. 담임교사의 성별은 76% 정도가 여성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평균연령은 40세 정도였다. 교사 최종학력으로는 대졸이 60.5%, 석사(과정포함)가 37% 정도, 박사(과정포함)가 2% 정도였다.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는 학부모와 관계, 수업지도보다는 생활지도와 행정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자녀 관련 상담의 경우 51% 이상이 참석한 반면, 그 외의 학교 내 자원봉사 활동 및 학부모단체 가입, 진학설명회 등의 학교 참여는 90% 이상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패널아동이 중학교 1학년이었던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학교 내 활동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교사가 평가하는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정도도 4/5점으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 사교육 특성

가) 사교육 정도 및 종류

패널아동의 학교 수업 이외 교육을 받는 경우가 90.8%로 매우 높았고, 어머니 학력이 높을 경우 고졸 이하인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 수업 이외의 교육을 받는 경우 과목별로 이용방법이 달랐는데, 국어의 경우 학원 외에도 학습지, 인터넷 강의 비율이 높았으나, 수학과 영어의 경우 학원의 비중이 70% 전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과학은 학원, 인터넷 강의 비율이 35% 정도로 나타나, 과목별 서비스 이용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사교육 이용시간

서비스 종류별 이용시간은 학원 이용 주 평균 10시간, 과외 주 평균 5시간, 학습지 주 평균 15시간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종류별 이용비용은 학원 월 평균 50만원, 과외 월평균 36만원, 학습지 월평균 12만원, 인터넷 강의 월평균 14만원이었다.

다) 교육 만족도

학교 외 교육서비스 만족도는 서비스 종류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이용부담 정도는 학원이 3.2점으로 가장 높고 교내 방과 후 및 EBS, 청소년 수련관 등이 1.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비용대비 만족도는 교내 방과 후 및 EBS가 높은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3. 정책적 시사점

가. 아동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이해와 지원

한국아동패널의 아동들이 2021년에 시행된 14차 조사 기준 중학교 1학년을 맞았다. 여학생의 경우 90.91%, 남학생의 경우 37.67%의 아동들이 2차 성징을 나타내었고, 많은 측면에서 초등학교 6학년과는 다른 발달양상을 보이며, 많은 영역에서 개인차보다는 성별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신체적 차이이다. 신장과 체중에 있어서도,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남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둘째, 식습관 및 수면을 포함한 건강습관이다. 식습관에 있어서도 남학생의 인스턴트 음식 및 카페인 음료 섭취가 높고, 자제 권장항목 음식의 섭취가 높아 식습관을 통한 건강관리에도 남녀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수면시간의 경우에도 여학생이 유의미한 정도로 더 늦게 자는 경향이 있으나, 총 수면량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수면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학생은 SNS 등 통신기기 활용 및 정적인 놀이사교 시간이 높은 반면 남학생은 실내외 신체활동에 쓰는 시간이 여학생보다 월등히 높아, 신체활동량이 더 많았다.

셋째,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도 그 경향성에 차이를 보인다. 남학생의 경우 미디어 이용 중 게임에 사용하는 시간이 월등히 높은 반면, 여학생은 SNS 및 엔터테인먼트 활용에 쓰는 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학습이해도 및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스스로 인식한 과목별 학업이해도 인식에도 성별 차이를 나타냈는데, 여학생은 국어, 영어 과목, 남학생은 과학 과목에 스스로 인식한 학업이해도에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스로 인식한 자지조절학습 정도가 더 높았으나 학업스트레스는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에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남학생의 경우 아동학대(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 방임)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주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남학생의 경우 표현적, 인지적, 정서적 공감을 포함한 공감 정도에 여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차이가 많은 영역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생물학적, 기질적 성향 차이에서 일부 기인한다. 하지만 식생활 및 운동량 등과 관련된 건강생활,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아동의 성별과 관계없이 골고루 바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어, 아동들이 학교 교육을 받고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결과적 차이를 당연히 여기거나, 이로 인한 좌절 및 성별차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느끼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서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나. 아동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관점 차이 이해 필요

한국아동의 미디어 초등학교 시기의 미디어이용시간의 추이를 보면(김지현 외, 2021: 268),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2020년에 조사된 패널아동 6학년이 되면서 미디어 이용시간이 일평균 2.8시간으로 초등 5학년(일평균 1.8시간)이었던 전년도보다 1시간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미디어패널조사(2020)[16] 결과에서 초등학생의 미디어 이용시간이 1시간 상승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2021년 중학교 1학년이 된 시점에서는 아동응답으로 변화하면서, 일평균 6.6시간의 미디어 이용시간을 나타냈다. 이 시간은 13차 조사에서는 미디어 이용의 전체 시간을 응답하게 하고, 미디어 종류에 대해서는 이용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 반면 14차 조사에서는 아동이 이용하는 미디어의 종류를 학습, 정보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으로 나누어 각각의 이용시간을 조사하여 합산한 것으로 전체 시간을 물어본 값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사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이어지면서 청소년 시기에 미디어를 통한 학습, 사교활동, 여가활동 등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각각 종류별 이용시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청소년 시기의 미디어 이용 및 미디어 중독에 관심이 높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부모 응답으로 측정되던 미디어 중독을 중학교 1학년부터는 스마트폰 기기 중독에 대해 아동 자가 응답을 추가하여 측정하였다. 부모응답은 PC, 스마트폰을 포함한 미디어기기에 대한 행동적 중독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아동응답은 스마트폰에 대한 심리적 중독에 초점을 맞추어 응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아동응답을 통한 스마트폰 중독의 고위험사용자군이 1.77%임에도, 부모응답을 통한 미디어중독의 고위험사용자군이 44.58%인 점에 대해서는 아동과 부모의 미디어기기 및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현재 중1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미디어에 노출이 되었고, 학습, 놀이, 친구들과의 소통이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미디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그러한 경향성이

16)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인포그래픽(2020.12.31.). 스마트폰, 컴퓨터 가정용 TV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도 상승. https://stat.kisdi.re.kr/kor/board/BoardList.html?board_class=BOARD17&srcContClass=STRP002 (2022년 10월 19일 인출)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부모세대가 청소년이었던 시절은 매우 상황이 달랐으며, 현재의 아이들의 미디어이용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아동들이 인식하는 것 그 이상으로 위험한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부모와 아동의 관점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청소년 시기의 부모-자녀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미디어기기 이용행동에 대해 자녀와 부모가 서로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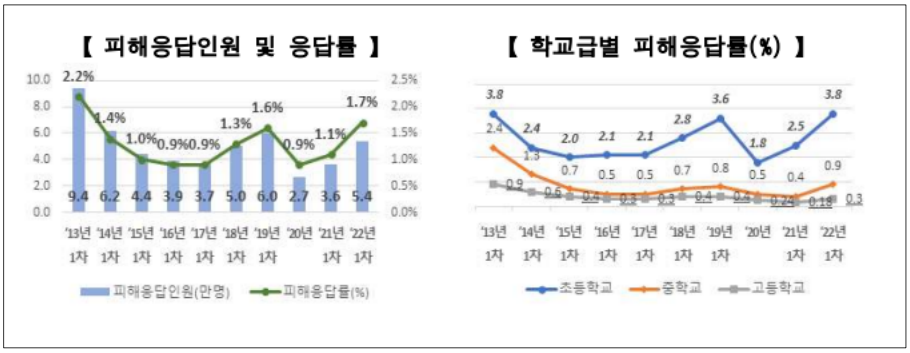
다. 학교 내 폭력 피해·가해 정도 추이파악 및 대응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패널아동이 초등 4학년인 11차년도 조사부터 학교폭력피해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12차년도 조사부터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질문이 추가되었다. 중학교 1학년 시기인 14차년도 조사부터는 학교폭력가해 경험(사이버폭력 포함) 문항을 추가하여 파악하였다. 앞서 14차년도 조사결과에서 언급하였듯이, 학교폭력피해 경험의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에 비해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모든 항목에서 '없다'의 비율이 늘어 폭력피해경험이 준 것으로 나타난다.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4주간 온라인으로 초등 4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교육부 보도자료, 2022. 9. 5.)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비대면 수업 등이 시작되기 전 2019년까지는 학교급을 통합하여 피해응답률이 1.6%였으나, 2020년에 0.9%, 2021년에 1.1%였던 반면, 학교등교가 정상화되면서 점차 폭력 피해수치도 2022년에는 1.7%로, 2019년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전체 피해 응답 비율은 초등학교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나타나, 조사결과에서의 피해 응답률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2020년~2021년 사이 코로나19 거리두기 회복추세로 전체 폭력피해 수치는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아동패널 자료에서 폭력피해가 감소한 것은 초등학교-중학교의 학교급 변화로 보여지며, 이에 대한 해석으로는 초등학생이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 교우관계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해 민감하게 '폭력'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2. 9. 5).

[그림 V-3-1]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2. 9. 5.)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p.2 에서 발췌.

하지만, 학교급이 높아지면서 폭력 피해율이 낮아지는 결과에 대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민감한 사항에 대한 조사에서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 전체적 피해비율은 낮아졌으나, 심각한 폭력피해의 빈도가 늘지는 않았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아동패널 14차년도 조사에서 처음 조사된 폭력가해 경험은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거나 놀리고, 싫어하는 장난친 경험'은 '없다'가 73.68%이지만, '연 1~2회'가 15.08%로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따돌린 경험' 및 '때리거나 차거나 조르거나 가둔 경험'의 경우도 '일주일에 여러 번'에서 '연 1~2회'까지 한번이라도 있었던 경우가 3.32%정도를 차지해 2021년 아동응답자 중 44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적다고 할 수 없다.

또래관계가 더욱 중시됨에 따라 또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피해 및 가해 경험에 대해 학교 및 정부차원에서의 주의와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4. 실사 진행 관련 시사점[17)]

가. 패널가구 컨택 관련

1) 이탈 위험 가구

17) 본 내용은 12월 초 진행된 한국아동패널 조사 면담원 대상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함.

이탈의향이 있는 가구의 경우 조사원이 방문을 위해 컨택을 할 때,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사원과 오래 봐왔기 때문에 이탈을 하고자 할 때 미안한 마음으로 인해 연락 자체를 받지 않거나 번호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보호자는 조사 의지가 있으나 아동이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 이혼, 별거 등 가구 환경 변화가 생기면서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 시험 기간 등 여러 핑계로 일정 끌기 등이 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로 지적되었다.

2) 아동의 바빠지는 스케줄

패널아동의 학년이 높아지고, 중학교에 올라감에 따라 학원 등으로 아동과 시간 맞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많은 경우 (아동-보호자 조사 분리 진행에 대해 보호자의 동의를 득한 경우) 보호자와 아동 조사를 따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동이 유학을 가거나 기숙사에 거주, 예체능학교 진학으로 인해 전지훈련을 가는 등의 이유로 직접 대면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보호자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지만, 국내 거주인 경우는 최대한 대면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끝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여 온라인조사 링크를 연구진에서 발송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올해 15차년도 조사는 중학교 2학년에 진학한 사춘기 시기로, 부모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장기간에 걸쳐 아동의 컨디션을 고려하여 조사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본 조사의 동기나 이유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아동 사례도 종종 있어, 이들에게는 조사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및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3) 코로나19 관련

여전히 코로나19를 핑계로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인 상황은 많이 완화된 편이었다. 자가격리로 조사 일정 밀리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 올해 15차년도 조사는 전면 비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하였으며, 온라인조사가 아니면 진행이 어려운 가구에 한해서만 온라인조사를 허용하여, 패널탈락을 막기 위한 최종 수단으로만 이용하였다.

나. 패널 유지 활동

1) 답례품 금액 증액

올해에 아동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아동에게 제공되는 답례비 금액을 5,000원 상향하여 25,000원권의 상품권을 제공하였으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 5월 가정의 달 선물 편의점 상품권 제공 및 퀴즈 상품 제공

기존에 5월 어린이날 즈음에 매해 선물이 제공되던 것이 청소년에 접어들면서. '가정의 달' 선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개별 선물이 아닌, 편의점 어디서든 간식 구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점 상품권 15,000원 권으로 제공하였다. 주기적으로 열공퀴즈 등 아동 핸드폰 번호 제공에 동의한 패널가구 내 아동을 대상으로 문자로 퀴즈를 보내 추첨하여 간식선물을 보내는 등의 대 패널활동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응 매우 좋은 편이었다. 편의점 상품권의 활용도가 높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으나 일부 스팸 문자로 오해하여 수령하지 못하거나, 유효기간(2개월)이 짧아 사용하지 못한 아동도 있었다. 올해는 해당 아동을 대상으로 재발송해주는 등의 보완을 조치하였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아동에게 선물을 보낼 때 보호자에게도 안내 문자를 보내고 일정 시기마다 상품권 유효기간이 임박하였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다. 조사 진행 방식

1) 보호자-아동 개별 조사 진행 사례 증가

중학교 2학년이 된 아동의 일정이 많아지고, 보호자와 아동의 동시 조사가 어려울 경우, 카페 등 집이 아닌 외부공간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카페 이용, 음료 구매 등으로 조사원들의 사적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어, 조사원들에게 가구당 5천 원의 업무비를 사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에 대한 조사원들의 부가적인 요구가 일부 있었으나, 상황에 맞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2) 보호자 문항 내용 축소 및 아동 문항 추가 최소화

2021년 패널아동이 중학생이 되면서 기존 보호자가 응답하던 문항이 아동문항으로 다수 이동되어 한차례 보호자의 문항수가 축소되었다. 2022년에는 보호자 문항 중 다수의 확인문항을 삭제하였으며, 부채, 보험 등 민감한 경제상황에 대해, 보호자 문항을 응답하는 보호자가(주로 어머니)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정확하게 답하지 못하는 경향 및 해당 문항에 대한 기존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삭제하였다. 기존에 지속적으로 보고되던 부담스러운 문항이 줄어듦에 따라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에 지속적으로 패널데이터의 연속성에 지장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 응답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아동 설문 양에 대한 어려움 호소

아동설문의 경우 30~50분가량 소요되고, 평균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 후반부에 긴 척도문항들이 다수 있어, 뒤로 갈수록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며 응답 시간 소요가 심하다고 하였다. 척도 사용문항은 임의대로 축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문항 축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나, 성장발달단계에 맞추어 설문 양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 세부문항별 어려움

1) 사별, 이혼가정의 응답불가 문항관련

사별, 이혼 가정의 경우, 아동 설문에서 부모 각각에 대한 애착 정도를 묻거나, 부모 설문에서 부부만족도 및 갈등 등을 묻는 문항을 응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로직을 설정하는 부분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 연구에서 부모의 사별, 이혼 등에 따라 응답이 어려운 문항의 경우 '해당 없음'이 가능하도록 설정하긴 하였으나, 아동에 따라 항목을 보고 문항이 뜨는 자체에 대해 심적인 부담이 큰 경우도 있다고 하여, 해당 문항들은 가능한 사전에 면접원이 파악하여 아동이 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고, 내년 연구 시 면접원 교육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2) 장래희망 관련

아동의 장래희망을 묻는 문항의 경우, '없다, 고민 중이다' 등의 반응 대다수인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였으며, 사춘기가 오면서 구체적으로 직업이나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응답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없다' 응답을 반영할 지, 대답을 독려할 지 여부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 필요해 보인다.

3) 응답 내용 개별 공유 관련

패널아동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부모와도 대화가 많지 않은 경우가 있어, 부모가 아이들의 응답을 궁금해 하거나 묻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응답에 대해 공유하지 않음을 약속하고 진행하는 조사이므로, 응답내용 공유는 불가함을 알리고 대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이들이 조사참여 당시 면접원이 응답내용을 보는 것조차 꺼리기도 하여, 일부 민감한 문항에 대해서는 아동이 독립된 공간에서 스스로 진행하여, 솔직한 응답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마. 면접원 간담회 결과 반영사항

1) 패널가구 대상 활동에 대해 조사원과 공유

패널가구나 패널아동에게 연구진(육아정책연구소 및 조사업체 중앙본부)이 제공한 선물 및 진행 퀴즈 등에 대해 면접원과 공유하여, 면접원이 당해연도 조사실시를 위해 패널가구에 연락할 때, 관련 정보를 알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 실수 잦은 문항 수정

보호자 설문지에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의 진학 여부(대안학교 포함)'를 묻는 문항에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음(대안학교 포함)' 응답지의 경우, 일반 중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 재학여부 문항으로 혼동하고 '다니고 있지 않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있어서 추가 에디팅을 한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다. 해당 문항의 경우 혼동하지 않도록 응답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3) 조사 참여 거절 가구 유형별 시나리오 재정리 및 공유

조사 참여를 거절하는 가구들이 생기면서 거절하는 유형별로 패널가구에 대응할 방안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시험, 바쁨 등 일정 미루기’, ‘보호자는 조사 참여 의지가 있으나 아동이 거절’, ‘아동이 유학이나 기숙사 거주’, ‘가구 환경 변화’ 등 거절 사유별로 유형화하여, 유학의 경우 온라인 조사 등 각 상황에 따른 대응방안을 매뉴얼화하여, 면접원과 실사팀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4) 패널아동 대상 설명 및 안내문 발송

현재는 패널가구에 대한 연락을 보호자 대상으로 주로 진행하고 있으나, 패널아동도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유 및 조사 관련 소식들을 알 수 있도록 패널 가구에 나가는 안내문을 보호자용, 아동용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데이터 활용 및 조사 결과에 대한 문의

2018년부터 매해 조사 결과에서 주요한 이슈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인포그래픽을 제작하고 있고, 그 결과를 매해 조사가 시작되는 안내문과 함께 패널가구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패널가구에서 지금까지 조사에 참여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면접원이 면접 중에 문의를 받았을 때 아동패널 홈페이지 링크 공유 등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데이터 활용 현황, 매해 진행되고 있는 학술대회 및 기사 활용 등을 정리한 안내문을 제작해 둔 상황이어서, 2023년 조사 안내 시 가구에 발송될 예정이다.

6) 담임교사 조사

면접원이 담임교사에 대한 조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전년도 담임교사 조사 동의 여부를 면접원에게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현재는 보호자에게 담임조사 실시에 대한 동의를 받고 패널아동의 학년/반/담임선생님 성함 등을 물어보나, 이미 본인의 소속학급, 학년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아동이 직접 응답할 수 있도록 해당 문항을 아동설문지로 옮겨 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참고문헌

공소영(2007). 치과위생사의 성격유형(A형/B형)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 치과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경기도교육연구원(2017). 경기교육종단연구(GEPS) 6차년도 중학교 교사용 설문지.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영식·선우성·김병수·박훈기·옥선화·차동혁(2012). FACES Ⅳ의 가족의사소통 척도(FCS) 한국어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241-258.

김은설·배윤진·김근진·조혜주·김혜진(202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0 (한국아동패널 Ⅱ).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김지현·김동훈·조미라·배윤진·김혜진·박은영(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Ⅱ).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도남희·이정원·김지현·조혜주·박은영·김희수(2018).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8(한국아동패널 Ⅱ).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민병수(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서민희·김완수·김미림·한정아·손윤희·정애경·김예림·정주영(2020). 2019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교.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20-24-1.

이규미(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7(2), 383-398.

정송·노언경(2021).『서울교원종단연구 2020』1차년도 시행 및 결과 분석.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서교연 2021-76.

홍예영·김유숙(2015). 청소년 공감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8), 159-183.

Barnes, H. L.,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2). 438-447.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Olson, D. H. (2011). FACES IV and the circumplex model: Validation stud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1), 64-80.

[인터넷 출처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2. 9. 5.).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250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2022년 10월 19일 인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1차년도(2019) 건강설문 조사표〉청소년 건강행태〉음주 및 흡연 문항.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 https://knhanes.kdca.go.kr/knhanes/main.do (2022년 3월 30일 인출).

김민주(2021. 10. 6.). "가정폭력 노출 아동, 자기통제력 저하로 학교폭력 피해자 될 확률 높아".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896 (2022년 3월 10일 인출).

김지현·김동훈·조미라·배윤진·김혜진·박은영(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2023년 1월 31일자로 교체된 파일 기준 p. 96. https://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230&board_idx=44497&manage_idx=32&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ext=&rowCount=10&viewPage=1 (2023년 1월 31일 인출).

김용훈(2021. 9. 1.). "가구소득이 아동 인지능력에 영향…취약계층 지원 늘려야".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9011058489768 (2022년 3월 10일 인출).

매경시사용어사전.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31XXXXX19564 (2022년 12월 26일 인출).

오현태(2021. 9. 1.). "가구소득 따라 아동 인지능력 발달 차이…인적자본 발달 유도할 정책 필요". KBS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69580&ref=A (2022년 3월 10일 인출).

유일지(2021. 9. 1.). 조세연, 소득계층간 아동의 '인지능력 격차 존재..."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강화 필요". 세정일보.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27 (2022년 3월 10일 인출).

이미숙(2021. 9. 30.). 육아정책연구소 '제12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한국강사신문.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521 (2022년 3월 10일 인출).

차지연(2021. 9. 1.). "가구소득 따라 아동 인지능력 발달 격차...취약층 지원 늘려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1073100002?input=1195m (2022년 3월 10일 인출).

최다현(2021. 9. 5.) "가구소득 따라 아동 인지능력 격차…취약층 대상 조기 개입 늘려야".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904215849815 (2022년 3월 10일 인출).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자료실〉도구프로파일〉1차_[부모]우울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4526&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C%9A%B0%EC%9A%B8&rowCount=10&viewPage=1 (2022년 10월 11일 인출).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자료실〉도구프로파일〉13차_[부모] 행동유형 https://panel.kicce.re.kr/pskc/board/view.do?menu_idx=42&board_idx=46415&manage_idx=161&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text=%ED%96%89%EB%8F%99%EC%9C%A0%ED%98%95&rowCount=10&viewPage=1 (2022년 10월 11일 인출).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인포그래픽(2020. 12. 31.). 스마트폰, 컴퓨터 가정용 TV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도 상승. https://stat.kisdi.re.kr/kor/board/BoardList.html?board_class=BOARD17&srcContClass=STR P002 (2022년 10월 19일 인출).

Abstract

2022 Longitudinal Study of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n Children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Ji Hyun Kim · Namhee Do · Yun-Jin Bae · Hyejin Kim · Kyudon Kang · Hyun-jin Jang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is the first longitudinal study for newborns organiz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nd has been conducted for 15 years since 2008 for those born in 2008. PSKC has been providing researchers meaningful data accumulated every year contributing to academic field and policy by providing meaningful data in the fiel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children to children's development.

PSKC was designed to understand the various environments surrounding children, including parents, school, peers, communities, and policies, based on Bronfenbrenner's (1979) ecological perspective.

Most of the panel participant children is 2nd grade of Junior high school and the study is planned to continue until 2027.

The contents of the 2022 annual report is large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the 15th wave PSKC was conducted. Second, a basic analysis of the survey data conducted in the 14th year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is conducted. Third, the 13th academic conference was held by sharing the results of meaningful academic research.

In the 14th wave PSKC, as the panel children entered Junior high school, the scales were extensively modified with variables that are appropriate for adolescence, and most of the were maintained this year.

In the annual report in 2022, we analyzed the data that were collected

in 2021 (14th wave) and provide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parents, households and community. In total, 1,304 panel households (1,293 children) have participated in the 14th year of the survey in 2021. Followings are some representative points from the research results of the 14th wave.

First, the 7th grade panel children's mean height for boys is 164.15㎝ and mean height for girls is 158.9cm. The 7th grade panel children's mean weight for boys is 58.99kg and mean weight for girls is 51.13kg. The average time of media using is 6.56hours per a day in 14th wave and it was 2.80hours per a day in 13th wave.

Second, the mean score of academic stress in the 14th wave is 2.42 on the 5-point-scale. The average score of girls is a lit higher than that of boys, and the children of unemployed mothers showed higher academic stress than the children of employed mothers.

Third, 96.31% of fathers were employed, 63.3% of mothers were employed. Among the employed mothers, the proportion of regular workers were 68.98% in 14th wave which was 7.3%point higher than proportion in 13th wave.

Lastly, the proportion of using the private education is 88.28% for 7th garde excluding the after-school classes. The children with higher house income tend to use private education compared to children with lower house income.

In the 14th wave, there was an interesting finding. While the proportion of children who was shown as addition to media devices (measured by their guardians) was 44.58%, the proportion of children who was shown as addiction to cell phone (measured by children themselves). Even though the measurement was not exactly same, the result was too different. This results showed us that a policy effort is needed for parents and children to understand each others perspectives.

Keyword: panel study, longitudinal data, Korean children, child development

부록

부록 1. 15차년도(2022) IRB 승인통지서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nstitutional Review Board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9층(04535)
Tel. 02-398-7761 Email. yjyj465@kicce.re.kr

심 의 일 자	2022. 06. 13.
과 제 번 호	220996-220613-HR-008

연 구 제 목	한국 아동 성장 발달 종단 연구 2022(한국아동패널II)
연 구 책 임 자	김 지 현
연 구 승 인 일	2022. 06. 21.
연 구 승 인 기 간	2022. 06. 21. ~ 2022. 12. 31.
연 구 승 인 번 호	KICCEIRB-2022-제07호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부록 2. 14차년도(2021년 조사) 질문지

한국갤럽
0316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www.gallup.co.kr
T 02-3702-2100 GALLUP
F 02-3702-2121 INTERNATIONAL

한국아동패널 2021 (아동용)

Gallup
2021-223-027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면접원 ○○○입니다.

저희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매년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34조(통계작성 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1년 6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대표이사 박재형
담당연구원 김종서
전화 02-3702-2612

다음은 아동의 신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 아동의 신체 측정 시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중]

J01-1) 나의 현재 몸무게는 몇 kg 입니까?

2020년 측정 몸무게 : (_____kg)

① 몸무게 미계측

② 계측 몸무게(_____kg)

▶ 범위 : 〉 0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21년도 몸무게 〈 20년도 몸무게
▶ 21년도 몸무게 ≧ 20년도 몸무게+11kg → J01-1-2)으로 갈 것

J01-1-1) 몸무게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병치레
② 다이어트
③ 기타(적을 것 : _____)
④ 전년도 오류(전년도 몸무게 : _____kg)
⑤ 전년도 오류. 몸무게 알 수 없음

J01-1-2) 몸무게가 11kg 이상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① 측정 오류 → J01-1)으로 갈 것
② 전년도 오류(전년도 몸무게 : ____ kg)
③ 전년도 오류. 몸무게 알 수 없음
④ 맞음

[신장]

J01-2) 현재 키는 몇 cm 입니까?

☑ 벽면에 아동의 발, 엉덩이, 머리를 밀착시키고, 허리를 편 상태에서 측정해 주세요.
☑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 측정 키: (cm)

① 키 미계측 ② 계측 키(_____ cm)

▶ 범위: 〉0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21년도 키 〈 20년도 키 → J01-2-1) 응답 후, J01-3)으로 갈 것
▶ 21년도 키 ≧ 20년도 키 + 17cm → J01-2-2

J01-2-1) 키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병치레
② 기타( )
③ 전년도 오류(전년도 키: ____ cm)
④ 전년도 오류. 키 알 수 없음

J01-2-2) 키가 17cm 이상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① 측정 오류 → J01-2
② 전년도 오류(전년도 키: ____ cm)
③ 전년도 오류. 키 알 수 없음
④ 맞음

[허리둘레]
J01-3) 현재 허리둘레는 몇 cm 입니까?

☑ 줄자가 배꼽을 지나 수평으로 재주세요.
☑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 측정 허리둘레: (____ cm)

① 허리둘레 미계측 ② 계측 허리둘레(_____ cm)

▶ 범위: 〉0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 21년도 허리둘레 〈 20년도 허리둘레 → J01-3-1) 응답 후,
→ J02-1)로 갈 것
▶ 21년도 허리둘레 ≧ 20년도 허리둘레 + 12cm → J01-3-2

J01-3-1) 허리둘레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병치레
② 다이어트
③ 키가 크면서
④ 기타(적을 것 : _____)
⑤ 전년도 오류(전년도 허리둘레: ____ cm)
⑥ 전년도 오류. 허리둘레 알 수 없음

J01-3-2) 허리둘레가 12cm이상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① 측정 오류 → J01-3)으로 갈 것
② 전년도 오류(전년도 허리둘레 : ____ cm)
③ 전년도 오류. 허리둘레 알 수 없음
④ 맞음

지금부터는 보호자와 분리된 장소에서 각각 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다음은 아동의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식생활 진단]

J02-1) 식생활을 간단히 평가해 볼 수 있는 식생활진단표입니다.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아닌 편이다
J02-1-1) 우유나 유제품 (요거트, 요플레 등)을 매일 2병 이상 마신다	①	②	③
J02-1-2) 육류, 생선, 달걀, 콩, 두부 등으로 된 음식을 끼니마다 먹는다	①	②	③
J02-1-3) 김치 이외의 채소를 끼니마다 먹는다	①	②	③
J02-1-4) 과일 (1개)이나 과일주스 (1잔)를 매일 먹는다	①	②	③
J02-1-5) 튀김이나 기름에 볶는 요리를 주 2회 이상 먹는다	①	②	③
J02-1-6) 지방이 많은 육류 및 생선류 (삼겹살, 갈비, 장어 등)를 주 2회 이상 먹는다	①	②	③
J02-1-7) 식사할 때 음식에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는다	①	②	③
J02-1-8) 식사는 매일 세끼를 규칙적으로 한다	①	②	③

문 항 내 용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아닌 편이다
J02-1-9) 아이스크림, 케이크, 과자류,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등)를 간식으로 주 2회 이상 먹는다	①	②	③
J02-1-10) 모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한다 (편식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식생활 진단_청소년용_카페인음료 섭취]

J02-2) 최근 1주일 동안 탄산음료(예시 : 콜라, 사이다 등)를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① 최근 7일 동안 마시지 않음
② 주 1-2번
③ 주 3-4번
④ 주 5회 이상

[식생활 진단_청소년용_인스턴트 섭취]

J02-3) 최근 1주일 동안 인스턴트(라면, 피자, 치킨, 편의점 음식 등)를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①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음
② 주 1-2번
③ 주 3-4번
④ 주 5회 이상

[휴대폰(스마트폰) 소유 여부]

J02-4) 현재 휴대폰(스마트폰 등)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미디어 이용시간]

J02-5) 스마트폰, PC(인터넷) 등을 다음의 항목에 1일 평균 몇 시간 몇 분 사용합니까? (3시간일 경우 3시간 00분으로 기입)

구 분	전혀 안함	시간
1) 학습(인터넷 강의, 온라인 수업, 학교/학원 숙제 등)	①	(　　)시간 (　　)분
2) 정보 검색(맛집, 쇼핑, 뉴스 검색 등)	①	(　　)시간 (　　)분

3) 게임	①	(　　)시간 (　　)분
4) 엔터테인먼트 (동영상 감상, 웹툰 감상 등) 단, 게임과 SNS 제외 주의	①	(　　)시간 (　　)분
5) SNS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①	(　　)시간 (　　)분

총계 1일 평균 (　　)시간 (　　)분
→ 합계가 0이거나 8 이상일 경우 경고 팝업

[미디어 기기 중독_자가진단]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J02-6-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①	②	③	④
J02-6-2)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①	②	③	④
J02-6-3)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J02-6-4)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J02-6-5)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 등)을 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J02-6-6)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J02-6-7)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①	②	③	④
J02-6-8)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J02-6-9)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J02-6-10)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J02-6-11)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①	②	③	④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J02-6-12)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J02-6-13)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J02-6-14)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패닉상태에 빠진다	①	②	③	④
J02-6-15)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①	②	③	④

다음부터는 학기 중의 해당요일에 대해서 답하는 문항입니다.
방학 중 응답하는 경우 "종업식 전 주"의 해당요일을 회상하며 응답해 주세요.

[기상/취침 시각_주중(생선변수:수면시간), 기상/취침 시각_주말(생선변수:수면시간)]

J02-7) 평소 학기 중 밤에 몇 시에 잠들어 아침 몇 시에 일어납니까?

▣ 24시간 기준으로 입력해 주세요. (저녁9시 → 21시, 밤12시 → 0시)

▣ 30분 단위로 입력해 주세요. (00분, 30분만 입력 가능)

1) 주중 [자동구현] 요일	( )시 ( )분에 잠들어 ~ ( )시 ( )분에 일어남	▶ 주중, 1일 수면시간 ( ) 시간
2) 주말 [자동구현] 요일	( )시 ( )분에 잠들어 ~ ( )시 ( )분에 일어남	▶ 주말, 1일 수면시간 ( ) 시간

▣ 주중 일과시간은 [자동구현]요일을 기준으로 회상하여 응답해주십시오.

J02-8) [자동구현]요일에 학교에 직접 등교하였습니까?

① 그렇다(대면 수업일)

② 아니다(비대면 수업일)

[일과 활동 시간_주중]

J02-9) 학기 중 [자동구현]요일을 회상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다음의 활동을 보통 얼마동안 합니까?

- 방학 중에 조사할 경우, 종업식 이전 주의 배정된 요일을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함
- 시간 환산 예 : 30분(0.5시간) 단위로 응답 가능

시간	활동 안함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4시간 30분	5시간	5시간 30분
응답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시간	6시간	6시간 30분	7시간	7시간 30분	8시간	8시간 30분	9시간	9시간 30분	10시간	10시간 30분	11시간	11시간 30분
응답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11.0	11.5

구분	활동 내용	주중 하루
생활필수 행동	1) 수면시간(밤)	(　　)시간
	2) 식사, 간식 먹기,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시간	(　　)시간
학습	3)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대면/비대면 포함)	(　　)시간
	4)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 받는 시간 (학원, 과외 등)	(　　)시간
	5) 숙제 등 혼자 공부를 하는 시간(자습)	(　　)시간
	6) 인터넷 강의 등 학교수업 외 비대면교육	(　　)시간
여가 및 교제	7) 책 읽는 시간	(　　)시간
	8)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 시청	(　　)시간
	9) 컴퓨터, 휴대전화, 가정용콘솔 등을 통한 게임	(　　)시간
	10)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등 취미생활	(　　)시간
	11)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	(　　)시간
	12-1) 친인척, 친구들과의 만남 등 사교활동	(　　)시간
	12-2) SNS 카카오톡 등 통신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교제	(　　)시간

	13) 애완동물 (반려동물) 돌보기	(　　)시간
	14) 종교 활동	(　　)시간
가정관리	15)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등 가사일 돕기	(　　)시간
기타	16) 이동 시간	(　　)시간
	17) 기타 시간	(　　)시간
	▶ 현재까지 시간의 합	(　　) / 24시간

[일과 활동 시간_주말]

▣ 주말 일과시간은 [자동구현]요일을 기준으로 회상하여 응답해주십시오.

J02-10) 학기 중 [자동구현]요일을 회상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다음의 활동을 보통 얼마동안 합니까?

- 방학 중에 조사할 경우, 종업식 이전 주의 배정된 요일을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함
- 시간 환산 예 : 30분(0.5시간) 단위로 응답 가능

시간	활동안 함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4시간 30분	5시간	5시간 30분
응답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시간	6시간	6시간 30분	7시간	7시간 30분	8시간	8시간 30분	9시간	9시간 30분	10시간	10시간 30분	11시간	11시간 30분
응답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11.0	11.5

구분	활동 내용	주중 하루
생활필수 행동	1) 수면시간(밤)	(　　)시간
	2) 식사, 간식 먹기,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시간	(　　)시간
학습	3)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대면/비대면 포함)	(　　)시간
	4)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 받는 시간 (학원, 과외 등)	(　　)시간

	5) 숙제 등 혼자 공부를 하는 시간(자습)	(　　)시간
	6) 인터넷 강의 등 학교수업 외 비대면교육	(　　)시간
여가 및 교제	7) 책 읽는 시간	(　　)시간
	8)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 시청	(　　)시간
	9) 컴퓨터, 휴대전화, 가정용콘솔 등을 통한 게임	(　　)시간
	10)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등 취미생활	(　　)시간
	11)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	(　　)시간
	12-1) 친인척, 친구들과의 만남 등 사교활동	(　　)시간
	12-2) SNS 카카오톡 등 통신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교제	(　　)시간
	13) 애완동물 (반려동물) 돌보기	(　　)시간
	14) 종교 활동	(　　)시간
가정관리	15)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등 가사일 돕기	(　　)시간
기타	16) 이동 시간	(　　)시간
	17) 기타 시간	(　　)시간
	▶ 현재까지 시간의 합	(　　) / 24시간

[시간사용 만족도]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부족함	충분함	지나치게 많음
J02-11-1)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은 충분하다	①	②	③

문 항 내 용	부족함	충분함	지나치게 많음
J02-11-2)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충분하다	①	②	③
J02-11-3)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취미, 운동 등)하는 시간은 충분하다	①	②	③
J02-11-4)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충분하다	①	②	③
J02-11-5)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충분하다	①	②	③
J02-11-6) 여가활동 시간(취미, 운동 등)은 충분하다	①	②	③
J02-11-7) 숙제하는 시간은 충분하다	①	②	③
J02-11-8) 집에서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은 충분하다 ※ 가족을 도와주는 시간은 음식 준비, 의류 관리, 청소 및 정리 등의 가사일 돕기를 의미합니다	①	②	③

[독서량]

J02-12) 일주일에 몇 권의 책을 읽습니까?

- e-book, 학습 만화 포함
- '2주에 1권을 읽는 경우 '0.5'로 입력해 주세요'

① 안 읽음
② 1주일에 평균(　　)권을 읽음

[실내외 운동 정도]

J02-13) 지난 7일 동안 실내외에서 한번에 [보기]와 같은 신체활동(운동)을 30분 이상 한 날은 며칠 입니까?

[보기] 신체활동	탁구, 수영, 배구, 배드민턴, 빠르게 걷기,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골프, 체육시간에 실제 운동한 시간, 운동장·놀이터에서 놀기 등 격렬하거나 땀이 날 정도의 신체활동 (등하교시 걷는 것은 제외)

① 없음
② 1일
③ 2일
④ 3일
⑤ 4일
⑥ 5일 이상

[취미(악기연주,스포츠경험) 여부]

J02-14) 현재 취미로 연주하는 악기가 있습니까? (전공으로 하는 악기는 제외)

① 있다
② 없다

[취미(악기연주,스포츠경험) 여부]

J02-15) 현재 즐겨 하는 운동이 있나요? (전공으로 하는 운동은 제외)

① 있다
② 없다

[취미 여부]

J02-16) 현재 취미가 있습니까? (악기, 운동도 포함)

① 있다 → J02-17)로 갈 것
② 없다 → J02-18)로 갈 것

[취미 종류]

J02-17) 주로 하는 취미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순위까지 선택 가능)

1순위 , 2순위

① 노래. 악기 연주
② 운동/스포츠, 댄스
③ 웹툰 포함한 그림그리기
④ 영상제작 (YouTube 영상 포함)
⑤ 독서
⑥ 음악 및 영화 감상
⑦ (적을 것 : _____)

[가사 참여 여부]

J02-18) 다음은 가사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1) [의생활] 벗은 옷을 옷걸이에 걸기, 빨랫감 모으기, 세탁기 돌리기, 빨래 널거나 개기,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기 등	①	②	③	④

문 항 내 용	전혀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2) [식생활] 반찬이나 수저를 식탁에 놓기, 요리 돕기, 간식 만들어 먹거나 밥 챙겨 먹기, 과일 깎기, 식탁 정리, 설거지 등	①	②	③	④
3) [주생활] 내방 정리, 청소기 돌리기, 쓰레기 분리수거, 화분에 물주기, 현관의 신발 정리, 간단한 집안 수리(못질하기, 전구 갈기) 등	①	②	③	④
4) [돌봄] 부모님 심부름, 동생 돌보기, 가족이 아플 때 돕기, 우편물 챙기기, 집안행사(명절, 생일 등) 준비 등	①	②	③	④

[2차 성징]

J02-19) 몽정(남아) 또는 초경(여아) 등 2차 성징이 나타났습니까?

① 예 → J02-20)으로 갈 것

② 아니오 → J02-21-1)로 갈 것

[2차 성징]

J02-20) 처음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난 시기는 언제입니까?

시작 년도 (　　)년

[신체적 자아상]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J02-21-1)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J02-21-2) 나는 내 체중이 불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J02-21-3) 나는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 좋다	①	②	③	④
J02-21-4) 할 수 있다면 나의 외모에 대해 바꾸고 싶은 부분이 많다	①	②	③	④
J02-21-5) 나는 내 키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체중에 대한 인식 및, 체중조절경험]

J02-22)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마른 편이다
② 약간 마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비만이다
⑤ 매우 비만이다

[체중에 대한 인식 및, 체중조절경험]

J02-23) 최근 1년 동안 본인의 의지로 몸무게를 조절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①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했다 → J02-23-1)로 갈 것
②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 J02-23-1)로 갈 것
③ 몸무게를 늘리려고 노력했다 → J03-1)로 갈 것
④ 몸무게를 조절하기 위해 노력해본 적 없다 → J03-1)로 갈 것

[체중조절 방법]

J02-23-1) 최근 1년 동안 몸무게를 줄이거나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인지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① 운동
② 식사량을 줄이거나 또는 식단조절 (식사는 거르지 않고 섭취량을 줄임)
③ 결식 (식사를 거름)
④ 건강기능식품
⑤ 원푸드 다이어트(포도, 우유, 감자, 고구마 등 한 가지 음식만을 먹는 다이어트)
⑥ (적을 것 : _____)

지금부터는 공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업 이해도]

J03-1) 아래 과목의 학교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목	거의 이해하지 못함 (0-20% 미만)	잘 이해하지 못함 (20-40% 미만)	보통 (40-60% 미만)	잘 이해함 (60-80% 미만)	매우 잘 이해함 (80-100%)
국어	①	②	③	④	⑤
영어	①	②	③	④	⑤
수학	①	②	③	④	⑤
사회	①	②	③	④	⑤
과학	①	②	③	④	⑤

[과목 선호도]

J03-2)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중에,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순서대로 두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① 국어
② 영어
③ 수학
④ 사회(역사 포함)
⑤ 과학
⑥ 도덕
⑦ 기술,가정
⑧ 음악
⑨ 미술
⑩ 체육
⑪ 정보
⑫ 진로

[학업 스트레스]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그런적 없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J03-3-1) 나는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그런적 없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J03-3-2) 나는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J03-3-3) 나는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J03-3-4)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자기조절학습]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J03-4-1) 나는 어려운 과목을 공부할 때는 시간과 노력을 좀 더 많이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J03-4-2) 나는 싫어하는 과목이나 어려운 과목이라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열심히 해야지 다짐을 한다	①	②	③	④
J03-4-3) 나는 지루하지 않게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한다 (예를 들면, 공부가 잘 되는 장소나 시간에 공부하거나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을 번갈아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J03-4-4) 나는 과목별 특징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J03-4-5) 공부할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중간 중간에 스스로 점검한다	①	②	③	④

지금부터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과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동이 인식하는 교육서비스]

J04-1) 현재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고 있다.
(방과후 학교, 또는 지역 아동센터,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 J04-2)으로 갈 것
② 아니오 → J05-1)으로 갈 것

[아동이 인식하는 교육서비스]
J04-2) 몇 개의 학원/과외를 다니고 있습니까?
( )

[아동이 인식하는 교육서비스]
J04-3)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과외의 개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적은 편
② 적당한 편
③ 많은 편

[아동이 인식하는 교육서비스]
J04-4)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과외에 대해서 어떻게 느낍니까?

①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②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스러운 편이다
⑤ 매우 부담스럽다

[교육서비스의 효과 인식]
J04-5) 사교육이 나의 실력(성적, 능력, 솜씨, 기술 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지금부터는 본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속어 사용]
J05-1) 다음과 같은 언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예 존나, 새끼, 개XX, 현피뜬다. 쌉가능 등의 비속어

①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② 가끔 사용한다

③ 자주 사용한다
④ 매일 사용한다

▶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자아존중감_초등~]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J05-2-1) 나는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J05-2-2) 나에게는 좋은 면이 많다	①	②	③	④
J05-2-3) 나는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J05-2-4)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J05-2-5) 나는 스스로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자아탄력성]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J05-3-1)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①	②	③	④
J05-3-2)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 낸다	①	②	③	④
J05-3-3)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J05-3-4)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J05-3-5) 나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 보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J05-3-6)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J05-3-7) 나는 같은 장소에 갈 때도 늘 가던 길 보다는 다른 길로 가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J05-3-8)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J05-3-9)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J05-3-10) 나는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J05-3-11) 내 생활은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①	②	③	④
J05-3-12)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J05-3-13)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	①	②	③	④
J05-3-14)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①	②	③	④

[자아정체감]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J05-4-1)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①	②	③	④
J05-4-2)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J05-4-3)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①	②	③	④
J05-4-4)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①	②	③	④
J05-4-5)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J05-4-6)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영향받기 쉽다	①	②	③	④
J05-4-7)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①	②	③	④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J05-4-8)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다음 문장을 읽고,
본인의 생각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반적 행복감]

문 항 내 용	전혀 행복하지 않다	별로 행복하지 않다	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
J06-1-1) 나는 학교 공부를 생각하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J06-1-2) 나의 외모에 대해 생각하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J06-1-3) 나는 가족에 대해 생각하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J06-1-4) 나는 친구에 대해 생각하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J06-1-5)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 생각하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J06-1-6) 나는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삶의 만족도]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J06-2-1) 나는 사는 게 즐겁다	①	②	③	④
J06-2-2) 나는 걱정거리가 있다	①	②	③	④
J06-2-3)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우울]

▣ 아래에 적혀있는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지난 1주 동안 느끼고 행동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극히 드물다 (일주일 동안 1일 이하)	가끔 있었다 (1~2일)	자주 있었다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J06-3-1) 기분이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J06-3-2)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J06-3-3) 슬픈 기분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J06-3-4)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J06-3-5) 즐겁게 지냈다	①	②	③	④
J06-3-6) 입맛이 없어서 별로 먹고 싶은 기분이 안 들었다	①	②	③	④
J06-3-7)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힘겹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J06-3-8)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J06-3-9) 하루하루 지내기가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J06-3-10) 사람들이 나에게 잘 대해 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J06-3-11)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자율성]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J06-4-1) 나는 내 생활 속에서 압박감에 시달린다	①	②	③
J06-4-2) 나는 내 생활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J06-4-3) 나는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J06-4-4) 나는 일상생활에서 나답게 살 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J06-4-5) 나는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사이버 비행]

▣ 다음은 인터넷(모바일 포함)을 이용할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내 용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문제되는 편이다	매우 문제된다
J06-5-1)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기	①	②	③	④	⑤
J06-5-2)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기	①	②	③	④	⑤
J06-5-3)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허락받지 않고 다운로드 받거나 이용하기	①	②	③	④	⑤
J06-5-4)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	①	②	③	④	⑤
J06-5-5) 불건전한 정보(폭력적, 성적인 내용, 자살 등)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	①	②	③	④	⑤
J06-5-5) 집단 따돌림에 가담하기	①	②	③	④	⑤

지금부터는 주변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래애착]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J07-1-1)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나의 생각을 존중해 준다	①	②	③	④
J07-1-2)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J07-1-3) 친구들에게 나의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J07-1-4)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①	②	③	④
J07-1-5)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J07-1-6) 나는 친구들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J07-1-7)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①	②	③	④
J07-1-8)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J07-1-9)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학교적응_중고등학교]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J07-2-1)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J07-2-2) 나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습내용을 잘 익힐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J07-2-3) 나는 하던 공부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J07-2-4) 나는 수업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①	②	③	④	⑤
J07-2-5) 나는 노력만 하면 지금보다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J07-2-6) 학교공부는 내가 성숙된 인간으로 커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J07-2-7)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J07-2-8)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J07-2-9) 학교에는 재미있는 친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J07-2-10) 학교친구들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J07-2-11)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J07-2-12) 나와 함께 놀아줄 학교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J07-2-13)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①	②	③	④	⑤
J07-2-14) 나는 모둠활동을 할 때 협조를 잘 하려고 노력 한다	①	②	③	④	⑤
J07-2-15) 우리 반 친구가 학습준비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으면 함께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J07-2-16) 나는 학교친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J07-2-17) 나는 반 친구가 이야기할 때 잘 귀담아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J07-2-18) 나에게는 고민을 나눌 학교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J07-2-19) 선생님들은 배울 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J07-2-20) 선생님들은 대체로 학생들에게 잘해주시려고 노력 한다	①	②	③	④	⑤
J07-2-21)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J07-2-22) 이번 학년에 만난 선생님들은 대체로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J07-2-23)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대체로 가까이 대하기가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J07-2-24) 우리 학교에는 친구처럼 재미있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J07-2-25) 고민이 있으면 상담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J07-2-26) 내 마음속의 비밀을 선생님에게 이야기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J07-2-27) 나는 선생님들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J07-2-28) 우리 학교에는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J07-2-29) 나는 화장실이나 수도 등 학교시설을 아껴서 사용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J07-2-30) 학교규칙은 학생들이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잘 지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J07-2-31) 나는 학교 안에서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J07-2-32) 나는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J07-2-33) 나는 학교물건을 내 물건처럼 조심스럽게 사용 한다	①	②	③	④	⑤
J07-2-34) 나는 학교의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 한다	①	②	③	④	⑤
J07-2-35) 나는 주번활동을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J07-2-36) 나는 요즈음 학교생활이 즐겁고 유쾌하다	①	②	③	④	⑤
J07-2-37) 나는 우리학교의 특별한 행사(소풍, 축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J07-2-38) 나는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창의적 학교 환경]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J07-3-1) 선생님은 내가 무엇을 만들면 관심을 가지신다	①	②	③	④	⑤
J07-3-2) 선생님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러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J07-3-3) 선생님은 내 말을 들어주기 보다는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J07-3-4) 내 친구(들)는(은) 내가 힘들 때 따뜻하게 위로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J07-3-5) 선생님은 내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하면 말리신다	①	②	③	④	⑤
J07-3-6) 내 친구(들)는(은) 내가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J07-3-7) 우리 반에는 지켜야할 규칙이 많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J07-3-8) 선생님은 야단을 많이 치신다	①	②	③	④	⑤
J07-3-9) 선생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J07-3-10) 내 친구(들)는(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공감]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거의 그렇다	항상 그렇다
J07-4-1) 무리에 끼지 못하고 혼자 있는 친구가 있다면 같이 놀자고 먼저 얘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7-4-2) 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7-4-3) 기운 없이 앉아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먼저 말을 건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7-4-4) 고통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일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거의 그렇다	항상 그렇다
J07-4-5) 나는 친구의 힘든 일을 함께 걱정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7-4-6) 시험을 못 봐서 속상해 하는 친구가 있으면 격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7-4-7) 나는 누군가 곤란에 처해있을 때 기꺼이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7-4-8)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쉽게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7-4-9)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잘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7-4-10)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내게는 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7-4-11)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7-4-12)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7-4-13) 나는 다른 사람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도 감정의 동요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7-4-14)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7-4-15) 다른 사람이 고통 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7-4-16) 시무룩해있는 친구를 보면 무슨 일이 있는지 염려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7-4-17) 친구가 슬퍼할 때면 나도 기분이 슬퍼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지금부터는 본인의 학교와 학교 밖 친구들 관련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폭력 피해(온/오프)]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없다	1년에 1~2번	한 달에 1번	한 달에 2-3번	1주에 1-2번	일주일에 여러번
J08-1-1) 다른 학생(친구)에게 뺨, 얼굴, 머리 등을 주먹이나 발로 맞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8-1-2) 다른 학생(친구)에게 왕따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 항 내 용	없다	1년에 1~2번	한 달에 1번	한 달에 2-3번	1주에 1-2번	일주일에 여러번
J08-1-3) 다른 학생(친구)에게 험담, 심한(상스러운) 욕설 등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8-1-4) 다른 학생(친구)이 나를 고의적으로 툭툭 치고, 심부름을 시키고, 숙제를 해 오라는 등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8-1-5) 다른 학생(친구)에게 돈이나 물건(학용품, 가방, 시계 등)을 빼앗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8-1-6) 다른 학생(친구)에게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등의 협박이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8-1-7) 다른 학생(친구)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말이나 행동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8-1-8) 온라인 상에서 신체적인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8-1-9) 온라인 상에서 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려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8-1-10)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서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8-1-11) 학교 친구에게서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8-1-12) 학교 밖의 사람에게서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8-1-13) 카메라 및 핸드폰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위협받거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폭력 가해(온/오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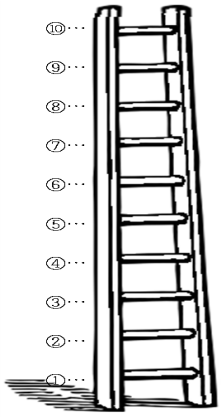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없다	1년에 1~2번	한 달에 1번	한 달에 2-3번	1주에 1-2번	일주일에 여러번
J08-2-1) 다른 친구를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거나 놀리거나 싫어하는 장난을 쳤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8-2-2) 다른 친구를 의도적으로 혼자 남겨두거나 따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8-2-3) 다른 친구를 때리거나, 차거나, 조르거나, 가두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8-2-4) 사람들이 싫어하게 만들 목적으로 다른 친구에 대한 나쁜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쪽지 같은 것을 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8-2-5) 돈이나 다른 물건들을 빼앗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8-2-6) 다른 친구에게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협박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8-2-7) 온라인 상에서 신체적인 위협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8-2-8) 온라인 상에서 그 친구에 대해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8-2-9) 누군지 모르게 하여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8-2-10) 학교 친구에게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8-2-11) 학교 밖의 사람에게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8-2-12) 카메라 및 핸드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후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8-2-13) 원하지 않는 성적인 괴롭힘(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을 행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지금부터는 본인의 가족과 장래희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대적 박탈지수(가정형편)]

J09-1) 귀 가정의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사다리 중에서 어디쯤이라고 생각합니까?
(1 : 매우 못 산다, 10 : 매우 잘 산다)



[이성관계]

J09-2) 나는 서로 좋아하며 사귀는 이성 친구(나와 성별이 다른 친구)가 있다.

① 있다
② 없다

[미래희망직업]

J09-3) 어떤 직업을 가장 원합니까? 가장 원하는 직업과 그 다음으로 원하는 직업을 적어주세요.

원하는 직업 1순위 , 원하는 직업 2순위

-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세요
- 응답 예시 : 교사, 요리사, 성악가, 작곡가, 은행원, 생물학자, 경찰관, 운동선수, 연예인, 크리에이터 등

[장래희망]

J09-4)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① 돈을 잘 버는 사람
② 유명한 사람
③ 우리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는 사람
④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
⑥ 일보다 취미/여가를 즐기는 사람

[진로성숙도]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J09-5-1) 향후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J09-5-2)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J09-5-3) 향후 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J09-5-4) 내가 가보고 싶은 향후 진로가 자주 바뀐다	①	②	③	④
J09-5-5) 향후 진로설정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J09-5-6) 미래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향후 진로를 미리 설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①	②	③	④
J09-5-7) 나의 향후 진로설정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미래에 대한 인식]

J09-6) 본인의 미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매우 어둡다	어두운 편	보통	밝은 편	매우 밝다
①	②	③	④	⑤

[결혼관]

J09-7) 미래에 결혼할 생각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자녀관]

J09-8) 자녀(아이)를 가질 생각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저축관]

J09-9) 평소에 저축을 합니까?

① 예 → J09-10)으로 갈 것
② 아니오 → J09-12)로 갈 것

[저축금 출처]

J09-10) 저축은 주로 어떤 돈으로 합니까?

①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으로
② 명절 등에 친척, 손님이 비정기적으로 주신 돈으로
③ 집안 일을 돕거나 부모님 심부름·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번 돈으로
④ (적을 것 : _____)

[저축 방법]

J09-11) 저축을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① 저금통에 모은다
② 내가 직접 은행에 저금한다(은행의 예금, 적금 상품가입)
③ 지갑에 모아둔다
④ 부모님께 맡겨 모은다
⑤ (적을 것 : _____)

[용돈 지급 여부]

J09-12) 용돈을 받습니까?

① 받지 않음 → J09-15)로 갈 것
② 필요할 때마다 받음 → J09-13)으로 갈 것
③ 정기적으로 받음 → J09-13)으로 갈 것

[용돈 지급액]

J09-13) 일주일간 받는 용돈은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금액으로 입력해 주세요. 11,400원은 11,000원, 11,500원은 12,000원입니다.

일주일에 (　　)원

[용돈 사용처]

J09-14) 용돈을 주로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① 학습 자료(학용품, 준비물 등)
② 저축
③ 간식 및 군것질 하기(식사포함)
④ 교통비
⑤ 음악, 게임, 팬덤활동 등 문화생활
⑥ 의류 및 화장품
⑥ (적을 것 : _____)

[가구의 경제적 걱정 빈도]

J09-15) 가족들이 돈 문제로 걱정을 자주 합니까?

① 전혀 걱정하지 않음
② 가끔 걱정함
③ 자주 걱정함
④ 항상 걱정함

[안전의식 및 대처]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J09-16-1) 나는 우리집에서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J09-16-2)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J09-16-3)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J09-16-4) 나는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J09-16-5) 나는 지난 1년간 학교에서 받은 안전교육[1] 내용이 실제 위험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학교안전교육(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을 의미함[1]

다음은 본인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성취압력]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J10-1-1) 부모님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J10-1-2)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질까봐 걱정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J10-1-3) 부모님은 내가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꾸중을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J10-1-4) 부모님은 나에게 남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J10-1-5) 부모님은 나에게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J10-1-6) 부모님은 나의 공부에 대하여 잔소리가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J10-1-7) 부모님은 내가 공부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신경을 쓰신다	①	②	③	④	⑤
J10-1-8) 부모님은 내 공부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J10-1-9) 부모님은 "너는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말씀을 종종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J10-1-10) 부모님은 내가 공부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자면 깨우신다	①	②	③	④	⑤
J10-1-11) 부모님은 내가 컴퓨터(또는 핸드폰)에 빠져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J10-1-12)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정해두고 더 이상 놀지 못하도록 하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J10-1-13) 부모님은 내가 공부하지 않고 친구들과 외출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J10-1-14) 부모님은 시험 때가 되면 평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J10-1-15) 부모님이 나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학교 성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본인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답은 없으니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애착]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J11-1-1) 아버지는 나의 감정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J11-1-2) 나는 아버지께 나의 문제나 어려움을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J11-1-3) 아버지는 나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 하도록 격려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J11-1-4) 어떤 일을 의논할 때, 아버지는 나의 의견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J11-1-5) 내가 어떤 것에 화를 낼 때 아버지는 이해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J11-1-6) 아버지는 나의 어려움을 알면 그것에 대해 물어 보신다	①	②	③	④	⑤
J11-1-7) 아버지는 내가 화가 난 것을 모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J11-1-8) 아버지는 자신의 문제가 있으므로 나는 나의 문제로 아버지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J11-1-9) 아버지는 요즘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J11-1-10)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J11-1-11) 나는 아버지에게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J11-1-12) 나는 솔직히 이야기해야 할 때 아버지를 믿고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이제는 어머니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애착]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J11-2-1) 어머니는 나의 감정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J11-2-2) 나는 어머니께 나의 문제나 어려움을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J11-2-3) 어머니는 나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 하도록 격려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J11-2-4) 어떤 일을 의논할 때, 어머니는 나의 의견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J11-2-5) 내가 어떤 것에 화를 낼 때 어머니는 이해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J11-2-6) 어머니는 나의 어려움을 알면 그것에 대해 물어 보신다	①	②	③	④	⑤
J11-2-7) 어머니는 내가 화가 난 것을 모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J11-2-8) 어머니는 자신의 문제가 있으므로 나는 나의 문제로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J11-2-9) 어머니는 요즘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J11-2-10) 어머니는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J11-2-11) 나는 어머니에게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J11-2-12) 나는 솔직히 이야기해야 할 때 어머니를 믿고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이제는 부모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 감독]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J11-3-1) 내가 방과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J11-3-2)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J11-3-3) 내가 밤에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J11-3-4)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합리적 설명]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J11-4-1)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J11-4-2) 부모님이 화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J11-4-3) 칭찬이나 벌을 주실 때에는 내가 이해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J11-4-4)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J11-4-5)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아동학대]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두번	거의 매일
J11-5-1)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J11-5-2)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J11-5-3)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J11-5-4) 내가 아플 때에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	①	②	③	④	⑤

※ 아동학대 관련 고민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혹은 앱을 통하여 연락바랍니다.전화·문자 상담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스마트폰 앱: '아이지킴이콜 112'
·아동학대 전화·문자 상담: 182

빠진 문항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한국갤럽 0316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T 02-3702-2100 GALLUP
www.gallup.co.kr F 02-3702-2121 INTERNATIONAL

한국아동패널 2021 (보호자 질문지)

Gallup 2021-223-027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면접원 ○○○입니다.

저희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매년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34조(통계작성 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1년 7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대표이사 박재형
담당연구원 김종서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D01-1) 조사 날짜는?

( )월 ( )일

D01-2) 아동 이름이 맞습니까?

아동 이름 : _____

① 맞음 → D01-3-1)으로 갈 것

② 틀림 → (실제 이름 : _____) → 기입 후, → D01-3)으로 갈 것

D01-3) 아동 이름이 바뀐 이유는? → 응답 후, → D01-3-1)으로 갈 것

① 개명

② 지난조사에서의 입력 오류

③ 부모의 결혼상태 변동

④ 기타(적을 것: _____)

D01-3-1) "아동" 성별이 _____ 가 맞습니까?

① 맞음

② 틀림

D01-3-2) "아동" 출생월일이 _____ 월 _____ 일이 맞습니까?

① 맞음

② 틀림 → (실제 출생월일 : _____ 월 _____ 일)

→ 기입 후, → D01-4)으로 갈 것

D01-4) 귀하와 아동의 관계는?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_____(이)의 조부모
④ 기타 친인척

D01-5) 귀하의 성명과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1) 응답자 성명: (_____)
① 맞음 → 2)~4) 응답 후 → D01-6)으로 갈 것
② 틀림 → (직접 입력 : _____) 하고, → 2)~4) 응답 후 → D01-5-5)로 갈 것

2) 집 전화: (_____)
① 맞음
② 틀림 → (직접 입력 : _____)
③ 집 전화 없음

3) 어머니 휴대폰: (_____)
① 맞음
② 틀림 → (직접 입력 : _____)
③ 전화 없음

4) 아버지 휴대폰: (_____)
① 맞음
② 틀림 → (직접 입력 : _____)
③ 전화 없음

D01-5-5) 귀하의 성명이 바뀐 이유는?

① 개명
② 지난조사에서의 입력 오류
③ 결혼상태 변동
④ 기타(적을 것: _____)

D01-6) 한국아동패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패널아동들에게 관련 정보와 선물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아동 및 보호자 모두 동의하실 경우 아동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 목적: 한국아동패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정보 전달 및 이벤트 진행
수집 정보: 패널아동의 핸드폰 번호
보유 기간: 수집일로부터 2032년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한국아동패널 조사 참여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① 아동 및 보호자 모두 동의함 (패널아동 핸드폰 번호:)
② 아동의 핸드폰이 없거나 동의하지 않음

D01-7) 귀댁의 주소지를 확인해 주세요.

▶ 2021년 도로명 주소:
(_____) 시·도 (_____)
군구 (_____)

① 맞음 → D02-1로 이동
② 틀림 → (직접 입력 : _____) 후, → D01-8)으로 갈 것

[지난 조사 후 이사 횟수]

D01-8) 귀댁은 아래 주소지 거주 이후 몇 번이나 이사를 하셨습니까?

※ OO(이)가 태어난 이후가 아닌, 아래 지난 주소지 이후의 이사 횟수를 의미합니다.

▶ 2020년 도로명 주소:
(_____) 시·도 (_____)
군구 (_____)

① 총 이사 횟수 (_____) 회
② 이사하지 않음

D01-8에서 이사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D01-9문항 질문할 것

D01-9) 귀댁이 이사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주거환경(주택, 교통 등)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② 자녀교육 환경(학교, 학원 등)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③ 주변 환경(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④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어서
⑤ 집값 부담 때문에
⑥ 기타(적을 것: _____)

02 다음은 귀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패널아동의 조부모, 친인척, 기타 가구원 수(생성변수: 가구원 수), 출생순위]

D02-1) 귀 댁의 가구 구성원 수 및 ○○(이)의 출생순위를 응답해 주세요.

구분	▶ 총 가구원 수 (_____)명
1) 자녀 수	(_____) 남 (_____) 녀⇒ 총 (_____) 명
2) ○○(이)의 출생순위	(_____)
3) ○○(이)의 부모	(_____) 명
4) ○○(이)의 할아버지, 할머니	(_____) 명
5) ○○(이)의 친인척 ○○(이)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조카, 증조부모 포함	(_____) 명
6) 기타(적을 것: _____)	(_____) 명

a. 구현값 확인 후 skip(종단2) - 구현값 수정 가능(6)기타 제외)
b. 2) 출생순위 수정 시, → D02-1-1)으로 갈 것
c. 총 가구원 수 화면에 구현: 1)~6) 합산

D02-1-1) ○○(이)의 출생순위가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자녀 수 및 출생순위 잘못 응답 → D02-1)으로 갈 것
② 손위형제 사망
③ 손위형제 입양
④ 재혼으로 인한 형제순위 변동
⑤ 기타(적을 것: _____)

가구 구성 형태

[패널아동의 손윗 형제자매 출생년도, 패널아동의 손윗 형제자매 성별, 패널아동의 손윗 형제자매 결혼여부]

D02-2) ○○(이)의 형/오빠, 누나/언니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구분	1) 출생년도	2) 성별	3) 결혼 여부
첫 번째 형/오빠/누나/언니	(_____)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미혼 ② 기혼
두 번째 형/오빠/누나/언니	(_____)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미혼 ② 기혼
세 번째 형/오빠/누나/언니	(_____)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미혼 ② 기혼
네 번째 형/오빠/누나/언니	(_____)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미혼 ② 기혼

a. 구현값 확인 후 skip(종단18)

[패널아동의 동생 출생년도, 패널아동의 동생 성별, 패널아동의 동생 입적사유]

D02-3) ○○(이)의 동생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구분	1) 출생년도	2) 성별	3) 입적 사유
동생 1	(_____)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출산 ② 입양 ③ 재혼
동생 2	(_____)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출산 ② 입양 ③ 재혼
동생 3	(_____)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출산 ② 입양 ③ 재혼
동생 4	(_____)년도	① 남아 ② 여아	① 출산 ② 입양 ③ 재혼

a. 구현값 확인 후 skip
1)에 신규 응답자 중 동일한 출생년도가 2명 이상일 경우 → D02-3-1)으로 갈 것

D02-3-1) ○○(이) 동생은 다둥이입니까?

① 네, 다둥이임 → D02-4)로 갈 것
② 아니오, 다둥이는 아니고 같은 해에 태어난 동생임 → D02-4)로 갈 것
③ 아니오, 동생의 출생년도를 잘못 응답함 → D02-3)으로 갈 것

[동거 여부]

D02-4) 부모님과 ○○(이)는 주 4일 이상 함께 살고 있습니까?

1) 어머니	① ○○(이)와 함께 살고 있음 ② ○○(이)와 떨어져 살고 있음
2) 아버지	① ○○(이)와 함께 살고 있음 ② ○○(이)와 떨어져 살고 있음

a. [D02-4]에 ①로 응답 시 → D02-6)으로 갈 것
b. ②선택 시, 해당 분류만 → D02-5)으로 갈 것

[비동거 이유]

D02-5)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이)가 떨어져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어머니	① 어머니가 타지역(또는 해외)에 근무 중(학업 포함) ③ 어머니가 장기 입원, 요양 중 ④ ○○(이)가 국내·외 유학중 ⑤ 기타(적을 것: _____)
2) 아버지	① 아버지가 타지역(또는 해외)에 근무 중(학업 포함) ② 군 복무 중 ③ 아버지가 장기 입원, 요양 중 ④ ○○(이)가 국내·외 유학중 ⑤ 기타(적을 것: _____)

[반려동물 여부]

D02-6) 귀 댁에서는 애완동물(반려동물)을 키웁니까? 모두 응답해 주세요.

① 키우지 않음
② 개
③ 고양이
④ 기타(적을 것: _____)

[패널아동의 개별 방 여부]

D02-7) ○○(이)는 개인 방이 있습니까?

☑ 개인 방: 혼자만 사용하는 공부방, 침실 등으로 형제자매와 함께 쓰는 방은 해당하지 않음

① 예, 개인 방이 있음
② 아니오, 개인 방이 없음

a. 구현값 확인 후 skip

03 다음은 귀 댁의 경제적 특성 및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구 소득]

D03-1) 귀 댁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실 수령액으로 응답해주십시오.

☑ 가구소득: 근로, 금융, 사업, 임대, 이전,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것을 지칭함.
☑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의료 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월 평균 실 수령 가구소득 (_____) 만원

a. 한글 금액 구현
b. 범위: 0~9,000
c. 가구소득 = 0, Go D03-1-1
d. 21년 실수령 가구소득 〉 (20년 실수령 가구소득*3) or 21년 실수령 가구소득 〈 (20년 실수령 가구소득*1/3), → D03-1-2)으로 갈 것
- 20년 실수령 가구소득(종단)

D03-1-1) 귀 댁은 지난 1년 동안 가구소득이 없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맞음 → D03-3-1)로 갈 것
② 잘못 입력함 → D03-1)으로 갈 것

D03-1-2) 귀 댁은 지난 1년 동안 월 평균 가구 소득이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맞음 → D03-2)으로 갈 것
② 잘못 입력함 → D03-1)으로 갈 것

[취업 모 근로 소득]

D03-2) 귀하께서는 현재 취업 중이십니까? 그렇다면 귀하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근로 소득은 얼마입니까? 실 수령액으로 대답해주십시오.

① 취업 중. 월 평균 어머니의 실 수령 근로소득 ( )만원
② 미취업 → D03-3-1)로 갈 것

a. 한글 금액 구현
b. 범위: 0~9,000
c. 21년 실수령 근로소득이 = D03-1, → D03-2-2로 갈 것
d. 21년 실수령 근로소득 〉 (20년 실수령 근로소득*3) or 21년 실수령 근로소득 〈 (20년 실수령 근로소득*1/3), → D03-2-1)로 갈 것
e. D03-1 ≥ D03-2

D03-2-1) ○○(이) 어머니의 월 평균 실 수령 근로소득이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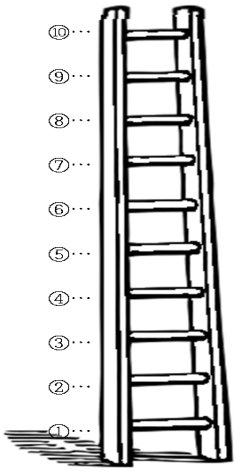
① 맞음 → D03-3-1)로 갈 것
② 잘못 입력함 → D03-2)로 갈 것

D03-2-2) ○○(이)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가구 전체 소득과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① 네, 어머니의 근로소득이 가구 전체 소득임 → D03-3-1)로 갈 것
② 아니오, 가구 총 소득을 잘못 입력함 → D03-1)로 갈 것
③ 아니오, 어머니의 근로소득을 잘못 입력함 → D03-2)로 갈 것

※ 다음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사다리가 우리사회의 구조를 나타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최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재산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았으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사다리의 맨 밑에는 최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이 거의 없고, 교육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했으며, 누구도 원치 않거나,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D03-3-1) 이 사다리가 대한민국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면, 귀하는 이 사다리의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다리 중 나의 위치 (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D03-3-2) 이 사다리가 귀하가 속해 있는 의미 있는 지역사회나 공동체(직장, 교회, 친인척 일가, 친구, 동호회 등)를 나타내고 있다면, 귀하는 이 사다리의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다리 중 나의 위치 (　　)

[가구의 소비성 지출, 가구의 비소비성 지출,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출, 자녀에 대한 비소비성 지출, 패널아동에 대한 교육 비용]

D03-4) 귀 댁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지출은 얼마입니까? 아래의 항목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 가구 총 지출 비용 (_____) 만원
	▶ 자녀에 대한 총 지출 비용 (_____) 만원
비소비성 지출: 각종 세금, 적금, 보험, 타 가구원을 위한 용돈, 월 상환금 등	
1) 가구 전체의 비소비성 지출	월 평균 가구 총 비소비성 지출 (_____) 만원
2) 이 중 자녀(들)에 대한 비소비성 지출	월 평균 자녀(들)을 위한 총 비소비성 지출 (_____) 만원

소비성 지출: 식비, 주거비, 교육비, 양육비, 의료비, 현물 구입비, 용돈, 기타 잡비 등	
3) 가구 전체의 소비성 지출	월 평균 가구 총 소비성 지출 (_____) 만원
4) 이 중 자녀(들)에 대한 소비성 지출	월 평균 자녀(들)을 위한 총 소비성 지출 (_____) 만원
	▶ ○○(이)의 월 평균 교육비용: (_____) 만원

a. 비소비성 지출 = 자녀를 위한 비소비성 지출, → D03-4-1)로 갈 것
b. 소비성 지출 = 자녀를 위한 소비성 지출, → D03-4-2)으로 갈 것
c. 소비성 지출 〈 12, → D03-4-3)으로 갈 것
d. 자녀를 위한 소비성 지출 = 교육비용, → D03-4-4)으로 갈 것
e. (20년 비소비성 지출*1/3) 〉 21년 비소비성 지출 or
21년 비소비성 지출 〉 (20년 비소비성 지출*3), → D03-4-5)으로 갈 것
f. (20년 소비성 지출*1/3) 〉 21년 소비성 지출 or
21년 소비성 지출 〉 (20년 소비성 지출*3), → D03-4-6)으로 갈 것
g. 실수령 가구 소득(D03-1) 값) 〈 가구 총 지출 비용, → D03-4-7)으로 갈 것

D03-4-1) 가구 총 비소비성 지출 금액이 모두 자녀를 위해서만 사용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맞습니까?

① 맞음 → D03-5)으로 갈 것
② 잘못 입력함 → D03-4)으로 갈 것

D03-4-2) 가구 총 소비성 지출 금액이 모두 자녀를 위해서만 사용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맞습니까?

① 맞음 → D03-5)으로 갈 것
② 잘못 입력함 → D03-4)으로 갈 것

D03-4-3) 귀댁은 한 달 평균 12만원 미만으로 식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비용(소비성 지출)을 쓴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맞음 → D03-5)으로 갈 것
② 잘못 입력함 → D03-4)으로 갈 것

D03-4-4) 자녀를 위해 교육비용 외 지출되는 비용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① 맞음 → D03-5)으로 갈 것
② 잘못 입력함 → D03-4)으로 갈 것

D03-4-5) 귀 댁은 지난 1년 동안 월 평균 가구 총 비소비성 지출이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맞음 → D03-5)으로 갈 것
② 잘못 입력함 → D03-4)으로 갈 것

D03-4-6) 귀 댁은 지난 1년 동안 월 평균 가구 총 소비성 지출이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맞음 → D03-5)으로 갈 것
② 잘못 입력함 → D03-4)으로 갈 것

D03-4-7) 귀 댁의 총 지출이 가구 총 소득보다 크게 응답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출을 잘못 입력 → D03-4)로 갈 것
② 소득을 잘못 입력 → D03-1)로 갈 것
③ 마이너스 통장, 카드, 대출 등을 이용 → D03-5)로 갈 것
④ 친정 혹은 시댁의 원조 → D03-5)로 갈 것
⑤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을 씀 → D03-5)로 갈 것
⑥ 기타(적을 것: _____) → D03-5)로 갈 것

[부동산]

D03-5) 귀 댁의 소유 부동산(주택, 건물, 임야, 토지 등)은 얼마입니까? 현 시가로 응답해 주십시오.

시가 (_____)만원

⑨ 모름/응답거부

a. 구현값 확인 후 skip

[금융자산]

D03-6) 귀 댁의 금융자산(예금, 보험, 주식, 채권, 타지 않은 계, 빌려준 돈, 전월세 임대료 등)은 얼마입니까?

총 (_____)만원

⑨ 모름/응답거부

a. 구현값 확인 후 skip

[부채 여부]

D03-7) 귀 댁은 은행대출, 개인적으로 빌린 돈, 임대보증금 등의 부채가 있습니까?

① 부채 있음

② 부채 없음 → D04-1)로 갈 것

③ 모름/무응답 → D04-1)로 갈 것

a. 구현값 확인 후 skip

[부채액/월 상환액]

D03-8) 귀 댁의 갚아야 할 부채(은행대출, 개인적으로 빌린 돈, 임대보증금 등)와 월 상환금(원금 또는 이자)은 얼마입니까?

구분	금액	
1) 부채	총 (_____) 만원	② 모름/무응답
2) 월 상환금	총 (_____) 만원	② 모름/무응답

a. 구현값 확인 후 skip

04 다음은 ○○(이)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결혼 상태]

D04-1) ○○(이) 부모님의 현재 결혼상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본 조사의 어머니, 아버지는 _____ (이)의 호적상 부모임.

1) 어머니	① 미혼 ② 유배우-초혼 ③ 유배우-재혼 ④ 동거(사실혼 포함) ⑤ 사별 ⑥ 이혼 ⑦ 별거
2) 아버지	① 미혼 ② 유배우-초혼 ③ 유배우-재혼 ④ 동거(사실혼 포함) ⑤ 사별 ⑥ 이혼 ⑦ 별거

a. 구현값 확인 후 skip
b. D04-1에서 ①미혼, ⑤사별, ⑥이혼, ⑦별거로 응답한 경우 D04-2~D04-3을 건너뛰고, D04-4으로 이동

[결혼일(생성변수: 결혼상태 유지기간)]

D04-2) ○○(이) 어머니, 아버지의 현재 결혼기념일은 언제 입니까?

(_____) 년 (_____) 월

[생년월일(생성변수: 연령)]

D04-3) ○○(이)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 어머니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① 맞음 ② 틀림 -> 수정
2) 아버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① 맞음 ② 틀림 -> 수정

a. 구현값 확인 후 skip
b. D01-4 ①어머니 또는 ②아버지 로 답한 경우에 한해 응답
c. D04-1에서 ①미혼, ⑤사별, ⑥이혼, ⑦별거로 응답한 경우 D01-4의 응답자 생년월일만 질문
d. D04-1에서 변경이 없었으나 D04-3에서 생년월일 변경 시, → D04-3-1)으로 갈 것

D04-3-1) 결혼상태가 동일한데 ○○(이) 부모님의 생년월일이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기존에 응답한 내용이 틀림
② 결혼상태 잘못 응답 → D04-1)으로 갈 것
③ 기타(적을 것: _____)

[최종학력]

D04-4) ○○(이)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1) 어머니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2~3년제 대학 졸업 ⑥ 4년제 대학교 졸업(5년제 포함) ⑦ 대학원 졸업
2) 아버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2~3년제 대학 졸업 ⑥ 4년제 대학교 졸업(5년제 포함) ⑦ 대학원 졸업

a. 기존 구현값 확인 후 skip
b. D04-1에서 ①미혼, ⑤사별, ⑥이혼으로 응답한 경우 D01-4의 응답자 최종학력만 질문
c. 구현값 수정 가능
- 1) D04-4(어머니) 〈 (작년 어머니 최종학력) → D04-4-1)으로 갈 것
- 2) D04-4(아버지) 〈 (작년 아버지 최종학력) → D04-4-2)으로 갈 것
- 유지 시 → D04-5)으로 갈 것

D04-4-1) 지난 조사보다 어머니의 학력이 낮아졌습니다. 응답내용이 맞습니까?

① 맞음 → D04-5)으로 갈 것
② 잘못 입력함 → D04-4)으로 갈 것

D04-4-2) 지난 조사보다 아버지의 학력이 낮아졌습니다. 응답내용이 맞습니까?

① 맞음 → D04-5)으로 갈 것
② 잘못 입력함 → D04-4)으로 갈 것

[장애 유무]

D04-5) ○○(이) 부모님은 장애가 있습니까?

☑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등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등급)

1) 어머니	① 아니요(장애 없음) ② 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예,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아버지	① 아니요(장애 없음) ② 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예,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a. D04-1에서 ①미혼, ⑤사별, ⑥이혼으로 응답한 경우 D01-4의 응답자 장애만 질문

05 다음은 귀하의 취업/학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취/학업상태]

D05-1) 현재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잠시 휴직 중인 경우도 취업 중에 해당함.
☑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또는 가족/친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일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 중에 해당함.
☑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의 경우 시간제약은 없으나 취업 중에 해당함.

① 취업 중(휴직 중 포함) → D05-2)로 갈 것
② 학업 중(휴학 중 포함) → D05-11)로 갈 것
③ 취업/학업 병행 중 → D05-2)로 갈 것
④ 미취업/미학업 → D06-1)로 갈 것

a. D03-2=1(취업 중)일 경우 ②, ④ 선택 불가
b. D03-2=2(미취업)일 경우 ①, ③ 선택 불가

[재직 상태]

D05-2) 현재 귀하의 취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재직 중
② 휴직 중

a. (종단)에 D05-1 ②, ④ 응답자, → D05-4)으로 갈 것

[직장 변동 여부]

D05-3) 귀하의 현재 직업은 지난 조사 이후 직장 또는 주 업무의 변동이 있습니까?

☑ 직장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주 직장을 중심으로 응답해주세요.
☑ 지난 조사 시 응답: 직장명( ), 주 업무( )

① 아니오(변동 없음) → D05-8)으로 갈 것
② 직장이 바뀜 → D05-4)로 갈 것
③ 직장은 그대로이나, 주 업무가 바뀜(전근, 부서, 직위 변경 포함) → D05-6)으로 갈 것
④ 지난 조사 시, 미취업/미학업이었음 → D05-4)로 갈 것

a. (종단) 구현
- 종단값이 '무응답'으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 Go D05-4
b. (종단)에 취업상태 ①, ③ 응답자가 ④ 선택 시, Go D05-3-1

D05-3-1) 귀하는 지난 2020년도 조사에서 취업 중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맞음 → D05-3)으로 갈 것
② 2020년도에 잘못 입력함 → D05-3-2)로 갈 것

D05-3-2) 귀하는 지난 2020년도 취업/학업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학업 중(휴학 중 포함)
② 미취업/미학업

[(생성변수: 직업군(대중소분류))]

D05-4) 귀하가 현재 일하는 직장(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지점이나 공장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세요.

☑ 일반 회사인 경우 회사명과 지점명까지 / 교사인 경우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 / 공무원인 경우 중앙부처·시군구명·읍면 동사무소까지
☑ 예: ◎◎전자 ◎◎공장 / ◎◎초등학교 / 서울시청 / 프리랜서

직장(사업체)명: ( )

[(생성변수: 직업군(대중소분류))]

D05-5) 귀하의 직장(사업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직장명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는 중소기업체인 경우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업종을 표기해 주세요.
☑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 장소를 기입해 주세요.

직장의 사업 내용(업종): ( )

[(생성변수: 직업군(대중소분류))]

D05-6) 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가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사무직인 경우 행정직, 전산직, 기술직 / 음식점인 경우 한식조리, 양식조리, 서빙 등 /교사인 경우 영어, 수학 등 과목명 기입

주로 하는 일: ( )

[(생성변수: 직업군(대중소분류))]

D05-7) 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프리랜서 / 공무원의 경우 급수 / 회사원의 경우 평사원, 대리, 과장, 부장 등의 직위 / 음식점의 경우 사장, 매니저, 일반 직원 등

직장(사업체) 내 직위: ( )

[종사상 지위]

D05-8) 귀하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무급 가족 종사자:
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에 정규적인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① 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②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③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④ 종업원을 둔 고용주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⑥ 무급 가족 종사자

a. D05-2에 ② 응답 시, → D05-10)으로 갈 것

[근무 일 수, 근무 시간, 왕복 출퇴근 시간]

D05-9) 귀하의 근무 일수, 근무 시간, 왕복 출퇴근 시간을 응답해주십시오.

☑ 업무성 회식 및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직장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총 합산 시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일 평균 '9'시간 근무입니다.

구분	주중(월~금)	주말(토, 일)
1) 근무 일수	(_____)일 근무	(_____)일 근무
2) 근무 시간	1일 평균 (___)시간 근무	1일 평균 (___)시간 근무
3) 왕복 출퇴근 시간	1일 평균 왕복 (__) 소요	1일 평균 왕복 (__)소요

a. 평일 근무 일수: 0~5
b. 주말 근무 일수 : ①주말 근무 안함, ②주말 격주 근무, ③매 주말 1일 근무, ④매 주말 2일 근무
c. 근무 시간 : 0~20
d. 왕복 출퇴근 시간 : 시간/분 직접 입력, 시간: 0~4, 분: 10분 단위 입력
e. 주중, 주말 근무 일수 모두 0 ⇒ D05-9-1
f. D05-8에 ① & 주당 근무시간(주중 근무일수*시간 + 주말 근무일수*시간) 45시간 미만 ⇒ D05-9-2

D05-9-1) 귀하는 주중/주말 근무 일수를 모두 '0'일로 입력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근무 일수를 잘못 입력함 → D05-9)으로 갈 것
② 취업/학업 상태를 잘못 입력함 → D05-1)으로 갈 것
③ 휴직/재직 상태를 잘못 입력함 → D05-2)으로 갈 것

D05-9-2) 상용직 근로자인 귀하는 주당 총 '45시간 미만(점심시간 1시간 포함)' 근무하신다고 입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① 네, 상용직이며 주당 총 45시간 미만(점심시간 1시간 포함)으로 근무합니다 → D05-10)으로 갈 것
② 상용직 아님 → D05-8)으로 갈 것
③ 근무시간 잘못 입력 → D05-9)으로 갈 것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D05-10) 귀하는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

D05-11) 귀하가 하고 있는 일과 가정생활에 관하여 다음 각 문장에서 본인과 가깝다고 느끼는 쪽에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1) 나를 더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삶을 더 다양하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모든 재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를 최상의 수준으로 북돋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시간을 더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를 더 유능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내가 맡고 싶었던 업무상 제안이나 활동을 거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1) 일을 할 때, 가족에 관한 일이나 집에서 해야 할 일로 인해 방해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일 때문에 나는 참여하고 싶었던 가족 행사나 활동에 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13) 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4) 일하던 중 차라리 가족과 함께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5) 일과 가정에서의 의무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할 일이 과도하게 많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감사히 여기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9)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좋아지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0)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더 좋은 부모라고 느끼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일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2)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23)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 아이에 대해 신경 쓰느라 직장에서 업무가 방해된다	①	②	③	④	⑤
25) 일을 하면서 부모로서 받는 보상을 일부 놓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26) 일하느라 힘들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부모가 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06 다음은 패널아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관적 건강 상태]

D06-1) ○○(이)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건강하지 않음
② 건강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임
④ 건강한 편임
⑤ 매우 건강함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응급실 치료 여부, (사고 및 중독으로 인한) 응급실 치료 이유]

D06-2) ○○(이)는 지난 1년 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치료 경험 있음(이유: _____)
② 치료 경험 없음

[입원 치료 여부, 입원 치료 이유]

D06-3) ○○(이)는 지난 1년 간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입원한 적 있음(이유: _____)
② 입원한 적 없음

[장애 판정 여부, 장애 판정 유형, 장애 정도]

D06-4) 지난 조사 이후 ○○(이)는 아래의 장애를 판정받았습니까? 장애 판정 받은 모든 장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등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등급)

장애 유형	장애정도	장애 유형	장애정도
□ 1) 지체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9) 간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 뇌병변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 호흡기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 시각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1) 장루, 요루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4) 청각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2) 간질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 언어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3) 지적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6) 안면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4) 정신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 신장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5) 자폐성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6) 기타 (적을것:__)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8) 심장장애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7) 없음 → D06-5)으로 갈 것	

a. 구현값 확인 후 skip

[만성 질환(진단여부, 최초진단일), 만성 질환별 상담 또는 병원 치료 여부]

D06-5) 다음의 질환 중 ○○(이)가 진단 받은 질환의 병원 치료 여부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질환 유형	1) 최초 진단일	2) 병원 치료 여부
□ 1) 선천성 심장질환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2) 간질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3) 당뇨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4)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5) 만성 중이염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6) 만성 요로감염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7) 천식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8) 만성 비염(알레르기성 포함)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9) 아토피 피부염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10) 식품알레르기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질환 유형	1) 최초 진단일	2) 병원 치료 여부
□ 11) 알레르기 결막염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12) 기타 질환 (　　)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13) 없음 → D06-6)으로 갈 것		

a. 구현값 확인 후 skip

[심리사회적 질환(진단여부, 최초진단일),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상담 또는 병원 치료 여부]

D06-6)　다음 중 ○○(이)가 진단 받은 장애의 상담 및 병원 치료 여부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장애 유형	1) 최초 진단일	2) 상담 및 병원 치료 여부
□ 1) 의사소통 장애 (언어장애, 발화음장애, 말더듬기,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2) 자폐 스펙트럼 장애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3)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4) 특정 학습장애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5) 운동장애(틱장애, 정형적 동작장애, 발달성 운동조정장애)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6) 파괴적, 충동통제 및 품행장애(적대적 반항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 품행장애, 방화증, 도벽증)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장애 유형	1) 최초 진단일	2) 상담 및 병원 치료 여부
□ 7) 배설장애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8) 급식 및 섭식장애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9) 불안 장애(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10) 기타 장애(적을 것:_____)	② 진단 받음: ( )년 (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 11) 없음 → D06-7)로 갈 것		

a. 구현값 확인 후 skip

[시력 보정도구 착용 시기, 시력 보정도구 착용 여부]

D06-7) ○○(이)는 안경 또는 시력교정도구를 사용합니까? 모두 응답해 주세요.

① 예, 안경 사용함(사용 시기: 만 _____ 세)
② 예, 시력교정도구 사용함(사용 시기: 만 _____세)
③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음

a. 선택 범위 적용: 0~13
b. 구현값 확인 후 skip
- 구현값 수정 가능
c. ①, ②항목은 중복응답 가능

[가족과의 식사 횟수]

D06-8) ○○(이)는 일주일에 평균 몇 번 가족과 함께 식사합니까?(외식 포함)

① 거의 안함
② 주 1~2회
③ 주 3~5회
④ 주 6-7회
⑤ 주 8회 이상

[미디어 중독]

D06-9) 다음의 문장을 읽고 ○○(이)의 모습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귀하께서 각 문항에 해당하는 ○○(이)의 모습과 행동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 PC·스마트폰은 게임하기, SNS 보내기, 동영상 보기, 인터넷 하기 등 미디어 기기를 이용한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PC·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가족들과 자주 싸운다	①	②	③	④
2) 평소와는 달리, PC·스마트폰을 할 때만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①	②	③	④
3) PC·스마트폰에 빠진 이후로, 폭력(언어적, 신체적)적으로 변했다	①	②	③	④
4) 하루에 4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서 PC·스마트폰을 한다	①	②	③	④
5) 식사나 휴식 없이 화장실도 가지 않고 PC·스마트폰을 한다	①	②	③	④
6) PC·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에 무관심하다	①	②	③	④
7) PC·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건드리면 화내거나 짜증을 낸다	①	②	③	④
8) 하루 이상을 밤을 새우면서 PC·스마트폰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9) PC·스마트폰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①	②	③	④
10) PC·스마트폰을 할 때 건드려도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밤새워서 PC·스마트폰을 하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12) PC·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잔다고 한다	①	②	③	④
13) PC·스마트폰을 안 할 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14) 점점 더 많은 시간동안 PC·스마트폰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15) PC·스마트폰 사용하느라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활동별 참여 빈도]

D06-10. ○○(이)가 지난 1년간 다음 활동에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한 달은 4주 기준임
☑ 문화체험활동: 과학관, 천체관, 역사관, 체험관 등
☑ 예술감상활동: 미술관, 음악회, 전시회, 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 등

구분	① 참여안함	② 1년에	③ 한 달에	④ 일주일에
1) 장보기 및 쇼핑	_____	(　　)회	(　　)회	(　　)회
2) 친인척 방문	_____	(　　)회	(　　)회	(　　)회
3) 당일 여행 및 나들이	_____	(　　)회	(　　)회	(　　)회
4) 1박이상의 국내 여행(가족 또는 단체)	_____	(　　)회	(　　)회	(　　)회
5) 해외 여행 및 연수	_____	(　　)회	(　　)회	(　　)회
6) 문화체험 및 예술감상활동, 견학	_____	(　　)회	(　　)회	(　　)회
7) 종교활동(예배·예불/미사 참석, 캠프 등)	_____	(　　)회	(　　)회	(　　)회
8) 봉사활동	_____	(　　)회	(　　)회	(　　)회
9) 동아리활동(합창단, 스카우트 등)	_____	(　　)회	(　　)회	(　　)회

a. 입력 가능 범위 - ②1년에 : 1~365 - ③한달에 : 1~31 - ④일주일에 : 1~7
b. 각 행의 ②~④ 항목간에는 중복 불가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D06-11) ○○(이)가 하루 중 어른 없이 집에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경우는 몇 시간입니까?

① 없음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④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⑤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⑥ 4시간 이상

[부모 감독]

D06-12) 다음에서 귀하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해당 없음
1) ○○(이)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2) ○○(이)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3) ○○(이)가 어른 없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4) ○○(이)가 어른 없이 있을 때 연락을 주고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⑨

a. 한 화면에 모두 동일한 응답을 할 경우, 경고창
- [모든 문항에 같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보호자가 인식한 친구 수]

D06-13) 귀하가 이름을 알고 있는 ○○(이)의 친구는 몇 명입니까?

(　　)명

a. 숫자 입력 범위 : 0~100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

D06-14) 다음은 OO(이)에 대한 귀하의 학업적/교육적 지원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활동을 수행하는 빈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집안의 공부 분위기를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의 학교 공부와 숙제를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에게 공부방법에 대해 조언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의 성적관리에 신경쓴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의 진로진학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의 평소 생활을 확인하고 일정을 관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학부모들 모임에 나가거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07 다음은 귀댁에 함께 살지 않는 친, 외가 식구, 친구, 지인들로부터 받는 도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회적 지원 정도]

D07-1)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3)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6) 큰 일(잔치, 김장 등)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7) 중요한 일(주택구입 등)을 결정할 때 정보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9) 살림살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같이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서로 집안 길흉사에 방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간다	①	②	③	④	⑤

08 다음은 ○○(이)의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 진학 여부]

D08-1) ○○(이)는 중학교(대안학교 포함)에 다니고 있습니까?

① 예, 중학교(대안학교 포함)에 다니고 있음 → D08-4)로 갈 것
② 아니오, 다니고 있지 않음 → D08-2)로 갈 것

[미진학 이유]

D08-2) ○○(이)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학교부적응(학업부진, 대인관계, 교칙압박 등) 때문에
② 학교폭력(폭력, 금품갈취 등) 때문에
③ 해외 출국(유학, 연수, 이민, 파견 동행 등) 때문에
④ 부모의 교육철학(학원, 홈스쿨링 등) 때문에
⑤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⑥ 질병 때문에
⑦ 기타(적을것: _____)

[대체이용기관_중학]

D08-3) ○○(이)가 중<u>학교 대신</u>에 현재 이용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① 이용하는 기관 없음 ② 학원
③ 홈스쿨링 ④ 기타 기관(적을 것 : _____)

a. 기타 란에 '대안학교' 입력 불가
b. 응답 후 D08-9로 이동

D08-4) ○○(이)의 학교생활을 알기 위해 담임선생님께 조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합리적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위하여, ○○(이)의 담임선생님께 조사를 부탁드리도록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담임선생님께서 동의하실 경우에만 조사가 진행되며, 인터넷을 통해 선생님께서 편안한 시간에 약 10분 정도의 조사가 진행됩니다.

① 네, 동의함
② 아니오, 동의하지 않음 → D08-7)로 갈 것

D08-5) ○○(이)가 다니고 있는 중학교 이름과 학급을 응답해 주세요.

(_____) 중학교 (_____) 학년 (_____)반

D08-6) ○○(이) 담임 선생님 성함은 무엇입니까? (※ 조사 후 면접원이 전해드릴 봉투의 링크로 담임선생님께서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실 경우 이용되지 않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교사설문 참여독려 용도로만 쓰일 예정입니다.)

- 담임 선생님 성함: (_____)

[전학 여부]

D08-7) ○○(이)는 중학교 진학 이후, 전학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전학한 적 없음 ② 전학한 적 있음

[설립 유형_중학]

D08-8) ○○(이)가 다니는 학교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일반중학교 ② 예술중학교
③ 체육중학교 ④ 국제중학교
⑤ 대안학교 ⑥ 기타(적을 것 : _____)

[진학 계획]

D08-9) 귀하는 ○○(이)가 어느 수준까지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전문대학 ④ 대학교
⑤ 대학원 석사 ⑥ 대학원 박사
⑦ 잘 모르겠음

[진학 유형]

D08-10. 귀하는 ○○(이)가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십니까?

① 일반고 ② 특성화고(직업) ③ 특성화고(대안)
④ 과학고 ⑤ 영재학교 ⑥ 예술고
⑦ 외국어고 ⑧ 체육고 ⑨ 국제고
⑩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⑪ 자율형 공립고 ⑫자율형 사립고
⑬ 해외 유학 ⑭ 잘 모르겠음

| |---|
| a. D08-1=2일 경우, D08-10 응답 후 D09-1로 이동 |

[학교 행사 참여 여부]

D08-11) 다음의 ○○(이)의 학교 행사에 귀하는 올해 상반기 중 얼마나 참여하셨습니까?

구 분	참여 횟수			
	전혀 없음	1-2 회	3-4 회	5회 이상
1) 자녀관련 상담(학업, 생활, 진로 등)	①	②	③	④
2) 학교에서 자원봉사 활동	①	②	③	④
3) 학교 내 학부모 단체 가입 및 활동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총)회 등)	①	②	③	④
4) 부모교육프로그램(강연회, 워크숍 등)	①	②	③	④
5) 다른 부모들과의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활동	①	②	③	④
6) 진학설명회	①	②	③	④
7) 기타 학교방문	①	②	③	④

[학교 만족도]

D08-12) ○○(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만족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종류	학교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기초능력 향상	①	②	③	④	⑤
2) 자녀수준에 맞는 교육	①	②	③	④	⑤
3) 교사들의 공정한 학생평가	①	②	③	④	⑤
4) 학교급식	①	②	③	④	⑤
5) 안전관리 교육	①	②	③	④	⑤
6) 진로탐색 및 진로지도	①	②	③	④	⑤
7) 인성지도	①	②	③	④	⑤
8) 학습에 불편함이 없는 학교시설환경	①	②	③	④	⑤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①	②	③	④	⑤

09 다음은 ○○(이)가 이용하는 사교육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 중학교 정규수업 이외에 추가로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 외 교육관련 서비스 이용을 중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서비스 이용 종류, 교육서비스 이용 기관]

D09-1) ○○(이)가 현재 학교 수업 이외의 교육을 받는 기관 및 매체를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방학 중에 조사하는 경우, 학기 중 한 달간을 기준으로 함.

〈학원〉
- 학원(단과반, 종합반)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과의 참여 여부/시간/비용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종합반(연합반)의 경우, 시간과 비용은 전체 비용이 아닌 과목별로 나눈 것을 적어주십시오.
- 동일 과목에 대해 학원을 두 곳 이상 다니는 경우 합산하여 적어주십시오.
- 사교육 비용: 교재비 등을 제외하고 교육비 목적으로만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과외〉
- 과외(개인/그룹 과외)의 모든 교과의 참여 여부/시간/비용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동일 과목에 대해 두 가지 이상 과외(개인/그룹 과외)를 하는 경우 합산하여 적어주십시오.
- 사교육 비용: 교재비 등을 제외하고 교육비 목적으로만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학습지〉, 〈인터넷/화상강의〉
- 학습지 과외의 모든 교과의 참여 여부/시간/비용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사교육 비용: 교재비 등을 제외하고 교육비 목적으로만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구 분	이용 안함	학원	가정내 개인/ 그룹 지도 (과외)	학습지 (방문 교사)	인터넷 /화상 강의	교내 방과후 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1) 국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논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영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4) 수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5) 과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구 분	이용 안함	학원	가정내 개인/ 그룹 지도 (과외)	학습지 (방문 교사)	인터넷 /화상 강의	교내 방과후 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6) 음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7) 미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8) 체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9) 컴퓨터, 코딩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0) 기타1 (Ch19cht24a)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1) 기타2 (Ch19cht24b)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2) 기타3 (Ch19cht24c)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교육서비스 이용 시간, 교육서비스 비용, 교육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 정도, 교육서비스 만족도]

D09-2) 다음은 ○○(이)가 현재 이용하는 사교육 기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내용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구분	이용시간 (1주일 기준)	사교육비용 (1개월 기준)	사교육비 부담정도					이용만족도				
			전혀 부담 되지 않음	부담 되지 않는 편임	적당함	부담 되는 편임	매우 부담됨	매우 만족 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 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국어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논술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영어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수학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구분	이용시간 (1주일 기준)	사교육비용 (1개월 기준)	사교육비 부담정도					이용만족도				
			전혀 부담 되지 않음	부담 되지 않는 편임	적당함	부담 되는 편임	매우 부담됨	매우 만족 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 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5) 과학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음악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미술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체육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컴퓨터, 코딩 등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기타1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기타2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기타3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교육서비스 이용 시간, 교육서비스 비용, 교육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 정도, 교육서비스 만족도]

D09-3) 가정내 개인/그룹지도(과외)

구분	이용시간 (1주일 기준)	사교육비용 (1개월 기준)	사교육비 부담정도					이용만족도				
			전혀 부담 되지 않음	부담 되지 않는 편임	적당함	부담 되는 편임	매우 부담됨	매우 만족 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 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국어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논술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영어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수학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과학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음악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미술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체육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컴퓨터, 코딩 등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기타1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기타2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기타3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교육서비스 이용 시간, 교육서비스 비용, 교육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 정도, 교육서비스 만족도]

D09-4) 학습지(방문교사)

구분	이용시간 (1주일 기준)	사교육비용 (1개월 기준)	사교육비 부담정도					이용만족도				
			전혀 부담 되지 않음	부담 되지 않는 편임	적당함	부담 되는 편임	매우 부담됨	매우 만족 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 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국어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논술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영어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수학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구분	이용시간 (1주일 기준)	사교육비용 (1개월 기준)	사교육비 부담정도					이용만족도				
			전혀 부담 되지 않음	부담 되지 않는 편임	적당함	부담 되는 편임	매우 부담됨	매우 만족 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 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5) 과학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음악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미술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체육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컴퓨터, 코딩 등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기타1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기타2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기타3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교육서비스 이용 시간, 교육서비스 비용, 교육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 정도, 교육서비스 만족도]

D09-5) 인터넷/화상강의

구분	이용시간 (1주일 기준)	사교육비용 (1개월 기준)	사교육비 부담정도					이용만족도				
			전혀 부담 되지 않음	부담 되지 않는 편임	적당함	부담 되는 편임	매우 부담됨	매우 만족 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 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국어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논술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영어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구분	이용시간 (1주일 기준)	사교육비용 (1개월 기준)	사교육비 부담정도					이용만족도				
			전혀 부담 되지 않음	부담 되지 않는 편임	적당함	부담 되는 편임	매우 부담됨	매우 만족 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 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4) 수학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과학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음악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미술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체육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컴퓨터, 코딩 등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기타1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기타2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기타3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교육서비스 이용 시간, 교육서비스 비용, 교육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 정도, 교육서비스 만족도]
D09-6) 기타(교내 방과후학교, EBS 교육방송 강의,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구분	이용시간 (1주일 기준)	사교육비용 (1개월 기준)	사교육비 부담정도					이용만족도				
			전혀 부담 되지 않음	부담 되지 않는 편임	적당함	부담 되는 편임	매우 부담됨	매우 만족 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 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국어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논술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영어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구분	이용시간 (1주일 기준)	사교육비용 (1개월 기준)	사교육비 부담정도					이용만족도				
			전혀 부담 되지 않음	부담 되지 않는 편임	적당함	부담 되는 편임	매우 부담됨	매우 만족 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 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4) 수학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과학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음악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미술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체육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컴퓨터, 코딩 등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기타1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기타2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기타3	일주일 총( )시간	월평균 총( )만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c. 마을학교 등 구에서 지원하고 사설기관 또는 개인이 교육하는 경우는 어디에 포함하는지?
→ 구에서 지원하는 경우와 같은 민간위탁은 모두 공공기관에 해당
d. '인터넷/화상강의'에 EBS 교육방송 강의'는 제외함

[교육서비스 이용 이유]

D09-7) ○○(이)가 사교육을 받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2개 선택)

1순위 2순위

① 진학준비(특목고, 대입 등 준비)
② 불안심리(남들이 다 하는데 안하면 성적이 떨어질까봐,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으므로 등)
③ 선행학습(학교수업을 받는데 유리해서 등)
④ 학교수업 보충(학교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등)
⑤ 자녀 감독 (혼자 있거나, 집에 있는 경우 무엇을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⑥ 취미·교양·재능개발
⑦ 기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등 기타 이유)

[교육서비스 교재비]

D09-8) OO(이)가 구매하는 교재비는 월평균 얼마입니까? (사교육 및 개인학습을 위한 문제집 포함)

월 평균 교재비 ( )만원

10 다음은 귀하께서 살고계신 동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육환경 안전성]

D10-1) 귀하가 살고 계시는 동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다음의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해당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잘 모름
1) 술 취한 사람이나 싸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⓪
2) 아동성폭행, 강도, 절도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⓪
3) 유해시설(유흥가, 윤락가 등)로부터 떨어져있다	①	②	③	④	⑤	⓪
4) 경찰이나 방범대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⓪
5)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⑤	⓪
6)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동네 사람들은 바로 잡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⓪
7) 각종 시설물 설치나 재해 방지 시설이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⓪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잘 모름
8) 각종 사고(교통사고, 화재, 추락 등)에 대비한 안전 설비가 잘 구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⓪

☑ '귀하가 살고 계시는 동네'는 '걸어갈 수 있는 범위 내'를 의미함

[공공 여가 공간시설 접근 편리성 및 이용 만족도, 교육의료복지 시설 접근 편리성 및 이용 만족도, 문화시설 접근 편리성 및 이용 만족도, 공공복지시설 접근 편리성 및 이용 만족도]

D11-1) 다음은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곳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각 시설에 관해 응답해 주십시오.

13) 공공복지시설: 국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을 의미함.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수련시설도 포함됨.

a. 모두 동일한 응답을 할 경우, 경고창 구현
- [모든 문항에 같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D11-2) 현재 귀 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해당없음
④ 모름/무응답

[생활비 지원 여부 및 지원처]

D11-3) 지난 1년간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생활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정부보조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기타 보조금(기초노령연금, 통신비 감면, 바우처, 희망키움통장 등)이 포함됨

종류	거리상 접근 편리성					이용 만족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이용 안함	매우 만족 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 하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1) 놀이터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2) 공원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3) 산책로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4) 영화관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5) 관람 및 체험시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천체관,수족관, 동식물원 등)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6) 공연시설 (문예회관, 음악회, 연극 등)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7) 놀이공원(어린이대공원 등)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8) 도서관(어린이도서관 포함)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9) 실내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 (체육관, 수영장 등)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10) 실외 체육시설 (농구장, 축구장 등)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11) 의료기관(보건소, 병원 등)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12) 교육기관(학원, 대학교 등)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13) 공공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등)	①	②	③	④	⑤	⓪	①	②	③	④	⑤

① 정부(주민센터)로부터 받은 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

② 친척·친지, 친구나 이웃에게서 받은 현금과 물품

③ 복지관, 종교·사회단체로부터 받은 현금과 물품(학교장학금 포함)

④ 회사로부터 받은 현금과 물품(자녀학자금 보조 포함)

⑤ 없음

⑥ 모름/무응답

a. ⑤, ⑥ 중복 응답 불가

☑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2021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유아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 전년대비 2만원 인상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8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월 26만원 지원)

☑ 자유학년제 운영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과정 중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된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2020년 고 2,3학년 대상)

☑ 고등학교체제 단순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여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로 개편하여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도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자사고 등 관련 규정 삭제('20.2)

☑ 고교학점제 도입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확대
2021년부터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5백만원 지원(2020년 4백만원)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급변하는 사회,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교육과정 개편 등 미래 교육체계로의 전환, 인구 및 학생수 감소로 인한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역할 약화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

☑ 교육급여 지원 확대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교생 대상의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 확대를 통해 부모의 소득수준이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교육비 부담 덜기 위함(2020년 지원금 대비 초 38.8%, 중 27.5%, 고 6.1% 인상)

[교육정책추진 동의 정도]

D11-4) 다음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와 관련한 교육부 주요 교육정책입니다. 다음의 교육정책 추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종류	교육정책추진 동의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①	②	③	④	⑤
2) 자유학년제 운영	①	②	③	④	⑤
3)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①	②	③	④	⑤
4) 고등학교체제 단순화(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①	②	③	④	⑤
5) 고교학점제 도입	①	②	③	④	⑤
6)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①	②	③	④	⑤
8) 교육급여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코로나19 대응 정책 만족도]

D11-5) 귀하는 2021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의 교육 및 학교 대응에 대한 만족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코로나19 대응정책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잘 모름
1) 코로나19 대응 유·초·중·고 학생교직원 자가진단서비스 운영	①	②	③	④	⑤	⓪
2)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개학 및 원격-등교수업 병행 운영 방식	①	②	③	④	⑤	⓪
3) 코로나19 대응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등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 지원	①	②	③	④	⑤	⓪
4) 코로나19 대응 학교 방역체계	①	②	③	④	⑤	⓪
5) 코로나19 대응 맞벌이·저소득층 대상 긴급돌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⓪

[코로나19 대응 수업운영 방식 및 만족도]

D11-6) ○○(이)가 다니는 학교의 2021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① 등교수업 운영 → D11-7)로 갈 것
②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운영 → D11-6-1)로 갈 것

[코로나19 대응 수업운영 방식 및 만족도]

D11-6-1)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운영 응답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운영시 등교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① 매주 1~4일 등교
② 격주 등 주 단위 등교
③ 기타(적을 것: _____)

[코로나19 대응 수업운영 방식 및 만족도]

D11-6-2) ○○(이)의 원격수업 진행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① 실시간 쌍방향 수업
②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③ 과제 수행 중심 수업
④ 기타(적을 것: _____)

〈참고: 교육부 보도자료〉

구 분	운영 형태
1) 실시간 쌍방향 수업	• 실시간 원격교육 기반(플랫폼)을 토대로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
2)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학생은 지정된 녹화 강의나 학습콘텐츠(외부제작 콘텐츠 포함)로 학습하고, 교사는 학습 진행도 확인 및 피드백 •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 답글 등으로 원격 토론
3)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교사는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과제 제시 및 피드백
4) 기타	• 교육청,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코로나19 대응 수업운영 방식 및 만족도]

D11-6-3) 원격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코로나19에 따른 교육격차]

D11-7) 귀하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더욱 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갤럽
0316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T 02-3702-2100 GALLUP
www.gallup.co.kr F 02-3702-2121 INTERNATIONAL

한국아동패널 2021(14차) 어머니대상 질문지

Gallup
2021-223-027

본 질문지는 2008년 4~7월 사이에 출생하여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이와 가족에 관한 것으로, **아이의 어머니께서 응답하시는 질문지**입니다.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식구 중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경우, 아버지를 제외한 주양육자께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상 질문지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단, 주양육자는 아이와 친인척관계인 분만 포함되며, 본 질문지의 응답은 배우자와 서로 상의·공유하지 마시고,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15분가량** 소요됩니다.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1년 6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대표이사 박재형
담당연구원 김종서
전화 02-3702-2612

아동 이름	
질문지 작성일	_____월 _____일
질문지 작성자	① 어머니 ② 할머니 ③ 할아버지 ④ 기타 친인척 ⑤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⑥ 기타(적을 것 : _____)
조사방법 (조사원 기입 사항)	⓪ 미참여 ① 유치조사(조사원 수거) ② 우편 조사

다음은 귀하의 평소에 느끼는 심리적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관적 행복감]

문1)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매우 불행한 사람이다 ←			보통이다			→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1) 전반적으로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매우 행복하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행복하다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3)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매우 그렇다 ←			보통 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4)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하다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보인다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삶의 만족도]

문2) 귀하는 현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함
②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임
④ 만족하는 편임
⑤ 매우 만족함

[일상적 스트레스]

문3) 귀하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① 전혀 받지 않음
② 별로 받지 않음
③ 약간 받음
④ 많이 받음

[우울]

문4)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다음의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지난 30일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자기조절(정서조절곤란), 행동유형]

문5) 다음은 귀하의 행동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하에게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약속시간에 늦는다든지 또는 일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참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사람들은 내가 쉽게 흥분한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무엇이든지 경쟁적으로 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잠시 쉬고 있을 때는 어쩐지 죄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대화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가로채는 면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심한 압력 하에 있을 때에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안에 끝내려고 강박적으로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도 나 자신을 몰아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 부부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결혼 만족도]

문6) 다음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매우 불만족	비교적 불만족	보통	비교적 만족	매우 만족
1)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주관적 건강 및 음주, 흡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관적 건강 상태]

문7)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건강하지 않음 ② 건강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임 ④ 건강한 편임
⑤ 매우 건강함

[음주 여부/횟수]

문8) 귀하는 평소에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최근 1년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회~4회
③ 주 2회~3회 ④ 주 4회 이상
⑤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음 → 문10)으로 갈 것

[음주 양]

문9-1) 술을 마시면 보통 몇 잔정도 마시는 편입니까?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합니다.

단, 캔맥주 1개(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① 1~2잔 ② 3~4잔
③ 5~6잔 ④ 7~9잔
⑤ 10잔 이상

[과음 횟수]

문9-2) 한 번의 술자리에서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없음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⑤ 거의 매일

[흡연 여부, 하루 흡연량]

문10) 귀하는 평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피운다면 하루에 담배를 몇 개비 정도 피우십니까?

⓪ 피우지 않음 ① 10개비 이하
② 11~20개비 ③ 21~30개비
④ 31개비 이상

다음은 귀하의 자녀(패널아동)를 양육하는 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육 스트레스]

문11)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 행동에 가장 가까운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선생님이 아이를 차별대우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에서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귀지 않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서 나쁜 행동이나 욕을 배울까 우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애정을 갖고 있는지 염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이를 소신껏 교육시키면서도,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될 때는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의 적성을 잘 찾아줄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9) 학부모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 심리가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교 선생님과 나의 교육관이 달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사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답답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소신 있는 교육관을 갖는다지만 흔들릴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부모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분이 들 때가 있다					
15) 학교 행사에 학부모가 동원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6) 아이의 학업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아이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 조사원 방문 시 어머니께서 보호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시면,문12) ~ 문18)은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귀하의 취업상태 및 직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취/학업상태]

문12) 귀하는 현재 취업 또는 학업 중 이십니까?

① 취업 중(휴직 중 포함) → 문13)으로 갈 것
② 학업 중(휴학 중 포함) → 문18)로 갈 것
③ 취업/학업 병행 중 → 문13)으로 갈 것
④ 아니요 → 조사 종료

[재직 상태]

문13) 현재 귀하의 취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취업 중
② 휴직 중

[직장 변동 여부]

문14) 귀하의 현재 직장, 주 업무는 2020년 조사 때와 동일합니까?

① 2020년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 → 문14-1)로 갈 것
② 아니요, 직장 또는 업무내용이 바뀜 → 문14-1)로 갈 것
③ 예, 2020년과 동일함 → 문15)로 갈 것

[(생성변수: 직업군(대중소분류))]

문14-1) 귀하가 현재 일하시는 직장(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지점이나 공장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일반 회사인 경우 회사명과 지점명까지 / 교사인 경우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 / 공무원인 경우 중앙부처·시군구명·읍면 동사무소까지 예: ◎◎전자 ◎◎공장 / ◎◎초등학교 혹은 서울시청 / 프리랜서

직장(사업체) 명: ( )

[(생성변수: 직업군(대중소분류))]

문14-2) 귀하의 직장(사업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직장명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는 중소기업체인 경우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 표기 요망
-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 장소를 기입

직장의 사업 내용(업종): ( )

[(생성변수: 직업군(대중소분류))]

문14-3) 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가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무직인 경우 행정직·전산직·기술직/ 음식점인 경우 한식·양식조리·서빙 등/ 교사인 경우 영어·수학 등 과목명

주로 하는 일: ( )

[(생성변수: 직업군(대중소분류))]

문14-4) 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프리랜서 / 공무원의 경우 급수 / 회사원의 경우 평사원·대리·과장·부장 등의 직위 / 음식점의 경우 사장·매니저·일반직원 등

직장(사업체) 내 직위: ( )

[종사상 지위]

문14-5) 귀하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① 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②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
③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인 경우)
④ 종업원을 둔 고용주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⑥ 무급 가족 종사자(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보수 없이 주당 18시간 이상 근무자)

[근무 일 수, 근무 시간, 왕복 출퇴근 시간]

문15) 귀하의 근무 일수, 근무 시간, 왕복 출퇴근 시간을 응답해주십시오.

- 업무성 회식 및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직장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총 합산 시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일 평균 '9'시간 근무입니다.

구분	주중(월~금)	주말(토, 일)
1) 근무 일수	(　　)일 근무	(　　)일 근무
2) 근무 시간	1일 평균 (　　)시간 근무	1일 평균 (　　)시간 근무
3) 왕복 출퇴근 시간	1일 평균 왕복 (　) 소요	1일 평균 왕복 (　) 소요

a. 주말 근무 일수 : ①주말 근무 안함, ②주말 격주 근무, ③매 주말 1일 근무, ④매 주말 2일 근무
b. 왕복 출퇴근 시간 시간/분 직접 입력, 분은 10분 단위로 입력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문16) 귀하는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취업 모 근로 소득]

문17) 귀하의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실 수령액으로 응답해주십시오.

월 평균 어머니의 실 수령 근로소득 ( )만원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

문18) 귀하가 하고 있는 일과 가정생활에 관하여 각 문장에서 본인과 가깝다고 느끼는 쪽에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더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2)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내 삶을 더 다양하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재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최상의 수준으로 북돋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더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더 유능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내가 맡고 싶었던 업무상 제안이나 활동을 거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1) 일을 할 때, 가족에 관한 일이나 집에서 해야 할 일로 인해 방해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일 때문에 나는 참여하고 싶었던 가족 행사나 활동에 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13) 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일하던 중 차라리 가족과 함께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5) 일과 가정에서의 의무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할 일이 과도하게 많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감사히 여기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9)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좋아지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0)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더 좋은 부모라고 느끼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일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2)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23)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 아이에 대해 신경 쓰느라 직장에서 업무가 방해된다	①	②	③	④	⑤
25) 일을 하면서 부모로서 받는 보상을 일부 놓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26) 일하느라 힘들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부모가 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빠진 문항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한국갤럽
0316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T 02-3702-2100 GALLUP
www.gallup.co.kr F 02-3702-2121 INTERNATIONAL

한국아동패널 2021(14차) 아버지대상 질문지

Gallup 2021-223-027

본 질문지는 2008년 4~7월 사이에 출생하여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이와 가족에 관한 것으로, **아이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질문지**입니다.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식구 중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경우, 어머니를 제외한 주양육자께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상 질문지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단, 주양육자는 아이와 친인척관계인 분만 포함되며, 본 질문지의 응답은 배우자와 서로 상의·공유하지 마시고,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20분가량** 소요됩니다.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1년 6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대표이사 박재형
담당연구원 김종서
전화 02-3702-2612

아동 이름	
질문지 작성일	_____월 _____일
질문지 작성자	① 아버지 ② 기타(적을 것 : _____)
조사방법 (조사원 기입 사항)	⓪ 미참여 ① 유치조사(조사원 수거) ② 우편 조사

다음은 귀하의 평소에 느끼는 심리적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관적 행복감]

문1)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매우 불행한 사람이다 ←			보통이다			→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1) 전반적으로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매우 행복하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행복하다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3)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매우 그렇다 ←			보통 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4)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하다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보인다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삶의 만족도]

문2) 귀하는 현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함
②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③ 보통임
④ 만족하는 편임
⑤ 매우 만족함

[일상적 스트레스]

문3) 귀하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① 전혀 받지 않음
② 별로 받지 않음
③ 약간 받음
④ 많이 받음

[우울]

문4)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다음의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지난 30일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자기조절(정서조절곤란), 행동유형]

문5) 다음은 귀하의 행동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하에게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약속시간에 늦는다든지 또는 일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참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람들은 내가 쉽게 흥분한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무엇이든지 경쟁적으로 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잠시 쉬고 있을 때는 어쩐지 죄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대화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가로채는 면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심한 압력 하에 있을 때에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안에 끝내려고 강박적으로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도 나 자신을 몰아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 부부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결혼 만족도]

문6) 다음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매우 불만족	비교적 불만족	보통	비교적 만족	매우 만족
1)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주관적 건강 및 음주, 흡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관적 건강 상태]

문7)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건강하지 않음 ② 건강하지 않은 편임
③ 보통임 ④ 건강한 편임
⑤ 매우 건강함

[음주 여부/횟수]

문8) 귀하는 평소에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최근 1년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회~4회
③ 주 2회~3회 ④ 주 4회 이상
⑤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음 → 문10)으로 갈 것

[음주 양]

문9-1) 술을 마시면 보통 몇 잔정도 마시는 편입니까?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합니다.

단, 캔맥주 1개(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① 1~2잔 ② 3~4잔
③ 5~6잔 ④ 7~9잔
⑤ 10잔 이상

[과음 횟수]

문9-2)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이상)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없음 ② 한 달에 1번 미만
③ 한 달에 1번 정도 ④ 일주일에 1번 정도
⑤ 거의 매일

[흡연 여부, 하루 흡연량]

문10) 귀하는 평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피운다면 하루에 담배를 몇 개비 정도 피우십니까?

⓪ 피우지 않음 ① 10개비 이하
② 11~20개비 ③ 21~30개비
④ 31개비 이상

다음은 귀하의 자녀(패널아동)를 양육하는 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육 스트레스]

문11)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 행동에 가장 가까운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선생님이 아이를 차별대우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에서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귀지 않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서 나쁜 행동이나 욕을 배울까 우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애정을 갖고 있는지 염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이를 소신껏 교육시키면서도,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될 때는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의 적성을 잘 찾아줄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9) 학부모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 심리가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교 선생님과 나의 교육관이 달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사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답답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소신 있는 교육관을 갖는다지만 흔들릴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부모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학교 행사에 학부모가 동원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아이의 학업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아이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취업상태 및 직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취/학업상태]

문12) 귀하는 현재 취업 또는 학업 중 이십니까?

① 취업 중(휴직 중 포함) → 문13)으로 갈 것
② 학업 중(휴학 중 포함) → 문18)로 갈 것
③ 취업/학업 병행 중 → 문13)으로 갈 것
④ 아니요 → 조사 종료

[재직 상태]

문13) 현재 귀하의 취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취업 중
② 휴직 중

[직장 변동 여부]

문14) 귀하의 현재 직장, 주 업무는 2020년 조사 때와 동일합니까?

① 2020년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음 → 문14-1)로 갈 것
② 아니요, 직장 또는 업무내용이 바뀜 → 문14-1)로 갈 것
③ 예, 2020년과 동일함 → 문15)로 갈 것

[(생성변수: 직업군(대중소분류))]

문14-1) 귀하가 현재 일하시는 직장(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지점이나 공장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일반 회사인 경우 회사명과 지점명까지 / 교사인 경우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 / 공무원인 경우 중앙부처·시군구명·읍면 동사무소까지 예: ◎◎전자 ◎◎공장 / ◎◎초등학교 혹은 서울시청 / 프리랜서

직장(사업체) 명: ( )

[(생성변수: 직업군(대중소분류))]

문14-2) 귀하의 직장(사업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직장명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는 중소기업체인 경우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 표기 요망
-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 장소를 기입

직장의 사업 내용(업종): ( )

[(생성변수: 직업군(대중소분류))]

문14-3) 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가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무직인 경우 행정직·전산직·기술직/ 음식점인 경우 한식·양식조리·서빙 등/ 교사인 경우 영어·수학 등 과목명

주로 하는 일: ( )

[(생성변수: 직업군(대중소분류))]

문14-4) 귀하의 직장(사업체)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프리랜서 / 공무원의 경우 급수 / 회사원의 경우 평사원·대리·과장·부장 등의 직위 / 음식점의 경우 사장·매니저·일반직원 등

직장(사업체) 내 직위: ( )

[종사상 지위]

문14-5) 귀하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① 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②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
③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인 경우)
④ 종업원을 둔 고용주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⑥ 무급 가족 종사자(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보수 없이 주당 18시간 이상 근무자)

[근무 일 수, 근무 시간, 왕복 출퇴근 시간]

문15) 귀하의 근무 일수, 근무 시간, 왕복 출퇴근 시간을 응답해주십시오.

- 업무성 회식 및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직장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총 합산 시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일 평균 '9'시간 근무입니다.

구분	주중(월~금)	주말(토, 일)
1) 근무 일수	(　　)일 근무	(　　)일 근무
2) 근무 시간	1일 평균 (　　)시간 근무	1일 평균 (　　)시간 근무
3) 왕복 출퇴근 시간	1일 평균 왕복 (　) 소요	1일 평균 왕복 (　) 소요

a. 주말 근무 일수 : ①주말 근무 안함, ②주말 격주 근무, ③매 주말 1일 근무, ④매 주말 2일 근무
b. 왕복 출퇴근 시간 시간/분 직접 입력, 분은 10분 단위로 입력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문16) 귀하는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취업 부 근로 소득]

문17) 귀하의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실 수령액으로 응답해주십시오.

월 평균 아버지의 실 수령 근로소득 (　　)만원

[일-가정 양립시 이점과 갈등]

문18) 귀하가 하고 있는 일과 가정생활에 관하여 각 문장에서 본인과 가깝다고 느끼는 쪽에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더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2)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내 삶을 더 다양하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재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최상의 수준으로 북돋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더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더 유능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내가 맡고 싶었던 업무상 제안이나 활동을 거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1) 일을 할 때, 가족에 관한 일이나 집에서 해야 할 일로 인해 방해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일 때문에 나는 참여하고 싶었던 가족 행사나 활동에 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13) 일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덜 즐겁고,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4) 일하던 중 차라리 가족과 함께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5) 일과 가정에서의 의무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할 일이 과도하게 많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감사히 여기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9)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좋아지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0)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더 좋은 부모라고 느끼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일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2)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23)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 아이에 대해 신경 쓰느라 직장에서 업무가 방해된다	①	②	③	④	⑤
25) 일을 하면서 부모로서 받는 보상을 일부 놓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26) 일하느라 힘들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부모가 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빠진 문항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ID

미공개 문항	미공개 확인 문항	미구현 설명

PSKC 2021 학교용 질문지[Web]

※ 본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번호	문항 내용
-	조사참여 설명문
생성 In21int01	[21CAWI(학교)] 참여 여부 및 유형 ⓪ [21CAWI(학교)] 미참여 ① [21CAWI(학교)] 참여 ⑨ 13차 조사 미참여
생성 In21int03	조사 날짜는? **(In21int03b)월 (In21int03c)일**
생성 In21int23	조사일 편차: 학교설문지 vs CAPI[( )일]
삽입 In21int24	학교조사 참여 이메일 주소
삽입 In21int22	학교조사 참여 핸드폰 번호

번호	문항 내용
삽입 In21int25	학교 ID
삽입 In21int26	교사 ID
전환	**다음은 패널아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SQ1	학생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이름 : (　　)
SQ2	학생 생년월일 2008년 (　)월 (　)일
전환	**다음은 학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립 유형_중학] L01-1. In21scm01~02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일반중학교　② 예술중학교　③ 체육중학교　④ 국제중학교　⑤ 대안중학교　⑥ 기타(In21scm02)
[남여공학 여부] L01-2. In21scm06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남여공학　② 여학교　③ 남학교
[시범학교 유형] L01-3. In21scm03~04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연구학교 ⇨ GO L01-3-1.　② 시범학교 ⇨ GO L01-3-1.　③ 혁신학교 ⇨ GO L01-3-1. ④ 기타(L21scm04) ⇨ GO L01-4.　⑤ 해당 없음 ⇨ GO L01-4.

번호	문항 내용
L01-3-1. In21scm05	(L01-3의 ①,②,③ 해당되는 경우) 현재 근무하고 계신 연구학교의 추진(연구)과제명은 무엇입니까? 예) 서울형 작은학교 모델학교
[학급 수, 학급 학생 수] L01-4. In21iev01 In21iev07~08 In21iev_c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의 규모는 어떠합니까? 1) 학급 수: 담당 학년 총 (In21iev01)학급 2) 담당 학급 학생 수: 남학생 (In21iev07)명, 여학생 (In21iev08)명 총 (In21iev_c)명
[학교 환경] L01-5. In21iev49~52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의 환경에 대해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1) (학교) 전반적인 건물상태	①	②	③	④	⑤
2) 기자재 및 시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주변환경	①	②	③	④	⑤
4) 학생들의 통학 조건(교통 편의성)	①	②	③	④	⑤

전환	다음은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사 성별] L02-1. In21dmg0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 ② 남

번호	문항 내용
[교사 연령] L02-2 In21dmg06	선생님의 연령은 몇 세인가요? **만 나이**로 응답해 주세요. 만 (　　)세
[교사 최종학력] L02-3. In21dmg14	선생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대졸(2, 3년제졸)　② 대졸(4년제 이상)　③ 석사과정　④ 석사　⑤ 박사과정　⑥ 박사
[교사 경력] L02-4. In21dmg04	선생님은 올해 육아휴직, 군경력을 제외한 교사경력 몇년 차이십니까? 총 (　　)년차 / 육아휴직, 군경력 제외, 교육경력만
[교사 근무 시간/근무 일] L02-5. In21jce25aa In21jce25ab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응답해주세요. 주중 1일 평균 (In21jce25aa)시간 (In21jce25ab)분 근무
생성 In21jce25	"교사" 월 평균 근무 시간[총 (　　)시간]
[교사 담당과목] L02-6. In21jce39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과목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국어　② 영어　③ 수학　④ 사회(역사 포함)　⑤ 과학　⑥ 도덕 ⑦ 기술,가정　⑧ 음악　⑨ 미술　⑩ 체육　⑪ 정보　⑫ 진로　⑬ 기타
[업무 스트레스] L02-7. In21prs16~19	선생님께서는 아래의 각 영역(업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십니까?

문 항 내 용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1) 학부모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내용

2) 생활지도	①	②	③	④	⑤
3) 수업지도	①	②	③	④	⑤
4) 행정업무	①	②	③	④	⑤

생성 In21prs: 업무 스트레스

전환: **다음은 선생님과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사-아동 관계] L03-1.

선생님과 ○○(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와의 관계를** 가장 잘 기술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세요.

Ch21tcn11~13
Ch21tcn15~25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와 다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이)와 나는 항상 의견이 부딪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이)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나에게 위안을 받으려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이)는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칭찬을 하면, ○○(이)는 뿌듯해한다.	①	②	③	④	
6) ○○(이)는 자발적으로 나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이)는 나에게 쉽게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이)가 느끼는 감정에 쉽게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내용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이)는 훈육을 받으면 계속 화를 내거나 반항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이)를 상대하면 나는 진이 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이)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는 고단한 하루를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에 대한 ○○(이)의 감정은 예측할 수 없거나 한순간에 변할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이)는 나를 영악하게 조종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이)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나와 솔직하게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생성 Ch21tcn_cl	교사-아동 관계: 친밀
생성 Ch21tcn_co	교사-아동 관계: 갈등
전환	**다음은 ○○(이) 부모님의 학교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 행사 참여 여부] L04-1. In21ppe34	○○(이)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또는 주양육자)는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입니까? ①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②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참여한다 ⑤ 항상 참여한다

번호	문항 내용
[학교생활 연락 정도] L04-2.	○○(이)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또는 주양육자)는 ○○(이)의 학업, 생활태도, 교우관계 등을 알기 위하여 학교로 연락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In21ppe35~39	

문 항 내 용	학기에 1~2회	한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1주일에 3~4회	거의 매일	전혀 없음
1) 학교교사의 전화, 톡/문자, 이메일	①	②	③	④	⑤	⑥
2) 학교교사와의 상담	①	②	③	④	⑤	⑥
3)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의견이나 질문 올림	①	②	③	④	⑤	⑥
4) 자녀의 온라인 학급 게시판 확인, 방문	①	②	③	④	⑤	⑥
5) 생활기록부 열람 서비스 이용	①	②	③	④	⑤	⑥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 L04-3.	○○(이)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또는 주양육자)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에 관심을 보입니까? ①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② 관심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관심을 보인다 ⑤ 매우 관심이 많다
In21ppe32	
전환	다음은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아동 및 청소년들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행동 항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현재나 지난 2개월 내에 해당 학생이 그 항목에 꼭 들어맞거나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면 "2"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가끔 그런 일이 있었거나 그런 경향이 좀 있는

번호	문항 내용
	편이면 “1”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면 “0”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제행동[TRF]] Ch21trf001~113f Ch21trf121~124	“아동” 문제행동 문항 추가(TRF) “아동” 〈같은 나이 또래의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문항 추가(TRF)
학생체력	다음은 ○○(이)에 체력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체력검사 결과(PAPS)] L05-0.	지금부터 나이스(NEIS)의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에 입력된 ○○(이)의 건강체력평가 결과를 응답받고자 합니다. 현재 나이스(NEIS)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의 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 ○○(이)의 PAPS 기록 없음 ② ○○(이)의 PAPS 점수 및 등급을 모두 볼 수 있음 ③ ○○(이)의 PAPS 점수만 볼 수 있음 ④ ○○(이)의 PAPS 등급만 볼 수 있음
[체력검사 결과(PAPS)] L05-1. Ch21hlt51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에 입력된 ○○(이)의 건강체력평가 결과를 입력해 주십시오. [해당 문항은 나이스(NEIS) 기록 확인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력평가 전체점수 ( )점
[체력검사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에 입력된 ○○(이)의 건강체력평가 결과를 입력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내용
결과(PAPS)] L05-2. Ch21hlt52	[해당 문항은 나이스(NEIS) 기록 확인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력평가 전체등급 ①1등급 ②2등급 ③3등급 ④4등급 ⑤5등급
[학업 수행 능력(중학)] L06-1. Ch21acs_l Ch21acs_e Ch21acs_m Ch21acs_c Ch21acs_s	선생님께서 ○○(이)의 아래 과목의 수행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또래학생 대비 상대적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문항은 담당교과 선생님에게 문의 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부진 (하위 20% 이하)	보통 이하 (하위 20-40%)	보통 (40-60%)	보통 이상 (상위 60-80%)	매우 잘함 (상위 80-100%)
국어	①	②	③	④	⑤
영어	①	②	③	④	⑤
수학	①	②	③	④	⑤
사회	①	②	③	④	⑤
과학	①	②	③	④	⑤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2
(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3330
9 791168 650442
ISBN 979-11-6865-044-2